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공 백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소외청소년 중 저소득층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저소득층청소년은 저소득층 가정에 속해 있거나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인 청소년을 지칭한다. 저소득층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연령에서 오는 불평등과 빈곤 또는 빈곤가정에서 비롯되는 생활의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열악함에서 오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다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즉 빈곤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즐길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삶의 질을 향유하기가 어렵고 빈곤으로 인한 일탈문화로 인해 유익한 사회문화 접촉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과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또한 빈곤환경으로 인해 다른 계층의 청소년에 비해 비행과 범죄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으며 또래집단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에 대한 복지대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IMF사태로 인한 실업의 증가와 소득의 감소로 저소득층 가정이 늘어나면서[1] 저소득층청소년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1) 1999년 3/4분기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 가구, 85만9천원)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절대빈곤 인구는 전체인구의 9.9%인 464만명이며, 상대빈곤선(중위근로자 소득의 50% : 중소도시 4인 가구, 104만5천원)에 의한 저소득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인 619만명으로 추정된다(박순일·박능후·강성호, 1999). 이들 가운데 118만명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며 57만명이 한시적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인구 289만명과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나 상대빈곤선 이하인 저소득층 인구) 155만명을 합산한 444만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에 대한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만이 다루어지고, 저소득층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가정과 관련된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행해졌을 뿐 저소득층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욕구 조사는 미진한 상태였다. 복지의 기본전제가 복지대상자의 욕구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욕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복지적 관점과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새로운 자원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분하는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과 다르게 갖고 있는 복지욕구를 조사 분석하여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입안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다음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고자 한다.

1) 관련이론 고찰

소외청소년과 저소득층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의 발달과업, 저소득층청소년의 특성, 청소년의 복지욕구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

명(전체 인구의 9.5%)은 피부양자의 존재, 주택소유 등의 이유로 사각지대에서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피부양자의 40.9%가 실업상태이며, 22.8%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2000).

이론을 고찰한 후 연구에 반영한다.

2)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 현황파악

(1) 공공부조상의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지원, 소년소녀가장제도상의 지원 등 정부에서 저소득층청소년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급여 및 자립자활 시책에 대해 알아본다.

(2) 사회복지서비스상의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및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지원하고 있는 기타 서비스들에 대해 알아본다.

(3) 민간지원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민간청소년공부방과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자조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3)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지침서를 개발하여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관련 기관의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참여관찰을 통한 실태파악을 의뢰한다.

4) 저소득층청소년들의 복지욕구 조사실시

(1) 규범적 복지욕구 조사

청소년복지관련 기관의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자들이 저소득층청소년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욕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2) 체감적 복지욕구 조사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공부방 등의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 자신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또한 저소득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닐 수밖에 없는 복지욕구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다.

5)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문헌연구와 조사결과를 근거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언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 복지지원 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전문가와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 문헌연구와 전문가자문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1) 문헌연구

(1) 관련이론 고찰

일반청소년 및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관련 기존 논문, 조사연구, 관련 언론기사 등을 수집, 분석하여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설문지 개발에 반영한다.

(2) 관련 복지정책 및 서비스 프로그램 현황 파악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복지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하여 설문지 개발 시 반영한다.

2) 조사연구

(1) 현장전문가를 통한 참여관찰 및 설문조사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와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 및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저소득층청소년을 직접 지원하거나 지도하는 관련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생활실태와 관련하여 참여관찰을 통한 조사를 위탁한다. 또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현행 복지지원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점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2) 저소득층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문헌연구와 참여관찰을 통해 개발한 질문지를 통해 전국의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한다.

3) 전문가 자문

연구의 방향과 설문내용,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학계 및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Ⅱ. 이론적 고찰

1. 소외청소년과 저소득층청소년의 개념정의
2. 청소년의 발달과업과 복지욕구
3. 저소득층청소년의 특성
4.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지원 실태
5.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공 백

II. 이론적 고찰

1. 소외청소년과 저소득층청소년의 개념정의

1) 소외청소년

인간소외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때, 소외는 인간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현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소외에 대한 논의도 인간소외에 대한 부분적인 논의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소외청소년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보는 시각과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주관적 현상인가 객관적 현상인가에 대한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Seeman이 정의하는 소외의 개념 중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그룹으로, 그들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혼란과 갈등으로 인하여 소외를 인식하는 집단이다. 이처럼 주관적인 현상으로 나타내는 청소년 소외와는 달리,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어지는 소외 청소년은 주관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객관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외청소년이란 개인이 처한 정신적·육체적 결함 혹은 주변 환경적·경제적 여건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약자 혹은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집단으로 저소득층청소년, 비행청소년, 장애청소년, 농어촌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주관적 현상과 객관적 현상에 대한 충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사회가 복지수혜의 대상자로 지정하여 소외계층으로 일반화하였을 뿐이지, 정작 본인 스스로는 인간소외 현상에서 나타나는 무력감이나 상실감 혹은 자기소외 문제를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불

합리한 객관화로 소외집단으로 취급될 뿐이지 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한 소외계층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서는 인간소외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요인들을 갖추고 있어 소외집단이란 인식이 강하지만, 외부로부터는 전혀 소외계층으로 취급되지 않는 부류로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외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정의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복지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집단, 예를 들어 복지대상·문제별로 나누어 저소득층청소년, 비행청소년, 장애청소년, 농어촌청소년, 근로청소년을 소외청소년 집단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로 하고 이중 저소득층청소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저소득층청소년

저소득층청소년은 저소득층이라는 개념과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결합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식별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에서 이용되는 것은 빈곤선인데, 이를 결정하는 데에는 절대적, 상대적 그리고 법적·행적적 기준 등이 사용될 수 있다.[2] 이중 일반적으로 가장 명확한 빈곤선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법적 기준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시설보호자와 거택보호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권자로만 저소득층을 한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의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범주가 실제적인 빈곤층(deserving poor)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볼 수 없다.

2) 권순원 외(1993).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대책 p16.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이 법이 종래의 생활보호법에 비하여 개선된 면이 없지 않지만,[3] 여전히 수급권자의 규정에 있어 부양의무자와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빈곤자를 배제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규정하는 빈곤선은 넘었다고 하더라도 빈곤층으로의 전락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있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안정된 가계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 셋째, 절대적인 빈곤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빈곤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생활비의 액수로 인해 빈곤을 경험하기 보다는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으로 인해 빈곤을 체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법적인 수급권자로만 한정하여 저소득층청소년이라고 선을 긋는 것은 저소득층이 갖는 상대적 빈곤을 무시한 채 절대적인 빈곤만을 고려하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중 특히 상대적 박탈개념은 저소득층청소년과 관련하여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저소득층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가 아니라 빈곤의 피해자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고 저소득층청소년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평등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써 이들의 빈곤문제를 너무 단일한 시각에서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소득보장과 최소한의 생활수준으로의 보조와 같은 절대적인 빈곤 또는 소득 수준만을 고려한 정책지원은 저소득층청소년에게 삶의 의욕과 동기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서는 단순히 소득 부족에서 오는 물질적 측면의 곤란과 정상적인 청소년으로서의 발달에 장애가 되는 빈곤적 환경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사회적 권리를 부여할 수

3)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8호.

있어야 하고 복지욕구 조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두 번째 개념인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연령으로 구분하는 개념이다. 청소년을 연령만을 기준으로 구분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성인과 청소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현실적인 기준이 연령이기 때문에 연령을 기준으로 논하고자 한다.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연령의 범주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상이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소년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은 1990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에서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은 1992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범위를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에 있어 9세에서 18세까지는 아동인 동시에 청소년으로서 중첩되어 있다. 또한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는 청소년기본법상의 연령개념은 사회통념상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을 중고등학생 연령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중·고등학생이라고 보는 사회통념과 가까운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십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정하고 저소득층을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연구의 조사대상 청소년을 생활보호대상청소년과 복지관이나 청소년공부방 등에서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중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으로 한정한다.

2. 청소년의 발달과업과 복지욕구

1) 청소년의 발달과업

발달과업이란 인간의 전 생애의 각 발달단계에 있어서 완수하고 넘어

가야 할 것들로 다음 단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발달과업이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으로써 만약 한 단계에서 발달과업의 성취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은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각기 다른 과업들을 제시하고 있는 데 여기서는 Havighurst, Cole, 등 몇몇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론을 비교분석하고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발달과업을 추출하여 청소년기에 달성하여야 할 발달과업으로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자료로 삼고자 한다.

(1) Havighurst의 발달과업

Havighurst는 생물적, 심리적, 문화적 기반에 근거하여 발달과업을 설명하면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한다.

① 자기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역할을 수용한다.
② 동성이나 이성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③ 부모나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한다.
④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⑤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를 한다.
⑥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적 기능과 개념을 획득한다.
⑦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한다.
⑧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한다.
⑨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2) Cole의 발달과업

① 이성에 대한 흥미의 확립

ㅇ 이성에 대한 흥미의 발달

ㅇ 연장자에서부터 동년배의 이성에 대한 깊은 애정의 전이

- ㅇ 교우관계의 확대
- ㅇ 가정으로부터의 해방

② 부모의 감독으로부터의 이탈

- ㅇ 안전감을 부모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서 구함
- ㅇ 부모에 대한 태도 변화
- ㅇ 부모의 지시보다도 자기가 자신의 생활시간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결정함

③ 정서적 성숙

- ㅇ 정서적 표현이 파괴적 형식으로부터 무해한 형식으로 변화함
- ㅇ 정서적 장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함
- ㅇ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이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음
- ㅇ 불유쾌한 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할 수 있음
- ㅇ 어린 시절에 가질 수 있는 공포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음

④ 사회적 성숙

- ㅇ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안전감의 발달
- ㅇ 통상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과 협의할 수 있음
- ㅇ 집단의 활동에 지배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음
- ㅇ 특정한 사회집단 속에서 그 집단으로부터의 의존에서 탈피함
- ㅇ 국적·종족·사회계층에 대해서 관대함

⑤ 직업의 선택

- ㅇ 자기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음
- ㅇ 성공가능한 직업영역을 선택할 수 있음
- ㅇ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음
- ㅇ 과제해결에 불가결한 조건을 이해함

⑥ 지적 성숙

- ㅇ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그 근거를 구함

○ 인식에 대한 욕구와 사실의 설명을 중시

○ 많은 즉흥적인 흥미가 소수의 안정되고 영속적인 흥미로 변함

⑦ 여가의 이용

○ 흥미도 있고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놀이의 발달

○ 특별히 준비를 요하지 않는 통속적인 게임을 잘 할 수 있음

○ 쉽게 잘 읽을 수 있는 독서를 즐김

○ 다수의 클럽 조직의 회원에서 소수의 클럽 조직의 회원이 됨

⑧ 인생관

○ 인생의 의의를 찾아내려고 하는 부단한 태도가 발달함

○ 이상과 행동의 도덕적 원리를 터득

○ 양심과 의무에 충실한 행동을 함

⑨ 자기에 대한 동일화

○ 자기에 대한 정체 지각이 정확함

○ 자기에 대한 타인의 높은 지각을 깨달음

○ 가능성이 있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정체를 확립함

(3) 정옥분[4)]

청년발달은 생물학적 과정, 인지적 과정, 사회정서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생물학적 과정은 신체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 뇌의 발달, 신장과 체중의 증가, 운동기능, 사춘기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 등은 모두 청년발달에 있어서 생물학적 과정의 역할을 반영한 것이다.

인지적 과정은 개인의 사고, 지능, 언어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 시를 암송하고, 수학문제를 풀고, 영화배우나 가수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 등은 청년발달에 있어서 인지적 과정의 역할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정서적 과정은 대인관계, 정서, 성격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

4)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p95. 서울:학지사.

를 포함한다. 부모에게 말대꾸하기, 또래에 대한 공격적 행동, 성역할 지향 등은 청년발달에 있어서 사회정서적 과정의 역할을 반영한 것이다.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과정은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다. 사회정서적 과정이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과정은 사회정서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생물학적 과정은 또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청년기에는 급격한 신체변화, 성적 성숙과 더불어 인지적, 정서적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청년기는 자아정체감의 확립, 자기 성에 적합한 성역할의 습득, 직업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등의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시기이다.

(4) Downing

Downing은 부적응 행동은 적절한 발달과업의 수행에 실패했을 때 발생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발달과업은 유능감, 성역할 정체감, 의미 있는 관계 형성, 독립, 개인적 목표설정, 통합성, 세상에 대한 수용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장영진, 2000 : 5-8),

① 유능감(competence)

각 개인이 나름대로 유능감을 느끼고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각 하위영역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 발달시켜야 하지만 특정영역에서 기술이 부적절할 때에는 부족한 영역으로 인한 한계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각 개인이 가지도록 해야 하는 유능감의 영역에는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 신체적 유능감(Physical competence), 학업에서의 유능감(Academic competence), 진로 및 일과 관련된 유능감(Career or work-related competence) 등이 있다.

② 성역할 정체감(sexual role identity)

자신이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자각하고 자신에 대해 안정되게 규정을 내리는 태도를 의미한다. 성역할 정체감의 하위영역으로는 우선 자신의 신체구조, 외모, 성격 등을 토대로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자

신의 성정체감을 결정하고,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수행하는 행동 및 역할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간에 적절성과 조화를 유지하여 수용된 성역할에 적절한 행동들을 습득하고 끝으로 나이의 변화에 따른 성역할의 변화에도 적응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③ 의미있는 관계의 형성(capacity for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other persons)

타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는 부모나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또래관계가 중요한데, 이와 같이 관계를 맺는 능력은 한 개인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 건전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발달과제이다.

④ 독립(independence)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초기에 타인에게 의존하고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에서 시작하지만, 그가 성인으로서 발달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유아에서 벗어나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그 나이에 맞지 않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 그는 독립이라는 과제를 성취하지 못하며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적절한 정도로 친구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가족을 떠나 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된다.

⑤ 개인적 목표설정(personal purpose)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정진한다는 것 뿐 아니라 하루하루 또는 인생에서의 과제 하나 하나에 단기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⑥ 통합성(integrity)

자신의 행동과 가치체계들 간에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가치체계

역시 서로 일관성과 통합성이 있도록 조직되는 것을 의미한다.

⑦ 세상에 대한 수용(acceptance of the world)

한 개인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성취해야 하는 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세상에 현실이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고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나 자신의 욕구, 목표, 자신의 능력, 인간관계,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표 II-1> 청소년의 발달과업

Havighurst	Cole	정옥분	Chickering과 Reisser	Downing
신체적발달		신체발달		신체적 유능감
유능한시민 (지적기능·태도획득)	지적성숙	인지발달	유능감의 발달	학업적 유능감
가치와 윤리체계 형성	인생관	학교생활과성취 행위/도덕성	생애목표의 발달	개인적 목표설정
직업선택 준비	직업선택	직업선택		진로·직업적 유능감
남녀친구와 성숙되고 새로운 인간관계형성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성숙 정서적 성숙	사회적관계	대인관계의 발달	사회적 유능감
성역할학습/결혼가정 생활의 준비	이성에 대한 흥미확립, 자기에 대한 동일화	자아개념/정체감 발달, 성역할	정체감의 확립	성역할 정체감
부모·성인으로부터독립	부모로부터 독립		자율성의 발달	독립
경제적 특성	여가의 이용		통합성의 발달	통합성/세상에 대한 수용

이상의 학자들이 제시한 청소년 발달과업에 관한 각각의 이론들을 비슷한 유형의 과업별로 묶어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청소년 발달과업 <표 II-1>을 비교분석 한

결과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할 과업으로 다음과 같은 발달과업을 추출할 수 있었다. ① 신체적발달 ② 인지적발달/지적기능/지적성숙 ③ 인생관/가치관/윤리체계/인생목표/도덕성 ④ 직업준비 및 선택 ⑤ 대인관계발달/사회적성숙/정서적성숙 ⑥ 성역할 ⑦ 독립 ⑧ 정체감/통합성 등

청소년의 복지욕구는 이러한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들을 두루 준비하고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욕구들을 갖고 있는지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모색되어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소년의 복지욕구

Kahn(Kahn, 1969 : 63)은 "욕구란 주어진 한 시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며, 사회의 전반적 진행과정에 적절히 참여하고, 적절한 수준의 활동력 및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욕구란 한 시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필요에 의해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의 생존과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하여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영양, 보건, 직업, 소득, 지식, 사회참여, 정치활동, 개인의 자유 등이 욕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그 자체는 욕구가 아니며 개인이나 집단이 그것들을 필요로 하여 구할 때 이를 욕구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복지욕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김성이 · 채구묵, 1997 : 16 재인용).

송정부(1992 : 231-245)는 청소년복지를 사회복지의 하위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청소년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사회적으로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이다. 즉, 청소년이 사회생활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작용하는 제도·정책·행위의 체계가 청소년복지라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사회인으로서 생활해 갈 경우 피할 수 없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요구'인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적 안정, 보건·의료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참가 내지 사회적 협동의 기회, 문화오락의 기회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라 정의한다.

우리가 욕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특정집단이나 지역주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청소년 복지욕구 조사 역시 청소년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주장하는 이론과 내용이 각기 다르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몇 학자들의 욕구관련 이론들을 비교하면서 청소년의 발달과업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복지욕구의 영역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복지욕구의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H. A. Maslow의 욕구위계론

Maslow는 인간이란 누구나 내면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욕구는 인간을 성장하게 하고 발달하게 하며 인간 자신을 실현시키고 인간 모두를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면서 심리적인 건강과 성숙을 향한 잠재능력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Maslow는 인간의 욕구와 그것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간동기화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욕구를 갖는 존재로서 항상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둘째, 만족의 욕구는 더 이상 행위의 동기 요인이 되지 못한다.

셋째, 인간의 욕구는 일련의 욕구체계를 이룬다.

즉 인간은 여러 가지 선천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 욕구들은 위계가 있어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단계의 욕구가 나타나고, 더 높은 단계로 갈수록 보다 바람직하다는 욕구의 위계를 주장하였다. 그 욕구를 낮은 단계로부터 열거하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5단계로 나누어진다.

①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생리적 욕구는 계층의 가장 낮은데 놓여져 있다. 이 욕구는 의·식·주 등을 포함한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기본적 욕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단계의 욕구나 동기의 충족만을 추구하게 되어 보다 상위의 욕구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②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안전의 욕구는 확실성, 예측성, 질서,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인간은 일단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면 안전의 욕구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난다. 어린이가 낯선 사람을 피하려는 경향이나 성인이 저축이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에서 잘 나타난다.

③ 소속·사랑의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욕구로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여러 집단에 소속하고 싶어하고, 수용되고 싶어하며, 우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게된다는 것이다. 이 욕구가 강하면 다른 사람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려는 행동이 높아지지만, 이 욕구가 결여되면 조직목표 달성은 외면당하게 된다.

④ 존경의 욕구(esteem needs)

존경의 욕구는 자기존중과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전자는 자신의 능력, 적합성 등이 포함되며 후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식, 수용, 주목, 명성 등이 포함된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좌절감, 열등감, 무력감 등을 초래한다.

⑤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아발전을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음악가는 음악을 연주하는데 있어, 시인은 시를 쓰는데 있어, 교수는 교육하는데 있어 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욕구이다. 이 욕구는 전제한 모든 욕구들이 충족되어야만 나타나게 된다.

이들 이론의 특징은 각 욕구가 위계적 질서를 이루고 있어서 하위욕구가 충족되기 전에는 상위욕구가 나타나지 않으며 동기부여도 상위욕구가 충족되기 전의 하위수준의 욕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Maslow의 이러한 주장은 많은 지지를 받은 한편 비판도 받았지만 대체로 인간 욕구를 체계화하고 수준을 구별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사회계획과 관련해 그의 주장은 계획가가 대상집단의 어떤 욕구를 먼저 다루어야 할 지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기초적인 물질적 또는 안전적 욕구가 해결되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자기실현 등 정신적 서비스 대신 그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적 욕구이론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문화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된 것은 아니며 그 질서순위가 반드시 하위에서 상위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Maslow가 제시한 인간의 5가지 기본적 욕구는 인간행동의 유인과의 관계연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기숙미, 1995 : 8-10 재인용 ; 최일섭 · 이창호, 1993 : 166).

(2) C. Alderfer의 욕구이론

C. Alderfer는 Maslow의 5단계 욕구수준을 3단계로 수정한 욕구위계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3단계 욕구란 생존 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를 말

하는데 이의 첫글자들을 따서 Alderfer의 이론을 E.R.G이론이라고 한다.

① 생존욕구(existence needs)

생존욕구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므로 이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며, 이 욕구들은 주로 한정된 물질에 대한 갈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Maslow 욕구이론과 비교하면 그의 생리적 욕구와 물리적 안전의 욕구가 이 생존 욕구에 포함된다.

②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서로 교환하려고 한다. 즉 관계욕구는 사회관계 및 대인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타인과의 관계가 중심을 이룬다. Maslow 이론과 비교하며 안전의 욕구 중 대인관계에서의 안전, 사회적 욕구 중 애정 및 소속감, 그리고 존경의 욕구 중 대인관계에서의 자존심 등이 포함된다.

③ 성장욕구(growth needs)

이 욕구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적 능력이나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욕구를 말한다. Maslow 이론과 비교하면 능동적인 자신감의 획득 과정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욕구 뿐 만 아니라 존경의 욕구도 일부 포함되고 있다.

Alderfer의 이론은 Maslow이론과 비교할 때 욕구위계의 구분에서도 다르지만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Maslow의 욕구위계는 한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인 낮은 수준의 욕구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Alderfer의 욕구위계에서는 하위의 욕구에서 상위의 욕구로 진전될 뿐 아니라 상위의 욕구에서 하위의 욕구로 퇴행되기도 한다고 본다.

둘째, Maslow의 이론에서는 다섯 가지 욕구 중에서 우세한 욕구가 지배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주장하였으나 Alderfer의 이론은 일정한 시점에

서 세가지 욕구의 강도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을 하거나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무의식수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Alderfer는 우세한 욕구는 자신에 의해서 잘 인식되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인간의 욕구를 의식수준에서 다루었다.

이와 같이 Alderfer는 인간이 조직생활을 통해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욕구와 만족을 중심으로 동기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의 욕구위계론은 Maslow의 이론을 보다 전개, 발전시킨 것으로 조직산업사회에서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기숙미, 1995 : 11-13 재인용).

(3) 성규탁의 복지욕구

성규탁[5]은 인간의 욕구를 다음과 같이 6개의 범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① 적절한 소득과 경제적 기회

고용, 소득, 자본

②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조건

음식, 의복, 주택, 교통, 안전

③ 적절한 보건

공중보건, 의료, 정신적 건강, 재활

④ 적절한 지식과 기능

교육, 특수교육, 도서관

⑤ 적절한 개인적, 사회적 적응과 개발

가족상담, 아동보호, 위기개입, 휴양, 집단의 복지활동, 문화 및 종교활동

⑥ 적절한 사회 조직체를 통한 활동

5) 성규탁(1985).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욕구측정. 「아산」 (아산사회복지재단). 제28호. 여름, pp. 26-40.

지역사회 및 정치적 조직, 커뮤니케이션, 조사연구

(4) Gil의 복지욕구

Gil은 "사람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생리적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삶을 유지하는 욕구의 충족을 원하며, 인간으로서의 자기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삶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욕구에 대한 하나의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다음과 같은 욕구가 있다.

첫째, 보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안정감을 위한 충동이 있다.

둘째, 상호적이고 보호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러한 욕구는 소외되지 않으려 하고 총체적 인간으로서 참여하려는 것이며, 지역사회에 소속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욕구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며,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받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의미 있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실현하려는 욕구가 있다.

욕구충족의 결핍은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 문제'로 전개될 수 있으며, 만약 여러 사람들의 집단에서 욕구충족의 결핍이 존재한다면 사회에 대한 '사회 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

욕구들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필수 요소"라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다음의 11가지 욕구영역들은 Gil의 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유래되는 포괄적인 항목들을 나타내는 것이다(김만두, 1999 : 80-96).

① 소득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을 얻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은 노동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경우에 따라서 돈은 공적부조, 사회보장,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복지장치를 통해 얻어지기도 한다. 또한 소득은 가족이나 친족 등의 일차적 관계에 속하는 개인의 망을 통해 얻어지기도 한다.

소득의 욕구를 알아보고자 할 때 사례 관리자에게 주요한 사정질문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소득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회적 급부의 적용원칙, 사회적 망의 지원들을 통해 이전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때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소득이 그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 필수품을 포괄하기에 적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심을 두어야만 한다.

② 주택 · 보호처

주택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는 가족, 노인, 장애인, 소득문제와 관련된 빈민층이나 중류층을 포괄하는 다양한 인구층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례관리자는 주택에 관한 욕구를 알아볼 때 다음과 같은 것을 포괄하면서 주택욕구의 복합적인 여러 가지 차원을 숙고해야만 한다. 소득과 주택의 상호관계성, 독립적 주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주택의 물리적 접근성, 안전한 근린지역 안에서 주택의 위치, 주거상태의 영구성, 개인에게 있어서 주택이 주는 심리적 의미와 수용성이다.

③ 고용 · 직업

고용과 직업의 욕구는 중요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생산활동에 개인이 소속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우리들 중 여러 사람은 소득이 생기는 활동과 고용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다른 것이다. 고용과 직업적 활동은 소득이 채워줄 수 없는 욕구를 지니는데, 그것은 인간이 고용과 직업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아개념의 성장과 사회적 참여라는 또 다른 차원의 욕망과 바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④ 건강보호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예방적 건강보호와 적정시기의 건강보호를 포괄하기도 하고, 적정한 영양·운동·신체적 기동력 역시 이러한 욕구영역의 또 다른 차원이다.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유형과 건강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문화적 소산과 개인의 건강역사에 관해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정신건강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난 상태, 그리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의 본질적인 측면이다. 긍정적 정신건강은 인지능력·자아존중·자아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을 통하여 독특하고도 뚜렷한 개인의 인성을 형성하게 된다.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주관적이고 행동적인 표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⑥ 사회적·인간상호적 관계

인간의 정신건강 욕구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함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욕구들이다. 사회적이고 인간 상호적인 관계는 친밀감, 사회적 통합, 양육에 대한 기회, 가치에 대한 확신, 급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5가지의 기능을 행할 수 있다.

⑦ 여가선용과 휴양

여가선용과 휴양은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욕구와 사회적·인간상호적 관계 욕구의 충족과 서로 상호영향을 미친다. 휴양과 여가선용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동료애, 고독, 자기표현, 인지적 자극과 관련된 기회들을 얻게 된다.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주변환경이 어떻게 이러한 관심의 표현과 여가선용 및 휴양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여가선용과 휴양에 관한 사정활동은 여가선용 기회에 대한 이용성, 적절성, 접근성,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러한

활동들의 수용성에 초점을 둔다.

⑧ 일상생활의 활동들

이러한 영역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 생활의 관리에 관한 본질적 활동을 포괄하는 것이다. 즉 가정을 유지하고,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목욕을 하고, 영양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등은 독립적인 삶의 유형을 유지하려는 인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활동들이다.

⑨ 이동수단

지역사회에 있어서 기동성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욕구이다.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이동욕구와 자원에 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갖추고 있는 버스시간표에 대한 지식과 버스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사정부터 클라이언트의 이동계획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망의 구성원들이 참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정까지 그 사정범주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통해 비공식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자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례관리자가 이러한 프로그램의 적용대상기준과 특정화된 이동 프로그램의 이용성을 사정해야 한다.

⑩ 법적 욕구

사례관리자가 대하는 여러 클라이언트 중에는 변호사와의 연결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법적 차원의 욕구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형벌, 권한에 속하는 이슈, 인간의 법적 권리에 대한 보호, 아동의 학대와 방임과 관련된 이슈들은 법적 체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욕구이다. 따라서 사례관리자가 그들의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법적 욕구의 본질에 대한 사정을 행하는 것을 중요한 일이다.

⑪ 교육

읽고 쓰는 능력과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과 같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기초적이고 중요한 교육적 능력이다.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최저한의 교육적 능력을 사정하고, 개인의 학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본적 교육의 능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명백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교육적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물론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기본적 교육의 기술획득 외에는 심한 무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클라이언트도 직업적 욕구, 의사소통의 욕구, 사회적 욕구, 여타의 기본적 성장기술을 얻도록 하는 특별한 교육기회를 통해 지원될 수 있다.

(5) Schilling의 청소년욕구

Schilling은 인류학적 모델의 이론적 해석모형을 가지고 청소년의 욕구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인간은 여섯 영역의 욕구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간은 사회화, 연령, 시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 차원의 내에서 각기 다른 욕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 역시 그들의 시기적 특성과 사회화 과정, 사회적 주변상황에 따라 아동이나 노인과는 다른 욕구를 느낀다는 것이다. Schilling은 청소년의 특징적인 욕구를 다음과 같이 여섯 부류로 나누고 있다(김문섭, 2000 : 13-15).

① 육체

휴식, 운동, 건강, 평형, 긴장완화, 수면, 섭식, 갈증해소 등. 청소년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부족함을 느낄 때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신의 성격의 한계를 벗어나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② 느낌과 의지

인정, 사랑받고 싶음, 받아들여짐, 칭찬, 친구관계 맺기 등.

③ 사고와 이해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 학습, 비판능력함양, 토론능력, 논리적 사고, 결정력, 선택력 등.

④ 행동·활동력

활동에 참여,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조직하고 싶은 마음, 책임감 갖기

등. 인간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행위이다.

⑤ 공동 · 또래집단

집단 속에 존재, 인정, 같이 행함, 역할담당, 고려됨 등 한 집단이나 또래집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래집단은 개인들에게는 심리적 안녕과 그들의 발전심리학적인 문제해결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된다.

⑥ 판단 · 평가

평가기준 갖추기,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 표현하기, 관용 행하기, 선입관 제거하기 등.

청소년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가는 그의 사회적 환경과 그가 경험한 사회화에 의해 형성된 성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의 다섯 학자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관련 이론들을 검토한 후, 앞서 살펴 본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할 때 C. Alderfer의 욕구이론이 청소년의 욕구조사를 위한 욕구영역 기본적인 분류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즉 Alderfer가 주장한 세 단계의 욕구인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를 본 연구의 청소년 복지욕구의 세 가지의 욕구영역으로 잡고, 다른 학자들이 규정한 욕구들을 세 개의 욕구영역에 속한 욕구내용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 복지욕구의 분류틀을 만들었다.

(1) 생존욕구 : 의 · 식 · 주, 건강 · 의료, 경제

(2) 관계욕구 :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

(3) 성장욕구 : 자아, 교육, 직업, 문화 · 여가활동

<표 II-2> 인간의 욕구영역

C Alderfer	Maslow	성규탁	Gil	Schilling의 청소년욕구
생존욕구	생리적인 욕구	적절한 소득과 경제적 기회욕구	소득	육체
	안전에 대한 욕구	적절한 보건	주택·보호처	느낌과 의지
관계욕구	애정의 욕구	적절한 조직체를 통한 활동	고용	사고와 이해
성장욕구	존경 및 긍지에 대한 욕구	개인적 사회적 적응과 개발	건강	행동과 활동력
	자아실현 욕구	적절한 지식과 기능	정신건강	공동·또래집단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	사회적 욕구	판단·평가
			여가선용	
			일상적 활동	
			이동수단	
			법적욕구	
			교육	

3. 저소득층청소년의 특성

앞 절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청소년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인간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의 발달과업과 복지욕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절에서는 빈곤이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갖게 된 특성들을 파악하여 본 조사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1) 빈곤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래의 변수들은 빈곤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것들이다. 소득, 가족형태, 부모의 심리적 건강, 보호환경, 부모의 양육기술, 가족관계, 주변환경 등이다.

(1) 소득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간들을 보냄으로써 결혼생활의 분열 및 가족해체(Bakee, 1940),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방임(Kadushin & Martin, 1981 ; Strus, Gelles & Steinmez, 1980)등의 심각한 위험 및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경제적 압력은 일반적으로 가족들에게 재정적 문제로 인해 생활이 압도당하도록 밀어붙이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좌절과 분노, 도덕성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Conger et al., 1990).

높은 수준의 경제적 압력은 일상생활을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한다. 필요한 물품을 살수 없으며, 가족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종종 빚을 져야하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의 비용을 줄이는 시도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조건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이 악화의 정도를 인식하고 우울해지며, 비도덕적이 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다. 소득의 부족으로 인해 빈곤청소년들은 많은 기회와 기본적인 필요를 단절 당하고 스트레스와 절망감만을 경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소득의 부족으로 빈곤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의 부족은 첫째, 가족으로 하여금 균형 잡힌 영양 음식과 인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책과 같이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영양부족은 아동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Montgomery, Kiely & Papps, 1996). 이로 인해 빈곤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2.7배나 더딘 성장을 경험하기 쉽고 3-4배나 빈혈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Korenman & Miller, 1997).

둘째, 빈곤한 가족들은 정서적으로 덜 지지적이고, 인지적으로 덜 자극적인 보호환경에 놓이게 되며(Brooks-Gunn & Duncan, 1997) 소득의 부족으로 인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호방식이나 프로그램 등을 선택할 수 없어 일반아동에 비해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자극을 덜 받게 된다.

셋째, 소득은 더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빈곤가족들은 소득의 부족으로 주거나 이웃, 학교환경을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는다(Brooks-Gunn & Duncan, 1997). 따라서 지저분하고 위험한 환경에 거주할 위험성이 크며 이는 학업성취에의 어려움, 비행행동의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Sherman, 1997). 더군다나 빈곤 아동들은 자주 이사를 경험하는 등 일상적인 하루일과조차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생활을 한다(Child Trends, 1997).

넷째, 낮은 소득은 낮은 지능점수와 관련이 있고 이는 낮은 학업성적을 가져오게 된다(Children's Defense Fund, 1994). 따라서 빈곤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1.3배나 학습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낮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된다.

즉 소득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 전반에 걸쳐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2) 가족형태

편부모가 된다는 것은 시간과 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편부모들은 청소년의 학교에서 학업수행에 관여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학교숙제나 활동을 감독하기도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부모가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발달적 결과가 결정된다(McLahan and Marks, 1991).

일반적으로 양친이 있는 빈곤가족보다 편부모 가족은 더 빈곤하기가 쉽다(Mcloyd & Wilson, 1991). 왜냐하면 편부모 가정들은 양부모 가족보다 직업, 소득, 주거에서의 변화들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Mclanahan, 1983). 아마도 이런 다양한 삶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가 편모와의 사이에서, 특히 빈곤한 편모의 경우에 자주 발견되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우울이나 정신건강은 비효과적인 양육기술과 관련이 있어 아동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owney & Coyne, 1990).

(3) 부모의 심리적인 건강(well-being)

빈곤한 가족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우울 및 불안 증상이 자주 발견된다(Ramsy, 1989). 부정적인 분위기는 가족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거친 행동을 하기 쉽게 만들며 효과적인 양육기술 같은 사회적으로 유능한 기술이 감소되거나 후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적인 연구들이 많다. 이외에도 비도덕적인 감정과 우울은 경제적 압력과 관련되어 있고 이는 부부갈등을 악화시키고 양육기술에 대한 투자의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Patterson, De-Baryshe, & Ramsy(1989)는 부모의 우울은 심리적 건강의 한 양상으로서 아동의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비효과적인 아동 양육기술과 관련되어 아동의 인지적·감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Downey & Coyne, 1990).

비효과적인 양육기술이란 아동에 대한 감정적인 지원을 덜 하거나, 더 거칠게 다룬다거나 교육방침에 있어서도 덜 지속적임을 말한다(Puckering, 1989 ; Richers and Pellegrini, 1989). 이로 인해 부모와 아동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져오게 되고 아동은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문제를 나타내기가 쉽다. Downey 와 Coyne(1990)은 부모가 우울한 경우 그 자녀들이 높은 수준의 외재화 문제(공격성)와 내재화 문제(불안, 우울)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이고 학문적인 수행능력에서 결함을

보이며 신체적 건강이 일반아동보다 더 빈약하다고 한다.

(4) 보호 환경

아동의 발달에 관련되는 보호환경은 크게 가정환경과 가정외의 보호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아동발달에는 일차적으로 가정환경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Duncan과 Brooks-Gunn(1997)은 빈곤한 가정환경은 학습에 필요한 교재 및 도구들의 부족, 부모와 자녀간의 낮은 상호작용, 놀이에 필요한 공간의 부족 등을 보이며 이는 빈곤아동의 낮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아동의 가정외 보호환경이란 이차적인 아동의 보호환경으로서 일반적으로 탁아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가정외 보호환경은 가정환경의 발달적 자극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환경 못지 않게 중요하다. 특히 빈곤아동의 경우 발달을 위한 자극이 가정환경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질적, 양적으로 보완 및 지지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탁아프로그램의 질은 중요하다(Burchinal, Lee & Ramey, 1985 ; Darlington, 1980 ; McCarthey, 1984). 특히 빈곤아동에 있어서는 보호의 질과 시간도 중요하지만 보호의 안정성과 지속성, 적절성이 더욱 강조된다(Gainsky, Howes, Kontos & Shinn, 1994 ; Hayes, Palmer & Zastrow, 1990 ; Cost, Quality and Outcomes Study Team, 1995).

대개 빈곤한 가족들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이웃들에 거주하게 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호환경이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빈곤가족들은 아동을 방치하거나 질 낮은 보호방식을 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빈곤아동들은 발달을 위한 자극의 결핍 속에서 성장하게 되며 이는 잠재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부모의 양육기술

Duncan(1993)은 빈곤이라는 사회적 구조(환경)는 직접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재요인을 통해서 아동의 정신건강, 인성,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중재요인 중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것이 가정환경의 중요한 기능인 부모의 아동에 대한 사회화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위협적이며 처벌적인 부모의 교육방식, 보호감독의 소홀, 부모와 자식간의 낮은 감정적 애착 등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빈곤청소년들의 적응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연구들 역시 자녀에 대한 양육기능을 포함하여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의 중요성(Bakke, 1940)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정서뿐만 아니라 인지적·사회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만성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개인과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McLoyd, 1988). 재정적 상황이 부모의 감정적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행동, 감정, 인식을 통해서 가족의 상호작용의 질이 결정된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반응과 인식을 반영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감정적 디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다시 부모의 결혼관계와 부모의 양육행동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며 이런 상호 작용적 과정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한다. 왜냐면 청소년들은 가족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상당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Elder, 1974 ; Elder, Van Nguyen & Caspi, 1985 ; McLoyd, 1984).

일반적으로 가정환경은 아동 및 청소년 발달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왔다. 따라서 빈곤아동 및 청소년에 관련된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발달하기에 가정환경이 적절한지, 학습환경 및 물리적 환경이 적절한지, 부모의 아동에 대한 온정(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등은 어떠한지를 조사해왔다. 또한 가정환경중 부모의 양육기능은 학교에서의 학업성취 및 인지적 발달을 예상할 수 있는 강력한 예상지표가 되기도 한다. (Bradly et

al. 1989).

(6) 주변 환경

주변환경은 최근 빈곤아동에 대한 연구들에서 자주 거론된다. 주변환경 즉 빈약한 주거환경, 지역사회의 사회적 해체,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 지역주민과의 빈약한 연대는 아동의 발달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rooks-Gunn & Duncan, 1997 ; Klebonov, Brooks-Gunn & Duncan, 1994).

대부분의 주변환경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다. 유아나 아동은 부모를 통해 이웃과 접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웃 환경에 접촉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Graner & Rauden Bush, 1991).

빈곤한 주변환경(낮은 경제적 상태, 높은 주거 이동률)은 십대의 범죄와 비행에 관련이 있다(Peeples & Loeberm, 1994)고 한다. 이런 연구들이 제시하는 것은 빈곤지역의 청소년과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 사는 아이들보다 더 나쁜 발달적 특성을 띠기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Duncan et al (1997)은 주변환경의 특성과 아동의 발달적 특성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주변환경의 경제적 상황은 아동의 비행행동과 지능지수의 예상지표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임금보다는 덜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빈곤한 주변환경에 사는 아이들은 비행행동의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었고 풍요로운 주변환경에 사는 아이들은 빈곤한 이웃에 사는 아이들보다 훨씬 높은 지능지수를 나타내었다고 한다.

주변환경과 청소년의 발달과의 관계는 주변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아동과 부모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빈곤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별적 요소로서 자신감, 성공과 실패에 대한 통제감, 정서적 안정성, 반사회적 성향

등의 아동기의 기질이 있고, 가족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의 지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학교에서의 요인으로는 학교에서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통제감, 학교에서의 지지 등이 있으며 정부 요인으로는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수혜여부, 생활사건 및 스트레스 즉 주요한 생활사건과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일상스트레스 등이 있다. 특히 스트레스는 행동문제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2) 저소득층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빈곤은 청소년발달에 심리사회적, 문화적, 인지적, 신체적 측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성과 연령 등의 개인적 요인, 부모의 양육행동, 가정환경, 가족구조 등의 가족적 요인, 사회적 자원, 이웃관계 등 사회적 요인 등의 다양한 차원에 따라서 개인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빈곤이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심리사회적 측면

Toby(1992)에 의하면 청소년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지적지위를 가져오고 낮은 지적지위는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초래하며 이는 거칠고 자극적인 행동을 유인하여 비행청소년이 되게 한다고 한다.

대개 빈곤아동들은 가족기능의 약화로 말미암아 심리적 불안 및 우울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와 적응행동에 문제를 가져오고 폭행, 가출 등의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 빈곤아동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아동과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빈곤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더 심한 품행장애(Velez, Johnson & Cohen, 1989)와 행동문제

(Verhalalst, Akkerhais & Althauis, 1985), 우울증(Gibbvs, 1986), 낮은 자존감(Langer, Herson, Green, Jammeson & Goff, 1970), 빈약한 사회적응력(Kellam, Ensminger & Turner, 1977)을 보인다고 한다(Mcloyd & Shanahan, 1993 ; 박현선 재인용).

Elder(198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한 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5~10세 아동들은 화를 내는 빈도와 호전적인 성향,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경향이 연령에 따라 증가되는데 이는 아버지의 독단적인 권위가 증가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빈곤은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에게 많은 사회정서적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여기에는 우울증, 또래관계의 어려움, 낮은 자아신뢰감, 행동문제, 높은 수준의 사회부적응과 심리적 장애 등이 포함된다.

(2) 문화적 측면

청소년들에 있어서 여가생활은 평소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쌓일 수 있는 긴장, 갈등, 권태, 부담 등을 털어 버리고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건전한 심신의 성장발달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인인 반면에 비행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그러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빈곤층 지역의 문화시설이 거의 없으므로 방과후에 이러한 시설을 통하여 여가문화를 즐기기가 어려우며(조홍식, 1999),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에의 방치뿐 아니라 문화적 소외, 정서발달의 장애 등을 경험하기 쉽다(류미희, 1993).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여가생활에서 두드러진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생활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는,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밤에 오락

실에 가거나 비디오가게나 만화 대여점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청소년들에 대한 여가활동 실태조사(한국청소년개발원, 2000)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의 문화환경에 대해 응답자의 48%가 "낮은 편이다·매우 낮다"라고 응답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공간의 부족, 참가할 만한 프로그램의 부족을 1,2 순위로 지적하고 있다. 저소득층청소년의 이러한 문화적인 소외는 지속적인 발달의 정체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들에게 문화적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인지적 측면

① 지능

빈곤한 아동들에게 있어 학업의 성취는 빈곤을 탈피하는데 중요한 예상지표가 된다. 즉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수록 그 아동은 보다 경제적으로 유능한 직업을 가질 확률이 많아지고 이는 직접적으로 빈곤이 주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Jenck, 1972). 그러므로 빈곤한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서 학업의 성취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Weikart, 1984). 그러나 연구들에 의하면 빈곤한 아동들은 아동기 초기부터 학업성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퇴학이나 정학을 받기 쉬워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하거나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할 위험이 많을 것으로 밝혀졌다(Ramey, Stedman, Borders-Patterson & Mengel, 1978). 또한 학교에서의 퇴학이나 정학은 청소년비행의 증가율과 관련이 있다(Berreta & Clement, 1990).

일반적으로 빈곤아동들은 보호의 부적절성 및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낮은 지적 자극 및 자원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가 어렵다. 이들은 일반아동들과 달리 정규과정을 따라가기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의 성취도에서 점점 떨어지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들의 인지적 능력은 점점

떨어지므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기가 힘들고, 이로 인해 이들은 더 나은 교육적 기회를 잡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잡기가 힘들어진다. 더군다나 퇴학이나 정학으로 인해 졸업을 못할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도 못 갖추게 되므로 이들이 빈곤에서 탈피할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진다(Levin, 1986).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인 빈곤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학교 퇴학 및 정학률,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다면 이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률이 저조하게 될 것이다. 대개 빈곤아동들은 빈곤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성취 및 수행에서 제한을 받기가 쉽고 이는 성인기의 소득의 감소 및 성인기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Hill & Sandfort, 1995). 따라서 성인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측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성인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양이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shenfelter & Krueger, 1992 ; Belfer, 1991). 따라서 아동기 초기 때부터 이들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 교육적 성취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② 직업기회에 대한 인식

대개 빈곤한 사람들은 직업기술의 저조함, 기술을 배울 기본능력의 저조, 받은 교육의 질이 낮음으로 인해 혹은 발달적 자극의 결여로 인한 인지능력의 지체 등의 요인들로 인해 빈곤을 탈피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팀웍을 위해 필요한 인간관계 기술의 손상, 동기부족과 미래에 대한 실패에의 두려움, 만성적인 빈곤한 건강이나 정신건강상태를 가진다(Sherman & Children's Defense Fund, 1994).

부모나 주변 성인의 경험을 보면서 빈곤아동들은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일반아동에 비해 훨씬 제한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게다가 빈곤아동들은 그들의 열망과 잠재력을 지원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경험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 노동시장에서 지위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성공

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파괴시켜 버린다. 이들의 믿음이 미래의 구직활동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인식이 감정적, 행동적 반응을 형성하게 한다는 인지적 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Keniston & Carneige, 1999).

또한 어릴 때부터의 아동들의 제한된 경험은 그들 자신의 미래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형성하기가 쉽다. Patterson(2000)은 빈곤아동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그들은 부모와 이웃이 궁핍하고 바람직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더 나은 기회는 역시 그들도 이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성인들이 최소한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빈곤아동들은 성공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4) 신체적 측면

경제적 결핍은 오래 전부터 건강의 위험요소로 알려져 왔다(Martha A. Nelson, 1994).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집단은 건강 서비스의 혜택에 있어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가난의 불가항력, 불평등의 가속, 불량한 생활양식, 열악한 작업상태는 나쁜 건강상태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가난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빈곤과 아동건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빈곤이 저체중 출생, 영아사망률, 전염병 전염율, 아동기 사고 및 사망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발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어기술, 사회발달, 운동발달과 같은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저조하게 나타난다. 이런 아이들은 다양한 인지적, 영양적, 언어적, 감정적 지체를 나타낼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수행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Mccomick, Brooks-Gunn, Workman-Daniels, 1992).

또한 빈곤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더 분열되고 더 산만하며 게으른

경향이 있다(Beckwith & Cohen, 1984).

빈곤아동에게서 낮은 건강상태가 나타나는 이유를 볼 때,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빈곤하거나 폭력적인 주변환경, 낮은 건강서비스의 이용, 낮은 수준의 부모의 임금 등과 관련이 있다(Duncan, 1994). 즉 빈곤아동의 낮은 건강상태는 개인적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부족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돈의 부족과 시간제한, 불량한 생활양식과 건강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돈의 부족

빈곤한 가족들의 주거환경은 지저분하여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이웃에서의 일탈행동 및 폭력행동의 발발과 같은 위험으로 인해 아이들이 놀기에는 부적절하고, 대개 방 하나에 함께 거주함으로 인해 과밀하며, 부적절한 음식이 제공된다. 이러한 상황은 부절적한 건강에 노출될 위험을 더 증가시키지만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시설, 의료약품 마저 준비하지 못한다.

② 시간제한

빈곤한 가족들은 한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병에 걸려도 의료보호를 찾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레크레이션 같은 건강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다.

③ 불량한 생활양식

빈곤한 가족들은 아동의 건강을 예방,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양식을 영위하지 않으며 건강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빈곤한 가족들의 식사는 영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운동을 할 만큼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 즉 건강에 대한 지식부족, 불충분한 돈, 부족한 시간, 스트레스 및 무력감과 통제할 수 없는 느낌 등으로 인해서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과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낮은 소득의 가족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 담배를 흡연하는 부모의 아동들은 호흡기 질환

에 걸리기 쉽고 엄마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다른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태아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게다가 불법적인 약물의 복용은 엄마가 아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쉽다.

④ 최소한의 의료보호

빈곤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의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정도가 약한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일반적으로 빈곤한 가족들도 고용관계를 통해서 일정한 의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도 의료보호나 다른 공공보장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료보장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맞지 않다. 일하는 빈곤한 사람들 중 피고용자 관계에 있는 이들의 대부분은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오로지 본인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피고용자이든 영세자영업자이든 이들 일하는 빈곤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하게 되어 건강보험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빈곤한 사람들은 원론적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야 하지만, 대상자 조건의 까다로움과 적용상의 경직성으로 인해 대부분이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비록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본인부담이 존재하므로 의료기관의 이용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4.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지원실태

1) 공공부조상의 지원

빈곤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해체의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기본권을 박탈하게 되므로 국가로부터의 빈곤탈피 및 빈곤방지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접근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부의 시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지원

① 현황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급여 및 자립자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지원시책은 생계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7가지의 급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표 II-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I-3> 최근 5년간 생활보호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구분 \ 연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안)
예산 (억원)	전체(국고기준)	9,008	10,901	18,479	23,321	27,9231	33,834
	자활예산	-	-	-	779	924	1,476
수급자 (만명)	전체 수급자	141	147	192	154	155	155
	생계급여 수급자	37	44	54	154	155	155
	자활사업참가자	-	-	-	3.3	8.3	11
1인당 기초생활보장예산 (만원) ※지방비 포함		82	96	124	195	232	281
현금급여기준(무소득 2인가구, 단위 : 만원)		195	243	267	433	482	미정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000	3,000	4,200	4,800	5,500	(7,200)
	복지행정전산망	-	-	-	복지행정 시스템	복지 D/B	연계망 확대
	자활후견기관	10	17	20	70	200	(242)

주 1) : 2001년 추경예산 미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② 생계보호

정부에서는 2000년 전반기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거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월평균 131천원을,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월 평균 89천원의 생계보호비를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동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면서 수급자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급여액(주거·의료·교육),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는 바, 2000년 무소득 4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타지원액과 타법지원액 233천원을 공제한 697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4>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내용 비교

구분	생 활 보 호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 급여종류(6종) • 생계보호 • 의료보호 • 자활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교육보호 . 수업료, 입학금 - 해산보호 : 18만원/인 - 강제보호 : 자활(20만원), 거택(50만원) ※ 자활보호 대상자에는 생계보호 해택이 제외됨	- 급여종류(7종, 긴급급여포함 8종) • 생계급여 • 주거급여(신설)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자활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교육급여 : 교과서비 추가 - 해산급여 . 18만원/인 - 장제급여 : 근로능력가구(20만원) 근로무능력가구(50만원) -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타 급여 실시하되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실시(조건부 생계급여)

③ 교육비지원

청소년은 한 나라의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며, 빈곤의 세대전승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수단은 교육을 통한 지식함양에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

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부모로부터 가난이 세습되지 않고 이들이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학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다.

'96년까지는 중학교, 인문고교 성적 30%이상 및 실업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97년부터 중·고생전체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도 지원액은 103,174백만원이다.

특히, 2000년도에는 중·고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외에 교과서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해당 수급자의 가계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그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종래의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구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법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제1종대상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제2종대상자로 보호를 구분하고 있다. 제1종과 제2종은 각기 <표 II-5>와 같이 진료비 부담에 있어서의 차이를 두고 있다.

<표 II-5>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방법

구 분		외 래	입 원	비고
1종		전액무료	본임부담 없음	
2종	1차진료기관 외래진료 비용	1회 방문당 1,000원		
	2차진료기관의 만성질환 (만선신부전증, 혈우병, 고서병)	〃		
	1차진료기관 의약품 직접조제	1회 방문당 500원		
	1차진료기관 처방전 교부없이 진료	〃		
	1차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소용비용의 20%	
	2차, 3차, 진료기관의 진료·입원	소용비용의 20%	〃	

(2) 소년소녀가장제도 상의 지원

① 현 황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복역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세대를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한다.

이들 제도는 청소년들에게 가정생활을 책임지게 하는 반인권적 제도라는 비난이 일각에서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1985년부터 이들 세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으로 필요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정해체와 비행청소년화를 방지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II-6> 연도별 소년소녀가정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 연도	세 대 수	전 세 대 원 (명)					
		계	미 취 학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기 타
1996	8,849	16,001	149	2,854	5,447	4,833	2,718
1997	9,544	16,547	174	2,830	5,382	5,516	2,645
1998	8,407	13,627	150	2,428	4,515	5,141	1,393
1999	7,924	12,427	150	2,356	4,046	4,992	883
2000	6,229	9,579	121	1,862	3,217	4,041	338

자료 ·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은 정부가 1985년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할 당시 4,900명이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1999년부터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경우에만 선정토록하고, 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 등과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그 보호를 받는 아동은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보호함으로써 불충분하지만 제도를 보완해왔다. 따라서 최근에는 해당 세대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연도별 현황은 <표 II-6>과 같다.

② 지원사업내용

정부는 이들 세대에 대하여 생계·교육·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외에도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등의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주민, 기업체, 사회단체,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과 결연을 맺도록하고 지역사회내의 아동위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지도원 등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지도케 함으로써 정서결핍에 따라 발생되는 아동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협동캠프, 생활수기공모, 후원자와의 만남의 행사, 자원봉사자등 가정봉사원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년소녀가정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정후견인과 같은 법적인 보호자가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청소년이나 아동만으로 구성된 단독세대보다는 이들을 지지해줄 성인과 함께 후천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표 II-7> 소년소녀가정 결연 현황(2000년)

(단위 : 세대, 명)

결연대상세대	결연세대수	결연율 (%)	후원자수	결연구좌수
6,395	6,182	96.7	17,889	22,859

자료 . 보건복지부

2) 사회복지서비스 상의 지원

(1) 가정위탁보호

① 개 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있어 가정에서의 보호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원가정(原家庭)에서 부득이하게 양육될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는

대리가정을 통해서라도 보호하는 것이 시설에서의 보호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위탁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인정된다. 즉,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위탁가정과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입양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1985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혈연중시 가족문화에 부딪혀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2000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 의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② 추진 현황

가정위탁 대상 청소년은 요보호 청소년중 15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은 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과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이 있다. 이때 청소년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위탁가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으로는

(1)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2) 가정조사시 위탁가정으로 적합여부를 이웃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3)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 등이다.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인 경우에는

(1)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하고,

(2)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3) 위탁가정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아야 하는 점이 추가되어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2000년에는 1,761명의 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01년에는 2,600명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으며 예산의 배정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표 II-8> 가정위탁 현황(2000년)

(단위 : 명)

계	친인척	일반가정
1,761	1,573	188

<표 II-9> 가정위탁 정부예산 현황

(단위 : 천원)

2000년	2001년	증감
351,000	1,594,320	1,243,320

③ 지원내용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하며,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65천원/인·월, 2001년)을 지원하고 있다.

(2) 복지시설을 통한 청소년지원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6]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시설형태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수용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수련장, 과학관 등 전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0년 12월말 현재 수용보호시설은 269개소에 17,720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

6) 아동복지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 명칭 변경(2000. 7. 13시행)

<표 II-10> 시설유형별 현황(2000년)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아동양육	아동보호치료	아동직업훈련	자립지원	일시보호	아동전용	종합시설
시 설 수	269	235	6	5	12	8	1	2
수용인원	17,720	16,293	460	184	222	387	0	174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에서는 수용시설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9년부터 운영비 지원방식을 개선, 시설당 총액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보호아동 규모 등의 비표준화로 실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 2개항으로 구분하여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11> 연도별 시설수 및 수용인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시 설 수	278	275	269	273	274	272	271	269
수용인원	20,194	19,214	18,074	17,319	16,936	17,820	17,840	17,720

자료 . 보건복지부

1980년대 이후 요보호아동의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아동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전용시설 등 이용시설로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아동시설의 보호방법도 점차 전환하도록 하여 종래의 대규모 수용보호의 형태에서 벗어나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시에는 시설을 소규모 현대화 하도록 권장하고, 아동과 보육사를 가정단위로 구성, 보호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시설아동도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안정되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 양육될 수 있도

록 하고자 한다.

특히 공동가정사업(group home)을 도입·활성화하고 있는 데, 이는 10인 이하의 작은 규모이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보호양식을 구사하며 주택가에 위치하여 종래의 양육시설보호양식과는 구별되고 있는 보호방식이다. 이는 2001년 현재 32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20여 개가 민간복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3) 결연후원사업

불우아동 결연사업은 1976년부터 시행된 이래 그 동안 사회각계 각층 인사의 참여로 인보복지(隣保福祉) 분야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불우아동에게는 결연사업이 사회적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연사업은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를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변경(2000. 8))세대,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사회사업기관인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의 시작 이래 시설보호아동과 소년소녀가정아동은 대다수가 사회각계 인사와 결연이 되어 물질적·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으며 모자가정, 불우노인, 장애인 등에까지 확대되어 전국민의 참여하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연사업은 불우이웃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동시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이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더불어 지역사회단위로 결연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① 실시배경

불우아동 결연사업은 1970년대에 들어 우리 국력이 점차 신장됨에 따

라 해방이후 계속되어 온 외국의 지원이 거의 중단되고, 불우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정부의 제도적인 재정지원과 국내후원자에 의한 민간차원의 지원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1976. 9. 10 불우아동 건전육성대책의 일환으로 국내후원자에 의한 결연사업계획을 수립, 제70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동 업무를 주관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② 후원금액 및 전달방법

1구좌당 10,000원 단위로 하되 후원자의 뜻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고 후원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지로(MICR 7510344 : 자동이체가능, OCR 7629675) 및 우편대체계좌(010041-32-0001511)를 설정하여 입금토록 하거나 후원자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시설청소년의 자립지원

① 자립지원 현황

성장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설보호연장아동 전원에 대하여 상담 후 적성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취업알선 방법으로는 대기업의 사내직업훈련소에 입소했던 연장아동은 계속 그 사업장에 취업되도록 하고, 기타 자격증소지자 등에 대하여는 관내의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협조, 취업정보를 입수하여 우량회사에 취업토록 알선하고 있다. 또한 시설퇴소 취업연장아동에게 가장 절실한 숙소를 제공하여 이직 및 비행청소년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자립생활관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퇴소시에는 자립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1993년도 하반기부터는 서울, 부산, 경기 등 16개소에 아동복지 자립지원센타를 설치하고 전국 아동시설 및 16개 아동시설연합회 지역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퇴소연장아를 대상으로 취업지도, 직업교육, 사회생활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설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이 불식되도록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시설아동의 사회공

동양육 책임을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표 II-12> 퇴소아동 연도별 취업알선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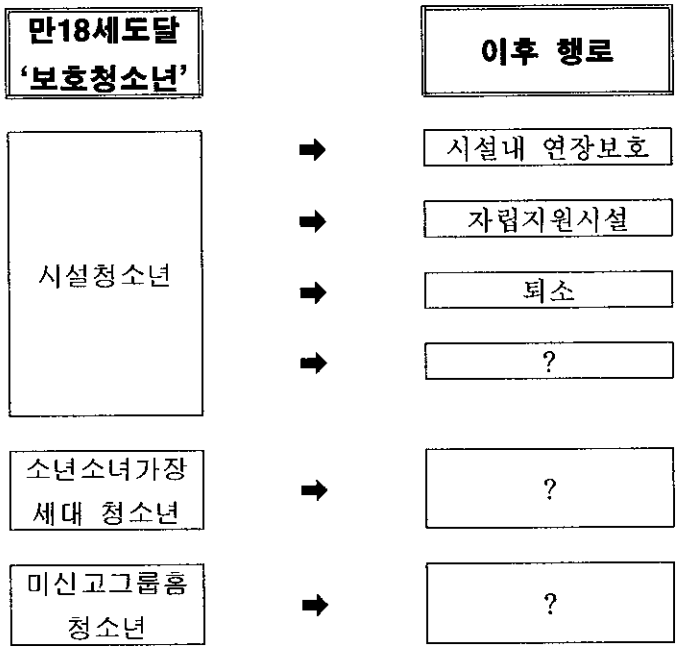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대 상 아 동	552	975	1,102	1,223	1,472	2,654
상 담 실 적	1,087	1,142	550	725	1,136	2,084
취 업 실 적	335	598	609	405	475	570

자료 : 보건복지부

② 자립지원의 추진사항

<그림 II-1> '보호청소년'의 만 18세 이후 행로



일반적으로 볼 때 '보호청소년'이 탈아동기에 이르렀을 때 이들에게

주어진 전형적인 행로는 <그림 II-1>과 같이 압축적으로 표현된다. 시설청소년 중 퇴소하는 청소년에 있어서는 시설연장과 자립지원시설 입소, 그리고 퇴소라는 세가지 길이 놓여 있으나, 같은 '보호청소년'으로 취급되어야 할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미신고 시설내의 탈아동기에 이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접근이 없는 상태라는 점도 분명하다.

우선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었던 청소년에게는 첫째 시설내 연장보호의 길이 있다. 이는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할 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인 자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의 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등의 경우에 허용된다.

둘째는 다시 자립지원시설로 입소하는 것이다. <표 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12월 말 현재 자립지원시설에는 전국 13개, 모두 222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시설은 양육시설에 비하여 1인당 평균면적이 3평이고 거실 당 2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정도의 배려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이들에게는 자립정착금으로 약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조달되는 데, 이마저 1998년까지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200만원씩 지급하던 것으로부터는 삭감된 상태이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각시도의 아동복지시설연합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자립지원센터는 취업보도,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및 고정상담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퇴소하여 사회로 곧바로 진출한 경우 유일한 공식적인 지원체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퇴소연령에 다다른 청소년들에 대한 몇 가지 시책 이

외에, 퇴소를 준비하는 사전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직업훈련사업을 들 수 있다. 아동복지법 상의 직업훈련시설에서 12세 이상의 입소 중 청소년에게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0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5개 시설에 그치고 있고 정원 457명에 현원 184명으로 그 활용이 부진한 상태이다. 이는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의 직업훈련시설 지원체계로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전수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새로운 시설로 전원하여 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그나마 부족한 직업훈련시설에도 불구하고 미충원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퇴소청소년을 위한 현재 정부의 재원할애는 아래 <표 II - 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1년 약 23억 원에 그치고 있다. 우선 자립지원센터에 1억 1,900만원, 퇴소청소년자립정착금으로 국고 및 지방비 50%씩 모두 11억 원, 그리고 자립생활관 정착청소년을 위한 생계유지비로 2억 5,600만원 및 운영비로 8억 2,900만원 등을 배정하고 있다.

<표 II-13> 퇴소청소년을 위한 예산현황(지방정부예산 포함)

항목		2000	2001	비고
자립지원센터		113	119	16개 센터 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100	1,100	100만원/인,년
자립생활관1)	생계비	248	256	13개시설 222명
	운영비	722	829	
계		2,183	2,304	

주. 1) 2000. 12. 31 입소자 222명을 기준으로 함.

이러한 청소년자립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정적인 투여가 매우 적은 것과 함께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담보되는 법적 체계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재 아동복지법 상에 자립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

음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퇴소청소년의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5)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①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 현황

직업전문학교는 비진학·미취업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사회에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전국에 인천직업전문학교 등 21개교가 설치되어 총 7,570명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직업전문학교에는 메카트로닉스, 카일렉트로닉스, 멀티미디어 등 국가기반산업, 지식기반산업 및 IT관련 52개 직종이 개설되어 있다. 훈련기간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수업은 수료후 산업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체 교과의 70~80%가 실기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수료 후에는 대부분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함께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다. 훈련을 원하는 청소년은 특별한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신체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입학전형시 우선 선발한다. 훈련생에게는 교육훈련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며, 희망자에게는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기능대학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필수 인력인 다기능기술자와 기능장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전국에 창원기능대학 등 22개 기능대학이 있으며, 정보통신설비 등 42개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훈련기간은 2년으로 운영되며 총 2,560시간 중 이론과 실기를 50 : 50 비율로 편성하여 산업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이 학비에 부담을 갖지 않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학비가 저렴하고, 졸업생 전원이 취업하는 등 취업률이 높다.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이면 입학이 가능하며, 수료자에게는 교육관계법의 규정에 의해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학위와 동등한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② 2000년 훈련성과

직업전문학교 기능사양성과정의 훈련실적을 보면, 7,570명 계획에 7,832명이 입학하였으며 이중 여성은 950명이다. 총 수료인원은 7,074명이며 이중 자격 취득자는 6,153명으로 87%의 자격취득률을 보였다. 수료자 중 군입대, 진학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 4,206명의 96.8%인 4,072명이 취업을 하여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경우 주·야간 총 14,515명의 정원에 14,886명이 입학하였다. 2000학년도 수료자는 5,039명이며, 이중 취업자는 3,100명, 자격 취득자는 2,937명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 대상 다기능기술자 야간과정을 '99년에 750명이었던 인원을 1,545명으로 확대하였다.

정규과정과는 별도로 청소년 등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원격화상, 인터넷 및 이동훈련버스를 활용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10,800명을 계획하여 28,503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사이버훈련이란 인터넷 직업훈련시스템에 지식기반직종관련 콘텐츠를 탑재하여 청소년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학습 및 정보를 제공하는 가상능력개발훈련 등을 말한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식기반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99년부터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의 개설 훈련직종 중 39개 직종 319개 학급을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훈련직종에서 지식기반직종으로 개편하고 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메카트로닉스 등 33개 직종 116개 학급을 지식기반직종으로 개편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999년도 개편한 15개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2,316명의 지식기반산업 기능인력을 배출하였다. 직종개편과 함께 개편직종의 훈련기준 개발과 훈련시설 및 장비보강, 그리고 훈련

담당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신기술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02년 직종 개편이 완료되면 전체 훈련직종의 40% 이상이 지식기반직종으로 개편된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비진학청소년들에 대한 직업훈련기회 제공을 통하여 진로선택을 원활히 하고 이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비진학청소년들을 산업인력화하여 국가기반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부족한 기능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성과를 이뤘다.

③ 2001년 훈련계획

2001년도에는 산업인력공단 산하 43개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기능기술자 17,550명, 기능사양성과정 8,400명을 목표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에 친숙한 사이버 훈련은 컨텐츠 개발과 원격화상시스템 증설, 이동버스 추가확보를 통하여 34,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IT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IT전문과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66명을 모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IT관련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식기반사업 직종개편은 2000년도에 이어 2001년도에는 125억원을 투자하여 컴퓨터응용기계 등 17개 직종에 대해 강릉직교 등 18개 기관의 55개 학급을 개편할 계획이다.

(6) 기타 어려운 청소년 활동지원

① 근로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및 순회음악회 개최

근로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지원사업은 문화적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에게 연극을 통해 청소년기의 꿈과 이상을 키워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동 사업은 1987년부터 내무부에서 주로 농어촌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1989년도에 체육청소년부(현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면서 그 대상이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실업계 고교생 및 교정·보호시설 수용청소년 등 불우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극공연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에서 청소년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고양할 수 있는 역사적 위인이나 성인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을 청소년 취향에 맞도록 창작하여 록오페라 또는 뮤지컬 형식으로 공연하고 있다. 공연실적은 2001년에도 40회 공연에 44,000명이 관람하였으며, 순회음악회에 4개 단체가 참여하여 12,000여명이 관람하였다.

② 비정규학교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워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주경야독하는 곳이 바로 청소년야간학교, 청소년자활학교, 새마을학교 등 이른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이다.

비정규학교는 초·중·고·대학 등 각급 정규학교를 제외한 비정규학교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로서 2000년 12월말 현재 158개교 7,8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1989년도에 처음 지원되기 시작한 비정규학교에 대한 운영비와 청소년 문예행사에 대한 지원은 비공식적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의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1994년도에 처음으로 155개교에 각 150만원씩(청소년육성기금 75만원, 지방비 75만원) 총 261백만원을 지원하여 비정규학교의 시설비, 임차

보증금, 월세, 교구설비 및 교과서, 문구류 구입 등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나, 1995년도부터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시설비와 임차료보다는 학생들의 교재 및 교구 구입과 냉·난방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나.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지원

비정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창작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별로 문예행사를 개최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예행사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5개부문별로 5~10월 중에 개최되며,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상, 시·도지사상, 교육감상 및 부상금이 지급되며, 연말 해외연수의 특전을 베풀어 청소년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입상 작품집을 발간하고, 비정규학교에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 격려 위안공연 및 작품전시회를 시·도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문예행사 지원을 통한 청소년 격려행사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0년도 문예행사 개최실적을 보면 16개 시·도 120개교 7,557명이 참가 3,718점이 출품되어 문화관광부장관상 62명 등 469명이 수상하였다.

③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미래 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근로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노·사간 상호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문화체육대회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매년 5월부터 10월에 걸쳐 1회씩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회는 경기종목 이외에 민속놀이,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으로 상호경쟁의 성격을 띤 체육대회가 아니라 근로청소년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대회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2000년도에는 1만 3천여명의 근로청소년과 기업주가 참가하여 노·사 화합의 장을 이루었고, 2001년도에는 1만6천여명의 근로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④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자연체험활동은 무직·미진학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바다, 들, 산에서의 대자연 체험을 통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별로 3박 4일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3박 4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자연체험활동은 수영, 카누 등 수상활동과 야영, 오리엔티어링, 등반 등 육상활동 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우정을 키우며, 긍정적 사고와 자기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0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920여명의 청소년들이 한국보이스카우트 등에서 주관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여 여름방학을 보람있게 지냈으며, 200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가. 개 요

전국의 도시 영세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 상대적 빈곤감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학습 목표를 포함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고민 또는 방황하고 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 줌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을 병행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공부방은 종래에 단순한 학습공간만 제공해 주는 역할

에 불과했던 기존의 마을단위 공부방, 새마을문고 형태를 운영면이나 내용면에서 보다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을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14> 시·도별 청소년 공부방 설치 현황(2000년)

(단위 : 개소)

지 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수	412	87	26	22	14	17	4	14	26	24	25	30	17	19	30	35	22

자료 문화관광부

나. 운영실태

청소년 공부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실한 단체 중에서 사회봉사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및 뜻있는 개인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관할 시·도에서는 운영실태를 지도·확인하고 있다.

청소년 공부방의 시설확보는 별도의 신규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내 청소년단체, 종교 및 공공사회의 복지시설 등의 기존시설을 사용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내의 기존 공부방 중 영세시설을 확대·보강하여 "청소년 공부방"으로 보강·활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1개소당 사용면적은 25평 이상을 기본규모로 하고 있다.

운영요원은 대학생, 퇴직공무원, 교사, 종교인, 주부 등의 전임자원봉사자를 1개소당 최소한 1명을, 일일자원봉사자를 1~2명을 배치하여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식비 및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의 1개소당 연간

예산은 시설운영, 자원봉사자 식비 및 교통비, 홍보비 등을 포함하여 총 1,120만원이며, 지방양여금과 지방비에서 각각 50%씩을 분담 지원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이와 같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도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전국 시·군·구 단위 이상의 도시 영세민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연차적으로 확대·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⑥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가. 설립배경 및 목적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올바른 인격체로 육성하는 일은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1993년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우리 농어촌도 국제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어촌이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농어촌발전대책을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케 되었다. 농어촌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농어촌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대책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청소년 지원을 전담할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농어촌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기술습득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 및 농어민 자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50억원

과 청소년육성기금 50억원 등 도합 100억원의 출연으로 1994년 1월 24일 설립, 2001. 6월말 현재, 기본재산은 262억원으로 농어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장학사업, 해외 연수사업, 수련사업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나. 조직 및 사업추진 내용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주요기구는 이사회, 감사, 사무국이며, 이사회는 이사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기획팀과 사업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1년도 6월 현재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주요 사업 실적을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 출신 대학생 및 고교생 33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대학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우리나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어민자녀 중 해외 대학의 박사과정 장학생에 선발된 13명 중 12명을 해외 각 대학에 파견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영농종사 청소년 40명을 선발하여 일본 등 선진농업국에 해외연수와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정착 의지를 고양시켰다.

이 밖에도 농어촌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농어촌 소재 초·중·고교생들의 지역간 교류활동 등의 수련사업과 청소년가장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다. 주요사업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II-15>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주요사업(2001. 6월)

사 업 구 분	사 업 내 용
수련사업	〈농어촌청소년 지역간 교류활동〉 o 시행시기 1996년부터 o 참가대상 · 벽·오지 및 도서지방 초·중학생, 전국농어촌지역 고등학생 o 활동내용 : 문화활동, 학습(또는 산업) 현장 견학, 단체생활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등 o 참여인원 200명 o 활동기간 : 3박 4일
	〈장학생 자원봉사캠프 운영〉 o 시행시기 . 1996년부터 o 참가대상 : 국내장학생으로 설발된 대학생 o 활동내용 농촌일손 돕기, 환경정화 활동, 복지시설 방문 등 o 참여인원 344명 o 활동기간 : 3박 4일
	〈늘푸름 하계수련대회〉 o 시행시기 1995년부터 o 참가대상 : 해외연수 유경험 청소년 o 활동내용 연수효과 사례발표, 영농정보 교환, 친교활동 등 o 참여인원 61명 o 활동기간 · 1박 2일
	〈농어촌 청소년 고구려 역사유적 답사활동〉 o 시행시기 : 2001년부터 o 참가대상 . 전국농어촌지역 고등학생 o 활동내용 : 고구려 역사유적 답사, 독립운동사료관 견학, 백두산 등정 등 o 참여인원 . 35명 o 선발방법 : 도·교육청 추천, 재단에서 선발
	〈전국 농어촌청소년 문예제전〉 o 시행시기 : 2001년부터 o 응모대상 전국농어촌지역 고등학생 o 응모부문 중등부-시(시조)/고등부-시(시조), 소설 o 시 상 : 상장 및 상금(대상은 장학금 별도 수여)
청소년가장 자립지원	o 시행시기 . 1997년부터 o 지원대상 . 전국 소년소녀가장 o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 o 지원인원 · 97명 o 선발방법 시·도지사 추천, 재단에서 선발 o 자매결연 청소년가장 54명 자매결연성사

사 업 구 분	사 업 내 용
국내장학사업	○ 시행시기 : 1994년부터 ○ 지원대상 · 농어촌출신 대학생 및 고교생 ○ 선발인원 330명(대학생) ○ 선발방법 시장·군수 추천, 재단에서 선발 ○ 지원규모 등록금 전액(1인 평균 370만원)
해외장학사업	○ 시행시기 · 1994년부터 ○ 지원대상 . 농어가 자녀 중 농수산학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의 박사과정 이수 희망자 ○ 선발인원 13명(12명 파견, 5명 농학 박사학위 취득) ○ 선발방법 대학총(학)장 또는 농업분야 연구기관장 추천, 재단에서 선발 ○ 지원규모 1인당 연간 20,000불(2001. 6현재 유학인원 7명)
연수사업	○ 시행시기 1994년부터 ○ 연수대상 · 영농종사 청소년 ○ 연수국가 일본, 북유럽 ○ 연수분야 : 벼농사, 원예, 양돈, 낙농, 비육우, 농업일반, 정보교육 등 ○ 연수인원 40명 ○ 선발방법 . 농촌기술원 추천, 재단에서 선발

자료 . 문화관광부

⑦ 농어촌 출신 학생기숙사 건립지원

정부에서는 '93년 12월 U·R 타결로 인한 농어촌발전대책사업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사업의 일환으로 '95년부터 농어촌 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숙사 건립은 늘어나는 농어촌 출신 청소년(대학생)을 위한 하숙비 등의 절감으로 농어촌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면학환경 개선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총사업비 360억원(1개소당 40억원)을 투입해 도단위 각 1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01년 7월 현재 기숙사 건립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개소는 개원·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 및 강원도는 자체사정을 감안, 건립을 검토 중에 있다.

3) 민간차원의 지원

(1) 민간공부방 운영

현재 민간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은 대략 250개로 추산되고 있다. 부스러기선교회, 가톨릭공부방연합회, 서울 등 각 지역별 공부방연합회 등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은 빈곤지역의 청소년들이 방과후 방치되어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들은 주로 ① 음식나눔사업 ② 방과후 학습지도 ③ 청소년 및 가정상담 ④ 문화행사 ⑤ 쉼터운영 ⑥ 교사교육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운영비 조달 등이 민간후원금으로 충당되는 관계로 재정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개입, 안정적 사업운영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하겠다.

(2)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자조프로그램 진행

현재 34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프로그램으로서 지역내 빈곤가구의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빈곤지역의 청소년과 가족, 그리고 학교 및 지역주민들이 종합적으로 접근되어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정서적 자립기반이 강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의식이 고조되면서 지역공동체의식이 확산되는 효과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저소득청소년의 학습지도 ② 저소득청소년 및 가정의 결연사업 ③ 결식청소년의 도시락배달 및 급식지원 ④ 방학중 캠프 등 특별프로그램 ⑤ 컴퓨터교육 등 특별학습 프로그램 ⑥ 학교부적응, 비행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지프로그램 ⑦ 쉼터 활용 ⑧ 학습비 지원 등을 행하고 있다.

5.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검토를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한 내용 즉 청소년의 발달과업, 청소년의 복지욕구, 저소득층청소년의 특성,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복지욕구의 영역을 분류하고 각각의 영역에 따른 욕구의 내용에 따라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욕구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성 있고 효과성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관련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수렴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Bradshow가 제시한 욕구식별의 네 가지 인식기준 중 규범적 욕구와 체험적 욕구를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김성이 · 채구묵, 1997 : 19-21 재인용).

Bradshow(1972)는 욕구식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식기준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인식의 기준은 규범이며, 이 기준에 의해 파악된 욕구를 '규범적 욕구'라 한다. 인식의 기준인 규범은 전문가들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떤 수준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규범을 설정한다. 이 규범과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의해 욕구가 파악되며, 현재의 상태를 규범적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시될 수 있다.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엘리트 위주의 서비스가 되어 표적집단이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인식기준은 체감이며, 이 기준에 의해 파악된 욕구를 '체감적 욕구'라 한다. 이 경우는 그 그룹의 성원들의 느낌이 욕구파악의 기준이 된다. 체감적 욕구는 표적집단들이 누구보다도 자기들의 문제를 잘 파악

하고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이는 또한 서비스를 위한 욕구가 표적집단에 의해 체감되지 않는다면 쓸모없거나 비현실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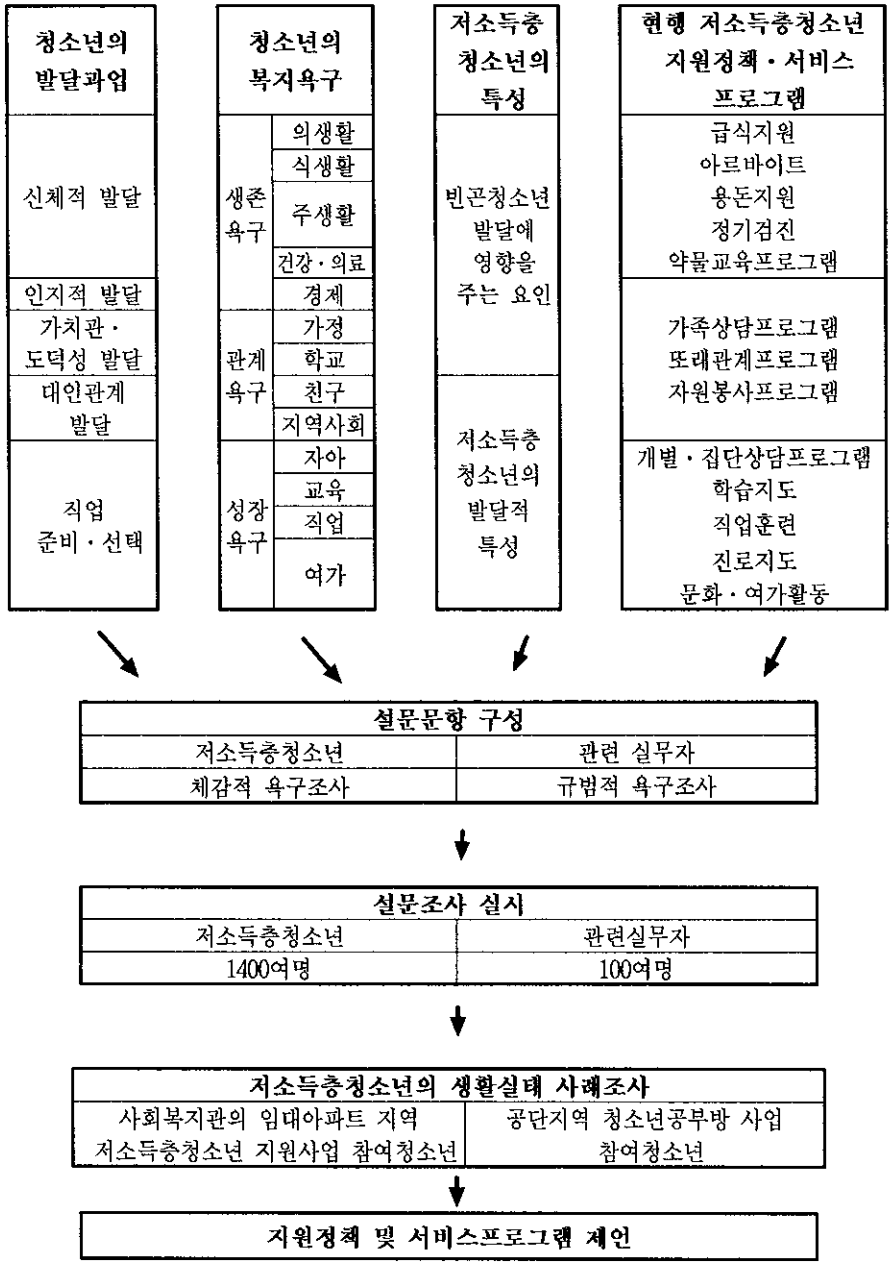
세 번째 인식기준은 표적집단의 표현 또는 행위이며, 이 기준에 의해 파악된 욕구를 '표현적 욕구'라 한다. 이 욕구는 체감적 욕구가 행동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체감적 욕구는 그룹의 성원들이 내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정도에 의해 파악되는데 반해 표현적 욕구는 그룹 성원들의 의사가 실제 외부로 나타난 행위에 의해 파악된다.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의 대기자 명단에 많은 사람들이 올려져 있으며 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인식기준은 비교이며, 이 기준에 의해 파악된 욕구를 '비교적 욕구'라 한다. 이 경우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 수여상태가 비교기준이 된다. 즉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면, 후자에게도 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위의 각 방법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가지만을 모든 의사결정 사항에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적집단의 성원들에게 직접 욕구 또는 원하는 서비스를 물어 체감적 욕구를 파악하고, 표적집단들의 실제상태를 조사하여 기관 또는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규범과 비교하여 규범적 욕구를 파악한 후 두 욕구를 비교하는 방법을 거치면 보다 더 정확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감적 욕구와 관련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규범적 욕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복지욕구 조사체계도를 <그림 Ⅱ-2>와 같이 작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림 II-2>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체계도



Ⅲ.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결과

1. 조사개관
2. 저소득층청소년의 일반현황
3. 저소득층청소년의 생존욕구
4. 저소득층청소년의 관계욕구
5. 저소득층청소년의 성장욕구
6. 복지프로그램 이용실태와 욕구
7. 결과요약 및 함의

공 백

Ⅲ.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결과

1. 조사개관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감적 욕구와 관련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규범적 욕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복지욕구의 주체인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 설문조사는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공부방 등의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 자신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또한 저소득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갖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체감적인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사대상

저소득층청소년의 직접적인 복지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는 전국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및 민간지원 청소년공부방 121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1,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들이 체감하거나 바라고 있는 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o 복지관 : 서울특별시와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6대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을 대상으로 96개의 사회복지관 청소년복지담당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1,28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o 민간지원 청소년공부방 :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가톨릭공부방연합회, 광주지역공부방연합회, 대구지역공부방연합회, 부스러기선교회 등 현재 파악된 민간지원 청소년공부방 25개의 공부방 운영자 및 실무교사를 대상으로 16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표 III-1> 설문 조사기관 및 대상청소년 수

시설수 / 지역	복지관 (인원)	민간지원 공부방(인원)	총 기관수 (총 인원)
서울	13개(162명)	5개(60명)	18개(222명)
부산	11개(120명)	3개(38명)	14개(158명)
대구	7개(155명)		7개(155명)
인천	4개(60명)		4개(60명)
광주	8개(100명)		8개(100명)
대전	6개(70명)	1개(10명)	7개(80명)
울산	2개(20명)		2개(20명)
경기	10개(175명)		10개(175명)
강원	4개(40명)	1개(20명)	5개(60명)
충북	5개(70명)		5개(70명)
충남	4개(40명)		4개(40명)
전북	7개(80명)		7개(80명)
전남	3개(30명)	5개(35명)	8개(65명)
경북	7개(100명)		7개(100명)
경남	5개(60명)	1개(5명)	6개(65명)
제주			
총계	96개(1,282명)	25개(168명)	121(1,450명)

2) 조사내용

본 설문지의 설문내용은 청소년의 발달에 관련되는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욕구영역을 구분하고 생존욕구 영역에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건강·의료, 경제에 관한 설문문항으로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을 알아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관계욕구 영역에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방과후 생활에서의 대인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

으며, 성장욕구 영역은 학업, 진로, 여가 등 주로 인지적, 정서적 성장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에서는 청소년 개개인의 인적사항과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희망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항목별로 자세한 설문내용은 <표 Ⅲ-2>와 같다.

<표 III-2> 설문 구성내용

전체영역	항목	설문내용
Ⅰ. 성장욕구	학업	중졸 후 진로 선택
		현재의 진로 선택 이유
		희망 최종학력
		학습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등교하기 싫었던 경험여부
		등교하기 싫은 이유
		현재 학원수강내용
		희망 수강내용
	직업 및 진로지도	희망직업
		직업훈련 참여여부
		희망 직업훈련 직종
		희망 직업훈련 장소
		진로지도 참여여부
		희망 진로지도 내용
	컴퓨터	컴퓨터 사용시간
		컴퓨터 이용장소
		컴퓨터 희망 교육영역
		컴퓨터 교육여부
		컴퓨터교육 제공 시 희망 사항
	여가	현재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여가활동 장애요인
		체험학습일의 주요 활동
		한달 평균 독서량
		즐겨 읽는 독서 분야

전체영역	항목	질문내용
Ⅱ. 생존욕구	의생활	의복으로 인한 피해의식
		의복 구매 충족도
	식생활	음식충족도
		영양섭취도
		급식지원 여부
		급식지원 방법
		지원방법에 대한 만족도
		희망 급식지원 방법
		지원 받지 않는 이유
	주생활	주거생활 만족도
		주거공간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안전도
		공동으로 방을 쓰는 사람
		희망 주거개선 사업
		희망 공부장소
	건강	신체발육정도
		술·담배 경험도
		본드·부탄가스 경험도
		최근 6개월 간 질병유무
		질병 치료유무
		치료받지 않은 이유
		가족의 건강문제
	경제	한달 평균용돈
		용돈 만족도
		희망 한달 용돈
		용돈 희망 사용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아르바이트 액수
		아르바이트 종류
		아르바이트 이유

전체영역	항목	질문내용
Ⅲ. 관계욕구	대인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활동	가정생활 문제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참여여부
		희망 프로그램 종류
		불참하고픈 이유
	친구와의 활동과 바램	교사에 대한 희망사항
		친구들과의 모임횟수
		만나는 장소
		원하는 친구역할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방과후 함께 지내는 사람
		방과후 활동 지도자 필요여부
		희망 지도/지원활동의 종류
		적절한 방과후 활동지도자
		방과후 활동을 위한 적절한 장소
		지도/지원이 불필요한 이유
		미래 행복 예감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앞으로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Ⅳ. 일반사항		성별
		학교
		동거 가족원
		집의 형태
		집의 방수
		종교(부, 모, 본인)
		부모님의 교육정도(부, 모)
		희망사항

3) 조사결과 분석

본 조사에서의 저소득층은 상대적 빈곤층과 절대적 빈곤층을 포함하므로 절대적 빈곤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활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대적 빈곤층은 사회복지관과 공부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인식기준에 의해 파악된 청소년들을 설문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전국의 복지관과 공부방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가능한 기관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121개 기관을 선정하여 이 기관에서 지원 받고 있거나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조사 대상청소년의 연령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로 하였으며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관을 통해서 총 1450부를 우편조사를 통해서 표집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0년 11월29일부터 12월 18까지였으며 총 회수된 설문지는 총 870부였다. 그 중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70부를 제외한 800부(서울지역 137부, 부산지역 91부, 대구 111부, 인천 46부, 광주 49부, 대전 46부, 경기 47부, 경남 47부, 경북 58부, 울산 14부, 전남 28부, 충남 13부, 강원 25부, 전북 41부, 충북 47부)로 60%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이를 SPSS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과 교급별로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2. 저소득층청소년의 일반현황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45.6%, 여학생은 54.4%로 여학생이 8.8% 정도 많았다. 교급

별로는 중학생이 70.8%, 일반계고교생이 14.9%, 실업계고교생이 14.4%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2배 정도 많았다.

<표 III-3>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단위 (명)%

항 목	세부내용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365	45 6
	여	435	54 4
교급별	중학교	566	70.8
	일반계 고등학교	119	14.9
	실업계 고등학교	115	14.4
동거가족 (복수응답)	조부모	180	23 2
	아버지	565	72.8
	어머니	628	80.9
	양부모(계부모)	28	3.6
	형제자매	641	82.6
	기타	32	4.1
본인종교	가톨릭	80	10.6
	개신교	238	31.5
	불교	130	17.2
	무교 · 기타	307	40.7
아버지 학력	무학	10	1.5
	국졸 · 국퇴	71	10.5
	중졸 · 중퇴	120	17.8
	고졸 · 고퇴	324	48.1
	대졸 · 대퇴	114	16.9
어머니 학력	무학	13	1.9
	국졸 · 국퇴	83	12.1
	중졸 · 중퇴	163	23.8
	고졸 · 고퇴	322	47.1
	대졸 · 대퇴	79	11.5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형제자매'가 82.6%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80.1%)', '아버지(72.8%)', '조부모(23.2%)', '양(계)부모(3.6%)'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가 4.1%로 삼촌, 고모, 이모 등

친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이 19.1.%(178명)나 되었으며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들은 27.2%(235명) 가까이 되어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종교를 보면 '무교 및 기타'가 40.7%(307명)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31.5%(238명), '불교'가 17.2%(130명), '가톨릭'이 10.6%(80명), '무응답'이 5.6%(45명)로 개신교신자가 가장 많음을 볼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을 보면 먼저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48.1%(324명)로 가장 많았고 '무응답'의 경우가 15.8%(127명)나 되어 2순위로 나타났으며 '중졸' 17.8%(120명), '대졸' 16.9%(114명), '국졸' 10.5%(71명) 순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대학원졸'도 35명(4.4%) 있었다. 어머니 학력을 보면 아버지 학력보다 더 낮은 경향이 보이는데 '고졸'이 47.1%(322명)로 아버지 경우와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았고 '중졸' 23.8%(163명), 다음으로 많은 것이 '무응답' 14.5%(116명)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국졸' 12.1%(83명), '대졸·대퇴' 11.5%(79명), '무학' 1.9%(13명), '대학원졸' 3%(24명)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을 보이고 있다.

3. 저소득층청소년의 생존욕구

생존욕구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므로 이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데, 이 욕구들은 주로 한정된 물질에 대한 갈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Maslow의 욕구이론에서는 그의 생리적 욕구와 물리적 안전의 욕구가 이 생존 욕구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건강 및 의료, 경제생활 등에 관련된 실태 및 욕구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

다.

1) 의생활 실태 및 욕구

<표 III-4> 의복 구매욕구 및 친구관계

단위 (명)%

의생활	구분		전혀아님	별로아님	약간그럼	매우그럼	전 체
옷 때문에 원하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성별 *	남자	42.6	33.4	18.7	5 3	(359)100.0
		여자	52.4	29.3	15.2	3 0	(433)100.0
	교급별 *	중학생	52.0	28.8	15.0	4 3	(560)100.0
		일반고교	40 7	38 1	18.6	2.5	(118)100.0
		실업고교	36.0	36.0	23.7	4 4	(114)100.0
	전체		48.0	31.2	16.8	4.0	(792)100.0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옷이 있다	성별 ***	남자	15.9	24.2	37 3	22.6	(359)100.0
		여자	7 4	14 9	47.6	30.1	(435)100.0
	교급별	중학생	12 8	19 0	40.7	27.4	(562)100.0
		일반고교	7.6	20 3	53 4	18.6	(118)100 0
		실업고교	7 0	18.4	43.0	31 6	(114)100.0
	전체		11 2	19.1	42.9	26 7	(794)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의복구매 충족도 및 의복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알아본 결과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옷이 있다'에 '약간 그렇다(42.9%)', '매우 그렇다(26.7%)'로 응답함으로써 67.6%의 청소년들이 의복구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복으로 인한 피해의식에 대해 알아 본 '옷 때문에 원하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48.0%)', '별로 그렇지 않다(31.2%)'로 응답하여 8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의복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의복구매 욕구에 있어서 여학생(77.7%)이 남학생(59.9%)보다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구매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복으로 인한 피해의식에 있어서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 중에는 남학생(24%)이 여학생(15.5%)보다 유의도 $p<.05$ 수준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보면 의복구매 욕구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지만 '실업계고교생(74.6%)', '일반계고교생(72%)', '중학생(68.1%)' 순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나타났고, 의복으로 인한 피해의식 면에서도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실업계고교생(28.1%)', '일반계고교생(21.1%)', '중학생(19.3%)' 순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급이 높고, 실업계 학생일수록 피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식생활 실태 및 욕구

청소년들의 음식충족 욕구 및 영양섭취에 대해 알아본 결과 '먹고 싶은 음식을 항상 먹을 수 있다'는 문항에 '약간 그렇다(46.3%)', '별로 그렇지 않다(36.9%)', '매우 그렇다(9.9%)', '전혀 그렇지 않다(6.9%)'로 응답함으로써 43.8%의 청소년들이 음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섭취 면에서도 '별로 그렇지 않다(32.1%)'와 '전혀 그렇지 않다(8.4%)'에 40.5%의 청소년들이 영양섭취 면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두 문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급별로 볼 때에는 두 문항 모두 유의도 $p<.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며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보였다. 음식충족 욕구에 있어서는 '실업계고교생(46.4%)', '중학생(45%), '일반계고교생(35.3%)' 순으로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양섭취 면에서도 '실업계고교생(51.7%)', '중학생(39.1%)', '일반계고교생(36.2%)' 순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관련 욕구에서도 역시 실업계고교생의 욕구가 가장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음식 충족욕구 및 영양섭취

단위 : (명)%

의생활	구분		전혀아님	별로아님	약간그럼	매우그럼	전 체
먹고 싶은 음식을 항상 먹을 수 있다	성별	남자	7.2	37.7	45.7	9.4	(363)100.0
		여자	6.7	36.2	46.8	10.4	(434)100.0
	교급별 **	중학교	6.0	39.0	47.5	7.4	(564)100.0
		일반고교	8.4	26.9	47.9	16.8	(119)100.0
		실업고교	9.6	36.8	38.6	14.9	(114)100.0
	전체		6.9	36.9	46.3	9.9	(797)100.0
성장에 필요한 음식을 고루 섭취하고 있다	성별	남자	6.1	33.9	43.0	17.1	(363)100.0
		여자	10.3	30.6	42.1	17.0	(435)100.0
	교급별 **	중학교	9.7	29.4	44.4	16.5	(565)100.0
		일반고교	3.4	32.8	37.8	26.1	(119)100.0
		실업고교	7.0	44.7	37.7	10.5	(114)100.0
	전체		8.4	32.1	42.5	17.0	(798)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47.2%의 청소년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고 52.8%는 급식지원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급식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필요없다'가 53.2%로 가장 높았으며 '방법을 모름(10.9%)', '창피함(10.0%)', '신청누락(7.3%)' 순으로 응답해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30% 정도 즉 전체청소년의 15% 정도는 급식지원 방법이 개선되면 중식지원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교급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현재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방식에 대한 응답결과는 '학교에서 중식만(79.3%)', '학교에서 중식과 석식(9.7%)', '학교중식과 민간단체에서의 석식(5.1%)', '학교중식과 민간단체 도시락(2.0%)', '학교중식과 일반식당 석식(1.5%)' 순으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80%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에서 중식만 지원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6> 급식지원 여부

단위 (명)%

구분		받고있다	받고있지 않다	전 체
성별	남자	47.6	52.4	(359)100.0
	여자	46.9	53.1	(431)100.0
교급별	중학교	49 2	50.8	(559)100.0
	일반고교	47 0	53.0	(117)100 0
	실업고교	37.7	62.3	(114)100 0
전체		47.2	52.8	(790)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표 III-7> 급식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방법을 몰라서	창피해서	신청했는데 누락되서	필요하지 않아서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12.7	9 2	9.9	50 0	18 3	(142)100.0
	여자	9.6	10 7	5.3	55.6	18.7	(187)100.0
교급별	중학교	10 5	10.5	6.1	52 6	20.2	(228)100.0
	일반고교	6.8	6 8	6.8	61.4	18.2	(44)100.0
	실업고교	15.8	10 5	12.3	49.1	12 3	(57)100.0
전체		10 9	10.0	7.3	53 2	18 5	(329)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급식지원 방법에 있어서는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급별로는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학교에서 중식만'에 대한 응답이 실업계고교생(86.0%)과, 중학교(82.3%)에 비해 일반계고교생이 60.0%에 불과했으나 '학교에서 중식과 석식'에 36.7%가 응답함으로써 다른 교급에 비해 석식 급식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현행 중식과 석식 지원방법

단위 (명)%

구분		학교 중식만	학교 중식석식 모두	학교중식 민간단체 석식	학교중식 일반식당 석식	학교중식 민간단체 도시락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77.4	11.3	3.2	2.7	2.7	2.7	(186)100.0
	여자	81.0	8.3	6.8	0.5	1.5	2.0	(205)100.0
교급별 ***	중학교	82.3	5.2	5.6	1.7	2.4	2.8	(288)100.0
	일반고교	60.0	36.7	1.7			1.7	(60)100.0
	실업고교	86.0	2.3	7.0	2.3	2.3		(43)100.0
전체		79.3	9.7	5.1	1.5	2.0	2.3	(391)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희망하는 급식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중식과 석식(29.5%)', '학교에서 중식(21.3%)', '학교에서의 중식과 식당에서의 석식(21.3%)', '학교에서의 중식과 민간단체에서의 도시락(11.5%)', '학교에서의 중식과 민간단체에서의 석식(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9> 희망하는 중식과 석식 지원방법

단위 (명)%

구분		학교 중식만	학교 중식석식 모두	학교중식 민간단체 석식	학교중식 일반식당 석식	학교중식 민간단체 도시락	기타	전 체
성별 *	남자	11.5	46.2	3.8	23.1	15.4		(26)100.0
	여자	28.6	17.1	14.3	20.0	8.6	11.4	(35)100.0
교급별	중학교	22.9	27.1	12.5	20.8	8.3	8.3	(48)100.0
	일반고교	16.7	16.7		33.3	33.3		(6)100.0
	실업고교	14.3	57.1		14.3	14.3		(7)100.0
전체		21.3	29.5	9.8	21.3	11.5	6.6	(61)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교급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로는 유의도 p<.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들은 '학교에서 중식과 석식(46.2%)', '학교

에서의 중식과 식당에서의 석식(23.1%)', '학교에서의 중식과 민간단체에서의 도시락(15.4%)' 순으로 선호한 반면,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중식(28.6%)', '학교에서의 중식과 식당에서의 석식(20.0%)', '학교에서 중식과 석식(17.1%)' 순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학교중심의 급식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3) 주거생활 실태 및 욕구

<표 III-10> 주거생활 및 주거공간 만족도

단위 : (명)%

주거생활	구분		전혀아님	별로아님	약간그럼	매우그럼	전 체
우리 집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성별 **	남자	13.6	35.7	29.8	20.9	(359)100.0
		여자	12.6	28.4	42.0	17.0	(429)100.0
	교급별	중학교	13.4	31.4	36.4	18.8	(558)100.0
		일반고교	10.2	30.5	39.0	20.3	(118)100.0
		실업고교	14.3	34.8	33.9	17.0	(112)100.0
	전체		13.1	31.7	36.4	18.8	(788)100.0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이 살기에 너무 좁다	성별	남자	31.9	30.8	26.1	11.1	(360)100.0
		여자	29.8	26.8	29.6	13.9	(433)100.0
	교급별	중학교	31.2	27.6	27.6	13.5	(561)100.0
		일반고교	29.7	31.4	30.5	8.5	(118)100.0
		실업고교	29.8	30.7	27.2	12.3	(114)100.0
	전체		30.8	28.6	28.0	12.6	(793)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주거생활과 주거공간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체청소년의 44.8%가 '집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응답했고, 40.6%가 '가족이 살기에 너무 좁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40%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거생활 및 주거공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거공간에 대한 결과에서는 성별과 교급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으나 주거생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성별로 유의도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즉 '우리 집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라는 문항에 대해 남학생은 '별로 그렇지 않다(35.7%)', '약간 그렇다(29.8%)', '매우 그렇다(20.9%)', '전혀 그렇지 않다(13.6%)' 순으로 응답하고, 여학생은 '약간 그렇다(42.0%)', '별로 그렇지 않다(28.4%)', '매우 그렇다(17.0%)', '전혀 그렇지 않다(12.6%)' 순으로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주거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명)%

주거생활	구분		전혀아님	별로아님	약간그럼	매우그럼	전 체
우리 동네 주거환경(소음·매연·청결·안전)에 만족한다	성별 **	남자	22.1	30.4	33.1	14.4	(362)100.0
		여자	31.2	34.7	25.2	8.9	(429)100.0
	교급별 ***	중학교	31.4	31.6	25.9	11.1	(560)100.0
		일반고교	10.9	33.6	41.2	14.3	(119)100.0
		실업고교	22.3	37.5	30.4	9.8	(112)100.0
	전체		27.1	32.7	28.8	11.4	(791)100.0
우리 동네에서는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성별 ***	남자	16.5	32.1	29.9	21.5	(358)100.0
		여자	26.6	39.4	27.5	6.5	(432)100.0
	교급별 ***	중학교	26.3	36.1	26.8	10.7	(559)100.0
		일반고교	5.9	34.7	36.4	22.9	(118)100.0
		실업고교	17.7	37.2	29.2	15.9	(113)100.0
	전체		22.0	36.1	28.6	13.3	(790)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사는 동네의 쾌적함과 안전 등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우리 동네 주거환경(소음·매연·청결)에 만족한다'라는 문항에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9.8%로 과반수를 넘었고, '우리 동네에서는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에는 58.1%가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주거환경의 안전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로 보면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성별로 주거환경의 쾌적함에 대해 살펴보면 여학생이 '별로 그렇지 않다(34.7%)', '전혀 그렇지 않다(31.2%)', '약간 그렇다(25.2%)', '매우 그렇다(8.9%)' 순으로 응답하고 남학생이 '별로 그렇지 않다(30.4%)', '약간 그렇다(33.1%)', '전혀 그렇지 않다(22.1%)', '매우 그렇다(14.4%)' 순으로 응답하여 여학생들이 매우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환경의 안정성 역시 여학생이 '별로 그렇지 않다(39.4%)', '전혀 그렇지 않다(26.6%)', '약간 그렇다(27.5%)', '매우 그렇다(6.5%)' 순으로 응답하고 남학생이 '별로 그렇지 않다(32.1%)', '약간 그렇다(29.9%)', '매우 그렇다(21.5%)', '전혀 그렇지 않다(16.5%)' 순으로 응답하여 여학생들은 주거환경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쾌적함보다 더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학생들이 주거생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반면 여학생들은 주거환경에 대해 높은 불만을 표시해 집안의 환경보다는 집밖의 지역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급별 비교분석에서는 일반계고교생이 실업계고교생과 중학생에 비해 자신들의 주거환경의 쾌적함과 안전성에 월등히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주거시설이 무엇인가에 대해 두 가지씩 순서대로 응답하게 한 결과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전체청소년들은 '혼자 쓸 수 있는 방(38.0%)', '화장실 보수(20.5%)', '샤워시설(12.9%)', '좁은 실내(12.9%)', '없음(10.4%)' 순으로 응답하였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1순위에서는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실업계고교생 34.2%와 중학생 42%가 '혼자 쓸수 있는 방'에 응답한 반면 일반계고교생은 22.2%만 응답하였으며 '샤워시설'을 실업계고교생(14.0%), 중학생(13.4%), 일반계고교생(9.4%)이 개선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거시설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 교급별로 차이가 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계고교생이 '없음'에 21.3%나 높게 응답해 다른 교급학생들보다는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표 III-12>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주거시설 1순위

단위 . (명)%

구분		화장실 보수·개조	샤워시설설치	혼자쓸 수있는 방	좁은 실내 공간	온수 시설	부 엌 개조	기타	없음	전 체
성별	남자	23.1	12.2	33.9	13.6	0.8	2.2	2.5	11.7	(360)100.0
	여자	18.4	13.5	41.4	12.3	0.9	3.0	1.2	9.3	(430)100.0
교급별 ***	중학교	20.4	13.4	42.0	11.8	0.9	2.7	1.3	7.5	(559)100.0
	일반고교	22.2	9.4	22.2	17.1	0.9	1.7	5.1	21.4	(117)100.0
	실업고교	19.3	14.0	34.2	14.0	0.9	3.5	0.9	13.2	(114)100.0
전체		20.5	12.9	38.0	12.9	0.9	2.7	1.8	10.4	(790)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표 III-13>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주거시설 2순위

단위 : (명)%

구분		화장실 보수·개조	샤워시설설치	혼자쓸 수있는 방	좁은 실내 공간	온수 시설	부 엌 개조	기타	없음	전 체
성별 *	남자	6.1	8.5	16.7	31.7	5.8	14.3	5.1	11.6	(293)100.0
	여자	2.9	8.8	18.5	35.4	1.9	20.4	3.5	8.6	(373)100.0
교급별	중학교	4.1	7.8	18.4	33.6	3.3	19.2	4.9	8.7	(485)100.0
	일반고교	4.8	9.5	15.5	28.6	4.8	15.5	2.4	19.0	(84)100.0
	실업고교	5.2	12.4	16.5	39.2	4.1	12.4	2.1	8.2	(97)100.0
전체		4.4	8.7	17.7	33.8	3.6	17.7	4.2	9.9	(666)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주거시설 2순위로는 전체적으로 '좁은실내(33.8.%)', '혼자 쓸수 있는 방(17.7%)', '부엌개조(17.7%)', '없음(9.9%)', '샤워시설(8.7%)' 순으로 응답하였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2순위에서는 1순위에서와는 달리 성

별로는 유의도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여학생들은 '좁은실내(35.4%)', '부엌개조(20.4%)', '혼자 쓸 수 있는 방(18.5%)', '샤워시설(8.8%)', '없음(8.6%)' 순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남학생들은 '좁은실내(31.7%)', '혼자 쓸 수 있는 방(16.7%)', '부엌개조(14.3%)', '없음(11.6%)', '샤워시설(8.5%)' 순으로 응답하여 성별로 주거시설에 대해 느끼는 불만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급별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체청소년들이 첫 번째로 개선하기 원하는 것은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실내공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화장실과 부엌개조를 원하고 있었다. 부엌개조에서는 여학생들의 응답율이 높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직도 부모를 대신하여 가사일을 돕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III-14> 현재 방을 함께 쓰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혼자	형제	부모님	온 가족	기타	전 체
성별 *	남자	43.4	34.8	8.6	9.4	3.9	(362)100.0
	여자	36.6	46.1	6.0	7.2	4.2	(432)100.0
교급별 **	중학교	34.8	43.9	8.0	8.6	4.8	(561)100.0
	일반고교	58.0	26.9	6.7	5.9	2.5	(119)100.0
	실업고교	44.7	41.2	3.5	8.8	1.8	(114)100.0
전체		39.7	40.9	7.2	8.2	4.0	(794)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청소년들이 누구와 함께 방을 쓰고 있는지 알아 본 결과 '형제자매(40.9%)'와 함께 방을 쓰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혼자(39.7%)', '온가족(8.2%)', '부모님(7.2%)'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로 유의도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혼자

(36.6%)' 방을 쓰는 여학생이 '형제자매(46.1%)'와 함께 방을 쓰는 여학생보다 적은 반면 남학생은 '형제자매(34.8%)'보다는 '혼자(43.4%)' 방을 쓰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유의도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계고교생(58%)', '실업계고교생(44.7%)', '중학생(34.8%)' 순으로 혼자 방을 쓰는 학생이 많았고, 이와는 역순으로 형제자매와 방을 쓰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실업계고교생보다는 일반계고교생이 자신만의 공간을 더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5> 희망하는 공부 장소

단위 : (명)%

구분		사설 독서실	청소년 공부방 I	청소년 공부방 II	학교교실 도서관	구(시)립 도서관	집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15.1	9.6	20.3	12.4	8.0	31.0	3.6	(364)100.0
	여자	13.3	7.9	22.4	10.7	7.7	35.9	2.1	(429)100.0
교급별 ***	중학교	14.3	9.8	22.1	10.5	5.7	35.2	2.3	(560)100.0
	일반고교	20.3	8.5	16.1	21.2	13.6	18.6	1.7	(118)100.0
	실업고교	7.0	3.5	23.5	6.1	12.2	41.7	6.1	(115)100.0
전체		14.1	8.7	21.4	11.5	7.8	33.7	2.8	(793)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청소년들이 어느 곳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지 알아 본 결과 '집(33.7%)'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공부방 II(민간단체가 학습·여가지도와 더불어 학습공간 간혹 급식도 제공함)(21.4%)', '사설독서실(14.1%)', '학교 교실·도서관(11.5%)', '공부방 I(사설독서실과 비슷한 유형의 이용비가 매우 저렴한 정부지원 공부방)(8.7%)'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실업계고교생(41.7%)'과 '중학생(35.2%)'이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 반면, '일반계고교생(21.2%)'은 학교 교실·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또한 실업계고교생은 '공부방Ⅱ(23.5%)', '시립독서실(12.2%)', '사설독서실(7.0%)' 순으로, 중학생은 '공부방Ⅱ(22.1%)', '사설독서실(14.3%)', '학교 교실·도서관(10.5%)' 순으로, 일반계고교생은 '사설독서실(20.3%)', '집(18.6%)', '공부방Ⅱ(16.1%)' 순으로 희망함으로써 선호하는 공부장소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고교생과 중학생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4) 건강 및 의료 실태 및 욕구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발육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내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왜소하다'란 문항을 통해 알아 본 결과 66.8%가 '전혀·별로 아님'이라고 응답함으로써 70% 정도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신체발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술이나 담배를 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청소년 중 52.7%가 '전혀 경험없다'고 응답했으며,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경험에 대해서는 92.3%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술·담배 경험을 해 보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교급별로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중학생, 일반계고교생, 실업계고교생 순으로 경험한 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표 III-16> 신체발육 및 술·담배 경험

단위 (명)%

건강	구분		전혀아님	별로아님	약간그럼	매우그럼	전 체
내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왜소하다	성별	남자	32.1	32.4	27.4	8.0	(361)100.0
		여자	34.7	34.0	23.8	7.4	(432)100.0
	교급별	중학교	34.0	32.6	25.4	8.0	(562)100.0
		일반고교	32.8	36.1	25.2	5.9	(119)100.0
		실업고교	32.1	33.9	25.9	8.0	(112)100.0
	전체		33.5	33.3	25.5	7.7	(793)100.0
술이나 담배를 해 본 적이 있다	성별	남자	48.6	13.1	28.1	10.3	(360)100.0
		여자	56.1	12.5	22.7	8.6	(431)100.0
	교급별 ***	중학교	59.2	11.1	21.5	8.2	(559)100.0
		일반고교	41.2	16.8	34.5	7.6	(119)100.0
		실업고교	32.7	16.8	33.6	16.8	(113)100.0
	전체		52.7	12.8	25.2	9.4	(791)100.0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적이 있다	성별	남자	89.8	6.1	3.0	1.1	(363)100.0
		여자	94.5	2.5	2.3	0.7	(434)100.0
	교급별	중학교	92.9	4.1	2.1	0.9	(565)100.0
		일반고교	90.8	4.2	3.4	1.7	(119)100.0
		실업고교	91.2	4.4	4.4		(113)100.0
	전체		92.3	4.1	2.6	0.9	(797)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청소년들이 최근 6개월 간 걸렸던 질병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기 및 기침잦음'이 52.3%로 가장 많았고, '충치 및 잇몸 관련 질병'이 14.0%, '코·귀 관련 질병'이 13.5%, '피부관련 질병'이 11.3%, '위장 관련 질병'이 11.1% 순으로 앓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간 질병에 걸렸던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9.3%였다.

질병에 걸렸던 경험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결과가 성별, 교급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감기와 피부관련 질병의 경우는 유의도 p<.05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질병에 걸렸던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최근 6개월간 앓은 질병

단위 · (명)%

구분		각종사고로인한질병	감기 및 기침 잦음	코귀 관련 질병	피부	충치 및 잇몸 질환	위장	기타	없음	전 체
성별	남자	4.9	48.5	15.3	8.8	12.6	7.1	4.1	32.1	(365)100.0
	여자	3.2	55.4	12.0	13.3	15.2	14.5	5.5	26.9	(435)100.0
교급별	중학교	4.1	52.8	14.0	12.7	12.4	10.1	5.1	28.6	(566)100.0
	일반고교	2.5	52.1	16.8	7.6	19.3	7.6	4.2	29.4	(119)100.0
	실업고교	5.2	49.6	7.8	7.8	16.5	20.0	4.3	32.2	(115)100.0
전체		(32) 4.0	(418) 52.3	(108) 13.5	(90) 11.3	(112) 14.0	(89) 11.1	(39) 4.9	(234) 29.3	(800)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표 III-18> 치료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치료 받았다	치료 받지 않았다	전 체
성별	남자	54.6	45.4	(238)100.0
	여자	58.2	41.8	(306)100.0
교급별 *	중학교	59.2	40.8	(392)100.0
	일반고교	56.3	43.8	(80)100.0
	실업고교	43.1	56.9	(72)100.0
전체		56.6	43.4	(544)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최근 6 개월간 걸렸던 질병에 대해 치료를 받았는지 알아 본 결과 56.6%의 청소년들이 치료를 받았으며, 43.4%의 청소년들은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유의도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학생, 일반계고교생, 실업계고교생 순으로 치료받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9> 치료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증세가 가벼워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치료 예정임	의료보험을 못내서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52.6	10.5	19.3	4.4	1.8	0.9	10.5	(114)100.0
	여자	50.8	11.5	20.8	1.5	4.6	0.8	10.0	(130)100.0
교급별	중학교	47.4	11.7	20.5	3.5	4.1	1.2	11.7	(171)100.0
	일반고교	68.6	5.7	11.4	2.9	2.9		8.6	(35)100.0
	실업고교	55.3	13.2	26.3				5.3	(38)100.0
전체		51.6	11.1	20.1	9	3.3	0.8	10.2	(244)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치료받지 않은 이유를 알아 본 결과 51.6%의 청소년들이 '증세가 가벼워서'라고 응답했으며, 20.1%가 '시간이 없어서', 11.1%가 '돈이 없어서' 9%가 '거리가 멀어서' 3.3%가 '치료예정임', 0.8%가 '의료보험을 못내서' 순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증세가 심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12%(20명) 정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건강과 관련하여 가족이 갖고 있는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환자로 인한 심리적갈등	경제적 부담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음	간병으로 인한학교 생활 제약	없다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10.1	22.8	4.5	2.2	54.7	5.6	(267)100.0
	여자	9.1	19.5	4.3	2.1	58.5	6.4	(328)100.0
교급별	중학교	10.6	18.4	5.2	2.4	57.2	6.4	(425)100.0
	일반고교	6.9	24.1	1.1	1.1	60.9	5.7	(87)100.0
	실업고교	7.2	31.3	3.6	2.4	50.6	4.8	(83)100.0
전체		9.6	21.0	4.4	2.2	56.8	6.1	(595)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건강과 관련하여 가족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56.8%의 청소년들이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21.0%가 '경제적 부담', 9.6%가 '환자로 인한 심리적 갈등', 4.4%가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음', 2.2%가 '간병으로 인한 학교생활 제약'으로 응답해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25.4%(15명)이고, 심리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11.8%(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경제생활 및 욕구

<표 III-21> 한달 평균 용돈

단위 (명)%

구분		없다	1만원 미만	1~2 만원	3~4 만원	5~9 만원	10~14 만원	15~19 만원	20만원 이상	전 체
성별	남자	22.9	0.6	3.6	2.1	4.5	11.6	4.8	50.0	(336)100.0
	여자	21.8	1.5	2.7	2.7	4.2	15.7	5.1	46.3	(408)100.0
교급별 *	중학교	22.2	1.3	3.6	2.8	4.9	15.4	6.4	43.3	(531)100.0
	일반고교	20.7		0.9	1.8	2.7	9.9		64.0	(111)100.0
	실업고교	24.5	1.0	2.9	1.0	2.9	9.8	2.9	54.9	(102)100.0
전체		22.3	1.1	3.1	2.4	4.3	13.8	5.0	48.0	(744)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청소년들이 학습에 필요한 교재비, 학원비 등을 제외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지 한달 평균 용돈액을 알아본 결과 22.3%의 청소년이 '용돈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만원 미만~4만원'이 6.6%, '5만원~9만원'이 4.3%, '10만원~14만원'이 13.8%, '15만원~19만원'이 5.0%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용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응답 중 비상식적인 액수, 즉 '20만원 이상'이 48%나 나타나 성실한 응답이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희망용돈에서 '20만원 이상'을 원한 청소년들이 4.8%에 불과하

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용돈액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참고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용돈 만족도에 대해 알아 본 결과 '부족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4.8%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가 25.6%, '매우 부족하다'가 18.8%, '약간 넉넉하다'가 10.5%, '매우 넉넉하다'가 10.3%로 나타나 53.6%의 청소년들이 용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현재의 용돈액에 관련된 앞 문항에서의 응답결과와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들이 용돈액수에 대해 응답하는데 있어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은가 추측된다.

<표 III-22> 용돈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넉넉하다	약간 넉넉하다	적당하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	전 체
성별	남자	11.9	8.4	25.0	35.8	18.9	(344)100.0
	여자	9.0	12.2	26.2	33.9	18.7	(401)100.0
교급별	중학교	11.3	10.2	24.3	33.3	20.8	(538)100.0
	일반고교	8.6	14.3	30.5	37.1	9.5	(105)100.0
	실업고교	6.9	7.8	27.5	40.2	17.6	(102)100.0
전체		10.3	10.5	25.6	34.8	18.8	(745)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청소년들이 한달 희망용돈으로 원하는 금액을 알아본 결과 '3~4만원'이 31.3%로 가장 많았고, '1~2만원(23.3%)', '5~9만원(24.3%)' '10~14만원(8.8%)', '1만원 미만(6.1%)', '15~19만원(4.8%)'순으로 나타났고, '20만원 이상'도 4.8%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는 '3~4만원(32.1%)', '1~2만원(27.8%)', '5~9만원(22.1%)', '1만원 미만(6.9%)', '10~14만원

(6.7%)' 순으로 응답했고, 일반계고교생의 경우는 '5~9만원(29.5%)', '3~4만원(26.7%), '1~2만원(16.2%)', '10~14만원(15.2%)' 순으로 응답했으며 실업계고교생의 경우는 '3~4만원(31.6%), '5~9만원(30.5%)', '10~14만원(12.6%)', '1~2만원(7.4%)' 순으로 응답하여 희망하는 용돈의 액수가 일반계고교생, 실업계고교생, 중학생 순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III-23> 한달 희망 용돈

단위 (명)%

구분		1만원 미만	1~2 만원	3~4 만원	5~9 만원	10~14 만원	15~19 만원	20만원 이상	전 체
성별	남자	6.0	23.3	29.0	23.7	10.4	1.6	6.0	(317)100.0
	여자	6.2	23.4	33.2	24.9	7.4	1.4	3.8	(390)100.0
교급별 ***	중학교	6.9	27.8	32.1	22.1	6.7	0.4	3.9	(507)100.0
	일반고교	2.9	16.2	26.7	29.5	15.2	3.8	5.7	(105)100.0
	실업고교	5.3	7.4	31.6	30.5	12.6	4.2	8.4	(95)100.0
전체		6.1	23.3	31.3	24.3	8.8	1.4	4.8	(707)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표 III-24> 용돈 희망 사용처

단위 : (명)%

구분		의복비	문화교양비	교제비	오락비	외식비	기타	전 체
성별 ***	남자	32.0	20.1	20.3	11.6	8.4	7.6	(344)100.0
	여자	49.9	20.1	14.8	2.3	8.3	4.8	(399)100.0
교급별 *	중학교	41.2	17.5	17.2	8.0	9.1	6.9	(536)100.0
	일반고교	38.3	29.9	16.8	2.8	7.5	4.7	(107)100.0
	실업고교	47.0	23.0	19.0	3.0	5.0	3.0	(100)100.0
전체		41.6	20.1	17.4	6.6	8.3	6.1	(743)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용돈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무엇에 가장 먼저 사용하고 싶은가'란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41.6%가 '의복비'에 사용하겠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

였으며, '문화교양비(20.1%)', '교제비(17.4%)', '외식비(8.3%)', '오락비(6.6%)' 순으로 희망하였다.

성별로는 유의도 p<.001 수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과 큰 차이를 보이는 사용처는 '의복비'와 '오락비'였는데 여학생들이 의복비에 17.9% 많이 응답한 반면, 남학생들은 오락비에 9.3%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교제비'에서도 5.5%정도의 남학생이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도 유의도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다른 교급 학생들보다 많이 원한 것은 '오락비'와 '외식비'였고, 일반계고교생들은 '문화교양비'를, 실업계고교생들은 '의복비'와 '교제비'에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25>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단위 (명)%

구분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전 체
성별	남자	41.3	58.7	(358)100.0
	여자	37.6	62.4	(431)100.0
교급별 ***	중학교	37.7	62.3	(557)100.0
	일반고교	28.6	71.4	(119)100.0
	실업고교	58.4	41.6	(113)100.0
전체		39.3	60.7	(789)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아르바이트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39.3%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실업계고교생'이 58.4%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37.7%였으며, 일반계고교생'이 28.6%로 가장 적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한달 평균 아르바이트 수입은 '1만원 미만'이 25.5%로 가장 많았고, '1~2만원'이 22.9%, '3~4만원'이 11.6%, '5~9만원'이 9.1%, '10~14만원'이 5.8%, '15~19만원'이 4.0%, '20만원이상'이 21.1%로 나타나 60% 정도의 청소년들이 한달 평균 4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6> 한달 평균 아르바이트 수입

단위 . (명)%

구분		1만원 미만	1~2 만원	3~4 만원	5~9 만원	10~14 만원	15~19 만원	20만원 이상	전 체
성별	남자	19.7	22.0	11.0	11.0	7.1	5.5	23.6	(127)100.0
	여자	30.4	23.6	12.2	7.4	4.7	2.7	18.9	(148)100.0
교급별 ***	중학교	33.7	28.3	12.5	7.6	4.3	2.2	11.4	(184)100.0
	일반고교	6.7	16.7	3.3	13.3	6.7	6.7	46.7	(30)100.0
	실업고교	9.8	9.8	13.1	11.5	9.8	8.2	37.7	(61)100.0
전체		25.5	22.9	11.6	9.1	5.8	4.0	21.1	(275)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는 '1만원 미만(33.7%)', '1~2만원(28.3%)', '3~4만원(12.5%)' 순으로 나타나 74.7%가 '1~4만원'사이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반계고교생'의 경우는 '20만원이상(46.7%)'이 가장 많았고 '1~2만원(16.7%)', '5~9만원(13.3%)'대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실업고교생의 경우는 '20만원이상(37.7%)'이 일반계고교생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3~4만원(13.1%)', '5~9만원(11.5%)'이 조금 높을 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는지 그 유형을 알아 본 결과 '광고지 배포'가 54.0%로 가장 많았고, '음식서빙(13.3%)', '신문배달(10.3%)', '음식배달(6.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가 15.3%로 적지 않게

응답하였는데 '팬시점', '공사장이나 공장', '옷가게', '안마'의 경우도 있었다.

성별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광고지배포가 가장 많았는데 '신문배달', '음식배달', '주유소 주유원'에서는 남학생이 많았고, '음식서빙'에서는 여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도 차이를 보여 '광고지 배포'가 중학생이 월등히 높아 68.4%를 보이는 반면 실업계 고교생은 '음식서빙'이 32.8%로 다른 교급보다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반계고교생의 경우는 다른 교급보다 '신문배달'이 1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60% 이상의 중학생들이 간헐적인 광고지 배포를 주 아르바이트로 한다는 사실은 한달 평균 아르바이트 수입이 4만원 이하인 청소년들이 60%로 나타난 조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 III-27> 아르바이트 유형

단위 (명)%

구분		신문배달	주유소 주유원	물품판매	가스배달	음식배달	음식서빙	광고지배포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16.8	8.4	3.5	0.7	10.5	5.6	46.9	18.2	(143)100.0
	여자	4.5	1.3	2.5	0.0	1.9	20.4	60.5	12.7	(157)100.0
교급별	중학교	8.6	1.0	1.4	0.0	5.7	7.7	68.4	11.5	(209)100.0
	일반고교	18.2	9.1	3.0	0.0	6.1	15.2	27.3	33.3	(33)100.0
	실업고교	12.1	15.5	8.6	1.7	6.9	32.8	17.2	19.0	(58)100.0
전체		10.3	4.7	3.0	0.3	6.0	13.3	54.0	15.3	(300)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용돈이 필요해서'가 52.2%로 가장 많았고, '친구와 즐기기 위해'가 21.2%, '생활비'가 6.7%, '등록금·학원비'가 5.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표 III-28> 아르바이트 동기

단위 · (명)%

구분		용돈 필요	등록금 학원비	생활비	친구와 즐김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56.0	5.7	5.7	20.6	12.1	(141)100.0
	여자	48.7	4.5	7.7	21.8	17.3	(156)100.0
교급별 ***	중학교	49.8	4.3	4.3	26.1	15.5	(207)100.0
	일반고교	53.1	9.4		12.5	25.0	(32)100.0
	실업고교	60.3	5.2	19.0	8.6	6.9	(58)100.0
전체		52.2	5.1	6.7	21.2	14.8	(297)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은 '실업계고교(60.3%)', '일반계고교(53.1%)', '중학교(49.8%)' 순으로 많았고, '친구와 즐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은 '중학교(26.1%)', '일반계고교(12.5%)', '실업계고교(9.6%)'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실업계고교의 경우는 '생활비'를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이 19.0%나 되었다.

4. 저소득층청소년의 관계욕구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서로 교환하려고 한다. 즉 관계욕구는 사회관계 및 대인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타인과의 관계가 중심을 이룬다. Maslow 이론에서는 안전의 욕구 중 대인관계에서의 안전, 사회적 욕구 중 애정 및 소속감, 그리고 존경의 욕구 중 대인관계에서의 자존심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의 대인관계 실태 및 욕구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와의 관계실태 및 욕구

5문항으로 알아 본 아버지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에 대해서는 '약간·매우 그럼'에 87.1% '전혀·별로 아님'에 12.9%가 응답해 90%에 조금 못 미치는 청소년들이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로는 유의도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9.9%)보다 많은 수의 남학생(16.7%)이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크게 잘못 안 해도 자주 야단치신다'에 대해서는 '전혀·별로 아님'에 66.9% '약간·매우 그럼'에 33.1%가 응답해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응답한 응답율에 비해 아버지의 훈육방침에 대해서는 20%정도의 청소년이 더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신다'에 대해서는 '약간·매우 그럼'에 83.7% '전혀·별로 아님'에 16.3%가 응답해 80%가 넘는 청소년들이 아버지의 성실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문항 역시 성별, 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와 자주 대화하신다'에 대해서는 '전혀·별로 아님'에 45.6% '약간·매우 그럼'에 54.4%가 응답해 과반수 정도의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 문항 중에서는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에 대해서는 '약간·매우 그럼'에 86.4% '전혀·별로 아님' 13.6%가 응답해 90%에 조금 못 미치는 청소년들이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비율로 자신도 아버

<표 III-29> 아버지와의 관계

단위 : (명)%

부관계	구분		전혀아님	별로아님	약간그럼	매우그럼	전 체
아버지는 나를 사랑 하신다	성별 *	여자	3.7	6.2	24.4	65.8	(406)100.0
		남자	7.6	9.1	27.6	55.8	(330)100.0
	교급별	중학교	6.1	6.9	25.8	61.3	(524)100.0
		일반고교	2.7	6.3	28.8	62.2	(111)100.0
		실업고교	5.0	11.9	22.8	60.4	(101)100.0
	전체		5.4	7.5	25.8	61.3	(736)100.0
크게잘못 안 해 도 자주 야단 치신다	성별	여자	32.1	35.8	23.7	8.4	(405)100.0
		남자	31.9	33.7	27.4	7.0	(329)100.0
	교급별	중학교	33.8	33.8	25.0	7.3	(523)100.0
		일반고교	29.7	39.6	22.5	8.1	(111)100.0
		실업고교	25.0	35.0	30.0	10.0	(100)100.0
	전체		32.0	34.9	25.3	7.8	(734)100.0
가족을 위해 열심히 생활 하신다	성별	여자	7.4	7.2	24.8	60.5	(403)100.0
		남자	6.8	11.5	25.8	55.9	(322)100.0
	교급별	중학교	7.6	7.8	25.2	59.4	(515)100.0
		일반고교	2.7	14.5	22.7	60.0	(110)100.0
		실업고교	10.0	10.0	28.0	52.0	(100)100.0
	전체		7.2	9.1	25.2	58.5	(725)100.0
나와 자주 대화 하신다	성별	여자	11.6	33.7	34.5	20.2	(406)100.0
		남자	15.6	30.4	35.0	19.0	(326)100.0
	교급별	중학교	13.4	32.4	33.2	20.9	(521)100.0
		일반고교	9.0	36.0	36.0	18.9	(111)100.0
		실업고교	18.0	27.0	41.0	14.0	(100)100.0
	전체		13.4	32.2	34.7	19.7	(732)100.0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성별	여자	4.0	7.4	26.8	61.8	(403)100.0
		남자	4.0	12.3	25.6	58.0	(324)100.0
	교급별	중학교	4.1	9.3	24.9	61.8	(518)100.0
		일반고교	1.8	8.2	30.9	59.1	(110)100.0
		실업고교	6.1	13.1	28.3	52.5	(99)100.0
	전체		4.0	9.6	26.3	60.1	(727)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지를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리해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90%에 조금 못 미치는 청소년들이 아버지와의 애정관계를 상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성실성에 대해서도 80%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훈육방법에서는 66.9%, 대화정도에서는 54.4%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신다'에 대해서는 '약간·매우 그럼'에 90.3% '전혀·별로 아님'에 9.7%가 응답해 90%가 넘는 청소년들이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보다는 3%정도가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크게 잘못 안해도 자주 야단치신다'에 대해서는 '전혀·별로 아님'에 60.2% '약간·매우 그럼'에 39.9%가 응답해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응답한 응답율에 비해 어머니의 훈육방침에 대해서는 30%정도의 청소년이 더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아버지의 훈육방침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율보다 6.7%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훈육방법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신다'에 대해서는 '약간·매우 그럼'에 89.9% '전혀·별로 아님' 10.2%가 응답해 90% 정도의 청소년들이 어머니의 성실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문항 역시 성별, 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30> 어머니와의 관계

단위 : (명)%

부관계	구분		전혀아님	별로아님	약간그럼	매우그럼	전 체
어머니는 나를 사랑 하신다	성별	여자	3.8	5.2	16.9	74.1	(425)100.0
		남자	3.9	6.8	20.2	69.0	(336)100.0
	교급별	중학교	4.6	5.9	18.0	71.5	(540)100.0
		일반고교	0.9	3.5	19.5	76.1	(113)100.0
		실업고교	2.8	8.3	19.4	69.4	(108)100.0
	전체		3.8	5.9	18.4	71.9	(761)100.0
크게잘못 안 해 도 자주 야단 치신다	성별	여자	28.4	33.3	26.2	12.1	(423)100.0
		남자	23.6	34.6	31.9	9.9	(335)100.0
	교급별	중학교	27.7	32.8	27.7	11.7	(537)100.0
		일반고교	22.1	38.1	32.7	7.1	(113)100.0
		실업고교	23.1	35.2	29.6	12.0	(108)100.0
	전체		26.3	33.9	28.8	11.1	(758)100.0
가족을 위해 열심히 생활 하신다	성별	여자	4.7	3.8	19.1	72.3	(423)100.0
		남자	5.1	7.1	20.5	67.3	(336)100.0
	교급별	중학교	5.2	5.8	19.1	69.9	(539)100.0
		일반고교	1.8	1.8	19.5	77.0	(113)100.0
		실업고교	6.5	6.5	23.4	63.6	(107)100.0
	전체		4.9	5.3	19.8	70.1	(759)100.0
나와 자주 대화 하신다	성별 **	여자	5.9	14.1	30.4	49.6	(425)100.0
		남자	8.1	21.2	34.0	36.7	(335)100.0
	교급별	중학교	7.8	17.0	30.6	44.6	(540)100.0
		일반고교	3.5	15.0	36.3	45.1	(113)100.0
		실업고교	5.6	20.6	34.6	39.3	(107)100.0
	전체		6.8	17.2	32.0	43.9	(760)100.0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성별	여자	4.5	4.5	16.1	74.9	(423)100.0
		남자	4.5	6.5	22.3	66.7	(336)100.0
	교급별	중학교	5.4	5.6	17.1	72.0	(539)100.0
		일반고교	1.8	4.4	23.0	70.8	(113)100.0
		실업고교	2.8	5.6	23.4	68.2	(107)100.0
	전체		4.5	5.4	18.8	71.3	(759)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어머니는 나와 자주 대화하신다'에 대해서는 '전혀·별로 아님'에 24% '약간·매우 그럼'에 75.9%가 응답해 4분의3이 넘는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대화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4%가 아버지와 대화를 자주 나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에 비하면 어머니와의 대화가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별로 유의도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어머니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에 대해서는 '약간·매우 그럼'에 90.1% '전혀·별로 아님' 9.9%가 응답해 90%가 넘는 청소년들이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비율로 자신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리해 보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90%가 넘는 청소년들이 어머니와의 애정관계를 상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성실성에 대해서도 90%에 정도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의 대화정도 역시 75.9%로 아버지와의 대화정도(54.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훈육방법(39.9%)에서는 아버지의 훈육방법(33.1%)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묻는 다음 문항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24.7%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씩 순서대로 선택하게 한 결과 첫 번째 문제로 24.7%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꼽았으며, '경제곤란(19.5%)', '부모부재(10.3%)', '부모불화(8.2%)', '부모음주(6.1%)' 순으로 응답했다. 15.1%가 응답한 '기타'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 1

단위 : (명)%

구분		부모 부재	부모 불화	부모 지나친 간섭	부모 무 관심	부모 실직	부모 음주	가족 질병	식구 가출	경제 곤란	가족 폭력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14.7	9.5	22.9	3.3	5.2	6.2	4.6	1.0	16.7	0.7	15.4	(306)100.0
	여자	6.5	7.0	26.2	3.9	4.8	5.9	5.6	1.1	22.0	2.0	14.9	(355)100.0
교급별	중학교	10.5	7.7	24.9	3.8	4.0	6.5	5.6	1.3	18.6	1.5	15.7	(478)100.0
	일반 고교	7.1	8.3	26.2	6.0	6.0	2.4	4.8	1.2	19.0	1.2	17.9	(84)100.0
	실업 고교	12.1	10.1	22.2	1.0	9.1	7.1	3.0		24.2	1.0	10.0	(99)100.0
전체		10.3	8.2	24.7	3.6	5.0	6.1	5.1	1.1	19.5	1.4	15.1	(661)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표 III-32>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 2

단위 : (명)%

구분		부모 부재	부모 불화	부모 지나친 간섭	부모 무 관심	부모 실직	부모 음주	가족 질병	식구 가출	경제 곤란	가족 폭력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1.9	4.8	7.1	5.2	4.3	11.4	5.2	1.9	45.7	5.2	7.1	(210)100.0
	여자	0.9	3.2	5.4	5.9	2.3	10.4	5.9	2.7	43.2	6.3	14.0	(222)100.0
교급별	중학교	1.3	4.2	6.2	4.9	4.2	10.1	5.9	2.3	43.0	6.8	11.1	(307)100.0
	일반 고교	2.0	2.0	7.8	7.8	2.0	19.6	2.0		47.1	2.0	7.8	(51)100.0
	실업 고교	1.4	4.1	5.4	6.8		8.1	6.8	4.1	48.6	4.1	10.8	(74)100.0
전체		1.4	3.9	6.3	5.6	3.2	10.9	5.6	2.3	44.4	5.8	10.6	(432)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서 겪는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곤란(44.4%)'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부모음주(10.9%)', '부모

의 지나친 간섭(6.3%)', '가족폭력(5.8%)'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어려움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경제곤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5%가 넘었다.

그러나 두 가지 선택한 어려움들을 합산해 응답 전체청소년 800명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볼 때 '경제곤란(40.1%)', '부모의 지나친 간섭(23.8%)', '부모음주(10.9%)', '부모부재(9.2%)', '부모불화(8.8%)' 등의 순으로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참여여부

단위 · (명)%

구분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전 체
성별	남자	43 1	56.9	(362)100.0
	여자	48.8	51.2	(434)100.0
교급별 *	중학교	47.2	52.8	(564)100.0
	일반고교	52.1	47.9	(119)100.0
	실업고교	35 4	64.6	(113)100.0
전체		46.2	53 8	(796)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지역사회 기관에서 캠프나 스포츠활동 등 부모님과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경우 참여하겠는지 알아 본 결과 46.2%의 청소년만이 참여하고 53.8%의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유의도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교가 64.6%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불참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중학교 52.8%, 일반고교 47.9%로 나타났다.

<표 III-34>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불참이유

단위 : (명)%

구분		흥미가 없어서	부모님이 바빠서	부모와 함께 하는것이 창피해서	프로그램이 식상할 것 같아	참가 비용이 부담스러워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44.3	26.0	6.8	5.2	7.3	10.4	(192)100.0
	여자	41.4	29.5	8.6	4.3	7.6	8.6	(210)100.0
교급별	중학교	44.1	26.9	7.0	3.5	8.7	9.8	(286)100.0
	일반고교	39.6	31.3	12.5	10.4	2.1	4.2	(48)100.0
	실업고교	39.7	29.4	7.4	5.9	5.9	11.8	(68)100.0
전체		42.8	27.9	7.7	4.7	7.5	9.5	(402)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흥미가 없어서(42.8%)'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부모님이 바빠서(27.9%)',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창피해서(7.7%)', '참가비용이 부담스러워서(7.5%)'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청소년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홍보전략과 학교나 관련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바쁜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조절 및 프로그램기간에 대한 고려 등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와 함께 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만의 단기여행(32.1%)'을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선택했고, 다음으로는 '공연·콘서트관람(23.2%)', '가족의 화목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17.5%)', '여러 가족과 함께 하는 캠프·야유회(15.1%)', '레포츠·스포츠활동(10.4%)' 순으로 응답하여 비교적 모든 프로그램을 고루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성별로는 유의도 p<.05

수준에서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여학생들은 '가족만의 단기여행(35.5%)', '공연·콘서트관람(23.5%)', '여러 가족이 함께 하는 캠프·야유회(17.5%)', '가족의 화목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16.1%)', '레포츠·스포츠활동(6.0%)' 순으로 응답하였고, 남학생은 '가족만의 단기여행(27.7%)', '공연·콘서트관람(22.9%)', '가족의 화목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19.3%)', '레포츠·스포츠활동(16.3%)', '여러 가족과 함께 하는 캠프·야유회(12.0%)', 순으로 응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이 선호하는 활동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III-35> 부모와 함께 하고 싶은 프로그램

단위 : (명)%

구분		가족의 화목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공연 콘서트 관람	우리 가족만의 단기여행	여러 가족과 함께 하는 캠프야유회	레포츠 스포츠 활동	기타	전 체
성별 *	남자	19.3	22.9	27.7	12.0	16.3	1.8	(166)100.0
	여자	16.1	23.5	35.5	17.5	6.0	1.4	(217)100.0
교급별	중학교	17.4	23.9	33.3	13.4	10.5	1.4	(276)100.0
	일반고교	20.6	22.2	28.6	15.9	9.5	3.2	(63)100.0
	실업고교	13.6	20.5	29.5	25.0	11.4		(44)100.0
전체		17.5	23.2	32.1	15.1	10.4	1.6	(383)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2) 학교교사와의 관계실태 및 욕구

학교교사와의 관계는 앞선 관계의 문항 내용과 좀 다르긴 하지만, 가족외 관계라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보다는 덜 친화적이고,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선생님과의 관계

단위 . (명)%

부관계	구분		전혀아님	별로아님	약간그럼	매우그럼	전 체
나에게 무관심 하시다	성별 *	여자	28.2	39.5	26.6	5.8	(433)100.0
		남자	32.9	38.4	19 8	8.9	(359)100.0
	교급별	중학교	31.6	38 4	22.4	7.6	(563)100 0
		일반고교	26.3	44 1	25 4	4.2	(118)100 0
		실업고교	27.9	36.9	27 0	8.1	(111)100.0
	전체		30 3	39.0	23.5	7 2	(792)100.0
나를 존중해 주신다	성별	여자	11.3	33.3	37 2	18.2	(433)100 0
		남자	12.6	26 5	41.9	19 0	(358)100.0
	교급별	중학교	12 6	29.9	39.1	18.3	(562)100.0
		일반고교	5.9	28 0	47.5	18.6	(118)100.0
		실업고교	14.4	34 2	31.5	19.8	(111)100.0
	전체		11.9	30 2	39.3	18.6	(791)100.0
나와 자주 대화를 나누신다	성별	여자	23.8	43 0	22.6	10 6	(433)100.0
		남자	18 2	44.3	26 9	10.6	(357)100 0
	교급별	중학교	21.1	42 1	25.4	11.4	(560)100.0
		일반고교	19 5	47.5	25.4	7 6	(118)100.0
		실업고교	24.1	46.4	19.6	9.8	(112)100.0
	전체		21.3	43 5	24.6	10 6	(790)100.0
선생님과 자주 의견이 대립된다	성별	여자	31 0	40.1	19 2	9 6	(426)100 0
		남자	32 9	39.8	18 7	8.6	(359)100 0
	교급별	중학교	32 0	38 7	20.5	8 8	(556)100.0
		일반고교	31.4	44 9	15.3	8 5	(118)100 0
		실업고교	31 5	41.4	15 3	11 7	(111)100.0
	전체		31.8	40 0	19.0	9 2	(785)100 0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성별 **	여자	20.3	15 4	30.6	33.6	(434)100 0
		남자	26.3	21.8	26 9	24.9	(357)100.0
	교급별 **	중학교	27 5	16.6	27.3	28.7	(561)100 0
		일반고교	12 7	23.7	33.1	30.5	(118)100 0
		실업고교	11.6	21.4	33 0	33 9	(112)100.0
	전체		23.0	18.3	29.0	29 7	(791)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선생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시다'에 대해서는 '전혀·별로 아님'에 69.3% '약간·매우 그럼'에 30.7%가 응답해 70% 정도의 청소년들이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른 존중해 주신다'에 대해서는 '매우·약간 그럼'에 57.9% '전혀·별로 아님'에 42.1%가 응답해 과반수가 조금 넘는 청소년만이 선생님이 자신을 존중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과 자주 대화를 나눈다'에 대해서는 '전혀·별로 아님'에 64.8% '약간·매우 그럼'에 35.2%가 응답해 3분의1 정도의 청소년들만이 선생님과 대화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54.4%)와 어머니(75.9%)와 대화를 자주 나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에 비하면 아주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과 자주 의견이 대립된다'에 대해서는 '전혀·별로 아님'에 71.8%가 '약간·매우 그럼'에 28.2%가 응답해 30% 정도의 청소년들만이 선생님과 의견이 대립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문항 역시 성별, 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는 '약간·매우 그럼'에 58.7% '전혀·별로 아님'에 41.3%가 응답해 6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유의도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12%정도 많이 응답하였다. 교급별로는 '실업고등학교(66.9%)', '일반계고등학교(63.6%)', '중학교(56%)' 순으로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선생님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70% 정도의 청소년들이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선생님과 의견대립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6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50%가 조금 넘는 청소년들이 선생님이 자신을 존중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3분의1 정도의 청소년들만이 선생님과 대화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54.4%)와 어머니(75.9%)와 대화를 자주 나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에 비하면 아주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표 III-37> 원하는 교사상

단위 (명)%

구분		학생을 차별하지않고 존중해 주는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진로등 어려움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선생님	나를 이해해주는친구같은 다정한 선생님	기타	없다	전 체
성별	남자	31.8	8.3	14.4	33.7	4.4	7.5	(362)100.0
	여자	36.0	8.3	13.9	34.2	2.5	5.1	(433)100.0
교급별 ***	중학교	36.2	8.0	10.1	34.6	4.3	6.7	(563)100.0
	일반고교	25.2	14.3	25.2	30.3	1.7	3.4	(119)100.0
	실업고교	32.7	3.5	22.1	34.5	0.9	6.2	(113)100.0
전체		34.1	8.3	14.1	34.0	3.4	6.2	(795)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사상으로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선생님(34.1%)'과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같은 다정한 선생님(34.0%)'이 거의 같은 비율로 가장 많았고, '진로 등 어려움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선생님(14.1%)',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8.3%)'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교급별로는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선생님(36.2%)'과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같은 다정한 선생님(34.6%)'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3분의1 이상을 차지했고, '진로 등 어려움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선생님(10.1%)',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8.0%)' 순으로 원하는 교사상을 응답했다.

실업계고교생의 경우에는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같은 다정한 선생님(34.5%)'이 가장 많았고,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선생님(32.7%)', '진로 등 어려움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선생님(22.1%)',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3.5%)' 순으로 응답해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과공부보다는 자신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생보다는 확실히 장래 문제인 진로 등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선생님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고교생의 경우는 이보다 더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같은 다정한 선생님(30.3%)'이 가장 많았고,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선생님(25.2%)', '진로 등 어려움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선생님(25.2%)',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14.3%)' 순으로 응답해 실업계고교생과 원하는 교사상에 대한 서열은 같았지만 그 비율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생님보다는 진로나 학과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더 많은 학생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친구관계 실태 및 욕구

친구와의 관계 중 우선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린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전혀 · 별로 아님'에 88.8%의 청소년들이 응답하여 대

<표 III-38> 교우 관계

단위 · (명)%

부관계	구분		전혀아님	별로아님	약간그럼	매우그럼	전 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린다	성별	여자	67.8	22.8	6.4	3.0	(435)100.0
		남자	65.1	21.6	8.3	5.0	(361)100.0
	교급별	중학교	68.7	19.3	7.8	4.2	(565)100.0
		일반고교	61.9	28.8	6.8	2.5	(118)100.0
		실업고교	61.1	30.1	5.3	3.5	(113)100.0
	전체		66.6	22.2	7.3	3.9	(796)100.0
나는 친구들을 좋아한다	성별 *	여자	2.8	6.9	29.5	60.8	(434)100.0
		남자	4.4	7.5	36.8	51.2	(361)100.0
	교급별	중학교	4.4	6.9	30.5	58.2	(564)100.0
		일반고교	1.7	6.8	41.5	50.0	(118)100.0
		실업고교	0.9	8.8	35.4	54.9	(113)100.0
	전체		3.5	7.2	32.8	56.5	(795)100.0
나와같은 생각과 감정을 갖고있는 친구들이 많다	성별 **	여자	3.7	17.9	46.3	32.1	(430)100.0
		남자	7.3	22.4	47.9	22.4	(357)100.0
	교급별	중학교	6.6	19.7	46.8	26.9	(558)100.0
		일반고교	2.5	17.8	48.3	31.4	(118)100.0
		실업고교	1.8	23.4	46.8	27.9	(111)100.0
	전체		5.3	19.9	47.0	27.7	(787)100.0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 하는 이성친구가 있다	성별	여자	41.5	23.5	17.9	17.0	(429)100.0
		남자	40.8	21.7	20.3	17.2	(355)100.0
	교급별	중학교	43.2	21.8	18.3	16.7	(556)100.0
		일반고교	36.8	27.4	18.8	17.1	(117)100.0
		실업고교	36.0	22.5	22.5	18.9	(111)100.0
	전체		41.2	22.7	19.0	17.1	(784)100.0
나는 좋아하는 이성친구들이 많다	성별	여자	29.6	29.8	24.4	16.2	(426)100.0
		남자	31.3	32.7	21.1	14.9	(355)100.0
	교급별	중학교	31.9	31.0	21.7	15.4	(552)100.0
		일반고교	25.6	34.2	28.2	12.0	(117)100.0
		실업고교	27.7	28.6	23.2	20.5	(112)100.0
	전체		30.3	31.1	22.9	15.6	(781)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부분의 청소년들은 친구들이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는 친구들을 좋아한다'라는 문항을 통해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89.3%가 '매우·약간 그럼'이라고 응답함으로써 90% 정도의 청소년들이 교우관계가 상호 긍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급별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로는 유의도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다.

'나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문항을 통해 친구와의 공감대 형성에 대해 알아 본 결과 74.7%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유의도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친구간의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성친구간의 신뢰도 및 친밀감을 알아보기 위해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이성친구가 있다'과 '나는 좋아하는 이성친구들이 많다'라는 문항에 응답하게 한 결과 36.1%과 38.5%의 청소년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3분의 1정도의 청소년만이 이성친구와 신뢰감 및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친구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51.5%)'가 월등히 많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20.8%)', '나에게 모범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12.2%)',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1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4.3%로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 나를 무시하지 않는 친구', '친구면 다 좋다', '내가 필요한 친구'등이 있었다.

교급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로는 유의도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를 더 많이 원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들은 '즐겁

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를 더 높은 비율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들이 '나에게 모범이 되어 줄 수 있는 친구'를 더 원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더 많이 원하고 있었다.

<표 III-39> 친구에게 바라는 역할

단위 : (명)%

구분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해결하기위해 노력하는친구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나에게 모범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기타	전 체
성별 **	남자	46.2	12.7	26.3	10.7	4.1	(338)100.0
	여자	56.4	9.6	16.2	13.5	4.4	(408)100.0
교급별	중학교	49.6	12.2	22.3	11.3	4.6	(524)100.0
	일반고교	61.7	11.3	13.0	11.3	2.6	(115)100.0
	실업고교	51.4	4.7	21.5	17.8	4.7	(107)100.0
전체		51.7	11.0	20.8	12.2	4.3	(746)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표 III-40> 일주일간 학교 밖의 장소에서 친구와 만나는 횟수

단위 . (명)%

구분		없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상	전 체
성별	남자	5.6	17.6	17.6	9.7	6.5	11.5	5.6	16.5	9.4	(340)100.0
	여자	4.4	18.0	19.3	15.6	4.9	10.4	7.7	14.3	5.4	(405)100.0
교급별 *	중학교	5.6	15.6	16.0	13.2	6.2	11.3	7.3	16.0	8.7	(531)100.0
	일반고교	5.4	25.9	28.6	8.9	2.7	10.7	3.6	11.6	2.7	(112)100.0
	실업고교	1.0	20.6	20.6	15.7	5.9	8.8	6.9	15.7	4.9	(102)100.0
전체		5.0	17.9	18.5	12.9	5.6	10.9	6.7	15.3	7.2	(745)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청소년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 외의 장소에서 몇 번이나 만나는 지 알아보았는데 '2번(18.5%)' 만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1번(17.9%)', '7번(15.3%)', '3번(12.9%)', '5번(10.9%)', '6번(6.7%)', '4번(5.6%)', '없다(5.0%)'로 1주일에 한 번도 친구를 만나지 않는 청소년의 수가 가장 적었다. 따라서 일주일에 1~3번 정도 친구를 만나는 청소년들이 50% 정도이고 하루에 한 번씩 친구를 만나는 청소년들도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별차이가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유의도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순으로 비교하여 보면 '1~2번'이 31.6%, 54.5%, 41.2% 이었고, '3~4번'이 19.4%, 11.6%, 21.6%, '5~6번'이 19%, 14.3%, 15.7%, '7번'이 16%, 11.6%, 15.7%으로 나타나 중학생, 실업계고교생, 일반계고교생 순으로 친구를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어디에서 자주 어울리는지 알아보았는데 '친구집(80명)'으로 가장 많았고, 'PC방(72명)', '시내(56명)', '동네(39명)', '오락실(36명)', '집(36명)', '노래방(33명)', '학원(20명)', '공부방(20명)', '복지관(15명)'순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놀이터, 영화관, 농구장, 교회, 등이 있었다. 즉 청소년들은 친구집에서 가장 많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음으로 PC방이나 오락실, 노래방, 시내, 학원, 공부방이나 복지관에서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사회 관계실태 및 욕구

방과후 주로 누구와 함께 보내는 지 알아본 결과 '형제자매(26.5%)'와 보내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고, '홀로(21.3%)', '어머니(11.9%)', '조부모(5.0%)', '복지관(5.0%)' 순으로 나타났다. 26%를 차지하는 '기타'의 대부분은 친구였다. 이외에 가족, 컴퓨터, 이모, 학원, 선배들, 학원사람들, 애완

견 등이 있었다.

<표 III-41> 방과후 주로 함께 보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척어른	이웃집	복지관	홀로	기타	전 체
성별 *	남자	6.3	4.1	10.2	23.6	0.5	0.3	3.3	23.4	28.3	(364)100.0
	여자	3.9	2.3	13.5	29.0	0.5	0.7	6.5	19.5	24.1	(431)100.0
교급별	중학교	6.0	3.0	10.9	28.5	0.7	0.5	5.7	19.6	25.1	(562)100.0
	일반고교	4.2	3.4	18.5	18.5			2.5	26.1	26.9	(119)100.0
	실업고교	0.9	3.5	10.5	25.4		0.9	4.4	24.6	29.8	(114)100.0
전체		5.0	3.1	11.9	26.5	0.5	0.5	5.0	21.3	26.0	(795)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교급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형제자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비율이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혼자, 조부모와 지내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42> 일상생활과 학습을 지도해 줄 사람의 필요여부

단위 : (명)%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기 않다	전 체
성별 *	남자	50.7	49.3	(359)100.0
	여자	58.8	40.9	(430)100.0
교급별	중학교	56.7	43.3	(557)100.0
	일반고교	51.3	47.9	(119)100.0
	실업고교	51.3	48.7	(113)100.0
전체		55.1	44.7	(789)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방과후 일상생활과 학습을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지 알아 본 결과 55.1%의 청소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8.1% 더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31.3%로 가장 많았고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29.9%)',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28.4%)',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싫어서(6.0%)'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간섭받는 것이 싫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세 응답항은 응답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표 III-43>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싫어서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31.5	34.6	24.1	4.9	4.9	(162)100.0
	여자	25.4	28.3	35.3	6.9	4.0	(173)100.0
교급별	중학교	28.8	28.4	31.8	7.2	3.8	(236)100.0
	일반고교	29.5	50.0	13.6	2.3	4.5	(44)100.0
	실업고교	25.5	29.1	34.5	3.6	7.3	(55)100.0
전체		28.4	31.3	29.9	6.0	4.5	(335)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어떠한 활동을 지도해 주기를 원하는 지 알아 본 결과 '학습지도'가 65.1%로 가장 많았고, '여가·운동·문화활동 지도(17.8%)', '사회생활·인간관계 능력향상지도(10.1%)' '가사서비스(4.5%)' 순으로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도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여학생이 학습지도를 원하고 있었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사회생활·인간관계 능력향상지도, 여가·운동·문화활동 지도, 가사서비스를 더 많이 원하고 있었다.

<표 III-44> 지도를 필요로 하는 내용

단위 : (명)%

구분		학습지도	여가·운동 문화활동 지도	가사 서비스	사회생활·인간관계 능력향상지도	기타	전 체
성별 *	남자	57.6	19.0	6.0	14.7	2.7	(184)100.0
	여자	70.4	16.9	3.5	6.9	2.3	(260)100.0
교급별 *	중학교	68.4	15.8	5.0	7.7	3.1	(323)100.0
	일반고교	66.1	17.7	3.2	12.9		(62)100.0
	실업고교	45.8	28.8	3.4	20.3	1.7	(59)100.0
전체		65.1	17.8	4.5	10.1	2.5	(444)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표 III-45> 원하는 지도자

단위 (명)%

구분		청소년 지도사	학교 선생님	사회 복지사	대학생 자원 봉사자	학부모 자원 봉사자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15.1	20.3	17.4	30.2	4.7	12.2	(172)100.0
	여자	15.5	22.3	16.3	28.8	2.6	14.6	(233)100.0
교급별	중학교	15.0	23.7	16.7	28.0	2.7	14.0	(300)100.0
	일반고교	14.5	10.9	14.5	43.6	5.5	10.9	(55)100.0
	실업고교	18.0	20.0	20.0	22.0	6.0	14.0	(50)100.0
전체		15.3	21.5	16.8	29.4	3.5	13.6	(405)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방과후 활동을 지도해줄 사람으로 청소년들은 '대학생 자원봉사자(29.4%)'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교사(21.5%)', '사회복지사(16.8%)', '청소년지도사(15.3%)' 순으로 원하고 있었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기타'는 13.6%로 교회선배들, 학원선생님, 부모님, 돈 많은 사람, 전문지식을 갖춘 선생님, 과외선생님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46> 희망하는 방과후활동 장소

단위 : (명)%

구분		학교	복지시설 (복지관·청소년수련원·회관)	사설 학원	민간 공부방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21.8	36.5	18.8	13.5	9.4	(170)100.0
	여자	28.3	24.2	21.1	17.5	9.0	(223)100.0
교급별	중학교	27.7	26.3	20.1	17.3	8.7	(289)100.0
	일반고교	18.5	42.6	20.4	9.3	9.3	(54)100.0
	실업고교	20.0	34.0	20.0	14.0	12.0	(50)100.0
전체		25.4	29.5	20.1	15.8	9.2	(393)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방과후활동 장소로 청소년들은 '복지시설(29.5%)'을 가장 원하고 있었고, '학교(25.4)', '사설학원(20.1%)', '민간공부방(15.8%)' 순으로 원했다. 성별과 교급별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더 선호하는 시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은 복지시설을 더 많이 원했고, 여학생은 학교를 더 많이 원하고 있었다.

<표 III-47> 20년 후의 행복도 예측

단위 : (명)%

구분		매우 행복할 것이다	약간 행복할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별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전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전 체
성별	남자	43.5	31.6	18.3	3.9	2.8	(361)100.0
	여자	47.8	31.0	17.9	2.1	1.2	(429)100.0
교급별	중학교	47.8	29.9	17.7	2.9	1.8	(559)100.0
	일반고교	44.4	35.9	16.2	0.9	2.6	(117)100.0
	실업고교	37.7	33.3	21.9	5.3	1.8	(114)100.0
전체		45.8	31.3	18.1	2.9	1.9	(790)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20년 후에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45.8%의 청소년들이 '매우 행복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약간 행복할 것이다(31.3%)', '그저 그럴 것이다(18.1%)', '별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2.9%)', '전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1.9%)' 순으로 응답하여 77.1%의 청소년들이 미래에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5. 저소득층청소년의 성장욕구

이 욕구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적 능력이나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욕구를 말한다. Maslow 이론과 비교하면 능동적인 자신감의 획득 과정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욕구 뿐 만 아니라 존경의 욕구도 일부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학업, 직업 및 진로, 여가 등과 관련된 실태 및 욕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학업실태 및 욕구

중졸 후 희망했거나 희망하는 진로를 물어본 결과 '일반계고교'는 55.8%, '실업계고교'는 35.6%로 응답함으로써 실업계고교보다 일반계고교를 희망했거나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가 4.9%, '취업'을 희망했거나 희망하는 경우도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외국어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등 자신의 흥미나 재능을 살리기 위한 특수고등학교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계고교'를 희망하는 남학생

이 58.1%, 여학생이 53.8%로 나타나 남학생이 조금 더 많았고 '실업계고교'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36.7%, 남학생이 34.4%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표 III-48> 중학교 졸업 후 진로

단위 . (명)%

구분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취업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58 1	34.4	3.6	3.9	(358)100.0
	여자	53.8	36.7	3.7	5.8	(431)100 0
교급별 ***	중학교	56.6	33.8	4.1	5.5	(560)100.0
	일반고교	87.1	8.6	0 9	3.4	(116)100.0
	실업고교	19.5	72.6	4.4	3 5	(113)100 0
전체		55.8	35.6	3 7	4 9	(789)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교급별로는 p<.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일반계고교'를 희망했거나 희망하는 경우는 일반계고교생이 87.1%, 중학생이 56.6%, 실업계고교생이 19.5% 순으로 일반계고교생이 제일 많게 나타났으며 '실업계고교'를 희망했거나 희망하는 경우는 실업계고교생이 72.6%, 중학생이 33.8%, 일반계고교생이 8.6%순으로 실업계고교생이 제일 많게 나타났다. 즉 희망했거나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일반계고교생은 일반계고교에, 실업계고교생들은 실업계고교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만으로 보면 자신이 희망하는 계열에 희망한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희망하는 계열로 대체적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들은 중졸 후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실업계고교(33.8%)'보다는 '일반계고교(56.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계열에 이어 그 선택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학진학을 위해서(46.1%)', '적성에 맞아서(14%)', '취업에 유리해서(13.6%)', '성적이 부진해서(1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경제적 이유'와 '기타'가 각각 6.4%,

6.2%로 나타났다. 즉 위에서 '인문계고교'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한 이유가 '대학진학'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9> 진로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취업이 유리해서	경제적 이유	대학 진학	학업성적 부진	적성에 맞아서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14.6	5.5	46.4	14.0	14.3	5.2	(343)100.0
	여자	12.9	7.2	45.8	13.4	13.8	6.9	(419)100.0
교급별 ***	중학교	12.6	6.2	45.2	14.1	15.0	6.8	(546)100.0
	일반고교	6.5		73.1	4.6	12.0	3.7	(108)100.0
	실업고교	25.9	13.9	23.1	20.4	11.1	5.6	(108)100.0
전체		13.6	6.4	46.1	13.6	14.0	6.2	(762)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지만 교급별로는 p<.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취업이 유리해서'의 경우에 실업계고교생(25.9%), 중학생(12.6%), 일반계고교생(6.5%) 순으로 응답해서 실업계고교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이 부진해서'라는 문항에서도 실업계고교생(20.4%), 중학생(14.1%), 일반계고교생(4.6%) 순으로 응답하여 실업계고교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문항에서도 중학생(6.2%), 일반계고교생이 '없다'로 나타난 반면 실업계고교생이 13.9%나 응답하였다. 따라서 위의 희망진로에서 실업계고교생들이 실업계고교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는 결과와 관련지어서 본다면 실업계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취업이 유리하다는 사회적인 요인과 성적이 부진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개인적인 요인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반계고교생이 희망계열을 선택한 주된 이유로서는 '대학진학을 위해서'가 중학생이 45.2%, 실업계고교생이 23.1%로 나타난 반면 일반

계 고등학생은 대부분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성에 맞아서'라는 문항에 중학생이 15%로 중학생 보다 적지만 실업계고교생 11%보다 많은 12%로 나타남으로써 인문계를 선택한 이유가 대학진학과 적성에 맞아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중학생은 '대학진학을 위해서'에 일반계고교생(73%)보다는 적지만 실업계고교생(23.1%)보다 많은 45.2%를 나타냄으로써 중학생 중 절반정도가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순위로 '적성에 맞아서(15%)', '취업이 유리해서(12.6%)' 순으로 나타나서 일반계고교생과 마찬가지로 대학진학이 희망진로의 주된 선택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표 III-50> 희망하는 최종학력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전 체
성별 *	남자	3.0	16.5	68.9	11.6	(328)100.0
	여자	1.0	12.2	69.4	17.3	(392)100.0
교급별 ***	중학교	2.2	13.2	71.1	13.6	(508)100.0
	일반고교		2.8	69.4	27.8	(108)100.0
	실업고교	2.9	30.8	59.6	6.7	(104)100.0
전체		1.9	14.2	69.2	14.7	(720)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희망하는 최종학력을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게 응답한 경우가 '대학교졸업' 69.2%, '대학원이상'이 14.7%, '고등학교졸업'이 14.2%로 나타나 대학교와 대학원이상을 원하는 경우가 전체 83.9%를 차지해서 희망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고학력사회인 현 사회의 모습이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는 '대학교졸업(68.9%)', '고등학교졸업(16.5%)', 여학생은 '대학교졸업(69.4%)',

'고등학교졸업(12.2%)'으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대학원 이상'에서는 여학생이 17.3%로 남학생 11.6%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교와 대학원이상에 대해서 남학생비율이 80.5%인데 반해 여학생이 86.7%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학력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급별로는 $p<.001$ 수준에서 뚜렷하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학졸업에 대해서는 일반계고교생 69.4%, 실업계고교생 59.6%, 중학생 71.1%로 각 교급별 과반수 이상이 대학진학을 희망하며 중학생이 일반계고교생보다, 일반계고교생은 실업계고교생보다 대학진학을 더 많이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원이상'에 대해서는 실업계고교생이 6.7%라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은 이보다 두배인 13.6%로, 일반계고교생은 중학생보다 두배인 27.8%가 응답하여 일반계고교생이 중학생보다, 중학생은 실업계고교생보다 훨씬 더 많이 대학원 학력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Ⅲ-50>에서 실업계고교생들이 실업계를 선택한 주된 이유가 '취업이 유리해서(25.9%)'이고 다음이 '대학진학(23.1%)' 이었지만 대학진학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희망최종학력으로 생각한다는 점은 비록 취업을 위해서 실업계에 진학을 했지만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진학이 필수라는 인식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습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건을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학원무료수강'이 2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학금지급(19.1%)', '참고서지급(17.2%)' 순으로 응답하였고 이외에 '청소년공부방사업(14.6%)', '학습공간제공(14.9%)', '자원봉사자의 학습지도(8.4%)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볼 수 없었지만 교급별로는 $p<.001$수준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생은 '학원무료수강(24.2%)', '참고서지급(19.9%)', '장학금지급(18.5%)' 순으로 선호하는데 반해 일반계고교생은 '청소년공부방사업(23.9%)', '학원무료수강(23.1%)', '학습공간제공(18.3%)' 순으로 선호하고 실업계고교생은 '장학금지급(32.2%)', '학습공간제공

(18.3%)', '청소년공부방사업(12.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24.2%)은 일반계고교생(23.1%), 실업계고교생(15.7%)보다 '학원무료수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계고교생(23.9%)은 중학생(13.1%), 실업계고교생(12.2%)보다 '청소년공부방사업'을, 실업계고교생(32.9%)은 '장학금지급'을 중학생(18.5%), 일반계고교생(9.4%)보다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학습향상을 위한 요건

단위 : (명)%

구분		청소년 공부방 사업	장학금 지급	자원 봉사자 학습지도	참고서 지급	학원 무료 수강	학습 공간 제공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15.2	21.3	8.0	16.1	20.8	15.0	3.6	(361)100.0
	여자	14.0	17.2	8.6	18.2	24.5	14.9	2.6	(429)100.0
교급별 ***	중학교	13.1	18.5	7.9	19.9	24.2	13.3	3.2	(558)100.0
	일반고교	23.9	9.4	10.3	12.0	23.1	19.7	1.7	(117)100.0
	실업고교	12.2	32.2	8.7	9.6	15.7	18.3	3.5	(115)100.0
전체		14.6	19.1	8.4	17.2	22.8	14.9	3.0	(790)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72.4%가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학교 가기 싫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p<.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남학생은 '있다'에 대해서 67.7%인데 반해 여학생은 76.3%로 응답하여 여학생이 학교 가기 싫은 경험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2> 등교하기 싫었던 경험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전 체
성별 **	남자	67.7	32.3	(359)100.0
	여자	76.3	23.7	(430)100.0
교급별	중학교	72 8	27 2	(556)100 0
	일반고교	72 9	27.1	(118)100 0
	실업고교	69.6	30 4	(115)100 0
전체		72.4	27.6	(789)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표 III-53> 등교하기 싫은 첫 번째 이유

단위 · (명)%

구분		경제적인 것 미비	공부하기가 싫어서	성적이 나빠서	선생님의 차별과 무시	나쁜 교우 관계	학교 규칙에 매이기 싫어서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13.3	56.2	8.8	7.2	3 6	4 8	6.0	(249)100.0
	여자	11 0	58.2	5.7	9.0	5 1	6.0	5 1	(335)100 0
교급별	중학교	10.7	57.3	6.6	9.0	5.1	5.3	6.1	(412)100 0
	일반고교	11.6	57.0	11.6	5.8	4 7	8.1	1 2	(86)100 0
	실업고교	18.6	58.1	4.7	7.0	1.2	3.5	7.0	(86)100.0
전체		12.0	57.4	7.0	8 2	4.5	5.5	5.5	(584)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씩 우선 순위로 응답하게 한 결과 '공부하기가 싫어서'가 57.4%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것들(학교준비물, 수련활동비등)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해서(12%)', '선생님의 차별과 무시(8.2%)' 순으로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공부하기 싫을 때 학교 가기 싫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성적이 나빠서(7%)', '학교규칙에 매이기 싫어서(5.5%)', '기타

(5.5%)' 순이었는데 '기타'의 경우에는 '아침에 잠을 더 자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수업분위기 때문에', '학교가 차별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못 가르쳐서' 등의 경우가 있었다.

<표 III-54> 등교하기 싫은 두 번째 이유

단위 : (명)%

구분		경제적인 것 미비	공부하기가 싫어서	성적이 나빠서	선생님의 차별과 무시	나쁜 교우관계	학교 규칙에 메이기 싫어서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1.4	7.7	16.8	11.8	4.5	41.8	15.9	(220)100 0
	여자	2.3	9.4	13.3	13.6	9.1	39 0	13.3	(308)100 0
교급별 *	중학교	0.8	8.7	16.7	13.9	7.9	36.1	15.8	(366)100.0
	일반고교	4.9	12.2	8.5	7.3	2.4	51.2	13.4	(82)100.0
	실업고교	38	50	12.5	13.8	88	47.5	8.8	(80)100.0
전체		1.9	87	14.8	12.9	7.2	40.2	14.4	(528)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학교에 가기 싫은 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순위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학교규칙에 메이기 싫어서'가 40.2%로 가장 많았고 '성적이 나빠서(14.8%)', '선생님과의 차별과 무시(12.9%)', '기타(14.4%)', '공부하기가 싫어서(8.7%)', '교우관계가 나빠서(7.2%)', '경제적인 것의 미비(1.9%)' 순으로 응답하여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교규칙에 메이기 싫어서 학교가기가 싫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교급별로는 p<.05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일반계고교생들은 '학교규칙에 메이기 싫어서'에 51.2%가 응답한 반면 중학생이 36.1%, 실업고등학생이 47.5%라고 하여 일반계고교생이 가장 많이 '학교규칙에 메이기 싫어서' 학교가기 싫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성적이 나빠서'에 중학생 16.7%가 응답한 반면 일반계고교생 8.5%. 실업계고교생은 12.5%라고 하여 중학생

이 성적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업계고교생은 '선생님의 차별과 무시'에 대해 13.8%로 일반계고교생 7.3%보다 두배나 높게 응답해 일반계고교생보다 선생님의 차별과 무시를 더 의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들이 등교하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와 '학교규칙에 얽매이기 싫어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55> 현재의 과외활동 내용

단위 : (명)%

구분		가정교사과외	학습지구독	속셈부산학원	컴퓨터학원	체육관	진학을위한학원	영어학원	복지관여가특기활동	피아노학원	공부방학습특기활동지도	없다	기타	전체
성별	남자	6.1	9.6	5.2	11.9	11.6	11.6	3.8	11.9	0.6	13.3	42.0	1.4	(345) 100.0
	여자	5.4	11.0	4.0	13.8	4.0	9.2	4.2	15.3	3.8	13.4	40.4	4.0	(426) 100.0
교급별	중학교	5.1	10.7	5.1	11.2	7.6	9.6	4.0	16.5	2.2	17.4	38.2	3.1	(552) 100.0
	일반고교	12.4	14.2	3.5	11.5	5.3	20.4	7.1	8.0	4.4	2.7	37.2	2.7	(113) 100.0
	실업고교	1.9	4.7	2.8	23.6	8.5	2.8	0.9	5.7	0.9	3.8	60.4	1.9	(106) 100.0
전체		5.7	10.4	4.5	13.0	7.4	10.2	4.0	13.7	2.3	13.4	41.1	2.9	(771) 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외활동을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없다'에 응답한 경우가 41.1%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많은 순으로 '복지관의 여가프로그램(13.7%)', '청소년공부방(13.4%)', '컴퓨터학원(13%)', '학습지구독(10.4%)', '진학을 위한 학원(10.2%)' 순으로

1순위와 달리 2순위부터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게다가 2순위와 3순위를 차지한 복지관프로그램과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청소년에게 무료나 감면혜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서 과외활동을 하는 경우는 겨우 학습지 구독과 진학을 위한 학원 정도로 20%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과 교급별로 살펴보면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복지관, 컴퓨터학원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진학학원과 체육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급별 차이에서는 실업계고교생은 현재 과외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다른 교급 학생보다 더 많았고 '복지관 여가활동'에는 중학생이 다른 교급 학생보다 더 많았으며 '진학을 위한 학원'에는 일반계고교생이 다른 교급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반계고교생들이 실업계고교생들보다 대학진학을 위한 과외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실업계고교생들은 취업을 위한 컴퓨터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관이용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순위로 희망하는 과외활동으로는 '컴퓨터학원(23.5%)', 다음으로는 '체육관 즉 태권도, 유도, 수영 등 (21.4%)', '가정교사과외(12%)', '영어학원(10%)', '피아노학원(7.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p<.0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체육관(29.8%)', '컴퓨터학원(28.3%)'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각각 15.2%, 20%로 남학생보다 낮게 응답하였다. 반면 여학생은 '가정교사과외(13.7%)', '피아노학원(11.9%)'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고 남학생은 각각 9.6%, 1.5%로 응답하여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체육관과 컴퓨터학원을, 여학생은 가정교사과외와 피아노학원을 남학생보다 더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II-56> 희망하는 1순위 과외활동 내용

단위 (명)%

구분		가정교사과외	학습지구독	속셈부산학원	컴퓨터학원	체육관	진학을 위한 학원	영어학원	복지관 여가 특기 활동	피아노 학원	공부방 학습 특기 활동 지도	없다	기타	전체
성별 ***	남자	9.6	3.5	4.5	28.3	29.8	5.6	10.1	3.0	1.5	0.5	1.0	2.5	100.0 (198)
	여자	13.7	4.1	3.7	20.0	15.2	7.0	10.0	5.2	11.9	2.6		6.7	100.0 (270)
교급별	중학교	12.6	3.6	5.1	23.4	18.3	7.5	7.8	4.8	8.1	2.1	0.6	6.0	100.0 (333)
	일반고교	15.5	7.0	2.8	21.1	25.4	4.2	14.1	2.8	2.8	1.4		2.8	100.0 (71)
	실업고교	4.7	1.6		26.6	32.8	3.1	17.2	3.1	9.4			1.6	100.0 (64)
전체		12.0	3.8	4.1	23.5	21.4	6.4	10.0	4.3	7.5	1.7	4	4.9	100.0 (468)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희망하는 과외활동 2순위로는 '진학을 위한 학원(15.4%)', '피아노 및 음악학원(13.9%)', '영어학원(13.7%)', '컴퓨터학원(12.7%)', '체육관(11.7%)', '복지관프로그램(11.7%)'순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p<.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실업계고교생은 체육활동이나 피아노 등을 과외활동으로서 희망하는 반면 중학생과 일반계 고교생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진학과 영어학원 쪽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표 III-57> 희망하는 2순위 과외활동 내용

단위 : (명)%

구분		가정교사과외	학습지구독	속셈부산학원	컴퓨터학원	체육관	진학을위한학원	영어학원	복지관여가특기활동	피아노학원	공부방학습특기활동지도	없다	기타	전체
성별	남자	3.5	1.2	3.5	12.1	15.0	15.0	16.2	13.9	8.7	4.6	0.6	5.8	100.0 (173)
	여자	3.8	3.8	0.8	13.1	9.3	15.7	11.9	10.2	17.8	6.8	0.8	5.9	100.0 (236)
교급별 **	중학교	3.8	3.8	2.4	13.3	9.1	15.0	14.3	10.8	12.9	6.3	1.0	7.0	(286) 100.0
	일반고교	4.8		1.6	9.5	0.7	19.0	17.5	12.7	14.3	6.3		1.6	100.0 (63)
	실업고교	1.7			13.3	23.3	13.3	6.7	15.0	18.3	3.3		5.0	100.0 (60)
전체		3.7	2.7	2.0	12.7	11.7	15.4	13.7	11.7	13.9	5.9	0.7	5.9	100.0 (409)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학교수업시간외에 컴퓨터를 일주일에 몇 시간 이용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1~2시간(19.7%)', '5~9시간(19.6%)'에 거의 비슷하게 응답하였고 '3~4시간(16.3%)', '10~14시간(15%)', '20~24시간(11.5%)' '25시간이상(11.2%)' 순으로 나타났다. 즉 60% 정도의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9시간 이하, 즉 하루에 1~2시간 정도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컴퓨터 이용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성별로 보면 p<.0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1~2시간', '5~9시간', '10~14시간'이 각각 15.2~15.8%로 비슷하게 나타나다가 '20시간이상'에서 31.4%로 다른 시간대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남학생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1~2시간', '5~9시간'이

각각 23.4%. 22.7%로 이용하는 시간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20시간이상'에서는 15%로 남학생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컴퓨터를 장시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급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III-58> 일주일간 컴퓨터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없다	1~2 시간	3~4 시간	5~9 시간	10~14 시간	15~19 시간	20~24 시간	25 시간이상	전 체
성별 ***	남자	2.9	15.2	14.7	15.8	15.2	4.9	14.4	17.0	(348)100.0
	여학생	2.6	23.4	17.7	22.7	14.8	3.1	9.1	6.5	(418)100.0
교급별	중학교	2.8	22.0	15.7	17.6	15.4	4.4	10.4	11.7	(540)100.0
	일반고교	3.4	13.6	18.6	22.0	13.6	4.2	14.4	10.2	(118)100.0
	실업고교	1.9	14.8	16.7	26.9	14.8	0.9	13.9	10.2	(118)100.0
전체		2.7	19.7	16.3	19.6	15.0	3.9	11.5	11.2	(766)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집(65%)'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PC방(16.2%)', '공공기관(7.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원'을 이용한다고 한 경우는 2.5%, '방과후 학교'가 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p<.0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남학생(67.6%)이 여학생(62.7%)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으며 'PC방'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남학생(19.3%)이 여학생(13.7%)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고 '컴퓨터학원'의 경우는 여학생(3.9%)이 남학생(0.8%)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고 '방과후 학교'의 경우 역시 여학생(3.5%)이 남학생(0.3%)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학생은 집, PC방을 좀 더 이용하는 반면 여학생은 컴퓨터학원과 방과후 학교를 좀 더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59>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

단위 (명)%

구분		집	친구 집	학교 수업 시간	방과후 학교	컴퓨터 학원	PC방	공공기관(복지관·정보센터·수련시설등)	전 체
성별 ***	남자	67.7	3.6	2.2	0.3	0.8	19.3	6.1	(362)100.0
	여학생	62.7	3.2	4.4	3.5	3.9	13.7	8.6	(432)100.0
교급별 **	중학교	66.0	3.0	2.5	2.7	2.1	15.5	8.2	(561)100.0
	일반고교	72.3	3.4	3.4		2.5	12.6	5.9	(119)100.0
	실업고교	52.6	5.3	7.9	0.9	4.4	23.7	5.3	(114)100.0
전체		65.0	3.4	3.4	2.0	2.5	16.2	7.4	(794)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교급별로 보면 p<.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계고교생(72.3%)이 중학생(66%), 실업계고교생(52.6%)보다 더 많았고, 'PC방'의 경우는 실업계고교생(23.7%)이 일반계고교생(12.6%), 중학생(15.5%)보다 더 많았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중학생(8.2%)이 실업계고교생(5.3%), 일반계고교생(5.9%)보다 더 많이 응답함으로써 중학생은 공공기관에서, 실업계고교생은 PC방에서 일반계고교생은 집에서 다른 교급학생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계고교생(72.3%)이 실업계고교생(52.6%)에 비해 집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20% 정도 많았으며, 실업계고교생(23.7%)이 일반계고교생(12.6%)에 비해 PC방을 더 이용하고 있어 컴퓨터 이용에 있어서도 실업계고교생이 처한 환경적 제약을 실감할 수 있었다.

<표 III-60> 첫 번째로 희망하는 컴퓨터 교육영역

단위 (명)%

구분		컴퓨터 게임	컴퓨터 통신	컴퓨터 그래픽·음악	프로그램 작성	워드프로세싱	인터넷	컴퓨터를통한 학습	기타	전 체
성별 ***	남자	40.3	9.7	27.8	10.6	3.6	6.1	0.6	1.4	(360)100.0
	여학생	12.6	9.8	47.7	10.7	6.0	8.1	2.8	2.3	(430)100.0
교급별 *	중학교	26.4	8.4	37.3	10.7	5.7	7.5	2.0	2.0	(560)100.0
	일반고교	14.4	10.2	47.5	14.4	5.1	7.6	0.8		(118)100.0
	실업고교	30.4	16.1	35.7	6.3	0.9	5.4	1.8	3.6	(112)100.0
전체		25.2	9.7	38.6	10.6	4.9	7.2	1.8	1.9	(790)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희망하는 컴퓨터 교육영역에 대해서 1순위와 2순위로 알아보았는데 1순위로는 '컴퓨터그래픽·음악분야(38.6%)', '컴퓨터게임분야(25.2%)', '프로그램 작성(10.6%)', '통신(9.7%)', '인터넷(7.2%)'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워드'가 4.9%, '컴퓨터를 통한 학습'이 1.8%, '기타'가 1.9%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p<.0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컴퓨터그래픽·음악분야'에서는 여학생(47.7%)이 남학생(27.8%)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고 '컴퓨터 게임분야'에서는 남학생(40.3%)이 여학생(12.6%)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고 '컴퓨터프로그램 작성분야'에 대해서는 남학생(10.6%)과 여학생(10.7%)이 거의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학생은 컴퓨터 게임분야를, 여학생은 컴퓨터그래픽분야를 더 희망하며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급별로 보면 p<.05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계고교생(47.5%)이 실업계고교생(35.7%), 중학생(37.3%)보다 '컴퓨터 그래픽·음악분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계고교생(30.4%)이 중학생(26.4%), 일반계고교생(14.4%)보다 '컴퓨터 게임분야'를 더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61> 두 번째로 희망하는 컴퓨터 교육영역

단위 : (명)%

구분		컴퓨터 게임	컴퓨터 통신	컴퓨터 그래픽·음악	프로그램 작성	워드프로세싱	인터넷	컴퓨터를통한 학습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4.0	8 6	13 8	23.3	9.2	19.9	13.5	7 5	(347)100.0
	여학생	3.9	3.6	15.4	17.3	10.4	25.3	18.1	6 0	(415)100.0
교급별	중학교	4.1	6.1	13.9	17 1	10.4	24.7	16.7	6.9	(538)100 0
	일반고교	5.1	3.4	12.8	34.2	6.8	17.1	17.1	3.4	(117)100.0
	실업고교	1.9	7.5	20.6	19.6	10 3	19.6	11.2	9.3	(107)100.0
전체		3.9	5.9	14.7	20.1	9.8	22.8	16.0	6.7	(762)100 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2순위로 배우기를 희망하는 컴퓨터영역을 알아본 결과 '인터넷(22.8%)', '프로그램 작성(20.1%)', '컴퓨터를 통한 학습(1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기관 등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교육과 활동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청소년들의 '컴퓨터그래픽·음악분야', '컴퓨터게임분야', '프로그램 작성', '인터넷' 등에 관한 욕구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컴퓨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1.4%로 응답하여 컴퓨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교급별로 보면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실업계고교생(81.4%)이 일반계고교생(70.9%)과 중학생(69.4%)보다 컴퓨터교육을 받은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 컴퓨터관련 교육여부

단위 · (명)%

구분		받은 적이 있다	받은 적이 없다	전 체
성별	남자	71.1	28.9	(357)100.0
	여학생	71.6	28.4	(429)100.0
교급별 *	중학교	69.4	30.6	(556)100.0
	일반고교	70 9	29 1	(117)100.0
	실업고교	81 4	18 6	(113)100.0
전체		71 4	28.6	(786)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컴퓨터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제공되길 바라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빠른 통신속도와 성능이 좋은 컴퓨터구비(28.9%)', '무료로 이용(24.5%)', ' 최신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그램구비(14.5%)', '컴퓨터관련 자격증 및 직업에 관한 정보제공(12.5%)'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표 III-63> 컴퓨터 교육시 희망사항

단위 : (명)%

구분		빠른통신속도와 성능이 좋은컴퓨터	무료 이용	부모의 간섭 없이 컴퓨터 이용	최신 다양한 프로그램	컴퓨터 지도 해줄 선생님	컴퓨터 관련 자격증및 직업관련 정보	기타	전 체
성별 *	남자	33.5	22 3	7.0	10.9	12 0	11.5	2.8	(358)100 0
	여학생	25.1	26 3	4.9	17.4	11 2	13 3	1.9	(430)100 0
교급별 **	중학교	30 8	25.6	6.8	12 5	10 6	11.3	2.3	(558)100 0
	일반고교	31.0	19.0	4 3	21.6	13 8	9 5	0.9	(116)100.0
	실업고교	17.5	24.6	2 6	16.7	14.0	21.1	3 5	(114)100.0
전체		28.9	24.5	5 8	14 5	11.5	12 4	2 3	(788)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성별로 보면 p<.05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빠른 통신속도와 성능이 좋은 컴퓨터구비'에 대해서는 남학생(33.5%)이 여학생(25.1%)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으며 '무료이용'에 대해서는 여학생(26.3%)이 남학생(22.3%)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고 '최신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그램구비'에 대해서는 여학생(17.4%)이 남학생(10.9%)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다. 반면 '부모의 간섭없이 이용'경우에는 남학생이 7%인데 여학생은 4.9%로 나타나서 남학생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무료이용'과 '최신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비'에서 남학생은 '좋은 성능의 컴퓨터구비'와 '부모의 간섭없이 이용'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교급별로 보면 p<.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빠른 통신속도와 성능이 좋은 컴퓨터구비'에 대해서는 일반계고교생(31%)이 중학생(30.8%), 실업계고교생(17.5%)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고 '무료이용'에 대해서는 중학생(25.6%)이 실업계고교생(24.6%)과 일반계고교생(19%)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다. 즉 중학생과 실업계고교생은 무료이용을, 일반계고교생은 좋은 성능의 컴퓨터 구비를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직업 및 진로지도 실태 및 욕구

희망직업에 대해 원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씩 응답하게 한 결과 전체 청소년들은 1순위 직업으로 '교사(19.7%)', '연예인(9.8%)', '의사(7.7%)', '컴퓨터프로그래머(5.5%)', '공무원(4%)' 순으로 응답하여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선택했다.

성별로 보면 p<.0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경우 '교사(25%)', '의사(9.9%)', '연예인(9.8%)', '상업(5.9%)', '의상디자이너(5.3%)'순으로 응답했으며, 남학생은 '교사(13.4%)', '기술자(7.4%)', '연예인

(7.4%)', '공무원(5.4%)', '경찰 및 군인, 과학자, 의사(각각 5.1%)' 순으로 응답하여 남녀간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현재 남자가 높은 비율의 직종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직종을 택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교사, 의사, 연예인 등 비교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인정받는 직종을 많이 선택하여 남학생보다는 비교적 비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64> 저소득층청소년들이 1순위로 희망하는 직업

단위 : (명)%

활동명	성별***		전 체	활동명	성별		전 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교사	13.4	25.0	19.7	경찰·군인	5.1	1.4	3.1
교수	3.7	2.9	3.3	작가	1.7	2.9	2.3
과학자	5.1	0.5	2.6	화가	0.6	0.7	0.7
공무원	5.4	2.9	4.0	만화가	2.3	3.6	3.0
정치인(국회의원)		0.5	0.3	아나운서·방송국PD	2.3	3.1	2.7
판사·변호사·검사	1.4	1.4	1.4	기자	0.6	0.5	0.5
의사	5.1	9.9	7.7	광고인		1.0	0.5
간호사	0.3	4.3	2.5	컴퓨터프로그래머	2.4	2.4	5.5
약사	0.3	0.5	0.4	의상디자이너	0.6	5.3	3.1
농·축·수산업	0	0		헤어디자이너(미용사)		1.7	0.9
상업	2.6	5.9	1.4	연예인	7.4	11.8	9.8
사업가·전문경영인	4.6	2.4	3.4	영화감독		0.5	0.3
회사원·은행원	4.0	2.4	3.1	운동선수	5.1	0.7	2.7
기술자	7.4	0.7	3.8	사회복지전문가	0.6	2.4	1.6
건축가	2.6	1.0	1.7	성직자(목사·신부·승려 등)	0.3		0.1
비행기조종사	2.6	0.5	1.4	요리사	3.4	1.4	2.3
비행기승무원	0.3	1.2	0.8	기타	2.0	4.1	3.1
				전체	(350) 100.0	(416) 100.0	(766) 100.0

<표 III-65> 저소득층청소년들이 2순위로 희망하는 직업

단위 : (명)%

활동명	성별		전 체	활동명	성별		전 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교사	2.3	3.9	3.2	경찰·군인	5.8	1.2	3.3
교수	2.3	2.7	2.5	작가	0.6	4.6	2.8
과학자	4.4	0.7	2.4	화가	0.6	1.2	0.9
공무원	3.8	2.7	3.2	만화가	2.3	2.2	2.3
정치인(국회의원)	0.3	0.5	0.4	아나운서·방송국PD	1.5	4.1	2.9
판사·변호사·검사	1.7	1.0	1.3	기자	0.6	0.5	0.5
의사	0.9	6.8	4.1	광고인	1.2	2.0	1.6
간호사	0.3	4.1	2.4	컴퓨터프로그래머	7.6	5.1	6.2
약사	1.2	1.2	1.2	의상디자이너	0.3	8.8	4.9
농·축·수산업	0.6		0.3	헤어디자이너(미용사)	0.6	0.7	0.7
상업	0.6	0.2	0.4	연예인	5.8	15.9	11.3
사업가·전문경영인	5.5	2.2	3.7	영화감독	2.6	0.2	1.3
회사원·은행원	2.6	2.9	2.8	운동선수	13.7	1.5	7.0
기술자	5.8	0.2	2.8	사회복지전문가	2.0	3.7	2.9
건축가	4.4	1.5	2.8	성직자(목사·신부·승려 등)	1.7	0.5	1.1
비행기조종사	2.0	0.5	1.2	요리사	7.9	9.0	8.5
비행기승무원	0.9	1.5	1.2	기타	5.5	6.1	5.8
				전체	(343) 100.0	(410) 100.0	(753) 100.0

2순위로는 전체청소년이 1순위 직업 중 2번째로 많이 선택했었던 '연예인'을 11.3%가 선택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리사(8.5%)', '컴퓨터프로그래머(6.2%)' 순으로 응답했다. 1순위 직업보다는 비교적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예인은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입장을 고려할 때 교사나 의사보다는 성취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연예인이 가지는 화려함이나 경제적인 보상이 저소득층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직종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리사의 경우는 현재 사

회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창업직종으로 인기가 있고, 저학력으로도 가능하며, 자본의 규모도 다양하게 시작할 수 있어 저소득층청소년들에게는 현실적인 직종으로 다가온 것 같다. 실제로 몇몇 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을 위한 요리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성별로 보면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학생의 경우 '연예인(15.9%)', '요리사(9%)', '의상디자이너(8.8%)' 순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는 '운동선수(13.7%)', '요리사(7.9%)', '컴퓨터프로그래머(7.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는 5.8%로 적지 않게 응답율을 보였는데 '여행관련업', '모델', '프로게이머', '테러리스트', '백댄서', '해결사'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66> 직업훈련 참여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전 체
성별	남자	73.9	26.1	(360)100.0
	여자	76.3	23.7	(431)100.0
교급별	중학교	75.5	24.5	(560)100.0
	일반고교	75.2	24.8	(117)100.0
	실업고교	73.7	26.3	(114)100.0
전체		75.2	24.8	(791)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취업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이 제공된다면 받을 생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75.2%의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성별이나 교급별에 관계없이 모두 70%이상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인다는 것은 성별이나 교급에 무관하게 대부분의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실업계고교생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

생들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직업훈련은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III-67> 희망하는 직업훈련 직종

단위 : (명)%

구분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분야	자동차 운전 및 수리	전자제품 조립 및 수리	건축 목공 관련	농사 가축 사육 관련	외국어	기타	전 체
성별 ***	남자	43.9	8.6	10.0	8.2	1.1	16.1	12 1	(280)100.0
	여자	40 3	2.7	0.3	3.3	0 9	34.8	17.6	(330)100.0
교급별 **	중학교	41.8	4.6	4 2	3 9	1.2	26 8	17 6	(433)100.0
	일반고교	36.3	7.7	2 2	12 1		31.9	9 9	(91)100.0
	실업고교	48.8	7.0	10 5	7.0	1.2	17 4	8.1	(86)100 0
전체		42.0	5.4	4 8	5.6	1.0	26 2	15.1	(610)100 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희망하는 직업훈련직종을 알아본 결과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분야(42%)', '외국어분야(26.2%)', '기타(15.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군인훈련', ' 사업요령', '요리실습', '모델훈련', '미술 · 디자인', '미용', '보육관련', '만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등 정보분야와 외국어분야는 점점 취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능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희망과외를 물어보는 문항에서도 컴퓨터가 2순위였다는 점과 관련해서 볼 때 정보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이 관심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는 p<.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컴퓨터분야'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43.9%, 여학생이 40.3% 응답하였으며 '외국어분야'에 대해서는 여학생 34.8%, 남학생 16.1%가 응답함으로써 컴퓨터분야는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한 비율로 선호한 반면 외국어 분야에서는 여학생이 월등하게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급별로는 p<.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컴퓨터분야'에서는 실업계고교생이 48.8%, 중학생 41.8%, 일반계고교생이 36.3% 응답하였으며 '외국어분야'에서는 일반계고교생이 31.9%, 중학생 26.8%, 실업계고교생 17.4%로 응답하여 컴퓨터분야에서는 실업계고교생이, 외국어분야는 일반계고교생이 훨씬 더 많이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68> 희망하는 직업훈련 장소

단위 (명)%

구분		복지관	직업훈련원	학교	공장·회사	사설학원	전 체
성별 ***	남자	19.2	34.9	22.7	9.8	13.3	(255)100.0
	여자	16.2	28.9	25.0	2.3	27.6	(308)100.0
교급별	중학교	17.4	32.0	25.2	4.5	20.9	(397)100.0
	일반고교	15.1	29.1	22.1	4.7	29.1	(86)100.0
	실업고교	21.3	32.5	20.0	12.5	13.8	(80)100.0
전체		17.6	31.6	24.0	5.7	21.1	(563)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직업훈련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 희망하는 직업훈련장소를 알아본 결과 '직업훈련원(31.6%)', '학교(24%)', '사설학원(21.1%), '복지관(17.6%)'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고 성별로는 p<.0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남학생은 34.9%, 여학생은 28.9%로 남학생이 훨씬 더 많이 응답하였으며 '학교'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22.7%, 여학생 25%로 나타나 여학생이 조금 더 응답하였다.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남학생 13.3%, 여학생 27.6%로 여학생이 2배 이상 많이 응답하였고, '복지관'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19.2%, 여학생이 16.2%로 응답하여 남학생은 직업훈련원과 복지관을 여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선호하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학교와 사설학원을 더 많이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69> 진로지도 참여여부

단위 : (명)%

구분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전 체
성별 *	남자	70.4	29.6	(345)100.0
	여학생	76.8	23.2	(423)100.0
교급별	중학교	72.8	27.2	(547)100.0
	일반고교	83.0	17.0	(112)100.0
	실업고교	70.6	29.4	(109)100.0
전체		74.0	26.0	(768)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진로지도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겠는지를 알아본 결과 '참여하겠다(74%)', '참여하지 않겠다(26%)'로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p<.05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참여하겠다'에 남학생(70.4%)보다 여학생(76.8%)이 좀더 높게 응답을 하였고 교급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참여하겠다'에 일반계고교생(83%), 중학생(72.8%), 실업계고교생(70.6%)순으로 응답하여 진로지도에 대해서는 여학생과 일반계고교생의 관심이 조금 더 높음을 볼 수 있었다.

진로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하길 희망한 경우 바라는 진로지도 내용을 두 가지씩 우선 순위로 응답하게 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적성과 흥미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45.4%)', '직업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고 싶다(38%)'가 전체 진로지도 내용 중에서 83%를 차지했다. 그 외 '직업훈련교육(7.7%)', '현장실습지소개(3.1%)', '대학진학관련정보(3.1%)'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로 둘 다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70> 희망하는 진로지도 내용 1

단위 : (명)%

구분		직업선택을 위한 정보	적성 흥미에 관한 정보	직업훈련교육	현장실습지소개	인간관계 기술습득	대학진학 관련정보	경제생활 관리교육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41.3	40.1	8.3	4.8	1.6	2.8	0.4	0.8	(252)100.0
	여학생	35.6	49.5	7.3	1.8	1.8	3.3	0.3	0.3	(329)100.0
교급별	중학교	39.0	45.3	7.8	2.7	1.5	2.7	0.2	0.7	(4.8)100.0
	일반고교	36.2	44.7	7.4	2.1	4.3	5.3			(94)100.0
	실업고교	35.4	46.8	7.6	6.3		2.5	1.3		(79)100.0
전체		38.0	45.4	7.7	3.1	1.7	3.1	0.3	0.5	(581)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희망하는 진로지도내용 2 순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진학관련정보(28.8%)', '적성과 흥미에 관한 정보(26.5%)', '직업훈련교육(1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급별로는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진학관련정보'에 대해서는 일반계고교생(40.7%)들이 실업계고교생(31%), 중학생(25.7%)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고 '적성과 흥미에 관한 정보'에서는 중학생(29.4%)이 일반계고교생(23.3%)과 실업계고교생(15.5%)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다. '직업훈련교육'에 있어서는 중학생(15.6%)과 실업계고교생(14.1%)이 일반계고교생(11.6%)보다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계고교생은 희망하는 진로지도내용으로 대학진학관련정보를 더 많이 바라며 실업계고교생은 직업훈련교육에 대해서, 중학생은 적성과 흥미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지도 내용에 대해 저소득층청소년들의 욕구를 정리해 보면 전체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내용으로는 '적성과 흥미에 관한 정보'와 '직업선택을 위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고루 원하고 있는 반면, 2차 진로지도 내용으

로는 교급별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여 청소년들의 연령대와 처한 상황에 따라 욕구가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II-71> 희망하는 진로지도 내용 2

단위 (명)%

구분		직업 선택을 위한 정보	적성 흥미에 관한 정보	직업 훈련 교육	현장 실습 지 소개	인간 관계 기술 습득	대학 진학 관련 정보	경제 생활 관리 교육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4.0	29 8	15.6	9.8	5 8	26.7	7.1	1.3	(225)100.0
	여학생	7.4	24.2	14.2	9.4	8 1	30.3	5.8	0 6	(310)100.0
교급별 *	중학교	5.3	29.4	15.6	9.0	7.7	25.7	6 6	0.8	(378)100.0
	일반고교	9.3	23 3	11.6	11 6	2.3	40 7	1.2		(86)100.0
	실업고교 5.6	5.6	15.5	14.1	9 9	9.9	31 0	11.3	2.8	(71)100.0
전체		6 0	26.5	14 8	9.5	7.1	28.8	6.4	0 9	(535)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3) 여가실태 및 욕구

현재 주로 하는 여가활동 3 가지씩을 선택하게 하여 복수응답 처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TV시청'이 41%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PC통신(33.4%)', '컴퓨터게임(31.2%)', '음악감상(21.7%)', '친구만나기(21.3%)', '집에서 휴식(19.7%)', '만화보기(17.1%)', '집안일 돕기(15.7%)' 순으로 응답하였다. PC통신·인터넷, 컴퓨터게임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저소득층청소년들은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집에서 쉬거나 만화를 본다거나 혹은 집안 일을 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컴퓨터게임(52.1%)', 'TV시청(34.8%)', '인터넷·PC통신(31.7%)'로 응답하였는데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PC통신'

을 컴퓨터활동으로 본다면 남학생들은 대부분 여가활동을 TV를 보거나 컴퓨터와 함께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은 'TV시청'에 46.1%로 남자보다 12%나 더 많게 응답하였고 '인터넷이나 통신'에 34.8%로 남학생과 비슷하지만 '게임'에 대해서는 13.9%로 남학생의 여가활동 중 1순위를 차지한 것과 대조를 보여주었다. 한편 여학생은 2순위 여가활동으로 '친구만나기'에 24.2%로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17.8%로 응답하여 남학생이 컴퓨터활동으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과 달리 친구만나는 것에 여학생이 더 많이 여가를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72> 저소득층청소년들의 현재 여가활동

단위 : (명)%

활동명	성별		전 체	활동명	성별		전 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집안일 돕기	11.6	19.1	15.7	종교활동	2.0	4.2	3.2
집에서 휴식	18.1	20.9	19.7	동아리활동	4.0	3.3	3.6
독서	13.9	8.9	11.2	개인적인 학습활동	2.8	3.8	3.3
신문·잡지 읽기	4.5	3.5	4.0	야외활동(등산등)	2.0	0.9	1.4
만화읽기	16.1	18.1	17.2	여행	3.7	0.9	2.2
TV시청	34.8	46.1	41.0	가족과의 대화	1.4	4.0	2.8
비디오시청	6.2	4.7	5.4	스포츠활동	3.4	0.0	1.5
라디오 청취	1.7	4.5	3.2	길거리 돌아다니기	3.7	5.2	4.5
음악감상	20.7	22.6	21.7	생활취미활동	2.0	4.2	3.2
예술활동	2.8	6.4	4.8	예술관람	2.5	2.6	2.6
모형·완구제작	2.8	0.5	1.5	노래부르기	11.0	17.2	14.4
각종운동(스포츠)	11.9	2.4	6.7	춤추기	3.4	5.9	4.8
컴퓨터게임	52.1	13.9	31.2	실내오락(바둑·장기등)	2.3	0.5	1.3
인터넷·PC통신	31.7	34.8	33.4	쇼핑하기·시장구경	0.8	5.6	3.5
친구만나기	17.8	24.2	21.3	특별히 하는일 없음	1.4	6.4	4.1
아르바이트	5.7	2.4	3.9	전체	(344) 100.0	(413) 100.0	(778) 100.0

* 복수응답한 결과임

현재의 여가활동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비록 낮은 비율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남학생들은 야외활동이나 여행, 동아리, 스포츠, 각종 운동 등 동적인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더 많았고, 여학생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음, 쇼핑, 가족과의 대화, 개인적인 학습, 종교활동, 음악감상, 집에서 휴식 등 주로 정적인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73> 저소득층청소년이 희망하는 여가활동들

단위 : (명)%

활동명	성별		전 체	활동명	성별		전 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집안일 돕기	2.3	3.1	2.8	종교활동	2.3	2.4	2.4
집에서 휴식	7.6	7.7	7.7	동아리활동	7.3	7.7	7.5
독서	7.3	4.6	5.8	개인적인 학습활동	2.3	2.7	2.5
신문·잡지 읽기	2.6	1.2	1.8	야외활동(등산등)	20.1	9.0	14.0
만화읽기	5.5	5.8	5.7	여행	28.8	34.6	32.0
TV시청	5.5	2.9	4.1	가족과의 대화	4.7	3.1	3.8
비디오시청	8.7	8.0	8.3	스포츠활동	13.4	3.1	7.8
라디오 청취	0.6	1.7	1.2	길거리 돌아다니기	2.0	5.6	4.0
음악감상	8.7	7.3	7.9	생활취미활동	5.2	15.3	10.7
예술활동	9.0	18.9	14.4	예술관람	17.4	25.9	22.1
모형·완구제작	8.1	2.4	5.0	노래부르기	8.4	11.1	9.9
각종운동(스포츠)	19.2	12.1	15.3	춤추기	8.4	12.6	10.7
컴퓨터게임	23.0	5.6	13.5	실내오락(바둑·장기등)	6.1	2.2	4.0
인터넷·PC통신	14.8	13.6	14.1	쇼핑하기·시장구경	14.2	25.9	20.6
친구만나기	11.3	8.2	9.6	특별히 하는일 없음	1.7	1.9	1.8
아르바이트	18.6	29.8	24.7	전체	(344) 100.0	(413) 100.0	(757) 100.0

* 복수응답한 결과임

희망하는 여가활동이 무엇인지 3 가지씩을 선택하게 하여 복수응답

처리하여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여행(32%)', '아르바이트(24.7%)', '예술관람(22.1%)', '쇼핑(20.6%)', '각종 운동(15.3%)', '예술활동(14.4%)' 순으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희망하는 활동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여가활동으로 해보지 못한 것들이 거의 높게 나타났다. 이는 희망하는 여가활동이 있어도 어떠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것은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여가활동 2순위로 선택한 것이다. 현재 여가활동질문의 응답결과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은 총 3.9%로 남학생은 5.7%, 여학생은 2.4%로 응답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전체가 24.7%, 남학생은 18.6%, 여학생은 29.8%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거의 8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여행(28.8%)', '게임(23%)', '야외활동(20.1%)', '운동(19.2%)', '아르바이트(18.6%)', '예술관람(17.4%)' 순으로 응답했으며 여학생은 '여행(34.6%)', '아르바이트(29.8%)', '예술관람(25.9%)', '쇼핑(25.9%)', '예술활동(18.9%)'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여행을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학생들은 게임, 야외활동이나 운동이 순위에 든 반면 여학생들은 쇼핑이나 예술활동, 생활취미활동으로 응답해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여가활동들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여가나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비용부담(39.5%)', '시간부족(34.9%)', '적절한 장소와 시설의 부재(10.3%)'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급별로는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실업계고교생(48.2%)이 일반계고교생(40.2%)과 중학생(37.6%)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으며 '시간부족'에 대해서는 일반계고교생(41%)이 중학생(36%)과 실업계고교생(23.7%)보다 더 많이 응답하여 실업계고교생은 비용부담을, 일반계고

교생은 시간부족을 여가장애요인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계고교생이 실업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표 III-74> 여가·취미생활의 장애요인

단위 (명)%

구분		시간 부족	비용 부담	함께 할 사람 부재	적절한 장소와 시설 부재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	기타	전 체
성별	남자	38.2	36.5	5.3	10.3	3.9	2.5	3.3	(359)100.0
	여자	32.3	42.0	3.7	10.2	6.5	2.8	2.6	(431)100.0
교급별 *	중학교	36.0	37.6	4.7	9.8	4.8	3.4	3.8	(559)100.0
	일반고교	41.0	40.2	2.6	12.0	3.4	0.9		(117)100.0
	실업고교	23.7	48.2	5.3	10.5	9.6	0.9	1.8	(114)100.0
전체		34.9	39.5	4.4	10.3	5.3	2.7	2.9	(790)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표 III-75> 체험학습일에 주로 하는 일

단위 : (명)%

구분		집에서 하는일 없이 TV보며 지냄	부족한 학과 공부 보충	영화나 공연 관람	특별한 계획 없이 친구와 보냄	PC방·오락실 등에 간다	우리 학교에는 체험 학습일이 없다	기타	전 체
성별 ***	남자	25.1	5.8	7.2	16.0	21.8	6.1	18.2	(363)100.0
	여학생	27.9	4.9	11.2	17.7	6.5	7.9	24.0	(430)100.0
교급별	중학교	26.9	5.3	8.0	17.8	14.8	7.8	19.4	(562)100.0
	일반고교	25.6	8.5	13.7	18.8	7.7	0.9	24.8	(117)100.0
	실업고교	26.3	1.8	11.4	10.5	13.2	9.6	27.2	(114)100.0
전체		26.6	5.3	9.3	16.9	13.5	7.1	21.3	(793)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체험학습일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알아본 결과 '집에서 하는 일 없이 TV를 보며 지낸다(26.6%)', '특별한 계획없이 친구와 보낸다(16.9%)', 'PC방이나 오락실에 간다(13.5%)', '영화나 공연관람(9.3%)', '체험학습일이 없다(7.1%)', ' 부족한 학과공부를 보충한다(5.3%)'순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성별로는 $p<.001$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집에서 하는 일 없이 TV를 보며 지낸다'는 여학생(27.9%)이 남학생(25.1%)보다 더 약간 많았으며 'PC방이나 오락실에 간다'에는 남학생(21.8%)은 여학생(6.5%)보다 3배 이상이나 되었다. 또한 '영화나 공연관람'에서는 여학생(11.2%)이 남학생(7.2%)보다 3% 정도 더 많았고 '특별한 계획없이 친구와 보낸다'는 남학생(17.7%)과 여학생(16%)이 비슷하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영화관람을 많이 하고, 남학생은 주로 PC방에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76> 한달 평균 독서량

단위 (명)%

구분		없다	1권	2~3권	4~5권	6~9권	10~14권	15~19권	20권 이상	전 체
성별	남자	18.9	18.3	24.8	12.1	5.4	7.0	1.4	12.1	(355)100.0
	여자	9.3	24.0	28.0	13.5	3.1	10.2	1.7	10.2	(421)100.0
교급별	중학교	11.7	18.6	28.0	13.3	4.4	9.3	2.2	12.4	(547)100.0
	일반고교	17.9	29.1	21.4	13.7	3.4	4.3		10.3	(117)100.0
	실업고교	18.8	26.8	25.0	9.8	3.6	10.7		5.4	(112)100.0
전체		13.7	21.4	26.5	12.9	4.1	8.8	1.5	11.1	(776)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독서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폭넓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청소년에게 더욱 권장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독

서분야와 독서량을 살펴보았는데 한 달에 평균 몇 권의 책을 읽는지 알아본 결과 26.5%가 '2~3권', 21.4%가 '1권', 13.7%가 '없다', 12.9%가 '4~5권'이라고 응답하여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제외하고 약 60%의 청소년들이 한 달에 1~5권사이의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10권 이상을 읽는다고 한 청소년들도 2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에 대한 결과에서는 성별과 교급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을 즐겨 읽는지에 대해 두 가지씩 우선순위로 응답하게 한 결과 1순위 독서분야는 37.4%가 '만화책', 34.4%가 '교양서적', 17.8%가 '생활·취미·정보서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외에도 '추리 및 범죄물(3.8%)', '무협지(2.7%)', '기타(2.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판타지소설'이 가장 많았고 '잡지', '코믹물', '수능관련, 대입관련 책' 등이 있었다.

<표 III-77> 주요 독서분야 1순위

단위 · (명)%

구분		교양서적	생활·취미·정보서적	만화책	추리 및 범죄물	성관련서적	무협지	하이틴로맨스	기타	전 체
성별 ***	남자	26.7	18.8	38.8	5.1	1.7	5.6	0.3	3.1	(356)100.0
	여자	40.9	16.9	36.2	2.8	0.7	0.2	0.7	1.4	(425)100.0
교급별 *	중학교	34.8	16.0	40.8	3.3	0.9	1.6	0.7	1.8	(551)100.0
	일반고교	38.5	20.5	24.8	6.0	1.7	6.0		2.6	(117)100.0
	실업고교	28.3	23.9	33.6	4.4	1.8	4.4		3.5	(113)100.0
전체		34.4	17.8	37.4	3.8	1.2	2.7	0.5	2.2	(781)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성별로는 p<.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만화책'을 남학생(38.8%)이 여학생(36.2%)보다 더 즐겨보며 '교양서적'은 여학생(40.9%)이 남학생(26.7%)보다 더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

은 '추리물'과 '무협지'를 각각 5.1%, 5.6%정도 즐겨 읽는 반면 여학생은 각각 2.8%, 0.2%로 나타나서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교급별로 보면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생(40.8%)이 실업계고교생(33.6%)과 일반계고교생(24.8%)보다 '만화책'을 더 즐겨보며 일반계고교생(38.5%)이 중학생(34.8%)과 실업계고교생(28.3%)보다 '교양서적'을 더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교생(23.9%)은 일반계고교생(20.5%), 중학생(16%)보다 '생활·취미·정보서적'을 더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8> 주요 독서분야 2순위

단위 (명)%

구분		교양서적	생활·취미·정보서적	만화책	추리 및 범죄물	성관련서적	무협지	하이틴로맨스	기타	전 체
성별 ***	남자	8.7	10.6	30.6	11.9	5.8	17 7	4.2	10.3	(310)100.0
	여자	8 5	16.5	33.2	13.4	0 5	5.4	15.4	7.2	(389)100 0
교급별 **	중학교	9 6	14.0	31 5	14.2	1 8	10.2	10.0	8 6	(499)100 0
	일반고교	9.0	19.0	28.0	11.0	2.0	8 0	14.0	9 0	(100)100.0
	실업고교	3 0	8.0	39.0	7.0	9 0	17 0	9.0	8 0	(100)100.0
전체		8.6	13 9	32.0	12 7	2 9	10.9	10 4	8.6	(699)100 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즐겨보는 독서분야 2 순위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만화책(32%)', '생활·취미·정보서적(13.9%)', '추리 및 범죄물(12.7%)', '무협지(10.9%)', '하이틴로맨스(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교양서적이 8.6%, 기타가 8.6%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교급별로 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우선 성별로는 $p<.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즉 여학생(33.2%)이 남학생(30.6%)보다 '만화책'을 즐겨 읽으며 '생활·취미·정보서적' 역시 여

학생(16.5%)이 남학생(10.6%)보다 더 즐겨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 독서분야는 '무협지'와 '하이틴로맨스'인데 남학생(17.7%)이 여학생(5.4%)보다 약 12%나 더 '무협지'를 즐겨 읽고 여학생(15.4%)이 남학생(4.2%)보다 약 11%나 더 '하이틴로맨스'를 즐겨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의 독서실태를 요약해 보면 이들은 보통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는 경우가 13%, 1~3권 정도가 47%로 나타났고 독서분야로는 만화책(1순위 : 37.4%, 2순위 : 32.0%)과 교양서적(1순위 : 34.4%, 2순위 : 8.6%), 생활·취미·정보서적(1순위 : 17.9%, 2순위 : 13.9%) 순으로 많이 읽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서량이 그리 많지도 않고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접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의 유용성을 생각하여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해 봄직하다.

6. 복지프로그램 이용실태와 욕구

본 절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들을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욕구분석틀에 따라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로 구분하고 각각의 욕구를 하위영역으로 더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청소년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실태와 앞으로 희망서비스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알아보았다.

생존욕구의 하위영역으로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건강·의료, 경제적 사항에 관련된 욕구가 해당되는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의생활욕구에 부응하는 것으로는 세탁서비스가 있다. 현재 세탁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4.8%이며 희망하는 경우는 23.1%인 것으로 나타

났다.

<표 III-79>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프로그램 참여 및 희망여부

단위 : (명)%

서비스프로그램	현재 이용여부		차후 희망여부		전체
	이용함	이용안함	희망함	희망안함	
세탁서비스	4.8	95.3	23.1	76.9	(800)100.0
급식지원·밑반찬제공	22.0	78.0	22.5	77.5	(800)100.0
식사준비 및 취사서비스	6.9	93.1	21.3	78.8	(800)100.0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배, 수리)	6.4	93.6	28.0	72.0	(800)100.0
이·미용 서비스	7.8	92.3	26.5	73.5	(800)100.0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	7.0	93.0	30.6	69.4	(800)100.0
무료진료	9.0	91.0	31.3	68.8	(800)100.0
음주나 흡연교육	5.6	94.4	19.0	81.0	(800)100.0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8.3	71.8	16.4	83.6	(800)100.0
현금지원(생활비 및 장학금)	22.3	77.8	32.4	67.6	(800)100.0
아르바이트 알선	7.1	92.9	41.1	58.9	(800)100.0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	5.0	95.0	23.6	76.4	(800)100.0
또래지지프로그램	7.1	92.9	22.6	77.4	(800)100.0
자원봉사프로그램	13.4	86.6	27.9	72.1	(800)100.0
개인 상담 및 정서적 지원	8.0	92.0	25.5	74.5	(800)100.0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리더쉽 등)	8.4	91.6	27.1	72.9	(800)100.0
사회교육(컴퓨터·수영·피아노 등)	14.4	85.6	38.5	61.5	(800)100.0
동아리 활동	14.1	85.9	33.8	66.3	(800)100.0
청소년캠프	11.1	88.9	36.5	63.5	(800)100.0
학습지도(방과후교실·청소년공부방)	23.0	77.0	27.0	73.0	(800)100.0
진로지도프로그램	7.0	93.0	33.5	66.5	(800)100.0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	5.1	94.9	34.8	65.3	(800)100.0

식생활에 관련된 것으로는 급식지원, 취사서비스가 있는데 급식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22%이며 희망하는 경우도 22.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취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6.9%이지만 희망하는 경우는 21.3%로 이용청소년에 비해 희망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생활에 관련된 것으로는 주거개선서비스가 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경우는 6.4%이며 희망하는 경우는 28%로 나타났다.

건강·의료와 관련해서는 이미용서비스, 운동기구대여, 무료진료, 약물교육이 있는데 먼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7.8%, 희망하는 경우가 26.5%로 나타났다. 운동기구대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7%, 희망하는 경우는 30.6%로 두 프로그램 모두 희망하는 경우가 3~4배 가까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욕구와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무료진료의 경우는 9%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는 31.3%로 나타났으며 음주나 흡연교육에 대해서는 5.6%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는 19%로 나타났다.

경제적 사항에 관련된 서비스로 기초생활보장, 현금지원, 아르바이트 알선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는 28.3%로 나타났고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22.3%이며 희망하는 경우는 각각 16.4%, 32.4%로 나타나서 기초생활보장보다는 복지관에서의 생활비 및 장학금지원을 받기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알선서비스는 현재 7.1%만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41.1%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존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이 28.3%, 현금지원 22.3%, 급식지원서비스 22% 순임을 알 수 있었다.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41.1%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알선에 응답하여 희망하는 서비스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금지원 32.4%, 무료진료 31.3%, 운동기구대여서비스 30.6%, 주거환경개선사업 28.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계욕구의 하위영역에 해당되는 욕구들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지역사회관계인데 먼저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는 5%로 이용한 청소년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희망하는 경우는 2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지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7.1%이며 희망하

는 경우는 22.6%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프로그램 이용율은 13.4%로 나타났고, 희망하는 경우는 27.9%로 나타나 관계욕구 중에서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장욕구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자아성장, 학업·진로, 문화·여가활동에 관련된 욕구가 해당되는데 우선 자아성장 프로그램에서 개인상담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는 8%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25.5%가 희망하고 있었고, 집단프로그램에는 8.4%가 참여하고 있었고 27.1%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욕구와 관련하여서는 학습지도(방과후 교실)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학습지도 프로그램 이용율은 23%를 나타내어 이용서비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며 27%의 청소년들이 희망하고 있었다.

진로욕구와 관련해서는 진로지도프로그램과 직업훈련·취업소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로지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7%, 희망하는 경우는 33.5%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취업소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5.1%에 불과했으나 희망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34.8%로 아르바이트알선, 사회교육, 청소년캠프에 이어 전체프로그램 중 4번째로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에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나 동아리활동, 청소년 캠프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사회교육프로그램은 14.4%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는 38.5%로 희망하는 프로그램 중 두 번째이기도 하다. 동아리활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14.1%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비율과 같다. 동아리활동을 희망하는 경우는 33.8%로 나타났고, 캠프를 이용한 경우는 11.1%이고 희망하는 경우는 36.5%로 희망하는 프로그램 중 3번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장욕구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학습지도프로그램(23%), 사회교육(14.4%), 동아리활동(14 1%) 순이었으며, 많이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사회교육프로그램(38.5%), 청소년캠프(36.5%), 직업훈련프로그램(34.8%), 동아리활동 (33.8%), 진로지도프로그램(33.5%) 순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초생활보장(28.3%), 학습지도(23%), 급식지원(22%), 현금지원(22.3%)인 것으로 나타났고, 많이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아르바이트알선(41.1%), 사회교육프로그램(38.5%), 직업훈련(34.8%), 동아리활동(33.8%), 진로지도 프로그램(33.5%)임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희망하는 서비스가 아르바이트알선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의 경제적 욕구가 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교육프로그램은 과외활동이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의 반영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교급별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기관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생존욕구 관련 프로그램

의생활관련 프로그램으로 세탁서비스에 대한 이용여부와 희망여부를 성별과 교급별로 알아본 결과 둘 다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 보면 이용여부($p<.001$)와 희망여부($p.<01$)에서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용하는 여학생이 2.3%인데 반해 남학생은 두 배인 7.7%로 응답하였다. 희망하는 경우도 여학생이 19.3%인데 반해 남학생은 27.7%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희망여부에서 $p<.01$ 수준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

데 중학생이 26.1%로 가장 많았고 실업계고교생 23.1%, 일반계고교생이 10.1%로 나타났다.

<표 III-80> 의생활 관련 프로그램

단위 (명)%

프로그램	구분		현재 이용여부		차후 희망여부		전 체
			이용함	이용안함	희망함	희망안함	
세탁서비스	성별 *** (**)	여자	2.3	97.7	19 3	80 7	(435)100.0
		남자	92.3	97.7	27 7	72.3	(365)100 0
	교급별 (**)	중학교	4.9	95 1	26 1	73.9	(566)100 0
		일반고교	5.0	95 0	10 1	89.9	(119)100 0
		실업고교	3.5	96 5	21 7	78.3	(115)100 0
	전체		4.8	95 3	23 1	76.9	(800)100 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2) (*), (**), (***) 차후 희망여부와 관련된 유의도 수준임

식생활관련프로그램에 대해 성별과 교급별로 알아본 결과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우선 급식지원서비스에 대한 결과에서 성별로는 p<.05 수준으로 이용과 희망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용여부에서 여학생이 19.3%, 남학생이 25.2%로 응답하였고 희망여부에 대해서도 여학생 19%, 남학생 26.6%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와 희망하는 경우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보면 희망여부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이 25.3%, 실업계고교생이 18.3%, 일반계고교생이 13.4%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생은 이용하는 경우나 희망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고등학생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희망하는 경우는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 급식지원에 대한 욕구가 절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1>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

단위 (명)%

프로그램	구분		현재 이용여부		차후 희망여부		전 체
			이용함	이용안함	희망함	희망안함	
급식지원·밑반찬제공	성별 * (*)	여자	19.3	80.7	19.1	80 9	(365)100 0
		남자	25.2	74 8	26 6	73.4	(435)100.0
	교급별 (*)	중학교	23 1	76.9	25.3	74.7	(566)100 0
		일반고교	15 1	84.9	13.4	86.6	(119)100.0
		실업고교	23.5	76 5	18 3	81.7	(115)100.0
	전체		22 0	78.0	22.5	77.5	(800)100.0
식사준비·취사서비스	성별 ** (**)	여자	4 1	95.9	17.2	82 8	(435)100 0
		남자	10.1	89.9	26.0	74 0	(365)100.0
	교급별 * (**)	중학교	8 3	91.7	24.6	75.4	(566)100 0
		일반고교	4 2	95 8	9.2	90.8	(119)100 0
		실업고교	2.6	97.4	17.4	82 6	(115)100.0
	전체		6 9	93.1	21.3	78 8	(800)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2) (*), (**), (***) 차후 희망여부와 관련된 유의도 수준임

다음으로 취사서비스에 대한 결과에서는 이용·희망여부 모두 성별로 p<.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10.1%)이 여학생(4.1%)보다 두 배로 높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하는 경우도 남학생이 20.8%로 여학생 12.6%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 보면 이용여부(p<.05), 희망여부(p<.01)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생 8.3%, 일반계고교생 4.2%, 실업계고교생 2.6%로 나타나 중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도 중학생이 24.6%, 실업계고교생 17.4%, 일반계고교생 9.2%로 나타나서 중학생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용과 희망여부 모두에서 성별로는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남학

생 8.8%, 여학생 4.4%로 남학생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하는 경우도 남학생 32.1%, 여학생 24.6%로 응답하여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남학생들의 욕구가 강함을 볼 수 있다.

<표 III-82> 주생활 관련 프로그램

단위 : (명)%

프로그램	구분		현재 이용여부		차후 희망여부		전 체
			이용함	이용안함	희망함	희망안함	
주거환경개선사업(도배·수리)	성별 * (*)	여자	4.4	95.6	24.6	75.4	(435)100.0
		남자	8.8	91.2	32.1	67.9	(365)100.0
	교급별 (*)	중학교	6.9	93.1	30.6	69.4	(566)100.0
		일반고교	5.0	95.0	17.6	82.4	(119)100.0
		실업고교	5.2	94.8	26.1	73.9	(115)100.0
	전체		6.4	93.6	28.0	72.0	(800)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2) (*), (**), (***) 차후 희망여부와 관련된 유의도 수준임

교급별로는 희망여부에서만 p<.05 수준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생(30.6%), 실업계고교생(26.1%), 일반계고교생(17.6%),순으로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의료관련 프로그램에서 먼저 이미용서비스는 이용여부에서 성별(p<.001 수준에서)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4.4%인데 반해 남학생이 11.8%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교급별로 보면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고 희망하는 경우에 중학생(29.7%)이 실업계고교생(23.5%), 일반계고교생(14.3%)보다 많이 원하고 있었다.

운동지도·기구대여 서비스에 대해 성별로 보면 p<.001 수준으로 이용과 희망여부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11.2%로 여학생 3.4%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희망하는 경우도 남학생 39.2%, 여학생이 23.4%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교급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III-83> 건강·의료 관련 프로그램

단위 : (명)%

프로그램	구분		현재 이용여부		차후 희망여부		전 체
			이용함	이용안함	희망함	희망안함	
이·미용서비스	성별	여자	4.4	95.6	26.1	74.0	(435)100.0
		남자	11.8	88.2	27.1	72.9	(365)100.0
	교급별 (**)	중학교	8.5	91.5	29.7	70.3	(566)100.0
		일반고교	4.2	95.8	14.3	85.7	(119)100.0
		실업고교	7.8	92.2	23.5	76.5	(115)100.0
	전체		7.8	92.3	26.5	73.5	(800)100.0
운동지도·기구대여	성별 ***	여자	3.4	96.6	23.4	76.6	(435)100.0
		남자	11.2	88.8	39.2	60.8	(365)100.0
	교급별	중학교	8.1	91.9	31.3	68.7	(566)100.0
		일반고교	5.0	95.0	23.5	76.5	(119)100.0
		실업고교	3.5	96.5	34.8	65.2	(115)100.0
	전체		7.0	93.0	30.6	69.4	(800)100.0
무료진료	성별 (**)	여자	6.2	93.8	28.5	71.5	(435)100.0
		남자	12.3	87.7	34.5	65.5	(365)100.0
	교급별	중학교	9.9	90.1	33.4	66.6	(566)100.0
		일반고교	5.9	94.1	25.2	74.8	(119)100.0
		실업고교	7.8	92.2	27.0	73.0	(115)100.0
	전체		9.0	91.0	31.3	68.8	(800)100.0
음주·흡연교육	성별 (***)	여자	4.4	95.6	13.6	86.4	(435)100.0
		남자	7.1	92.9	25.5	74.5	(365)100.0
	교급별 (**)	중학교	5.1	94.9	21.9	78.1	(566)100.0
		일반고교	5.9	94.1	10.1	89.9	(119)100.0
		실업고교	7.8	92.2	13.9	86.1	(115)100.0
	전체		5.6	94.4	19.0	81.0	(800)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2) (*), (**), (***) : 차후 희망여부와 관련된 유의도 수준임

무료진료에 대해 성별로 보면 p<.01 수준으로 이용여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이 6.2%인데 반해 남학생이 12.3%로 남학생이 두 배 가까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교급별는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음주 및 흡연교육에 대해 성별로 희망여부에서 p<.001 수준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25.5%, 여학생이 13.6%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4> 경제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프로그램	구분		현재 이용여부		차후 희망여부		전 체
			이용함	이용안함	희망함	희망안함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성별 *	여자	25.1	74.9	12.6	87.4	(435)100.0
		남자	32.1	67.9	20.8	79.2	(365)100.0
	교급별 **	중학교	30.2	69.8	17.8	82.2	(566)100.0
		일반고교	15.1	84.9	10.9	89.1	(119)100.0
		실업고교	32.2	67.8	14.8	85.2	(115)100.0
	전체		28.3	71.8	16.4	83.6	(800)100.0
현금지원(생활비·장학금)	성별 * (**)	여자	19.5	80.5	29.4	70.6	(435)100.0
		남자	25.5	74.5	35.9	64.1	(365)100.0
	교급별	중학교	24.2	75.8	32.9	67.1	(566)100.0
		일반고교	11.8	88.2	28.6	71.4	(119)100.0
		실업고교	23.5	76.5	33.9	66.1	(115)100.0
	전체		22.3	77.8	32.4	67.6	(800)100.0
아르바이트알선	성별	여자	5.5	94.5	40.7	59.3	(435)100.0
		남자	9.0	91.0	41.6	58.4	(365)100.0
	교급별 **	중학교	24.2	75.8	41.9	58.1	(566)100.0
		일반고교	11.8	88.2	32.8	67.2	(119)100.0
		실업고교	23.5	76.5	46.1	53.9	(115)100.0
	전체		7.1	92.9	41.1	58.9	(800)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2) (*), (**), (***) . 차후 희망여부와 관련된 유의도 수준임

경제지원 프로그램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성별로는 이용 희망여부에서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용하는 경우에 여학생

(25.1%), 남학생(32.1%)으로 남학생이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희망하는 경우는 남학생이 20.8%, 여학생이 12.6%로 응답해서 현재 받고 있는 학생들보다 희망하는 경우가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12~13%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이용여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중학생(30.2%)과 실업계고교생(32.2%)이 일반계고교생(15.1%)에 비해 두 배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지원을 성별로 보면 이용·희망여부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19.5%, 남학생은 25.5%로 남학생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희망하는 경우도 남학생(35.9%)이 여학생(29.4%)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알선을 보면 성별과 교급별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급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중학생(24.2%)과 실업계고교생(23.5%)이 일반계고교생(11.8%)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희망하는 경우 역시 실업계고교생(46%)과 중학생(41.9%)이 일반계고교생(32.8%)보다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아르바이트 알선의 경우는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이 나타나서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관계욕구 관련 프로그램

가족관계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별로 이용·희망 여부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여학생이 3.4%, 남학생이 6.8%로 남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희망하는 경우도 역시 남학생(28.8%)이 여학생(19.3%)보다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5> 부모관계 프로그램

단위 (명)%

프로그램	구분		현재 이용여부		차후 희망여부		전 체
			이용함	이용안함	희망함	희망안함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	성별 * (**)	여자	3.4	96.6	19.3	80.7	(435)100.0
		남자	6.8	93.2	28.8	71.2	(365)100.0
	교급별	중학교	5.1	94.9	25.4	74.6	(566)100.0
		일반고교	3.4	96.6	16.8	83.2	(119)100.0
		실업고교	6.1	93.9	21.7	78.3	(115)100.0
	전체		5.0	95.0	23.6	76.4	(800)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2) (*), (**), (***) : 차후 희망여부와 관련된 유의도 수준임

교급별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희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학생(25.4%)과 실업계고교생(21.7%)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일반계고교생은 16.8%로 역시 훨씬 적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6> 친구관계 프로그램

단위 : (명)%

프로그램	구분		현재 이용여부		차후 희망여부		전 체
			이용함	이용안함	희망함	희망안함	
또래지지프로그램	성별 *	여자	5.3	94.7	20.2	79.8	(435)100.0
		남자	9.3	90.7	25.5	74.5	(365)100.0
	교급별 (*)	중학교	7.1	92.9	25.1	74.9	(566)100.0
		일반고교	6.7	93.3	15.1	84.9	(119)100.0
		실업고교	7.8	92.2	18.3	81.7	(115)100.0
	전체		7.1	92.9	22.6	77.4	(800)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2) (*), (**), (***) : 차후 희망여부와 관련된 유의도 수준임

또래지지프로그램을 성별로 이용여부에서만 p<.05 수준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9.3%)이 여학생(5.3%)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희망여부에서 p<.05 수준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25.1%), 실업계고교생(18.3%), 일반계고교생(15.1%) 순으로 응답하여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실업계고교생이 일반계고교생보다 조금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7>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

단위 : (명)%

프로그램	구분		현재 이용여부		차후 희망여부		전 체
			이용함	이용안함	희망함	희망안함	
자원봉사프로그램	성별 * (**)	여자	11.0	89.0	23.4	76.6	(435)100.0
		남자	16.2	83.8	33.2	66.8	(365)100.0
	교급별	중학교	12.2	87.8	29.7	70.3	(566)100.0
		일반고교	19.3	80.7	26.9	73.1	(119)100.0
		실업고교	13.0	87.0	20.0	80.0	(115)100.0
	전체		13.4	86.6	27.9	72.1	(800)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2) (*), (**), (***) 차후 희망여부와 관련된 유의도 수준임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상호공존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가족과 학교외의 인간관계를 체험함으로써 더 넓은 사회체계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자원봉사프로그램에 대해서 성별과 교급별로 이용여부와 희망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해본 결과 교급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로는 이용·희망여부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11%만이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남학생은 16.2%로 남학생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희망여부에 대해서도 여학생이 23.4%인데 반해 남학생이 33.2%로 여학생보다 더 많

이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성장욕구 관련 프로그램

자아성장프로그램에 대해서 성별과 교급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88> 자아성장 프로그램

단위 : (명)%

프로그램	구분		현재 이용여부		차후 희망여부		전 체
			이용함	이용안함	희망함	희망안함	
개인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성별 * (**)	여자	6.0	94.0	21.6	78.4	(435)100.0
		남자	10.4	89.6	30.1	69.9	(365)100.0
	교급별 *	중학교	6.5	93.5	27.4	72.6	(566)100.0
		일반고교	10.1	89.9	21.0	79.0	(119)100.0
		실업고교	13.0	87.0	20.9	79.1	(115)100.0
	전체		8.0	92.0	25.5	74.5	(800)100.0
집단 프로그램 (인간관계 · 리더쉽)	성별	여자	6.9	93.1	24.4	75.6	(435)100.0
		남자	10.1	89.9	30.4	69.6	(365)100.0
	교급별	중학교	9.0	91.0	28.6	71.4	(566)100.0
		일반고교	5.0	95.0	27.7	72.3	(119)100.0
		실업고교	8.7	91.3	19.1	80.9	(115)100.0
	전체		8.4	91.6	27.1	72.9	(800)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2) (*), (**), (***) . 차후 희망여부와 관련된 유의도 수준임

우선 개인상담 및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 먼저 성별로 보면 이용·희망여부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남학생(10.4%)이 여학생(6%)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희망여부에 대해서도 여학생이 21.6%인데 반해 남학생은 30.1%로 나타나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급별로는 이용여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실업계고교생(13.1%), 일반계고교생(10.1%), 중학생(6.5%) 순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2배정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희망여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고등학생(21%)에 비해 중학생(27.4%)이 개인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집단프로그램에 대해 성별과 교급별로 모두 의미있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급별 결과에 있어 일반계고교생은 현재 이용하는 경우(5%)는 적었지만 희망하는 경우(27.7%)는 실업계고교생(19.1%)보다 높게 나타나서 집단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가활동프로그램은 학교공부 외에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 흥미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성장을 돕고 여타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접함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면을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있어 비중있는 활동이 되고 있다. 이런 여가활동프로그램에 대해 성별과 교급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이는 복지관에서 취미나 여가생활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청소년에게 무료나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서 취미나 여가생활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일반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구분하지 않고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성별과 학력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둘 다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성별로 보면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12.4%, 16.7%로 비슷하게 응답했고 희망하는 경우도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38.9%, 38.1%로 비슷하게 응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급별로 보면 이용하는 경우에서 중학생이 16.1%로 일반계고교생(8.4%), 실업계고교생(12.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

생이 고등학생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일반계고교생은 '현재 수강내용'을 묻는 질문에서 진학을 위한 학원에 제일 많이 다니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복지관의 여가취미활동프로그램에 제일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89> 여가활동 프로그램

단위 : (명)%

프로그램	구분		현재 이용여부		차후 희망여부		전 체
			이용함	이용안함	희망함	희망안함	
사회교육 (컴퓨터·수영·피아노)	성별	여자	12.4	87.6	38.9	61.1	(435)100.0
		남자	16.7	83.3	38.1	61.9	(365)100.0
	교급별	중학교	16.1	83.9	40.1	59.9	(566)100.0
		일반고교	8.4	91.6	31.9	68.1	(119)100.0
		실업고교	12.2	87.8	37.4	62.6	(115)100.0
	전체		14.4	85.6	38.5	61.5	(800)100.0
동아리활동	성별 *	여자	11.5	88.5	34.3	65.7	(435)100.0
		남자	17.3	82.7	33.2	66.8	(365)100.0
	교급별 ** (***)	중학교	11.5	88.5	38.0	62.0	(566)100.0
		일반고교	24.4	75.6	24.4	75.6	(119)100.0
		실업고교	16.5	83.5	22.6	77.4	(115)100.0
	전체		14.1	85.9	33.8	66.3	(800)100.0
청소년캠프	성별	여자	9.7	90.3	38.2	61.8	(435)100.0
		남자	12.9	87.1	34.5	65.5	(365)100.0
	교급별 (***)	중학교	11.5	88.5	40.8	59.2	(566)100.0
		일반고교	7.6	92.4	25.2	74.8	(119)100.0
		실업고교	13.0	87.0	27.0	73.0	(115)100.0
	전체		11.1	88.9	36.5	63.5	(800)100.0

1) 유의도 수준 * = p<.05, ** = p<.01, *** = p<.001

2) (*), (**), (***) : 차후 희망여부와 관련된 유의도 수준임

동아리활동에 대해 성별로는 이용여부에서 p<.05 수준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며 여학생이 11.5%로 남학생 17.3%보다 적게 이용하고 있었

다. 그러나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여학생 34.3%, 남학생이 33.2%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학생이 현재 이용하는 경우는 적지만 앞으로 더 많은 수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보면 이용·희망여부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계고교생(24.4%)이 실업계고교생(16.5%), 중학생(11.5%)보다 훨씬 많아서 일반계고교생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교급학생에 비해 가장 적게 이용하지만 동아리 활동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하는 경우는 중학생이 38%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았고 일반계고교생은 24.4%, 실업계고교생 22.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캠프에 대해서 보면 성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용여부에 대해서 여학생이 9.7%, 남학생이 12.9%로 남학생이 훨씬 더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학생이 38.2%, 남학생이 34.5%로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슷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이용경우가 9.7%인데 반해 희망여부가 38.2%로 현재 이용하는 경우보다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희망여가활동'에서 여학생의 경우 가장 희망하는 활동이 여행인 점을 감안했을 때 복지관의 캠프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여행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급별로는 희망여부에서 $p<.001$ 수준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중학생이 40.8%로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고 실업계고교생(27%), 일반계고교생(25.2%) 순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진로 및 직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성별과 교급별로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지도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면 성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급별로 보면 $p<.01$ 수준에서 이용·희망여부 모두 의미 있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용여부에 대해서 중학생이 26.3%로 일반계고교생 12.6%, 실업계고교생 17.4%보다 훨씬 많은 수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희망여부에 대해서도 30.2%의 중학생들이 일반계고교생(21%),

<표 III-90> 진로·직업 프로그램

단위 (명)%

프로그램	구분		현재 이용여부		차후 희망여부		전 체
			이용함	이용안함	희망함	희망안함	
학습지도(방과후교실·청소년공부방)	성별	여자	20.7	79.3	24.8	75.2	(435)100.0
		남자	25.8	74.2	29.6	70.4	(365)100.0
	교급별 ** (**)	중학교	26.3	73.7	30.2	69.8	(566)100.0
		일반고교	12.6	87.4	21.0	79.0	(119)100.0
		실업고교	17.4	82.6	17.4	82.6	(115)100.0
	전체		23.0	77.0	27.0	73.0	(800)100.0
진로지도프로그램	성별 **	여자	4.8	95.2	32.0	68.0	(435)100.0
		남자	9.6	90.4	35.3	64.7	(365)100.0
	교급별	중학교	6.2	93.8	34.8	65.2	(566)100.0
		일반고교	9.2	90.8	35.3	64.7	(119)100.0
		실업고교	8.7	91.3	25.2	74.8	(115)100.0
	전체		7.0	93.0	33.5	66.5	(800)100.0
직업훈련·취업소개	성별 ** (**)	여자	3.0	97.0	30.3	69.7	(435)100.0
		남자	7.7	92.3	40.0	60.0	(365)100.0
	교급별	중학교	5.3	94.7	36.2	63.8	(566)100.0
		일반고교	3.4	96.6	26.1	73.9	(119)100.0
		실업고교	6.1	93.9	36.5	63.5	(115)100.0
	전체		5.1	94.9	34.8	65.3	(800)100.0

1) 유의도 수준 · * = p<.05, ** = p<.01, *** = p<.001

2) (*), (**), (***) 차후 희망여부와 관련된 유의도 수준임

실업계고교생(17.4%)보다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이용하는 학생에 비해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4% 증가하였고, 실업계고교생은 이용하는 학생이 17.4%, 희망하는 학생도 17.4%로 이용하는 학생과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동일하게 나타난 데 비해 일반계고교생의 경우는 이용하는 경우가 12.6%, 희망하는 경우가 21%로 나타나 학습지도에 대한 욕구가 다른 교급학생에 비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욕구가 다른 교급학생에 비해서 많다고 응답한 설

문의 결과와 관련해서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진로지도프로그램에 대해 성별과 교급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로는 이용여부에서 $p<.01$ 수준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4.8%인데 반해 남학생이 9.6%로 두배 정도 남학생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희망하는 경우는 남학생 35.3%, 여학생 32%로 나타나서 비슷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지도프로그램이 미래의 인생설계에 대한 계획이라면 직업훈련은 미래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 진로지도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과 비슷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성별로는 이용·희망여부 모두 $p<.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이용여부에 대해서 여학생은 3%라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7.7%로 응답하여 진로프로그램에 대해서 남학생이 2배로 이용 경험이 많은 것과 유사하게 직업훈련에 대해서도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여부에 대해서 보면 남학생(40%), 여학생(30.3%)보다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일반계고교생(26.1%)에 비해 중학생(36.2%)과 실업계고교생(36.5%)의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진로 및 직업프로그램에서 직업훈련·취업알선을 희망하는 전체 청소년의 비율이 34.8%로 학습지도(27%), 진로지도(33.5%)보다 많아서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복지프로그램의 이용과 희망여부에 대한 성별 차이를 보면 사회교육, 동아리활동, 청소년캠프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높은 이용율과 희망율을 보였는데 이는 남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응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교급별 차이는 이용실태와 희망욕구 모두에서 대부분의 결과가 중학

생, 실업계고교생, 일반계고교생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음의 프로그램에서는 교급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르바이트 알선에서는 실업계고교생의 희망욕구가 가장 높았고, 개별상담·정서적 지원에서는 중학생의 이용실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상담에서는 일반계고교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중학생이 가장 적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도에서는 일반계고교생이 실업계고교생보다 약간 많이 희망하고 있었으며 진로지도프로그램에서는 일반계고교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한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안에서의 어려움이나 희망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술한 내용을 욕구영역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존욕구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용돈이 부족하므로 학원 다니기가 힘들고 학교에서 들어가는 돈이 많아 부담스러워하거나, 장학금 등의 지원을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돈 문제가 제일 힘들다고 털어놓고 있다. 생활비가 부족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가 없고 부모님이 돈에 쪼들려서 굶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빨리 가정형편이 나아지길 바라고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바라는 청소년이 많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입을 만한 옷도 없고, 입고 싶은 옷이 너무 많은데 엄두도 못 내고, 식생활과 관련해서도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먹을 수가 없고, 특히 급식 때문에 아이들과 따로 밥을 먹어서 창피하고 답답하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주생활과 관련된 희망사항이 가장 많았는데 혼자 방을 쓰고 싶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고 이외에 집이 쾌적하게 개조되기를 바라거나 넓은 집으로 이사가기를 바라고 화장실확장, 온수 시설설치도 적지 않았다. 건강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몸이 아파서 걱정인 경우가 있었다. 대개 장기간에 걸친 병이 많았고 음주, 정

신질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며 부모님 못지 않게 생활비 부족과 생계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욕구와 관련해서 보면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제일 고민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부모님과 대화하기가 어렵고 자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업계로 진학한 경우도 부모님에 대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 아예 부모님 얼굴보기도 힘들고 혼자 있는 것이 싫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친구관계문제, 이성문제,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의 차별과 무관심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성장욕구와 관련해서는 성적에 대한 고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진로나 진학을 위해서는 성적이 잘 나와야 되므로 이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으로 성적이 고민이라고 한 경우도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원봉사자나 선생님들을 통해 학습지도나 학원무료수강을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진로가 뚜렷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 적성이나 흥미에 대한 정보, 진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대안학교나 공부방 등 공부할 장소를 마련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학업과 관련해서 숙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필요하거나 컴퓨터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한 경우도 많았다. 반면 학업량이 너무 많고 시험이 힘들다거나 학교에서 수능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줘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살리고 싶지만 어디서, 누구와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지 답답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여가와 관련하여 놀이 시설이나 캠프, 청소년을 위한 코너, 동아리가 많았으면 하고 바라고 시간이 부족하여 여가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여러 가지 사회교육프로그램(컴퓨터, 영어, 피

아노, 수영, 운동 등)을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꽤 있었다. 특히 진학과 성적문제로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7. 결과요약 및 함의

조사응답자(800명)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학생(45.6% : 365명)과 여학생(54.4% : 435명)의 비율이 거의 같았지만 교급별로는 중학생(70.8% : 566명)이 고등학생보다 많았는데, 일반계고교생(14.9% · 119명)과 실업계고교생(14.4% : 115명)의 경우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족구조를 보면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27.2%(235명),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19.1%(178명)로 편부모 가정이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은 고졸·고퇴의 경우 아버지(48.1%)와 어머니(47.1%) 모두 가장 많았고 중졸·중퇴가 아버지(17.8%), 어머니(23.8%)로 나타나 부모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저소득층청소년의 생존욕구

(1) 의생활 실태 및 욕구 : 대부분의 저소득층청소년들은 의복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80%) 충족되지 못한 의복구매 욕구(67.6%)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80% 정도가 의복구매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의복구매 충족도 및 의복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알아본 결과 67.6%의 청소년들이 의복구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정도의 청소년들만이 의복으로 인한 피해의식은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성별로는 의복구매 욕구에 있어서 여학생(77.7%)이 남학생(59.9%)보다 구매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복으로 인한 피해의식은 남학생(24%)이 여학생(1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피해의식이 높고, 의복구매 충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급이 높을수록, 실업계일수록 의복에 대한 욕구와 피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식생활 실태 및 욕구 : 저소득층청소년 40% 정도가 음식과 영양섭취 면에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청소년(47.2%) 중 80%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에서 중식만 지원받고 있는 실태에 반해 72.1%의 청소년들이 중식과 석식 모두를 지원받기를 희망했다. 또한 급식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52.8%)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는 '필요없다'가 53.2%로 가장 높았으며 '방법을 모름(10.9%)', '창피함(10.0%)', '신청누락(7.3%)' 등으로 나타나 급식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청소년 중 30% 정도 즉 전체청소년의 15% 정도는 급식지원 방법이 개선되면 중식지원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 정도의 청소년들이 음식충족 욕구와 영양섭취 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두 문항 모두 실업계 고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순으로 충족도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응답청소년 중 47.2%만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이중 80%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에서 중식만 지원받고 있었다. 급식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중식과 석식(29.5%)', '학교에서 중식(21.3%)', '학교에서의 중식과 식당에서의 석식(21.3%)', '학교에서의 중식과 민간단체에서의 도시락(11.5%)', '학교에서의 중식과 민간단체에서의 석식(9.8%)' 순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3) 주생활 실태 및 욕구 : 식생활에 대한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40%가 넘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주거생활(44.8%)과 주거공간(40.6%)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는 동네의 쾌적함(59.8%)과 안전성(58.1%) 등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쾌적함(65.7%)과 안전성(66%)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다.

사는 동네의 쾌적함과 안전성 등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65.9%, 66%)들의 만족도가 낮았고, 교급별로는 일반계고교생(55.5%, 59.3%)이 실업계고교생(40.2%, 45.1%)과 중학생(37%, 37.5%)에 비해 자신들의 주거환경의 쾌적함과 안전성에 월등히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가장 개선하기 원하는 주거시설은 '혼자 쓸 수 있는 방(55.7%)'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좀 더 넓은 실내공간(4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화장실개조(24.9%)'와 '부엌개조(20.4%)'를 원하고 있었다.

'형제자매(40.9%)'와 함께 방을 쓰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혼자(39.7%)', '온가족(8.2%)', '부모님(7.2%)' 순으로 함께 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성별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형제자매와 함께 방을 쓰는 여학생이 많은 반면 남학생은 형제자매보다는 혼자 방을 쓰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혼자 방을 쓰는 학생이 많았고, 이와는 역순으로 형제자매와 방을 쓰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집(33.7%)'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공부방Ⅱ(민간단체가 학습·여가지도와 더불어 학습공간 간혹 급식도 제공함)(21.4%)', '사설독서실(14.1%)', '학교도서관(11.5%)', '공부방Ⅰ(사설독서실과 비슷한 유형의 이용비가 매우 저렴한 정부지원 공부방)(8.7%)' 순으로 원하고 있었다. 교급별로 '실업계고교생(41.7%)'과 '중학생(35.2%)'이 집에서 공부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 반면 '일반계고교생(21.2%)'은 학교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또한 실업계고교생과 중학생이 '공부방 II(23.5%)'을 두 번째로 선호한 반면 일반계고교생은 '사설독서실(20.3%)'을 두번째로 선호하는 공부장소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와 중학생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4) 건강·의료 실태 및 욕구 : 33.2%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신체발육이 친구들에 비해 뒤진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47.3% 정도의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해 본 경험이 있고 중학생(40.8%), 일반계고교생(58.8%), 실업계고교생(67.3%) 순으로 경험도가 높았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주로 앓았던 질병으로는 감기, 충치, 코·귀, 피부 관련 질병, 위장병 등이었으며 병에 걸렸던 청소년(43.4%)의 과반수(51.6%)는 증세가 심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 중 12% 정도의 청소년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최근 6개월 간 걸렸던 질병으로는 '감기 및 기침잦음'이 52.3%로 가장 많았고, '충치 및 잇몸 관련 질병'이 14.0%, '코·귀 관련 질병'이 13.5%, '피부관련 질병'이 11.3%, '위장 관련 질병'이 11.1% 순으로 아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4%의 청소년들이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증세가 가벼워서(51.6%)', '시간이 없어서(20.1%)', '돈이 없어서(11.1%)', '거리가 멀어서(9%)', '치료예정임'(3.3%), '의료보험을 못내서(0.8%)' 순 이었다. 질병을 앓은 청소년의 과반수는 증세가 심하지 않으며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12% 정도의 청소년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관련하여 가족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56.8%의 청소년들이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25.4%이고, 심리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경제생활 실태 및 욕구 : 저소득층청소년의 53.6%가 '용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20% 정도의 청소년들은 '용돈이 없다'고 했다. 40% 정도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이중 60% 정도가 한달 평균 4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이유는 용돈이 필요해서(52.5%), 친구와 즐기기 위해서(21.2%)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업계고교생의 경우는 19%가 생활비를 위해서 일한다고 응답했다. '용돈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무엇에 가장 먼저 사용하고 싶은가'란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41.6%가 '의복비'에 사용하겠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문화교양비(20.1%)', '교제비(17.4%)', '외식비(8.3%)', '오락비(6.6%)' 순으로 희망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간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의복비에 17.9% 더 많이 응답한 반면, 남학생들은 오락비에 9.3% 더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교제비'에서도 5.5%정도의 남학생이 많이 응답하였다. 교급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학생들은 '오락비'와 '외식비', 일반계고교생들은 '문화교양비', 실업계고교생들은 '의복비'와 '교제비'에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한달 용돈으로 '3~4만원'이 31.3%로 가장 많았고, '1~2만원(23.3%)', '5~9만원(24.3%)' '10~14만원(8.8%)', '1만원 미만(6.1%)', '15~19만원(4.8%)'순으로 나타났고, '20만원 이상'도 4.8%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차이를 보여 용돈의 액수가 일반계고교생, 실업계고교생, 중학생 순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2.3%의 청소년들은 용돈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용돈 만족도에 대해서는 53.6%의 청소년들이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다.

39.3%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실업계고교생'이 58.4%로 가장 많았고, '일반계고교생'이 가장 적었다. 60% 정도의 청소년들이 한달 평균 4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광고지 배포'가 54.0%로 가장 많았고, '음식서빙(13.3%)',

'신문배달(10.3%)', '음식배달(6.0%)'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배달', '음식배달', '주유소 주유원'에서는 남학생이 많았고, '음식서빙'에서는 여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광고지 배포'가 중학생이 월등히 높아 68.4%를 보이는 반면 실업고교생은 '음식서빙'이 32.8%로 다른 교급보다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반계고교생의 경우는 다른 교급보다 '신문배달'이 1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는 '용돈이 필요해서'가 52.2%로 가장 많았고, '친구와 즐기기 위해'가 21.2%, '생활비'가 6.7%, '등록금·학원비'가 5.1%로 나타났다.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은 '실업고교(60.3%)', '일반고교(53.1%)', '중학교(49.8%)' 순으로 많았고, 친구와 즐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은 '중학교(26.1%)', '일반고교(12.5%)', '실업고교(6.9%)'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실업고교의 경우는 '생활비'를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이 19.0%나 되었다.

2) 저소득층청소년의 관계욕구

(1) 부모와의 관계실태 및 욕구 : 부모와의 관계는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상호 긍정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 이었다. 그러나 75.9%의 청소년이 어머니와 자주 대화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보다 낮은 비율인 54.4%로 나타났는데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훈육방법에 대해서는 60.1%만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훈육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조금 많은 66.9%가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곤란(19.5%)'보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24.7%)'이 가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드러난 결과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원활한 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9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아버지와의 애정관계를 상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성실성에 대해서도 80%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훈육방법에서는 66.9%, 대화정도에서는 54.4%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90%가 넘는 청소년들이 어머니와의 애정관계를 상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성실성에 대해서도 90% 정도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의 대화정도 역시 75.9%로 아버지와의 대화정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훈육방법에서는 60.1%만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아버지의 훈육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어려움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24.7%)'과 '경제곤란(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0%가 넘었다.

지역사회 기관에서 캠프나 스포츠활동 등 부모님과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경우 46.2%의 청소년만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참여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흥미가 없어서(42.8%)'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부모님이 바빠서(27.9%)',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창피해서(7.7%)', '참가비용이 부담스러워서(7.5%)'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청소년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홍보전략과 학교나 관련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바쁜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조절 및 프로그램기간에 대한 고려 등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와 함께 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만의 단기여행(32.1%)'

를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선택했고, 다음으로는 '공연·콘서트관람(23.2%)', '가족의 화목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17.5%)', '여러 가족과 함께 하는 캠프·야유회(15.1%)', '레포츠·스포츠활동(10.4%)' 순으로 응답하여 비교적 모든 프로그램을 고루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교사와의 관계실태 및 욕구 : 70% 정도의 청소년들이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선생님과 의견대립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6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50%가 조금 넘는 청소년들이 선생님이 자신을 존중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3분의1 정도의 청소년들만이 선생님과 대화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0%에 가까운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진로나 학과공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생님을 더 원하고 있었다.

원하는 교사상으로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선생님(34.1%)'과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 같은 다정한 선생님(34.0%)' 거의 같은 비율로 가장 많았고, '진로 등 어려움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선생님(14.1%)',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8.3%)'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는 확실히 장래 문제인 '진로 등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선생님'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고교생의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생과 원하는 선생님 상에 대한 서열은 같았지만 그 비율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생님보다는 '진로나 학과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더 많은 학생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친구관계 실태 및 욕구 : 90% 정도의 저소득층청소년들은 친구들이 자신을 소외시키지도 않고 자신들도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응답

하여 교우관계가 상호 긍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원하는 친구상으로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보다는 '함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를 두 배가 넘는 청소년들이 원하고 있었다. 자신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74.7%였고, 전체 청소년의 3분의 1정도만이 이성친구와 신뢰감 및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를 가장 많이 원했고(51.5%),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20.8%)를 차선으로 원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50% 정도가 일주일에 1~3번 정도 친구를 만나고 있었고 하루에 한 번씩 친구를 만나는 청소년들도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생, 실업계고교생, 일반계고교생 순으로 친구를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사회 관계실태 및 욕구 : 저소득층청소년들은 방과후 주로 형제자매와 지내거나 홀로 지내고 있었고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 방과후 지도를 원하고 있었는데 원하는 활동으로는 '학습지도'가 65%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활동내용은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원의를 살려 대학생자원봉사자나 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방과후 주로 누구와 함께 보내는 지 알아본 결과 '형제자매(26.5%)'와 보내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고, '홀로(21.3%)', '어머니(11.9%)', '조부모(5.0%)', '복지관(5.0%)' 순으로 나타났다. 26%를 차지하는 '기타'의 대부분은 친구였다.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 방과후 일상생활과 학습을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8.1% 더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해 주기를 원하는 활동으로는 '학습지도'가 65.1%로 가장 많았고, '여가·운동·문화활동 지도(17.8%)', '사회생활·인

간관계 능력향상지도(10.1%)' '가사서비스(4.5%)' 순으로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여학생이 학습지도를 원하고 있었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사회생활·인간관계 능력향상지도, 여가·운동·문화활동 지도, 가사서비스를 더 많이 원하고 있었다. 활동을 지도해줄 사람으로 청소년들은 '대학생 자원봉사자(29.4%)'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교사(21.5%)', '사회복지사(16.8%)', '청소년지도사(15.3%)' 순으로 원했다.

3) 저소득층청소년의 성장욕구

(1) 학업실태 및 욕구 : 저소득층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대학진학(80%)을 바라고 이를 위해 '학원무료수강(22%)'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희망하는 과외활동으로는 컴퓨터학원(23.5%)과 진학을 위한 학원(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사용시간을 알아본 결과 55%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1~9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장소는 대개 집(65%)이나 PC방(16%)으로 나타난 반면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겨우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60%정도가 중졸 후 진로로서 '일반계고교'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싶거나 선택했다고 하였으며 선택이유는 '대학진학을 위해서(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교를 선택한 경우는 35.6%로 선택 이유는 '취업이 유리할 것 같아서(13.6%)'라고 응답했다. 한편 희망학력을 물어본 결과 80%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대학졸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사회인 현 사회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학습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알아보았는데 '학원무료수강(22%)'가 가장 많았고 '장학금지급(19.1%)', '참고서 지급'이 17%, '학습공간제공(14.9%)', '청소년공부방사업(14.6%)'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의 72.4%였는데 그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57.4%)', '학교규칙에 매이기 싫어서

(40.2%)'로 나타났다. 현재 과외활동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41.1%의 청소년들은 어떤 과외활동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건이 된다면 희망하는 과외활동으로 일반계고교생은 가정교사과외와 진학학원을 희망하였고 실업계고교생은 체육관과 컴퓨터학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컴퓨터이용실태와 욕구를 알아보았는데 먼저 학교수업시간 외에 컴퓨터를 어디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용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40%가 '1~2시간', '5~9시간'정도를 대개 집(65%)이나 PC방(16%)에서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컴퓨터 교육이 제공된다면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알아본 결과 1순위로는 '인터넷(22.8%)', 2순위로는 '컴퓨터그래픽(20.1%)'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과 일반계고교생은 '컴퓨터그래픽·음악분야'를 더 희망하는 반면 남학생과 실업계고교생은 '컴퓨터 게임분야'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진로지도 실태 및 욕구 :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교사, 연예인, 요리사, 컴퓨터프로그래머 등이었다. 또한 직업훈련과 진로지도를 희망하는지 알아본 결과 둘 다 70%이상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시 희망하는 분야는 컴퓨터분야와 외국어분야인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지도 시 희망하는 분야는 '적성과 흥미에 관한 정보'와 '직업선택을 위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 2가지를 1지망, 2지망 순으로 알아본 결과 1지망으로는 교사(19.7%), 연예인(9.8%), 의사(7.7%), 컴퓨터프로그래머(5.5%)가 가장 많았고, 2지망으로는 연예인(11.3%), 요리사(8.5%), 컴퓨터프로그래머(6.2%)가 많았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를 알아본 결과 75.2%의 청소년들이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희망하는 직업훈련직종으로는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분야(42%)', '외국어분야(26%)',로 컴퓨터와 외국어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컴퓨터분야'는 남학생과 실업계고교생이, '외국어분야'는 여학생과 일반계고교생이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희망하는 직업훈련장소로는 '직업훈련원(31%)'로 가장 많았고 '학교(24%)', '복지관(17%)'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은 '직업훈련원'을, 여학생은 '학교'를 더 선호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진로지도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74%의 학생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직업훈련과 마찬가지로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희망하는 분야로 '적성·흥미에 관한 정보(45.4%)'와 '직업선택을 위한 정보(38%)', '대학진학정보(2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은 '적성·흥미에 관한 정보'를 남학생은 '직업선택을 위한 정보'를 희망하였으며 일반계고교생은 '대학진학소개'를 실업계고교생은 '현장실습지 소개'를 더 희망했다.

(3) 여가실태 및 욕구 : 저소득층청소년들은 TV시청(41%)과 컴퓨터게임·PC방(33~31%)을 주요 여가 활동으로 꼽고 있었으며 희망여가활동으로는 여행(32%), 아르바이트(24%), 예술관람(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으로 '비용부담(39.5%)'과 '시간부족(34.9%)'을 들었다. 한달 독서량을 알아본 결과 약 50%의 청소년들이 한 달에 1~3권 정도의 독서를 하며 주로 '만화책'과 '교양서적 및 정보서적'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본 결과 41%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을 'TV를 보면서 보낸다'고 하였고 33%가 'PC방이나 인터넷', 31%가 '컴퓨터게임'이라고 하였다. 특히 남학생은 '컴퓨터게임과 인터넷'을 많이 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TV시청과 친구 만나기'에 더 많은 여가를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알아본 결과 '여행(32%)'이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24%)', '예술관람(22%)', '쇼핑(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활동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길 바라는 경우가 높은 것은 여가활동보다는 경제적 욕구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가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75%의 청소년들이 '비용부담(39.5%)'과 '시간부족(34.9%)'이라고 하였다.

체험학습일에는 무엇을 하는지 알아본 결과 'TV를 보며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고 '특별한 계획 없이 친구와 보낸다'고 하거나 'PC방이나 오락실에 간다' 등 평소의 여가활동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서분야와 독서량을 알아보았는데 저소득층청소년들은 보통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는 경우(13.7%)', '1~3권(47.9%)',인 것으로 나타났고 독서분야로는 만화책(1순위 : 37.4%, 2순위 : 32.0%)과 교양서적(1순위 : 34.4%, 2순위 : 8.6%), 생활·취미·정보서적(1순위 : 17.9%, 2순위 : 13.9%) 순으로 많이 읽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복지프로그램 이용실태와 욕구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28.3%), 학습지도(23%), 현금지원(22.3%), 급식지원(22%)으로 모두 생존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가 생존욕구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아르바이트알선(41.1%), 사회교육프로그램(38.5%), 직업훈련(34.8%), 동아리활동(33.8%), 진로지도프로그램(33.5%)으로 아르바이트 알선을 제외하고 모두 성장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 성장관련 욕구가 다른 욕구에 비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존욕구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하는 경우보다 희망하는 경우가 2~3배정도 많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만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희망하는 경우가 감소해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낙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아르바이트 알선'의 경우

모든 서비스 중에서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장욕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학습지도프로그램이며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는 사회교육프로그램, 동아리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여가욕구에 속하는 사회교육과 동아리활동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계욕구에 대해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의무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족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프로그램의 경우 부모가 시간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관계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희망할 수 있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공 백

Ⅳ.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

1. 임대아파트 지역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
2. 공단지역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

공 백

Ⅳ.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의 열악한 생활실태를 현장전문가들의 관찰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청소년에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청소년의 실태에 대해 기술한다. 다음으로는 공단지역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문화여가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실무자 눈에 비친 저소득층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임대아파트 지역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7)]

본 관찰보고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히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사업인 『청소년 까페 -1318zone』 이용 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 개입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자이크교실』 대상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하였다.

1) 생존욕구와 관련된 생활실태

(1) 의복

청소년 시기에는 특히 유행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기연출에

7) 이 부분은 박하영(공릉복지관 청소년복지 담당 사회복지사)에 의해 집필되었음.

대한 강한 욕구를 표출한다. 하지만 저소득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필수 물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여비 지출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처럼 자기연출의 한 부분으로 의복에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저소득 청소년의 경우 의복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선 현실을 인식하여 유행이나 지명도 있는 메이커 관련 의류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부류와 이를 동경하는 부류로 나뉜다. 이러한 데에는 또래환경이 영향을 직접 미친다. 이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또래의 융합이 강하게 작용하고 의복착용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소득 청소년이면서 일반 청소년에 비해 비행환경에 노출된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는 의복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먼저 현 생활에 의욕을 상실한 채 자포자기한 삶을 사는 청소년의 경우 사계절 내내 운동복 및 슬리퍼를 착용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복의 오염정도도 심각한 상태이다. 다른 부류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외모에 집착하는 유형으로 자신의 결점을 과대 포장하고자 하거나 타인에게 매력이 있게 보이려는 욕구가 특별히 강하다. 이러한 경우 자신을 매력이 있게 연출하고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절도와 금품갈취 같은 극단의 불법 행동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저소득 청소년은 열악한 환경이 외부에 드러남으로써 생기는 수치심이 싫어 특별히 옷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식생활

저소득 가정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제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식사관리 또한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생활의 불균형으로 인해 저소득 청소년은 성장도 비정상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 체구가

외소하거나 지나치게 비만하고, 체중미달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여 잦은 질병에 걸리게 된다.[8]

"음식"에 대한 집착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와도 연결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중국집이나 편의점에서 배달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음식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배달과 관련된 일들은 원동기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노동을 부당으로 착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음식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려는 단순한 목적이 왜곡되어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3) 주거생활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이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 청소년은 대부분 영구임대 아파트의 11평, 13평되는 곳에서 평균 5~6명 정도의 가족원과 거주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편부, 편모, 장애인 세대가 상당히 있지만 가족원이 많은 것은 근로능력을 상실한 친척들이나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대아파트에 사는 청소년이나 그들의 가족은 여러 가족원이 함께 거주하면서 겪는 갈등을 부담스러워 하며 스스로 수치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은 주거 공간에 대한 애착을 보이면서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김으로써 공간이 있는 것 자체에 만족한다.

주거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은 지저분하며 특유의 악취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가족원이 생활하기도 불편한 협소한 공간 때문에 의복이나 침구류를 보관하는 가구들이 없고 옷가지들이 집안에 정리

8) 복지관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 저소득 청소년들이 가장 강한 욕구와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부스가 음식관련 부스이며 자존심으로 체면을 중시하다가도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욕심을 과다하게 부리면서 챙기거나 집착하는 모습을 보임.

되지 않은 채로 있으며 벽지나 장판도 오염정도가 심각하다. 청소년들이 학습을 하기 위한 기본 환경 자체가 없어서 학습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가정을 부끄럽게 느껴 가족에게서 분리되고 싶어한다.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의 가출과 연결되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4) 건강 (술, 담배, 약물)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 11월 영구임대 아파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설문에서 청소년이 술, 담배, 약물과 관련된 사항의 객관적인 자료를 유출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의 경우 술과 담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경험한 청소년이 12%로 나타났고 중, 고등학생 때 경험한 청소년은 48%이며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로써 가정의 부모가 방관하거나 알콜중독 증상을 수반하고 있을수록 청소년들이 쉽게 술과 담배와 약물에 손을 대고 또래문화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9]

이 지역에서는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약물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고 현실도피에 대한 욕구가 특히 강한 이들에게 니스와 본드 같은 약물은 매력이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들은 집단을 형성하여 약물을 흡입하는데 이처럼 비행문화는 집단으로 이뤄지면서 전도현상이 빠르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욱 크다. 이들은 약물 흡입 후 환각상태에서 비정상의 행동을 하게 된다. 이 행동이 격렬할수록 (흡입량이 과다할수록) 집단의 우상이 되며 대부분이 약물과 함께 술과 담배를 함으로써 건강을 더욱 해치게 된다.[10]

또한 약물로 말미암은 환각상태는 과감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부추기

9) 담배와 음주문제가 성별 및 연령을 불문하고 만성화된 문제임을 알 수 있었음.

10) 특히 청소년기의 뇌손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

므로 제2의 범행(절도, 자살기도, 성폭행)을 야기하며 내성이 생겨 약물복용의 양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이 심각한 점이다. 약물이 문제가 되면 어떠한 변화와 개입을 시도하여도 원점이기 때문에 약물을 철저히 차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약물을 먹는 사실 자체는 청소년들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무너지게 하여 마침내 자살이라는 극단의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본 학업중단 청소년은 대부분 의지가 약하고 한 곳에 몰입하면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더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한다.

(5) 아르바이트

저소득 청소년 가운데 학업중단청소년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 시간의 여유도 있지만 이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다른 생활을 하는 것(학교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것) 자체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독립의 욕구가 크게 작용한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나 부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이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제 1의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학업이나 기술면에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 노동이나 배달관련 아르바이트에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주로 중국집이나 주유소에서 활동한다. 규칙에 따르는 활동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만성이 된 이들의 무기력한 일상생활에 무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사회조직에 관계한 경험이 없으므로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단기간만에 그만 두게 된다.

이렇게 자발적인 동기에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악덕업주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 사이에서는 연령이나 힘(power)의 정도가 이들 사이에서 우위를 결정하고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악덕업주는 가장 힘이 있는 몇몇 청소년들을 포섭한 다음 그 아이들이 그들보다 더 밑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도록 하여

일을 시킨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면허인 아이들에게 배달을 강요하는데다가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주변 파출소 관계자와 지속해서 유대관계를 갖는다. 아이들은 식사시간대와 맞물린 때에는 무려 시간당 50~80그릇의 음식들을 배달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활동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노동행위 자체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또 벗어나고 싶어도 피라미드처럼 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생활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부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자포자기하고 만다. 발전적인 일을 하려고 해도 무력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마저 잃는다. 현재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 밑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강요하게 될 것이므로 부정적인 환경의 연쇄고리는 계속 이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이들을 부당 노동행위에 연루시켰던 형들이 다른 지역 유흥업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 소위 "삐끼" 활동을 강요한다. 이처럼 부정적인 관계의 망에 얽히게 되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으므로 이들은 낙담하면서도 이러한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이들에게 아르바이트 활동은 단순히 경제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또래관계와 이들을 이용하려는 주변 업주들과 갖는 관계로 인해 자립의 기반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이들이 재생하거나 발전하는 기회마저 박탈해버리는 활동으로 전락하게 된다.

2) 관계욕구와 관련된 생활실태

(1) 가족 (부모, 형제자매, 친척)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경우 두가지 형태로 가족관계 유형이 나타난

다.

첫 번째는 가족의 결속을 유지하는 융화 형태다. 이 형태에 들어가는 청소년은 부모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거나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며 또래 관계에서 분리된 경험을 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더욱 가족에 밀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가족원에 대한 환멸을 느끼거나 무관심한 관계 양상을 보이는 분리 형태다. 이러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 지나친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결국 가족에서 일탈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편부, 편모, 장애인 세대 및 단순노동(파출부, 공공근로, 일용직)으로 맞벌이를 하는 세대가 대부분인 이 지역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동정심을 기본으로 갖고 있다.

본 복지관이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 청소년 세대에는 특별히 정신질환, 알콜 중독의 문제가 있는 부모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비단 그 부모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역할습득을 하지 못하고 부모의 행동을 무의식중에 답습하게 되어 심각하다. 또한 가족끼리 의사소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제가 있을 때에도 서로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 폭력이나 과격한 욕설을 하거나 일관성 없이 강압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동들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행동을 표출한다.[11] 이런 가정의 청소년은 형제자매끼리 의존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여기고 공감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청소년의 일탈정도와 가족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적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세대의 가족관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여 자녀가 오히려 중압감과 부담을 느껴 일탈하는 경우도 있다.[12]

---

11) 우울증 및 낮은 자아존중감 형성 등.

12)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기대가 스트레스로 작용, 현실도피 심리를 낳음.

(2) 친구 (동성, 이성)

또래관계는 청소년들의 문화형성에 완전히 영향을 미친다. 본 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어울리는 또래집단과 방과 후 집 주변에서 어울리는 또래집단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의 또래집단은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관계형성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방과 후 어울리는 또래집단은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고 있고 공감대가 적절히 이뤄져 친밀한 정서로 관계를 형성한다.

이 지역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의 특성을 보면 집단 비행행동과 동조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또 주변 사람들(가족과 학교 선생님 등)과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낮은 자존감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행 동료집단과 어울림으로써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크다. 이들에게 또래집단은 심리적인 지지역할뿐 아니라 서로의 행동에 대해 통제하거나 지도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성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양상을 보면 일반적인 저소득 청소년의 경우 낮은 자존감과 여유가 없는 생활들로 인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기는 하지만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비행집단 청소년의 경우는 비슷한 분위기의 이성을 만나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이성친구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되는데 처음 meeting에서 외모에 많은 비중을 두어 자신과 어울리는 상대를 고른다. 이렇게 만난 이성을 자신이 속한 또래 관계에 흡수시키고 성인의 모임과 비슷하게 음주도 한다. 또 감정적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신체 접촉까지 하게 된다.[13]

청소년들은 이성 관계에서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성친구를 쾌락을 위해 만나거나 호기심 때문에 만나

13) 이 지역 청소년의 경우 64%가 신체적인 접촉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설문에서 응답함.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장소로 빈집, 여관, 운동장 순으로 나타남.

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교사

학교 선생님은 저소득 청소년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자기형상화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저소득 청소년의 경우 기초학습의 부진과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학교 선생님들의 낙인을 받아 일탈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학생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거나 학생이 교사에게 애착을 느낄 경우는 학습이 부진하거나 또래관계에서 소외되더라도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중도탈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교사의 경우 대부분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을 교화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시키려 하기보다는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탈한 학생에게 자퇴를 권고하게 된다. 이처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비율이 저소득 청소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열악함(비행문화의 노출), 학습능력 부진, 부모의 방관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다가 무엇보다 오랜 세월 누적된 부정적인 생활양식과 의욕상실 따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본 복지관이 있는 공릉3동에만 40명에 이른다. 이런 청소년은 재복학을 시도하지만 결국 다시 중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되고 만다. 학교는 청소년에게 자신을 통제하고 지지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터전이다. 그런데 이 터전을 잃는 것은 청소년에게 좌절과 자포자기를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교사의 선도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14]

14) 청소년들을 학교현장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정이 절대 적으로 필요함.

(4) 지역사회 인적자원

저소득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인적 자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교회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또래관계에 의존한다. 이는 외부의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결과일 수 있으나 또래관계와 지나치게 밀착하거나 개인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로 파악된다. 복지관에서 저소득 청소년은 학습지도와 다양한 집단활동 참여, 결연 연결로 자원봉사자와 프로그램 지도자를 만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단순히 프로그램 진행자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범자(垂範者, mentor)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 과정에서 이 지역 청소년들은 의욕이 저조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주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 그들의 상황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오랜 기간동안 지속해서 연계되는 경우는 드물다.

3) 성장욕구와 관련된 생활실태

(1) 자아정체감

청소년기는 이제 아동이 아닌 성인으로서 살기 위해 신체적·인지적 준비를 해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ego-identity)을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에 대해 에릭슨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즉 '청소년기에 개인이 갖는 여러 가지 역할(role)을 통합하고 수행하는 것', 다시 말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 친척, 가족 등등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하나로 묶어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형성되는 청소년기뿐이 아니라 성인기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첫째, 부모와 동적관계(dynamics)에 있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말한다. 자녀

에 대한 풍부한 사랑과 관심, 신뢰감은 청소년이 매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만, 무관심과 비난, 부모의 역할 결여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편부모 가정 혹은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관심이 적을 가능성이 많게 되고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자아정체감을 올바르게 형성하기가 힘드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받을 수 없는 지지와 격려를 또래 집단에 기대하게 되고 부모보다는 같은 집단 안에서-그 집단이 올바르건 그렇지 않건 -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 집단(peer group) 이다. 청소년 시기는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자기 자신의 세계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집단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집단이 요구하는 것들을 수행하여 동질감을 얻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이 속해 있는 또래 집단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자아정체감 형성의 기반이 좌우된다고 하겠다. 위에서 말했지만 부모의 지지와 관심을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에게서 그와 같은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집단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수행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동질감과 소속감을 얻는 한편 집단 안에서 자신을 영웅으로 여기기를 갈망한다. 실제로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청소년이 자신이 갈망하는 집단에 속하고 싶어 집단이 요구하는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또래 집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저소득 가정 또는 결손 가정의 청소년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사회사업 분야의 접근을 위해서는 첫째, 그러한 위험요소들(중요한 요소들이 결핍되어 있는)이 내재되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요소들을 긍정적인 다른 여타의 요소들로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좋은 예로서 각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 있다. 단지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 활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뿐 아니라 긍정적인 또래 집단을 인위로 구성해주고 그 안에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필요한 지지와 관심을 받게 하는 것이다 셋째, 지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수다 청소년 시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긍정적인 요인들을 보충하고 끊임없이 관심과 지지를 받아 청소년들 자신이 스스로 사리에 맞는 자기 역할을 찾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2) 성 역할

청소년들의 성 역할은 가족에게서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이 그 역할을 못하여 주로 방송이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나 또래관계를 통해 습득하게 된다. 이로써 절대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성을 수용하여 성의 가치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고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갖게 된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음란 비디오와 같은 매체는 청소년들의 성 역할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왕성한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복지관 이용 청소년 가운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집단혼숙을 통해 성행위를 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충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경우였다. 이처

럼 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관계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는 점은 매우 위험한 현실이다. 성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실제로 성교육을 시키고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3) 진학·진로

저소득 청소년은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로 높은 편이다. 이는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기대심리가 마음의 부담이 되어 스트레스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학업중단 청소년이나 일반 저소득 청소년이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세대의 청소년은 학업성적이 낮아 상업 고등학교나 공업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술직과 관련된 일터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낮은 학력으로 취업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하여도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오랜 기간 보았던 청소년이기에 일찍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발전하는 진로를 선택하고자 노력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여학생은 학교를 졸업한 뒤 이미용 관련 자격증을 따로 취득한다. 남학생의 경우는 자동차정비센터나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 상당히 있다.

(4) 문화·여가활동

본 복지관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318 zone'이라는 청소년까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댄스, 노래 경연대회라든지 콜라텍, 다양한 스포츠활동, 게임대회 관련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여가문화가 없던 지역에 청소년

들을 위한 여가활동을 보급하고 참여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 지역 청소년들의 성향 자체가 대체로 소극적이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편견까지 있어 프로그램을 효과 있게 전달하기가 어려웠다. 야외활동 프로그램의 경우는 욕구가 높은 반면 재정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각종 게임대회는 청소년들의 현재 관심분야와 일치하였고 개인의 부담이 없었기에 많은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복지관에서 실시했던 여가문화 프로그램은 이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데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복지관 청소년 관련 욕구조사에 따르면 일일 여가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다. 이 여가시간에는 주로 또래들과 노래방이나 PC방에서 보내거나 대화를 하면서 보낸다고 하였다. 가족의 통제가 심할 경우는 집에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이 때에도 부모나 가족과 함께 보내기보다 혼자 TV를 보거나 PC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본 복지관 내 청소년 까페에서 보내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또래들과 어울려 길거리를 배회한다든지 빈집이나 학교운동장에서 음주를 하고 낮 시간은 대체로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여가는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이며 개인 중심의 활동이 주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단지역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

1) 구로지역의 특성

구로지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구로 1공단, 2공단, 3공단을 중심으로 한

구로구의 구로동, 금천구의 가리봉동과 독산동 일대를 포함한다. 누리공부방은 구로4동에 있다. 이 지역은 구로 1공단의 외곽에 있으며 주변에는 구로시장이 있고 길 건너편으로 구로2동과 가리봉동이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공단의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가 주민의 다수를 이루었다. 특별히 구로공단 지역은 공단, 주택가, 유흥가가 혼재되어 있어 공단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공단의 제조공장들은 지방이나 해외로 이주를 하여 현재 벤처 사업이 들어서고 아파트형 공장, 할인판매점으로 바뀌어 공장에 다니던 젊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주를 하였다.

90년대 중반이후 재건축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가난한 세입자들은 길 건너편의 구로2동과 가리봉동으로 이사를 하였다. 재건축 이후 건물의 구조가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 거주 평수는 늘었지만 이에 따라 전세나 월세의 부담이 매우 높아졌다. 세 부담이 적은 방들은 대부분 지하에 방 한 칸과 부엌 한 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세 부담이 적은 길 건너편의 구로2동이나 가리봉동으로 이사를 하였다. 이 지역은 아직 재건축이 실행되지 않아서 세 부담이 구로4동에 비해 적은 편이다.

구로 4동에는 구로 시장이 있다. 구로시장은 구로지역에서 가리봉시장과 함께 매우 큰 재래시장이다. 구로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노점상이 손수레에 생선, 옷 등의 갖가지 상품을 놓고 팔기도 한다. 시장 안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편에 속한다. 저소득층은 이 시장 안이나 주변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노점상들도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짐차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형편이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에 E마트가 들어서게 되자 많은 사람이 재래 시장을 이용하지 않아서 형편이 어려워지고들 있다고 한다.

또한 구로4동 구중점에는 인력센타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인력시장이 새벽마다 열리다. 이 지역의 다수 주민들은 이 인력시장을 통해 일

일 고용직으로 건설현장이나 공사장에서 품을 판다. IMF이후 대량실직으로 말미암아 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건설 경기가 저조하였기 때문에 뽑혀 나가는 사람은 모이는 사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 매일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근래 들어 조금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과 특별히 고연령이 주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2) 생존욕구와 관련된 생활실태

IMF이후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경제적 어려움은 곧 가정의 위기 혹은 가정해체현상을 부채질하여 공부방에 나오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경우 이혼가정이 2/3정도나 된다. 이혼한 경우 부모가 서로 키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조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은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종이를 줍거나, 공공근로를 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또한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함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영세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들의 경우에는 학교 준비물조차 챙겨가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동들이 어리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지내지만 고학년을 지나 청소년 시기에는 좀 다르다.

청소년들은 이제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이 돈을 버는 것은 학비를 보태거나 생활비를 벌려는 것보다 스스로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다.

아동시기부터 구로지역은 TV를 장시간 시청한다. 별다른 여가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종일 유선방송과 TV 정기 방송을 통해 아동들은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 멀지 않게 느끼고 본다. 이러한 모습과 다르게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청소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전에 그것을 따라 가려고 애쓴다. 그래서 주유소, 페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피자집에서 배달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돈을 벌어 핸드폰을 구입하거나 유명 브랜드의 옷을 사는 데에 사용한다. 공부방에 잘 나오다가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할 때 어려움이 많다.

초등학교 아동기에는 옷이 지저분하거나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아동들이 많다. 겨울에는 '이'가 머리에서 우글거리기도 하고, 겨울에는 목욕을 하지 않아 몸이 더럽고 손이 트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면 스스로 목욕할 수 있기 때문에 더럽게 하고 다니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옷이(유명 브랜드 옷을 입는다든지, 여러 옷을 돌려 입을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 희망을 품기보다는 절망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가짜 상표가 붙은 옷을 사서 입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쳐버리게 된다. 공부가 상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데도 지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면, 청소년들은 술, 담배, 본드에 손을 대기도 한다. 물론 이전부터 하는 경우도 많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이러저러한 싸움들을 통해 소위 "짱"을 만들게 된다. 이 "짱"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때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이다. 이때는 "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짱"의 뒷배경 즉, 조직이 있음을 말한다. 이때에는 이미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술과 담배를 시작한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하지만, 그런 폭력 조직과 관계없는 청소년일지라도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대부분이 술과 담배를 하게 된다(아마 이것은 중산층의 청소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 폭력조직에 들어가게 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를 그만 두게 된다. 절도, 폭력 등으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로지역 누리공부방에 다녔던 청소년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대학에 진학한다. 물론 일반 명문대에 가는 학생은 많지 않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4년제 일반 대학교에 진학한 청소년들도 있고 전문대학에 입학한 청소년들도 있다. 이들도 물론 술과 담배를 일찌감치 하였다. 따라서 술, 담배가 불량청소년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양부모가 모두 함께 살거나 아니면 부모가운데 한 분과(사별한 경우) 산다. 양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들의 가정이 한 부모 가정보다 경제적으로 좀 나은 편이다. 사별한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 같다. 또 공부를 뛰어나게 잘 하지는 못하였어도 공부방에서 영어, 수학, 국어 등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를 매일 3시간씩 1년 동안 지도할 때 결석을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였다.

3) 관계욕구와 관련된 생활실태

구로 지역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저학력이 많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열성은 높은 편이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어느 정도 자녀를 통제할 수도 있고, 교과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열성을 보인다. 특별히 부모처럼 살게 하지 않으려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매우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에서 견학을 가려고 하면 부모들은 "공부나 가르치지 무슨 견학이냐? 맨 날 놀기만 하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 일쑤다.

그러나 부모들의 이러한 열성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차 식는다. 영어, 수학 등 부모들이 알 수 없는 지식에 대해 자녀들이 물어올까 겁을 먹게 되고, 지도할 수 없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눈치챈 청소년들은 이제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특별히 부모들의 직업은 청소년들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이 아니어서 더욱 부모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누리공부방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이 때 많은 청소년은 자신의 부모들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부모들의 직업, 저학력, 잦은 부부싸움, 일상 대화에서 욕설을 많이 하는 것 때문이었다. 그래도 가난 그 자체가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육체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게 하고, 부모님들이 일하는 현장을 견학하게 하여 부모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지를 체험하게 했다. 1달 동안 계속된 이 프로그램에서 가족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한 뒤에는 '건축노동자'라고 직업 명을 밝혀 쓸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이들이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인식은 부모 자신의 문제 때문에 왜곡되기도 하나, 사회에서 육체노동을 폄하하는 경향이 크게 작용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로지역 청소년들은 일반 중산층 가정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그에 대한 표현도 적극적이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게 자신의 생각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아직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조금 소극적이기도 하다. 메스컴에서는 요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적극적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였다. 절반 이상은 이성 친구가 있는데 청소년들은 이것을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때로는 이성 친구가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성 친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친구관계는 대개 학교를 통해 관계를 맺게 되며, 몇몇은 이웃에 살기 때문에 친해지기도 한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경쟁상대가 되기보다 서로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물론 그 의리가 때로는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친구가 가출했을 때, 부모나 교사에게 친구가 어디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예이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냥 논다'고 대답한다. '그냥 논다'는 것은 이리저리 돌아다닌 것을 말한다.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당구장, PC방 등을 자주 드나들게 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어야 가능하다.

학교 선생님과 관계는 학교 생활에 따라 매우 다르다. 공부를 잘 하는 아이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학교 생활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컸다. 교사들은 그저 자신들을 귀찮게만 여긴다거나, 짜르려고만 한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그러나 평범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그저 조용히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은 선생님이 고마운 분, 훌륭한 분이라고 긍정한다. 반면에 선생님은 어려운 분이라는 생각도 커서 친밀감을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상의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한다. 물론 사교성과 붙임성이 있는 몇몇 청소년들은 담임선생님과 친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에게 너무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특별히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더욱 하는 것 같다. 즉,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그 왕따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함께 왕

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를 도울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 때 담임선생님께서 관여를 하게 되면 좀 나을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겠다. 그러나 담임선생님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청소년들이 선생님들을 점점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이들은 또한 공부방 교사들을 본래 신뢰하기는 하나, 왜 대학까지 다닌 선생님들이 돈도 벌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누리공부방은 교회 부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앙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사회를 불신하므로 성인들마저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닌지 추측하게 된다.

4) 성장욕구와 관련된 생활실태

구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성 역할에 대한 보수 성향이 짙다. 똑같이 일을 하고 귀가하더라도 집안 일은 거의 여성이 도맡아 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나 요즘에는 각종 메스컴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점차 이러한 사정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남성들은 여전히 기존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생각보다는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남학생들은 어머니의 집안 일을 여학생들보다 적극 도와주기도 한다. 이는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밥을 차려먹고, 옷을 입는 것 정도는 스스로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교와 메스컴을 통해 평등한 성 역할에 대한 학습을 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집안 일을 하는 것에 국한되는 이야기이다. 여전히 순결문제나 사회에서 남녀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여성 차별의 사고방식이 많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기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

는 경향이 많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자신의 가정, 부모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 부모 자녀들은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이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 공부방과 같이 소규모 집단 활동을 통해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습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는 경우를 많이 본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두 가지 경향을 나타낸다. 하나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성인으로 성장하여 가난을 벗어나 살려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공부를 못하겠다는 것이다. 해도 안 된다고 하거나 또 정말 하기 싫어서 못 하겠다고도 한다. 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이로써 올바른 자아개념을 갖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러나 이 지역의 청소년들은 그러한 활동을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을뿐더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부모들도 그러한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찾아간다고 해도 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는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이들도 앞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공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늘 불안한 마음과 분노를 지니고 있는 경우도 많다. 즉,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 다른 친구들은 과외도 한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공부하는 것을 부모들이 적절하게 밀어주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과외를 해야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Ⅴ. 복지프로그램 이용실태 및 욕구 조사결과

1. 조사개관
2.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현황
3. 복지기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청소년 프로그램
4. 현행 복지프로그램의 문제점 · 개선안
5. 결과요약 및 함의

공 백

V. 복지프로그램 이용실태 및 욕구 조사결과

1. 조사개관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저소득층청소년의 체감적 욕구를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현장의 관련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범적 욕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들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설정한 규범과 현재 상태와의 차이에 의해 파악되는 욕구를 말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현재의 상태를 규범적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1) 조사대상

<표 V-1> 전문가의견 조사기관

시설수 / 지역	복지관	민간지원 공부방	총 기관수
서울	13개	5개	18개
부산	11개	3개	14개
대구	7개		7개
인천	4개		4개
광주	8개		8개
대전	6개	1개	7개
울산	2개		2개
경기	10개		10개
강원	4개	1개	5개
충북	5개		5개
충남	4개		4개
전북	7개		7개
전남	3개	5개	8개
경북	7개		7개
경남	5개	1개	6개
총계	96개	25개	121개

청소년복지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의 복지욕구 설문조사시 전문가의견 조사서를 동봉하여 설문의뢰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설문대상은 저소득층청소년의 설문조사 의뢰기관과 동일한 121개 기관의 청소년복지 담당실무자와 청소년공부방 교사이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2) 조사내용

청소년복지현장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은

첫째, 각 기관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와 차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청소년용 설문지에 있는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체감적 욕구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규범적 욕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각 기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목적, 내용, 기간, 대상청소년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된 문제점·개선안이나 또는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조사하였다.

3) 조사결과 분석

전문가 조사는 저소득층청소년 복지욕구조사와 같은 기간 내에 청소년공부방과 복지관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는데 복지관은 총 93부 중 44부, 공부방은 총 11부 중 7부가 회수되어 회수된 설문지는 51부로 49%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51부는 SPSS를 사용하여 현재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실태를 빈도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각 기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사례,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복지관과 공부방의 지역별 분포를 가장 많이 응답한 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부산이 가장 많이 응답하여 35%를 나타냈고 서울 31%, 대구 7% 순으로 나타났다.

2.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현황

본 절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과 앞으로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의 실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가 희망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청소년이 희망하는 서비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표를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그럼으로써 저소득층청소년의 욕구에 어느 정도로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그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욕구 분석틀에 따라서 생존, 관계, 성장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생존욕구의 하위영역에는 의식주, 건강·의료, 경제적 지원에 관련된 욕구로 구분되는데 의식주관련욕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는 세탁서비스, 급식지원 및 밑반찬 배달, 취사서비스, 주거개선사업, 이미용서비스가 있다.

의식주관련프로그램 중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순으로 열거하면 '급식지원서비스(70.6%)', '주거개선서비스(45.1%)', '이미용서비스(39.2%)' '취사서비스(25.5%)', '세탁서비스(19.6%)',로 나타나 가장 많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급식지원서비스'이고 가장 적게 실시하는 것은 '세탁서비스'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2>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현행 복지프로그램

구 분			실시함		실시안함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생존욕구	의식주	세탁서비스	10	19.6	41	80.4	51	100
		급식지원 및 밑반찬배달	36	70.6	15	29.4	51	100
		취사서비스	13	25.5	38	74.5	51	100
		주거개선사업	23	45.1	28	54.9	51	100
		이미용서비스	20	39.2	31	60.8	51	100
	건강	운동기구대여	12	23.5	39	76.5	51	100
		무료진료	15	29.4	36	70.6	51	100
		약물교육	17	33.3	34	66.7	51	100
	경제적 지원	현금지원	41	80.4	10	19.6	51	100
		아르바이트알선	8	15.7	43	84.3	51	100
관계욕구	가정·친구·지역사회	가족프로그램	16	31.4	35	68.6	51	100
		또래지지프로그램	20	39.2	31	69.8	51	100
		자원봉사프로그램	37	72.5	14	27.5	51	100
성장욕구	자아	개인상담 및 정서적 지원	44	86.3	7	13.7	51	100
		집단프로그램	29	56.9	22	43.1	51	100
	문활·여가활동	사회교육프로그램	30	58.5	21	41.2	51	100
		동아리활동	20	39.2	31	60.8	51	100
		캠프	43	84.3	8	15.7	51	100
	학업 및 진로	학습지도	44	86.3	7	13.7	51	100
		진로지도프로그램	13	25.5	38	74.5	51	100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	5	9.8	46	90.2	51	100

생존욕구의 두 번째 하위영역인 건강욕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는 운동기구대여 및 운동지도, 무료진료, 흡연 및 약물교육이 있는데 많은 순으로 보면 '약물교육(33.3%)', '무료진료(29.4%)', '운동기구 대여서비스

(2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욕구의 하위영역인 경제적 지원 욕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는 현금지원서비스와 아르바이트 알선서비스가 있는데 '현금지원서비스'의 경우는 80.4%가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아르바이트 알선'의 경우에는 15.7%만이 실시한다고 응답하여 그다지 많지 않은 곳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실시하는 곳이 적은 것은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충분한 연계가 필요한데 이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생존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현금지원(70.6%)과 급식지원서비스(80.4%)로 나타나 기초적인 서비스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관계욕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프로그램, 또래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있다.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시간적·경제적·정신적 여유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및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가족프로그램이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친구나 지역사회관계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를 보면 '가족프로그램'은 31.4%, '또래지지프로그램'은 20%, '자원봉사프로그램'은 72.5%로 나타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장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해 성장욕구의 하위영역인 자아영역, 문화·여가활동, 학업·진로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먼저 자아영역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개인상담 및 정서적 지원, 집단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인상담'을 실시하는 곳은 86.3%로 높게 나타났고 집단프로그램의 경우는 56.9%로 절반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상담'의 경우 실시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상담의 형태라기보다는 전문가나 내방하는 청소년들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화·여가 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저소득층에게 무료나 감면 혜택을 주는 컴퓨터, 수영, 피아노 등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동아리 활동, 캠프가 있다. 실시하는 경우를 보면 사회교육프로그램은 58.8%, 동아리 활동은 39.2%, 캠프는 84.3%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캠프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 동아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 및 진로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는 학습지도, 진로지도, 직업훈련이 있다. '학습지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86.3%로 응답하였고 '진로지도'는 25.5%, '직업훈련'은 5%로 응답하여 학습지도는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실시하지만 진로지도와 직업훈련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저소득층청소년의 고민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성적, 진로에 관한 사항인 점에서 볼 때 기관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 무료로 학습지도나 진로지도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관의 전문가들이 저소득층청소년에게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희망프로그램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개선점과 방향을 파악하였다. 전문가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많은 순서별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프로그램(46.7%)', '가족프로그램(42.4%)', '약물·흡연교육(33.3%)', '또래프로그램(22.2%)', '집단프로그램(22.2%)', '사회교육(17.8%)', '직업훈련·취업소개(15.6%)' 순이다.

한편 앞에서 알아본 청소년들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많은 순서별로 보면 '아르바이트 알선(41.1%)', '사회교육프로그램(38.5%)', '청소년 캠프(36.5%)', '직업훈련프로그램(34.8%)', '동아리활동(33.8%)', '진로지도프로그램(33.5%)', '현금지원 (32.5%)', '무료 진료(31.6%)',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

(30.6%)', '주거환경 개선사업(28%)' 순이다.

이를 정리하면 전문가들이 생존욕구영역에서 약물교육을 가장 중요하다고 한 반면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알선을 가장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관계욕구에서 전문가들은 가족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데 비해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성장욕구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진로지도프로그램인데 청소년들은 사회교육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성장욕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희망정도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므로 전문가와 청소년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비교는 주의 깊게 행해져야 하는데 왜냐면 전문가들에게는 희망하는 서비스를 3가지만 선택하게 한 반면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유무를 물어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인식과 청소년들의 인식을 가늠하는 정도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표 V-3> 저소득층청소년과 전문가가 희망하는 서비스 비교

서비스프로그램	청소년(%)	전문가(%)
세탁서비스	23.1	2.2
급식지원·밑반찬제공	22.5	
식사준비 및 취사서비스	21.3	2.2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배, 수리)	28.0	4.4
이·미용 서비스	26.5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	30.6	13.3
무료진료	31.3	6.7
음주나 흡연교육	19.0	33.3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6.4	
현금지원(생활비 및 장학금)	32.4	6.7
아르바이트 알선	41.1	11.1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	23.6	42.2
또래지지프로그램	22.6	22.2
자원봉사프로그램	27.9	6.7
개인 상담 및 정서적 지원	25.5	6.7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리더쉽 등)	27.1	22.2
사회교육(컴퓨터·수영·피아노 등)	38.5	13.3
동아리 활동	33.8	17.8
청소년캠프	36.5	2.2
학습지도(방과후 교실·청소년공부방)	27.0	4.4
진로지도프로그램	33.5	46.7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	34.8	15.6

3. 복지기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청소년 프로그램

앞에서 복지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먼저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 실시하는 복지프로그램의 현황과 차후의 희망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본 절에서는 각 기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요구영역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생존욕구

생존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가장 많게 실시하는 것이 급식지원서비스이다. 급식지원서비스는 대개 급식이나 밑반찬을 전달해주기만 하는 곳이 있고 결식청소년들에게 단순한 급식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서문제, 학업문제, 건강문제, 가정의 경제적 지원 등 빈곤아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전문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단순한 급식지원을 해주는 곳의 경우는 합정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결식아동 밑반찬서비스'가 해당된다.

200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수급권자 중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결손가정 평균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결식이 예상되는 아동들에게 급식이 없는 토요일에 도시락을 전달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들을 방문하면서 아동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복지관에서 조리 후 각 학교로 전달하고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아동에게 전달하며 복지관주변에 있는 아동에게는 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급식지원뿐 아니라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문경모전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2001년 3월부터 지역 내 청소년 10명, 아동 10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목적은 결식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스트레스하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 위기로 인해 소외되는 부분을 극복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둘러싼 가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지도, 집단지도, 현장학습, 캠프, 학부모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생존욕구 중에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부산상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학금지급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세가장 중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업능력 향상과 영세가정의 청소년 사교육비 절감이며 이를 위해서 지역 내 학원과 연계하여 청소년들 학업지도(전학과목 지도와 진로탐색 및 상담)를 실시하고 있다.

1	프로그램명	**결식아동 밑반찬 서비스**
	실시장소	합정사회복지관
	실시기간	2000년 12월~현재
	대상	수급권자 중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결손가정 평균 50명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목적 : 평택시에 소재하는 결식이 예상되는 아동들에게 급식이 없는 토요일에 도시락을 전달함으로써 결식을 예방하고, 복지관에서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내용 : ㅇ 복지관에서 조리 후 각 학교로 전달한다 ㅇ 영양사가 아동에게 전달한다 ㅇ 인근에 사는 아동들은 가정에 전달한다

2.	프로그램명	**장학금 지급**
	실시장소	부산상리종합사회복지관
	실시기간	연중 실시
	대상	지역내 영세가정 중학생 1~3학년 130명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목적 : 청소년의 학업능력 향상과 영세가정의 청소년 사교육비 절감 ·내용 지역 내 학원과 연계하여 청소년들 학업지도(전학과목 지도와 진로탐색 및 상담)

3	프로그램명	**결식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실시장소	문경모전사회복지관
	실시기간	2001 3 - 12
	대상	지역 내 저소득청소년 10명, 아동 10명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목적 · 결식으로 인해 정신적 · 경제적 스트레스하에 있는 아동 ·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 위기로 인해 소외되는 부분을 극복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둘러싼 가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모함 · 내용 : 학습지도/집단지도/현장학습/캠프/학부모모임.

2) 관계욕구

요보호가정(소년소녀가장, 실직가정, 영세가장 자녀, 편부모가정자녀 등)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시간적, 정신적 여유의 제한으로 가족 외의 관계에서의 특별한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관계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예가 제시되어 있는데 또래집단의 청소년으로 집단이 구성되거나, 1:1로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관계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저소득층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외에 결연, 학습지도 및 다양한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능력의 증진과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먼저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꿋꿋한 청소년의 집단지도 활동을 통한 사회성강화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2001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전주시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년소녀가장들의 모임인 뗏목회의 그룹활동을 통해 자아의식을 함양하고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상대적 소외감을 경감시키고 자기존중감 향상과 자신감 회복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또래상담, MBTI,

자아성장프로그램, 역사기행, 성교육, 감수성훈련, 등반, 자원봉사활동, 자기표현훈련, 약물남용, 가치관명료화프로그램들을 월 1회 실시한다.

다음으로 대구범물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결손가정 학교부적응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2001년 1월 12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복지관 주변의 결손가정의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범물동에 거주하고 있는 결손가정자녀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정서적 역할모델을 제공해 줄 자원봉사자를 연결함으로써 초기 비행의 위험을 예방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게 적응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비슷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고강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편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20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임대아파트 단지 내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편부모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와 다양한 문화체험, 인성훈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건전·육성하며 결손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 1회 2시간이상 대학생자원봉사자와 아동의 1:1활동, 월1회 심성훈련 및 전체자원봉사자와 대상자가 참여하는 집단활동(심성훈련 및 문화체험), 가족집단프로그램, 부모상담, 장학금 지원 및 결연 후원자 연결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학장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요보호청소년의 자아긍정성함양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지역 내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요보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집단활동 및 봉사동아리와 다양한 사회체험활동을 통하여 또래집단과 학교 나아가 사회속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고 자아긍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기성장 및 자아강화 집단활동, 개별상담, 집단심리검사, 캠프, 자원봉사, 지역사회탐방 등의 활동을 월 4회 실시하고 있다.

4.	프로그램명	**꿋꿋한 청소년의 집단지도 활동을 통한 사회성강화프로그램**
	실시장소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실시기간	2001년 6월-2002년 7월
	대상	전주시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중학생 20명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목적 · 소년소녀가장들의 모임인 "멧목회"의 그룹활동을 통해 자아의식을 함양하고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상대적 소외감을 경감시키고 자기존중감 향상과 자신감 회복을 돕는다 · 내용 : 월1회 실시 또래상담/MBTI 자아성장프로그램/ 역사기행/성교육/감수성훈련/등반/자원봉사활동/자기표현훈련/약물남용/가치관명료화프로그램

5	프로그램명	**요보호청소년의 자아긍정성함양 프로그램**
	실시장소	부산학장복지관
	실시기간	2001년 4월 - 2002년 2월
	대상	지역 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15명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목적 : 지역사회 내 요보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집단활동 및 봉사동아리와 다양한 사회체험활동을 통하여 또래집단과 학교 나아가 사회 속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고 자아긍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내용 : 자기성장 및 자아강화 집단활동 월4회 / 개별상담/집단심리검사/ 캠프/자원봉사/ 지역사회탐방

6	프로그램명	**결손가정 학교부적응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장소	대구범물복지관
	실시기간	2001년 1월-12월
	대상	복지관 주변의 결손가정의 청소년 14명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범물동에 거주하고 있는 결손가정 중 자녀를 방임 유기할 상황에 있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들에게 정서적 역할모델을 제공해 줄 자원봉사자를 연결함으로써 그 가정의 청소년이 초기 비행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게 적응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지역사회공동의 노력을 증진시킨다.

7.	프로그램명	편부모가정멘토링프로그램
	실시장소	경기고강복지관
	실시기간	2001 1 1 - 2001. 12 31
	대상	지역 내 임대아파트 단지 내 청소년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목적 : 편부모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와 다양한 문화체험, 인성훈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건전 육성하며 결손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 내용 ' 주 1회 2시간이상 대학생자원봉사자와 아동의 1:1 활동/월1회 심성훈련 및 전체자원봉사자와 대상자가 참여하는 집단활동(심성훈련 및 문화체험)/ 가족집단프로그램, 부모상담/ 장학금지원 및 결연후원자 연결.

3) 성장욕구

(1) 문화·여가활동

저소득층청소년에게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문화관련프로그램의 경우 대개 동아리나 사회교육프로그램이다. 아래에 제시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영상활동과 인터넷 등으로 특성화된 성격을 띠는데 모두 요새 청소년들의 관심을 끄는 활동을 잘 선정해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에 대한 관심과 영상활동이 관련이 있다는 점, 희망하는 과외활동으로 컴퓨터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그렇다.

성장욕구 중에서 여가문화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청소년 까페 1318존'이 있다. 이는 노원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 특히 복지관주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300명 정도)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문화·여가활동을 매개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하는데 있다. 까페는 1시부터 8시까지 매일 운영이 되는데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 1명이 상주하면서 영화상

영, 좋은 음악감상, 집단프로그램, 도서이용, 컴퓨터사용, 무료공간대여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 연 4회 여가문화이벤트를 실시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야외활동(월1회), 일일 콜라텍, 노래댄스경연대회, 서바이벌캠프, 여름캠프, 동아리발표행사, 컴퓨터 게임대회(월1회), 크리스마스송년모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까페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가 요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주2-3회 상담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사례관리실시한다. 특히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상담프로그램은 문제개입집단상담 년2회, 교육프로그램 년4회, 개별상담은 수시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의 컴퓨터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인터넷 까페'프로그램을 2001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까페에 등록된 청소년은 모두 115명이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저소득층청소년들이 방과후 PC방과 오락실 혹은 거리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터넷 까페를 이용하게 하여 여가생활을 지도하고 동시에 다른 여러 서비스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 까페에는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컴퓨터 5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외에 DDR, 포켓볼다이, 만화책 등 도서를 비치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집단활동, 카페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하고 있다.

부산사상구복지관에서는 '청소년 문화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저소득층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프로그램의 목적을 보면 다양한 문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심리성격검사 및 진로프로그램, 방과후 공부방, 자원봉사활동, 이슈현장답사, 집단프로그램, 야외캠프, 연극 및 영화관람,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을 실시한다.

주봉공부방에서는 2002년 1월부터 초·중등생 25명을 대상으로 '영상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영상물 제작을 통해 표현력과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공동으로 영상물을 제작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8.	프로그램명	**청소년 문화학습**
	실시장소	부산사상구복지관
	실시기간	2001년 1월-12월
	대상	지역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15명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목적 : 다양한 문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인적 성장을 도움 내용 심리성격검사 및 진로프로그램/ 방과후 공부방/ 자원봉사활동/이슈현장답사/집단프로그램/야외캠프/연극 및 영화관람/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

9	프로그램명	**청소년 까페 1318존**
	실시장소	서울공릉종합사회복지관
	실시기간	
	대상	노원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 특히 복지관주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300명 정도)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내용: 까페운영 1시부터 8시까지 매일운영-영화상영, 좋은 음악감상, 집단프로그램, 도서이용, 컴퓨터사용, 무료공간대여 여가문화이벤트(연 4회)-야외활동(월1회), 일일 콜라텍, 노래댄스경연대회, 서바이벌캠프, 여름캠프, 동아리발표행사, 컴퓨터 게임대회(월1회), 크리스마스송년모임. · 사례관리- 까페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가 요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주2-3회 상담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사례관리실시 특히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집중관리. 상담프로그램은 문제개입집단상담 년2회, 교육프로그램 년 4회, 개별상담은 수시로 진행된다. · 프로그램 목적. 여가문화공간을 매개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하는데 있다.

	프로그램명	**청소년 인터넷 카페**
	실시장소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실시기간	2001년 3월~현재
	대상	지역청소년 등록인원 115명(연인원 4,000여명)
10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목적 : 복지관 인근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결손가정 과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들이 매우 많은 편이다. 청소년들이 방과후 PC방과 오락실 혹은 거리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여러 서비스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여가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 내용 : ㅇ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컴퓨터 5대 설치 ㅇ DDR, 포켓볼다이, 만화책, 소설책류의 도서비치된 문화공간 ㅇ 청소년 동아리활동 ㅇ 집단활동 ㅇ 개별상담 . 카페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례들을 발굴하였으며,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하고 있다.

	프로그램명	**영상워크숍**
	실시기관	주봉공부방
	실시기간	2002년 1월중 실시예정
11	대상	초중생 20-25명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목적 영상물 제작을 통한 공동체성 구축 및 표현력증가/공동으로 영상물을 제작함으로써 공동체의식증가 및 자신감 향상

(2) 진로 지도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욕구조사에서 70%의 청소년들이 진로지도프로그램을 희망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진로지도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전체응답기관의 3%밖에 지나지 않았다.

위의 프로그램이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태화복지관에서는 수서·일원지역의 수급대상자 및 저소득가정의 학교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즉 검정고시를 준비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응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스마일학교'가 있다. 이는 15명을 정원으로 하며 연중 아침 9시-6시까지로 주일은 제외하고 실시된다. 여기서는 학습지도, 집단활동(진로탐색, 자아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중식 및 간식제공, 체육 및 문화활동(관내 사회체육, 사회교육프로그램 무료이용 및 캠프, 자원봉사활동, 영화 및 음악회관람, 야외활동 등), 개별상담 및 가족상담 등이 실시된다.

	프로그램명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시장소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실시기간	연 1기 3회~6회
	대상	저소득가정 청소년 10명
12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목적 : 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적성검사, 집단활동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지를 통해 적성·능력·흥미·특성·가치관·장래희망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의식으로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 내용 : ㅇ 개별면담 및 대상자 intake ㅇ 프로그램 안내, 공지사항 설명, 초지설문지 작성 ㅇ 자신을 구성원에게 소개 ㅇ 의사결정 프로그램, 자아정체감 형성 프로그램 ㅇ 성격검사, 검사해석 및 그룹작업 ㅇ 인터넷 검색 및 퀴즈를 통한 정보자료 검색 ㅇ 진로도식표 작성 ㅇ 과제제출 ㅇ 소감문 작성 ㅇ 사후 설문지 작성

13	프로그램명	**스마일학교**
	실시장소	서울태화기독교복지관
	실시기간	연중 아침 9시-6시, 주일제외
	대상	15명 정원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프로그램 목적 : 수서일원지역의 수급대상자 및 저소득가정의 학교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시키고 나아가 사회적응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 프로그램 내용 : 학습지도, 집단활동(진로탐색, 자아존중감향상프로그램), 중식 및 간식제공, 체육 및 문화활동(관내 사회체육, 사회교육프로그램 무료이용 및 캠프, 자원봉사활동, 영화 및 음악회 관람, 야외활동 등), 개별상담 및 가족상담등이 실시된다.

(3) 학업 및 학습지도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도는 무료라는 점에서 학원이나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에게 매우 유용하다. 다음에 소개된 공부방프로그램이나 학습지도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학습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학업성적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단활동을 병행하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이외에 학습공간만을 제공하고 다른 개입이 없는 경우도 있다.

대개 청소년공부방보다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방과후 교실을 실시하는 곳이 더 많은데 이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방과후 시간이 늦어지는 데다가 초등학생보다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서는 학습지도프로그램의 목적이 거의 유사하므로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지도와 다른 집단활동이 병행되는 경우부터 살펴보면 먼저 경남 마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재가저소득청소년 방과후 무료학습교실'을

1999년부터 현재까지 재가세대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학업, 인성지도, 저소득층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월-목까지 영수과목을 학습지도 하고 금요일에는 컴퓨터교실을 실시한다. 이외에 특별활동으로 야외학습, 외식, 캠프, 문화공연관람, 자원봉사프로그램들을 실시한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방과후 공부방' 프로그램을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정 중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내용을 보면 월~수요일까지는 학교과제 및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목, 금요일에는 영·수 과목을 지도한다.

충북청주산남복지관에서는 2001년부터 저소득층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토 오후 5~11시까지 학습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 개인고민, 진로상담, 학습지도, 중학특강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쉼터나 탁구교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부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1년 2월 24일~7월 24일, 9월 1일~12월 15일까지 학기 중을 이용하여 지역 내 저소득층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파랑새 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주말마다 교과목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컴퓨터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컴퓨터교육과 야외활동, 캠프들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학습공간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부산가곡복지관에서는 평일 17:00~23:00, 공휴일 19:00~23:00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한 번씩 등반대회, 좋은 영화감상, 청소년 캠프, 길거리 농구대회, 탁구대회, 청소년 적성탐색 진로검사 및 진로 상담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 부대시설로 정보센터, 탁구장을 개장하여 공부방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북삼보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저소득가정의 초·중·고생 63명을 대상으로 '늘푸른교실'을 2001년 한해 동안 실시했다. 내용을 보면 월~금 오후 2시~6시까지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	프로그램명	**재가저소득층청소년 방과후 무료학습교실**
	실시장소	경남마산종합사회복지관
	실시기간	1999년부터 현재까지
	대상	재가세대 저소득층청소년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목적 ·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학업, 인성지도, 저소득층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예방 · 내용 : 월-금 실시 학습지도. 월-목 영수학업지도, 금-컴퓨터교실, /특별활동 . 야외학습, 외식, 캠프, 문화공연관람, 자원봉사프로그램

15	프로그램명	**방과후 공부방**
	실시기관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실시기간	2000년 12월1일~2001년 11월 30일 매주 월~글(19:00~22:00)
	대상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가정 중학생 10명 상담후 선발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목적 . 가정환경 및 경제적 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해 학원수업을 받지 못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및 진로방향에 대한 도움을 주며 도벽 및 탈선을 예방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 내용 ㅇ 월~수 : 학교과제 및 보충 ㅇ 목~금 : 영수 과목 ㅇ 교 재 : 교과서, 문제집 등 ㅇ 자 료 : 교육담당자에 의한 제공

16	프로그램명	**청소년공부방**
	실시장소	부산가곡사회복지관
	실시기간	
	대상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프로그램 목적 : -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 영구임대아파트내 복지관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과 학습지도, 진로지도, 생활고충 상담 등을 통해 일탈행동을 방지하고 학업의욕을 향상시키고자함. · 프로그램 내용 · 평일 17 00-23.00, 공휴일 19.00-23:00 매월 한번씩 다음의 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실시함 등반대회, 좋은 영화감상, 청소년 캠프, 길거리 농구대회, 탁구대회, 청소년 적성탐색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 부대시설 이용- 정보센터 개방(공부방 운영시간과 동일) , 탁구장 개장(〃)

17	프로그램명	**늘푸른교실**
	실시장소	충북삼보복지관
	실시기간	2001 1. 1 - 2001. 12. 31
	대상	지역 내 저소득가정내 초·중·고생 63명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목적 · 방과후 프로그램으로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포함하여 부적응지도 및 기초학습능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내용 월-금까지 오후2시-6시까지 실시함. 도서관, 인터넷교실이 있으며 인터넷교실은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높다

18	프로그램명	**청소년공부방**
	실시장소	충북청주산남복지관
	실시기간	2001. 1. 1 - 2001 12. 31
	대상	지역 내 임대아파트 단지 내 청소년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목적 :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민을 상담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배양시킨다. · 내용 월-토 오후 5-11시까지 실시함. 개인고민, 진로상담/ 학습지도/ 중학특강/ 청소년쉼터/ 탁구교실

19	프로그램명	**파랑새주말공부방**
	실시장소	서울중대부설종합사회복지관
	실시기간	2001 2. 24 - 7. 24 / 9.1-12.15
	대상	지역 내 저소득층청소년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목적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위학교생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향상하고 개별집단상담을 통해 정서적으로 지원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 내용 : 국,영,수, 과학, 컴퓨터, 야외활동(청소년약물예방이벤트참가), 캠프 .

(4) 직업훈련

대개 직업훈련은 취업을 목적으로 실업계고등학생이나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청소년들의 70%가 직업훈련을 희망한다고 응답

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관의 경우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곳은 겨우 2곳으로 이 욕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여기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두 경우를 제시하였는데 먼저 경기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99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정신지체장애청소년의 직업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특수학급소재 중고등학생인 광명 북중, 북고 재학 정신지체장애청소년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신지체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훈련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에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예술치료, 직업훈련으로 제과제빵, 스포츠 치료, 견학 및 관람 등의 야외활동, 통합캠프, 부모회운영, 작품전시회 및 공연 등이 해당된다.

인천만수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고등학생 중 요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사회적응력 향상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즐거운 요리학원'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리기능사 과정 교육(실기 및 필기) 주 3회, 집단활동 및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 주1회 실시하였다.

20	프로그램명	**정신지체장애청소년의 직업전 교육훈련프로그램**
	실시장소	경기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실시기간	1998.10- 2001.12 현재
	대상	광명시 유일의 특수학급 소재 중교등학교인 광명 북중, 북고 재학 정신지체 장애청소년 39명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목적 : 정신지체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훈련을 통한 지역사회통합 · 내용 : 예술치료/ 직업훈련(제과제빵)/스포츠 치료/ 견학 및 관람 등의 야외활동/ 통합 캠프/ 부모회운영/ 작품전시회 및 공연 · 특기사항 : 무료.

21	프로그램명	**청소년 즐거운 요리학원**
	실시장소	인천만수종합사회복지관
	실시기간	2001년 1월 -6월
	대상	저소득층가정의 고등학생 중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프로그램 목적: 사회적응력 향상 및 진로탐색의 기회제공 · 프로그램 내용· 조리기능사 과정 교육(실기 및 필기) 주 3회 집단활동 및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 주1회

4. 현행 복지프로그램의 문제점 · 개선안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복지기관의 실무자들에 의해 밝혀진 현행 복지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생존욕구

(1) 경제적 활동

저소득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위한 지역내 연계망 혹은 지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회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서울태화복지관).

청소년 건전 아르바이트 소개소가 절실하다(서울중대복지관).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무료진료와 생활비지원이 절실하다(부산밝은우리공부방).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아르바이트나 직업지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춘의종합사회복지관).

(2) 약물남용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청소년 약물예방프로그램 및 집단프로그램, 대안학교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퇴학생지도 프로그램이다(대전월평종합사회복지관).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약물오남용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대구범물사회복지관)

흡연음주관련 집단프로그램, 또래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문제점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강사섭외가 어렵다는 것이다.(경남화정사회복지관)

2) 관계욕구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점이 아주 많이 있다. 이는 모두 가정환경이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아이들에게 놀이치료나 그림치료로 접근하면 좋을 법하지만 현재 근무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대전새나루공부방)

3) 성장욕구

(1) 학업관련

내년에는 청소년(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학습지도를 방학중 주2회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욕구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탐방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충남쌍용사회복지관)

저소득층청소년들은 공부에 대한 열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

원봉사자의 욕구를 제대로 못 채워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구상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자원봉사자의 기능을 살려 무료학원의 형태로 진행시켜볼 생각인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여기에 토·일요일은 테마프로그램형태를 접목시켜볼 생각입니다.(충북청주산남복지관)

(2) 문화·여가관련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은 산 높고 공기 맑아 사람살기 참 좋은 곳입니다. 단지 교통편이 좋지 않아 문화생활을 접하기가 힘들어요. 이곳은 TV 난청지역인데다 라디오 채널도 잘 잡히지 않는 산간오지입니다. 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환경에서 영화구경 한번 제대로 못해본 것이 안타까워 비디오 상영이라고 해주고 싶은데 이곳 여건도 좋지 않지만 영상물 법률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도 제대로 된 영화 한편 상영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강원강림면공부방)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당구장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모이는 청소년들의 다수가 중학교 중퇴생이어서 이 공간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되 청소년들이 이 곳에의 활동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에서 밴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악기를 가르치고, 합주연습과 발표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악기나 장비들이 매우 고가여서 복지관에서 지원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청소년들의 관심과 욕구가 있는 음악에 대한 교육과 공간의 확보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청소년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각종 문화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월마다 이들에게 좋은

영화, 연극, 음악회 등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부산상리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장소마련이 필요하다.(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3) 진학 및 진로지도

중도포기 학생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합정사회복지관)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학교가 필요하다. 자격증과정의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이나 취업준비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직업교육에서부터 취업까지의 과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도 부분적으로 실시는 되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광명종합사회복지관)

4) 기타 문제점

(1) 기관간 연계

처음 사업을 진행하려는 인원모집과정에서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저소득으로 명기된 프로그램 진행이 성장과정의 청소년들에게 거부감을 줌. 일반과 저소득 구분 없이 청소년프로그램으로 명기되어 시행되었으면 함. 또한 복지관의 저소득층과 일반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차이를 없앨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경남마산사회복지관)

학교에서 아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시간을 할애 받는 적극적인 협조가 어려우며, 전문적인 슈퍼비젼을 통한 통로와 정보부족이 문제이다.(인천만수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가가 보다 많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사회사업가가 있어 기관과 청소년들 사이의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협

조적이었으면 한다. 기관에서 문제 청소년에 대한 접근시 학교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부산남산정사회복지관)

(2) 학교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과 비행청소년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송파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다보니 청소년들의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차후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으면 한다. 또한 학교사회사업이 실시되어 저소득층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부산학장복지관)

(3) 클라이언트의 참여

후원금이나 급식서비스 등 수혜적 기능을 지니는 사업들에 있어 청소년들의 거부가 크며 청소년에게도 의존의 습성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 수혜적 개념이 희석되도록 자원봉사, 성격 향상 등을 수행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춘의종합사회복지관)

5. 결과요약 및 함의

복지기관의 지도자를 통해 조사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존욕구와 관련하여서는 급식지원서비스(70.6%)와 현금지원서비스(80.4%)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알선서비스(41.1%)는 가장 적게 실시(15.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욕구와 관련된 프로그

램에서는 급식지원이나 현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모두 50% 미만의 기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을 파악되었다.

관계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경우 자원봉사프로그램(72.5%)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또래지지프로그램(39.2%)와 가족프로그램(31.4%)의 경우는 30~40% 정도의 기관에서만 실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장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개인상담·정서적 지원(86.3%)과 학습지도(86.3%)를 가장 많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캠프(84.3%)였고 33.5%의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지도는 25.5%만이 실시하고 있었고, 34.8%의 욕구를 나타낸 직업훈련 또한 9.8%로 가장 적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이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 차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생존욕구에서는 '약물교육(33.3%)'을, 관계욕구에서는 '가족프로그램(42.2%)'을, 성장욕구에서는 '진로지도프로그램(46.7%)'을 실시하기를 희망한다고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청소년들은 생존욕구에서는 '아르바이트 알선(41.4%)'을 관계욕구에서는 '자원봉사프로그램(27.9%)'을 성장욕구에서는 '사회교육프로그램(38.5%)'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어 두 결과가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결과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희망하는 활동을 모두 선택하게 하였고 지도자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3가지만을 선택하게 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아주 세밀하게 비교분석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기초자료로서 저소득층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관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 대표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는데 생존욕구에 대해서는 밑반찬서비스, 장학금지급, 결

식아동통합지원프로그램이 있었다. 특히 단순한 결식지원보다는 학습지도와 병행하여 생존욕구와 성장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욕구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또래집단의 청소년으로 집단이 구성되거나, 1:1로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진행되고 있었는데 본 조사에서는 4개의 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성장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먼저 문화·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인터넷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층청소년들은 직업훈련과 진로지도에 대해 전체의 70%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로지도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1. 생존권의 보장
2. 가정내 보호의 보장
3. 건강권의 보장
4. 교육권의 보장
5. 문화권의 보장
6. 일할 권리의 보장

공 백

Ⅵ.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저소득계층의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보완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1. 생존권의 보장

1)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보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모두에게 국민기본선(natioal minimum)을 확립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으나, 실제적인 작동상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1) 실질적인 수급권자의 확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목적과 빈곤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수급자 규모가 너무 적게 책정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빈곤가구의 청소년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급권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2000년도 2/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7.2%[15]인 데 비하여 2001년 현재 수급율(기초수급자수/인구수*100)은 3.3%인 151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공공부조제도하의 사각지대를 낳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방치된 빈곤가구가 잔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5) 우리나라 빈곤율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데, 최고 20%에서 최저 6-7%로 다양하다.

<표 VI-1> 소득분배 및 빈곤율(전국)

(단위 . 원, %)

기간		1인당 GDP[1]	지니계수[2]	실업률	전국빈곤율
2000	1분기	2,564,583	0.319	5.1	8.6
	2분기	2,667,890	0.321	3 8	7.2

주 : 1) 분기별 명목 GDP를 당해연도 추계인구수로 나누어 계산.
2)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소득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각년도 및 『도시가계 원시자료』 각년도.

자료 · 김미곤,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충현황과 발전방향,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Workshop」, 2001 1에서 재인용

첫째, 불합리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양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소득, 일정재산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무능력자들이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불합리한 재산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재산기준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준이다. 복지부에서는 2001년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 가구의 재산보유실태(4인가구 3,350만원)와 전세가격 상승률(중소도시 기준 연평균 약6%)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산금액기준의 경우 최저생계비와 달리 체계적인 연구와 심의 없이 결정한 것이다[16]. 즉, 재산기준을 설정할 때 그 수준이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재산만 가지고도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산수준은 수급자의 재산실태를 단순하게 반영함으로써 소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그것도 주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6) 허선,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12월호

합리적인 재산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다. 정부의 홍보 미비로 생활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다는 여전히 사실을 모르고 있고 특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특례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지역별 단일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대도시(특히 서울시) 지역의 저소득층이 대량으로 제외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물가가 비싼 지역(대도시)일수록 더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서 농촌지역의 상대적 과잉보호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 상당수의 생활곤란가구가 누락되게 되어 있다. 이에 지역별 차등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

<표 VI-2> 연도별 기초보장예산(의료보호 포함)

연도 / 예산	2000년	2001년
기초보장 예산(억원)	2조 3,321	2조 7,923
기초보장 대상자(만명)	151	151
1인당 기초보장예산(만원)	154.4	198.0

다섯째, 최저생계비의 불합리한 연도별 조정이 이루어진다. 2001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96만원으로 2000년도 최저생계비에 단순하게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수준이다. 1999년도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인 마켓바스켓 방식은 물가와 상품종류, 수량,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인데 물가상승률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비계측연도에는 물가 이외의 다른 요소는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경우 5년 후 재계측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할 것이며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준균형방식[17]의 최저생계비 도출방식

이 도입되어야 한다.

(2) 차상위가구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확대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 안에 있어 실제적으로는 언제라도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는 가구의 청소년들에게는 현재 의료급여 외에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빈곤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선 이하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정부와 민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함정의 문제는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게 단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게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단계별로 금액 수준이나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해서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언제든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수급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가구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와 같은 부분급여를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이라도 지급할 것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 보육료 지원사업, 경로연금, 장애인가구 학비지원 등은 차상위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자

17) 수준균형방식은 일반가구의 생활수준 변화에 따라 공공부조기준을 연동시키므로 상대적 빈곤관을 가미한 방식이며, 생활실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준균형방식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산조사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한 채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이러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림 Ⅵ-1>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기초보장제도의 부분급여(안)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
		노동가능자가 없는 가구	노동능력자가 있는 가구		
		⬇	⬇	⬇	⬇
생계급여	보충급여	○	-	×	×
	조건부 급여[1]	-	○	×	×
자활급여	공공근로	-	○	○	?
	직업훈련	-	○	○	?
	대부사업	-	○	○	?
	재활교육	-	○	○	-
교육급여· 학비지원		○	○	△	?
의료급여· 진료비융자		○	○	△	?
주거급여·영구임대·전세금융자		○	○	△	?
해산·장제급여		○	○	△	?
보호서비스제공		○	○	△	?
보육료지원		○	○	△	△
장애인수당		○	○	△	△
경로연금		○	○	△	△
아동양육비		○	○	△	△

기타 자산조사방식의 제도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의 120%, 130%, 혹은 재산기준의 120, 130%와 같은 방식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자산조사도 기초보장제도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같이 담당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조치일 것이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출부분에 대해 최저생계비 산정에서 고려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부가급여를 지출해야 한다.

2) 공부방의 체계적 지원

공부방의 경우 대부분은 민간의 비공식적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공부방을 법정시설로 하여 공식적인 지원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들이 단순한 방과후 학습지도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청소년과 그 가정에 대한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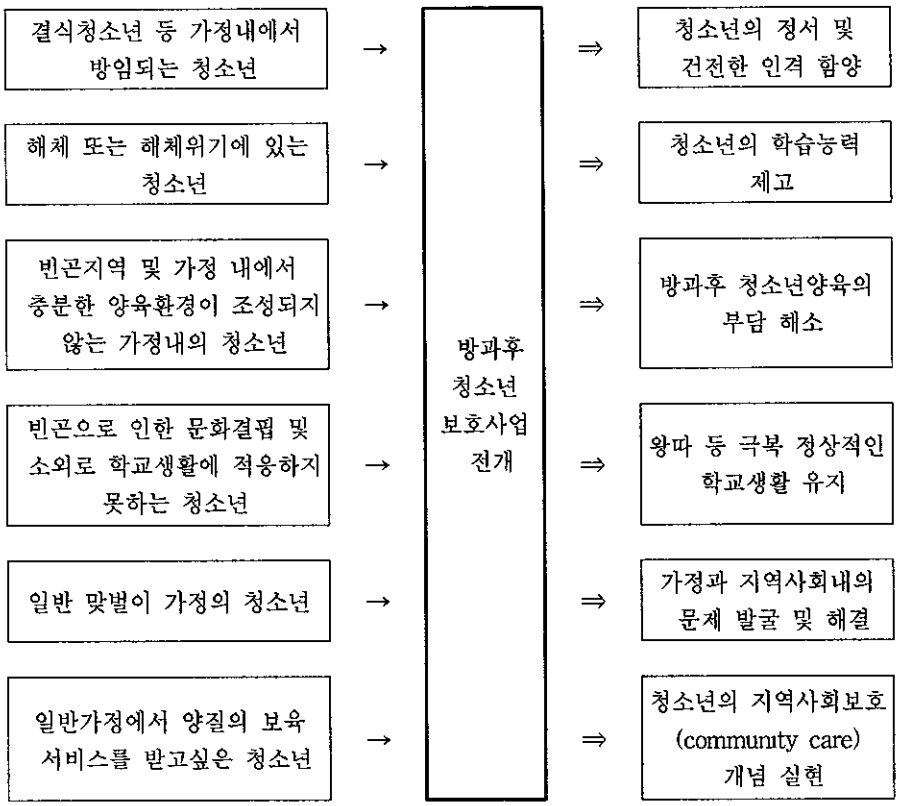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공부방을 통한 청소년 보호효과는 다음 <그림 VI-2>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부방은 단순히 방과후 학습지도하는 한정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가정 내에서 방임되는 청소년, 해체 또는 해체위기에 있는 청소년, 빈곤지역내의 불량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문화적 소외·결핍청소년, 일반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공부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를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공부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공부방'을 좀더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보완하며 민간에게 그 운영권을 개방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면 방과후 청소년보육의 실시 주체를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및 개인으로 하여야 하며 방과후 청소년보육의 대상으로는 방과후 부모에 의한 보호와 학습지도가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초

등 및 중등학교 학령기의 장애·비장애 청소년모두를 포함하도록 한다.

<그림 Ⅵ-2> 공부방을 통한 청소년보호 효과



한편, 방과후 청소년보육의 유형으로는 이들에 대한 수요자들이 처한 다양한 현실과 욕구에 기초하여 좀더 다채로운 유형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의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요구되나 현재로서 설치 가능한 방과후 보육의 유형을 정리하여 보면

-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방과후 청소년보육사업
- 아동복지시설을 통한 방과후 청소년지도사업
-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아동보육사업
- '청소년공부방'을 통한 방과후 보육사업

■ 이외 주민자치센터나 기타 종교사회단체의 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청소년보육사업 등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들 방과후 청소년보육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방과후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프로그램
■ 방과후 청소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 필요시 청소년에 대한 급식
■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의 적응프로그램
■ 청소년 및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 청소년 및 그 가정에 대한 정서적 및 실질적 지지 프로그램
■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자아존중감훈련)
■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훈련기관 알선 및 의뢰

또한 이들 방과후 청소년공부방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학습실
■ 조리실(급식을 행할 경우만 해당)
■ 화장실
■ 사무실(상담실과 양호실의 기능 겸할 수 있어야 함)
■ 급배수시설
■ 비상재해대시시설
■ 복합문화공간(50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만 해당)

3) 결식청소년의 방지책 수립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서 결식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집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에서도 47.2%가 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급식지원을 주로 학교에서 중

식만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결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6만 명의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약 2만 명에 대한 미취학아동의 급식, 방과후 석식 및 방학중 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대략 1/3 정도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 방학으로 인한 급식중단으로 결식아동 및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자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종합대책 수립 이전에 가정형편 곤란, 기타 가정문제 등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결식아동은 국가와 사회가 철저히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다각적인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행정기관과 관련기관에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긴급대책으로서 『결식아동 신고센타(1366, 1377)』 설치 등 결식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 개별상황에 맞는 다양한 급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긴급 상담전화(1366) 및 잉여식품 나눔은행전화(1377)를 결식아동 긴급신고 전화로 활용하기로 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완료하여 누구든지 결식아동을 발견하거나 본인이 결식아동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번없이 1366 또는 1377로 전화하여 결식아동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어 현장 확인 후 바로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선 현장의 일제 실태파악 및 급식지원 연계 조치를 취하여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전국의 결식아동 실태를 일제조사 하고 인근의 급식제공 자원봉사기관과 단체 등의 급식지원활동과 연계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아동문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나 부모의 이혼 등 기타 가정문제로 인하여 아동이 결식하는 경우에도 일선 시·군·구의 아동복지지도원이 방문·상담하여 급식지원은 물론 가정문제 해결을 도와줌으로써 결식

아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일반음식점등의 무료급식 참여를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하여 일반음식점에서도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 급식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록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에서도 강조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결식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는 결국 절대적인 빈곤에 있기보다는 가정내의 방임 및 해체위기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민간 공부방이나 복지기관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결국 결식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가정내의 방임행위를 유발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접근과 치유가 가능한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제일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정내 보호의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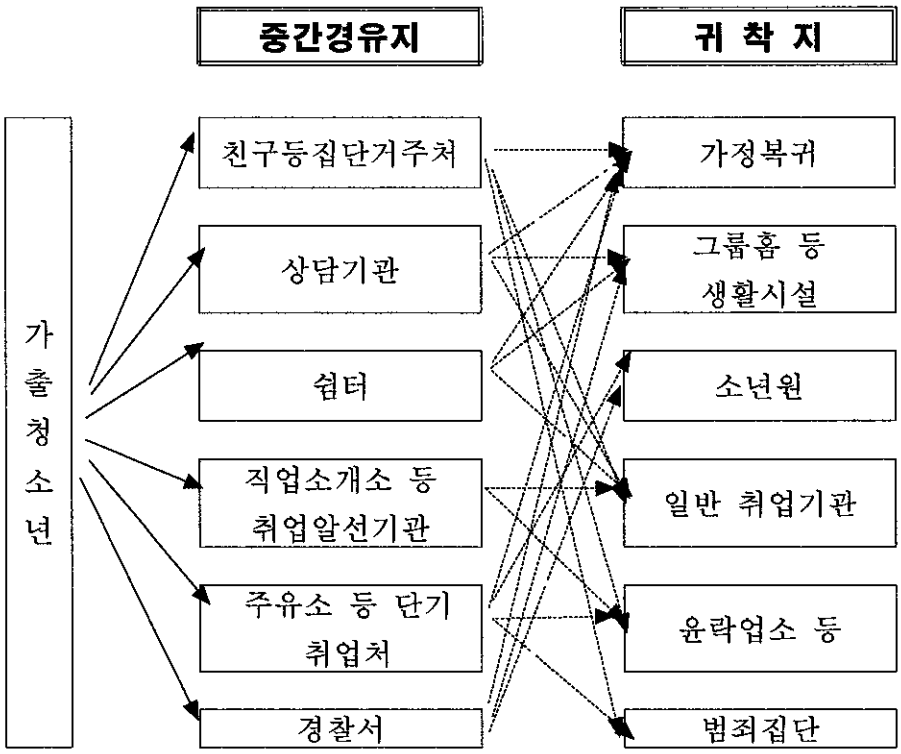
1) 가출방지 및 가출청소년보호 프로그램 활성화[18]

빈곤청소년들이 가출의 유혹을 가장 받기 쉬운 상태에서 이들의 가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상담사나 사회복지사의 세심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가출하였을 때 이들에 대한 소재파악과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쉼터 중심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18) 이태수 · 김광수 · 이정희 · 최연수(2000). 가출청소년 조기발견방안 및 보호시스템구축방안. 서울 : 청소년보호위원회.

(1) 가출청소년의 경로

<그림 Ⅵ-3> 가출청소년의 경로



<그림 Ⅵ-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은 친구등과의 집단거주지나 주유소 등 단기취업처를 비롯하여 상담기관 등 가출관련기관, 경찰소 등을 경유하여 나름대로의 귀착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복잡한 가출 이후의 행로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① 가정복귀형

이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는 데 물론 이 과정

에서 다행히 상담기관이나 쉼터 등으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 커다란 방황 없이 귀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래집단과 집단취식을 하며 비행을 저지르거나 주유소나 음식점 등 단기취업기관에서 때로는 장기간 가출상태를 거친 경우도 있다.

② 대체가정정착형

이들은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어도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룹홈 등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돌아갈 때까지 상당기간 거주하는 경우로서 이들 또한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다양한 경로를 거쳤을 수 있다.

③ 취업형

취업형은 비록 가정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장래와 미래를 건강하게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관철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들에 대해 의지를 북돋우고 필요한 지원 및 지지를 하기 위한 대응이 요구됨은 물론이며, 이들이 노동권을 보장받는 가운데 정상적인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④ 탈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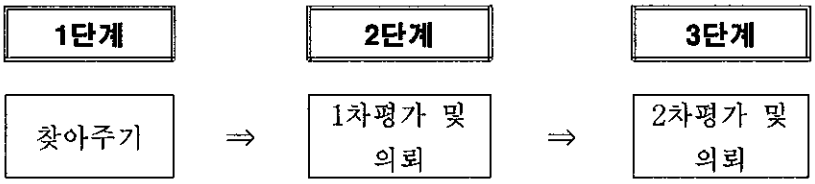
이들은 특히 청소녀의 경우 윤락업소등에서 윤락행위 등 탈선행위에 함몰됨은 물론 나아가 비행 및 범죄행위 등까지도 저지르게 되어 사법기관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받고 극단적으로는 소년원 등에 수감되는 행로를 밟는 경우를 말한다.

(2) 가출청소년 관련기관의 역할 재정립

① 청소년상담실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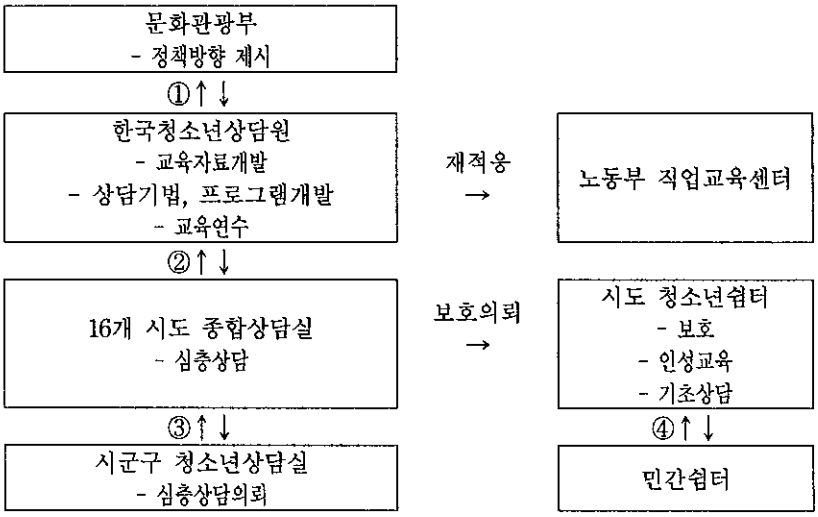
현재 가출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실은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1588-0924를 통하여 가출청소년 자신과 그 부모가 1차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데

우선 가출청소년이나 그 부모가 찾기를 원할 때 1단계인 찾아주기를 행하며 이후 1차 및 2차 평가와 해당 기관 등에 의뢰하는 절차를 각기 2단계와 3단계로서 밟게 된다.



그러나 이 기관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관련기관들과의 공조 및 협력, 의뢰관계가 미흡하여 충분한 공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 Ⅵ-4> 청소년상담실 중심의 가출청소년 지원체계



출처 · 유성경(2000), 「청소년가출」, 한국청소년상담원, p.23.

<그림 VI-4>와 같은 지원체계가 이들 상담실을 중심으로 기능한다고 하지만 청소년가출과 관련된 각종 기관들을 생각하면 이들 지원체계는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초래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전문상담원의 배치 정도가 미흡하여 야간에도 가출청소년의 신고나 상담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상담이나 적절한 조치 이후에 이들에 대한 추수지도 등을 시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출의 재발방지 등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 상담실은 현재로서는 가장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가출청소년의 대응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지원 및 협력체계에서 지니고 있는 미온성이나 제한성을 극복하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② 청소년쉼터 및 그룹홈의 공식화 및 지원

흔히 가출청소년의 보호기관을 가출청소년에 대한 긴급상담이나 단기보호에 목적으로 둔 청소년 쉼터와 중장기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한 그룹홈으로 양분할 때, 전자는 전국 광역시도에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쉼터가 15개가 존재하며 민간이 설립한 비공식적인 쉼터까지 하면 전국에 약 30여 개가 기능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가출청소년만을 위한 그룹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그룹홈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비공식적인 시설로 남아있다.

이들은 일시보호부터 상담, 치료, 문화·교육사업, 사후관리 및 예방, 조직사업 등을 전개하여 단일 기관 내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 또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쉼터와 그룹홈이 7만 여명의 가출청소년을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법적·제도적 근거의 부재, 인력 및 재정 부족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

관은 미신고 시설이므로 공식적인 조치나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특히 타 기관과의 연계망이 미비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들 쉼터와 그룹홈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기능이 정립되지 않아 가출청소년의 복잡한 상황과 긴급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에 역부족인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③ 학교 및 학교 상담실의 적극적 기능

현재 가출 학생에 대한 찾기 및 지속관리가 학교별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학교사회사업 및 상담기능의 부재, 가정방문 등의 미시행으로 인해 내실있는 접근의 미시행, 가정복귀 이후에도 학교 내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부재, 그리고 대안학교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이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사회사업의 활성화, 전문상담원제의 도입, 지역사회내의 연계체계 형성 및 학교의 역할 적극화, 그리고 가출경험청소년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 시스템 구비가 필수적이다.

④ 경찰 및 청소년선도회의 공조체제 강화

현재 비행 내지 촉범의 경우 경찰이 발견, 사건을 해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내 청소년 선도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체제가 있다. 그러나 경찰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소극적 대응, 평소 검문의 효력 미비, 상담 및 복지서비스 기관과의 공조관계 미흡 등을 이유로 이 역시 적절한 효과를 발하며 가출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사명의식 고취를 비롯하여 지역내 청소년관련 전문기관 및 준전문기관, 지역자원봉사집단 등과의 공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가정위탁 등으로의 전환

현재 소년소녀가정제도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방임이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제도를 개선하여 성인에 의해 보호받는 가정위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친인척에 의해 보호되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하여 가정위탁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1986년 공식적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정책이 도입된 것은 당시의 열악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준과 전통으로 포장된 아동의 입지전적 성공 신드롬이 엄존하였던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쩌면 필연적인 귀결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가정내 양육우선'이라는 아동보호의 제1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 이러한 기형적인 정책의 산물은 그간 아동복지서비스 영역의 미발전 현상과 맞물려 근본적인 정책상의 수정이나 방향전환없이 지속되었고 2000년만해도 15,390명의 소년소년가장세대에 월 1인당 6만5천원씩 도합 연간 120억원을 지출하는 현실로 이어져 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소년소녀가장보호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탈시설화와 가정중심보호양식이라는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아동보호양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제도는 아동의 보호원리에 위배되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제도의 존재가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수준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가정위탁을 통해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안정적인 가정에서 보호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룹홈 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대체가정을 통해 보호되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의 유인이 이미 고착화된 이 제도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후견인을 두도록 하여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감당해야 하는 친권의 행

사란,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법정대리인 역할을 행함(민법 제911조)은 물론 보호·교양(敎養)의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제913조)이며 아동이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게 할 수 있는 거소(居所)지정권(제914조)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제915조), 그리고 아동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권(제916조) 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국 소년소녀가장제도 자체가 더 이상 하나의 제도로서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

3) 방문가정주부(visiting housewives)제 도입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해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방문가정주부가 파견되어 이 가정의 청소년들의 학습지도나 고민상담, 가정생활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방문가정주부제도란 원래 가사보조서비스의 일종으로서 현재 노인복지분야나 장애인복지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봉사원파견제도는 주로 수발이나 가사거들기업무가 주된 것이지만 방문가정주부제도는 가정내에 '모(母)'가 부재하는 데서 오는 아동 및 청소년의 모성보호심리를 충족하는 것에서부터 정서적 지지와 학습지도, 일상생활지도, 상담 등을 포함한 가사보조업무를 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겠다.

이 제도는 원래 1903년 미국 뉴욕의 「빈민생활개선을 위한 가정서비스 연합회」에서 와병중인 모친들에게 집안일의 부담을 잠정적으로 해소시켜 주기위하여 간호서비스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방문청소부를 고용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이후 와병중인 가정주부의 경우에서 점차 확대되었고, 1923년 「필라델피아 유대인 가정복지사회(Jewish Family Service Society of Philadelphia)」에서 최초로 조직화된 가사보조서비스프로그램을 설립함

으로써 기반을 닦은 후 결정적인 확대계기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들어 고용촉진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에서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여성들이 모친의 질병이나 잠정적 부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가정에 할당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핵가족화 현상의 증대, 위탁가정의 감소, 의료보험제도의 발달로 모친의 의료기관 이용 증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가정 내에서의 치료경향 증가, 어린이 인구비중의 증대로 인해 가사보조서비스대상 어린이의 증대, 부친의 단독부임이 증대하여 모친 질병시 가정을 이끌 능력이 없는 가정 증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공공 또는 자발적인 민간기구에 의해 지원 받는 지역서비스의 일종으로서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매우 유용함이 인정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도되고 있지 않는 제도이다.

4) 가정상담제의 활성화

빈곤가구의 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성숙하게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상담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상담이나 적극적인 치유프로그램이 동원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저소득가구나 해체위기의 가정을 상대로 상담하는 기관이 극히 제한되어있고 아울러 이들 가정의 청소년들을 가정내의 부모와 함께 상담·치료하는 기관도 활발히 기능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16개 광역시·도에 있는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일선 시·군·구에 아동상담소가 있다고 하지만 가족치료 등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상담실(소)의 숫자와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청소년상담실을 확대·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치료나 가정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정상담소 등의 적극적인 설치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건강권의 보장

1) 만성질환 또는 희귀병 청소년의 의료보장 확대

만성질환 또는 희귀병으로 파산되는 가정내의 청소년들에게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발동되어 이들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이들 만성질환이나 희귀병에 시달리는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이미 빈곤가정으로 전락하였거나 전락의 위험성이 지대한 가정인 데 치료비 등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또래 청소년들과 유리되어 생활하거나 소외감을 느낌으로써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 또는 희귀병 청소년의 가정이 빈곤화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가 부실한 것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비록 공적인 의료보장체계로서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험제도에서 지급하는 급여항목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일정한 본인부담수준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들의 빈곤화는 필연적인 귀결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적인 건강보험체계에서 만성질환자나 희귀병 질환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일정수준의 자기부담만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청소년일 경우 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거나 교우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회교사제의 적극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료사회사업가나 지역내 사회복지사를 통한 사후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건강검진의 강화

빈곤지역의 청소년들은 대개 영양의 결핍 또는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으며 나아가 각종 건강상의 문제를 지닐 가능성이 많으므로 보건소나 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한다.

현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지역내의 공중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저소득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이 행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방문간호활동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순회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도 건강검진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 결과를 놓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지역사회내의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거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청소년관련기관들과 협조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교육권의 보장

1) 학교사회사업 등 학교내 상담의 강화

빈곤가구청소년의 학교내 부적응 또는 탈선, 비행, 범죄행위로 인해 학교에서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학교내 상담 또는 학교사회사업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학교생활이 유지되도록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고등학교 이상의 일정 학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교사회사업은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과 교육 기회의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학생 개인에게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계속

적으로 배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며 닥쳐오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주어 정서와 성격 문제의 초점으로부터 벗어나 학생 자신들로 하여금 '스스로 배우게 하고', '생각하게 하며', '문제해결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사회사업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전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사회사업은 학교 현장에 학교사회사업가가 상주하면서 학교사회사업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물론 일반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나 진로지도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 가정 - 학교를 연계시켜 주고 교육정책의 입안과 이의 실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중 학교사회사업가가 일차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는 요보호 학생의 예로는 아래의 학생들을 들 수 있다.

(1) 대인관계의 행동상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로서 폭력행위, 비사교적인 행동, 교사나 성인의 권리에 대항하는 행동 등을 나타내는 학생

(2) 심리,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로서 우울, 소외, 공포, 불안, 자살기도 등을 보이는 학생.

(3)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들로서 장기결석, 등교거부, 잦은 지각, 무단조퇴, 수업불참, 불량 등의 행동을 하거나 근신 정학을 받은 학생

(4) 가정환경이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로서 결손가정 이혼, 재혼, 빈곤, 입양, 소년소녀가장의 학생

(5) 부모가 학생양육에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로서 학대나 방임을 받는 학생

(6) 위기상황을 보이는 학생들로서 갑작스런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보이는 학생

(7) 학업부진을 보이는 학생들로서 지적능력은 있으나 학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

(8) 비행이나 범죄행위를 하는 학생들로서 폭력, 가출, 본드흡입, 불량

서클 가입, 임신 등의 비행 행동을 하는 학생.

(9) 병이나 천대로 인한 신체적 결핍을 보이는 학생(맹아, 농아, 지체부자유아, 정신부자유아, 정신박약아, 성격장애아, 언어장애자 등).

<표 VI-3> 학교사회사업의 실시 연혁

년 도	학교	내용	주관
1993년	영등포여상		영등포여상
1997년	연북중학교 광신고등학교 영등포여상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	서울시 교육청사업
1997년 ~ 1998년	무학 여고, 대구 제일여상 광주북성중학교 대전충남중학교	■ 일반계 여고생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학교사회사업프로그램 운영 ■ 담당 상담제 활동을 통한 학교사회사업 제도의 적용 ■ 학교사회사업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학교상담교육의 활성화 방안 ■ 전문 상담요원의 협력을 통한 학교상담기능 확충에 관한 연구	교육부사업
2000년도	당곡고등학교 송파 공고, 은평 공고 남강 중학교 동마 중학교	■ 학교생활 적응력 증진을 위한 학교사회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입생 학교적응 PG/무단결석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증진 PG/ 중도탈락 예방PG/ 정계학생 학교생활 적응PG/ 교우개선 PG)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
2001년도	안천 중학교 성원 중학교 삼성 고등학교 경성 여실 서울 북공고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

이러한 대상자는 다시 크게 5가지로 첫째 개인내부의 주관적 원인이 있는 학생, 둘째 개인외부의 객관적, 사회적 원인이 있는 학생, 셋째 내외

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학생, 넷째 개인적, 가정적, 환경적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 다섯째,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출현하는 문제(학습부진, 공격적·반사회적행위 등)와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

1993년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차원에서 서울 영등포여상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최근에는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시범사업으로 꾸준히 그 실현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데 이 사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학교의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대안학교의 활성화

빈곤가구의 청소년들이 제도권내의 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 이들에게 적합한 대안학교가 마련되어 나름대로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경우 도시형 대안학교가 만들어져 기존 고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자퇴, 퇴학을 하지 않은 채 교육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2001년 3월부터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동 성지고와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정보고, 송파구 장지동 한림실업고 등 3곳을 도시형 대안학교로 지정하고 시내 고교로부터 위탁받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빈곤가정의 청소년들도 이러한 대안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적응 가능한 학교를 찾게 되고 학업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문화권의 보장

1)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권 확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이들 빈곤가구의 청소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이용가능 하도록 일정한 쿼터를 보장한다.

본 연구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여가시간은 TV 시청과 컴퓨터게임 등으로 충당되고 있는 형편에서 이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수련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각 수련시설에서 전체 프로그램 이용자의 3~5%정도를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해 할당해 놓음으로써 이들에게 수련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국·공립수련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를 확대하여 사립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할당제를 활용함에 있어 주의할 것은 이들 저소득가구 청소년만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반가정의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저소득가구의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적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들 저소득가구의 부모와 청소년들을 한자리에 모은 저소득가정을 위한 가족수련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런 특정 목적의 경우는 예외라 할 것이다.

2) 지역복지관 프로그램이용 적극 유도

지역복지관에서 행하는 다양한 교육, 문화, 상담 프로그램 등에 저소득가구의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관에서의 활동강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표 Ⅵ-4> 종합사회복지관의 유형별·운영주체별 분포(2001.6. 현재)

(단위 : 개소)

시도별	총계	유형별				운영주체별				
		600평 이상	300~600평 미만	300평 미만	사회복지 상담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학교 법인	자치 단체	미정
계	348	101	186	57	4	251	62	18	15	2
서울	92	33	51	6	2	63	18	11	-	-
부산	46	21	17	7	1	37	7	1	1	-
대구	26	13	11	1	1	24	2	-	-	-
인천	13	3	10	-	-	8	5	-	-	-
광주	18	3	14	1	-	15	3	-	-	-
대전	16	2	11	3	-	11	3	1	1	-
울산	3	1	2	-	-	1	2	-	-	-
경기	36	9	15	12	-	26	5	4	-	1
강원	12	1	11	-	-	10	-	-	2	-
충북	10	1	7	2	-	7	3	-	-	-
충남	12	2	4	6	-	7	3	-	2	-
전북	14		8	6	-	13	1	-	-	-
전남	14	2	9	3	-	7	5	-	2	-
경북	15	3	8	4	-	9	4	-	2	-
경남	18	7	5	6	-	10	1	1	5	1
제주	3	-	3	-	-	3	-	-	-	-

2001년 6월 현재 전국 348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데 이들 중 상당수가 영구 임대주택 단지 안에 있는 등 저소득지역에 분포하

고 있으므로 이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전개와 참여유도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복지관을 중심으로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 방과후 청소년공부방 운영
- 지역사회 탐구 프로그램
- 상담프로그램
- 비행청소년 또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 고적답사, 춤동아리 등 여가활동프로그램
- 컴퓨터자격교육 등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의 평가항목에 이들 청소년의 참여율이 고려되도록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복지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이용료감면이나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운영비 조달에 있어 국고 20%, 지방비 60%, 그리고 자체부담 20%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비 총액을 놓고 보면 복지관 자체 조달비중이 50-60%에 이르는 실정이므로 저소득층청소년들의 부담 완화를 적극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3) 문화공연 및 운동경기의 관람 할당제 도입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문화시설이나 운동시설에 관람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청소년기의 특성상 운동선수나 연예인, 문화인을 동경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한데 이들과 접촉함으로써 생활과 학업의 스트레스를 풀고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기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욕구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회를 찾는 것조차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므로 이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연물이나 공공기관에서 주

최하는 문화행사의 경우 반드시 일정한 좌석비율을 이들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할당제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소 지역 내 청소년단체와 문화단체, 지방자치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공연기회가 형식적으로 배급된 상태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평소 이들 청소년과 관련단체 전문가의 원활한 관계성이 전제되어 매우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회가 활용되는 동시에 공연관람 후 지역사회 내의 소속감이나 단체관계자와의 관계가 공고히 되는 기대효과와도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 내 건강한 문화공간 건립

지역 내에 청소년들의 여가와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소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콜라텍이나 인터넷까페 등의 개설이 그 예이다.

현재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부족하거나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이나 건물을 이러한 용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콜라텍은 콜라를 마시며 춤을 추는 장소인데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춤을 즐기고 긴장을 해소하는 건전한 문화·놀이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사회에서 최근 동사무소의 지역센터로의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공간의 일부에 청소년들의 콜라텍이나 인터넷까페를 구성한다면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문화적 욕구불만의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6. 일할 권리의 보장

1) 직업훈련기회의 확대

학교 중퇴청소년은 물론 졸업 뒤 취업을 생각하는 청소년을 위해 이들에게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실업계고교 진학자나 아동복지시설 생활 청소년들에게는 직업훈련의 기회가 일정정도 보장되어 있으나 중퇴청소년의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실제로는 이들에게 있어 직업훈련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므로 지역내의 복지관은 물론 각종 직업훈련센터, 직업안정센터 등에서 지역내의 중퇴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은 중퇴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직업관련기관이나 청소년복지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들에 대한 접촉과 기회제공, 취업처 연결 및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협의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조건의 개선

학교생활과 병행하여 집안의 생계를 돕고 자신의 자립의지를 고취하는 방법으로서의 아르바이트는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데 이 경우 이들이 노동착취 대상이 되지 않고 적절한 노동조건이 보장되도록 하는 「청소년 시간제 근로에 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5세미만은 고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법 제62조) 18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서 등이 구비되어야 함(법

제 64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간제 근로청소년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를 공식화하면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직업체험활동의 강화

청소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직업관과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상의 적성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안에서 직업체험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미 직업체험장은 몇몇 시범단계를 거치고 있는 데 그 중 주목할 곳은 서울시 직업체험센터로 출발하여 2001년 9월에 일종의 대안학교로까지 발전한 '하자 작업장학교(haja production school)'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힙합강좌, 자기언어놀이, 뮤지션 프로젝트 등 6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영상디자인, 시각디자인, 시민문화, 웹디자인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신의 체험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때 관건이 되는 것은 지역사회 내의 전문직업장과 전문인이 이러한 직업체험의 기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직업체험센터는 극히 소수로서 극히 제한된 청소년들에게만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센터수를 늘려가야 하며 체험 청소년들 중 저소득가정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추가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 백

참고 문헌

강신재(1997). 저소득층의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자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희경(1993). 간호의 책임 : 빈곤 속의 아동. 한성전문대학논문집, 제 21호 pp. 173-186.

권순원(1993).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대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기숙미(1995). 청소년의 욕구와 정신건강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혜(1998). 서울시 저소득시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만두편역(1999).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례관리 실제론. 서울: 홍익제.

김문섭(2000). 청소년욕구를 중심으로 본 청소년지도방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미곤(2001).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충현황과 발전방향,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Workshop.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병수(1999). 빈곤아동의 생활실태와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술(2000). 중학생의 의식실태와 발달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이 · 채구묵(1997). 욕구조사론. 서울: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김정명 외(1989). 요지원 무직 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김현용 외(1997). 현대사회와 아동. 서울: 소화출판사.

나병균(1998). IMF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실업자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노 혁(1998).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개선정책 연구-공동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성희(1999).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능성에 관한 연구-실직가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화관광부(2000). 청소년 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박문수 외(1998). 저소득층지역 청소년 여가문화와 소집단 활성화. 서울: 집문당.

박성수외 김혜숙, 이숙영, 김창대, 유성경(1997). 청소년 상담원리.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박순일(1999). 실업대책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보건복지포럼, 제33호, 1999. 6.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현선(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제37호 (pp 195-216).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보건복지부 편(1996). '96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서울: 보건복지부.

부스러기 선교회 편(1998). 부스러기선교회 신나는 집 활동백서. 서울: 부스러기.

부스러기 선교회 편(1999). 난 밖에가 방이에요 II. 서울: 부스러기.

부스러기 선교회 편(2000). 결식아동 현황자료집. 서울: 부스러기.

부스러기선교회 · 빈민여성교육선교원 편(1999). 결식아동 및 빈곤가정을 위한 제도 마련 공청회. 서울: 부스러기.

성규탁(1985).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욕구측정. 아산, 제28호(pp. 26-40) 서울: 아산사회복지재단.

송영숙(1998). 가톨릭 공부방 활동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정부(1992). 사회복지학연구. 서울: 법지사.

신건식(1998). 청소년의 복지욕구와 불교의 복지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명용(1999). 빈곤지역 청소년문제 접근 연구 세미나(pp. 1-18).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연세대학교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편. 저소득층 중퇴청소년의 교육적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복귀프로그램 : 징검다리. 서울: 가양 4종합사회복지관.

유성경(2000). 청소년가출.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이건용(1994). 결손가정 청소년의 문제점과 그들을 위한 서비스 실태에 관한 연구-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림(1997). 빈곤지역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부스러기 선교회 소속 공부방 아동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미(1995).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무근(1998). IMF시대의 청소년 실업문제, 그 진단과 대책, 21세기 청소년 포럼.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이미숙 외(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헌(1998). 아동복지 수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승남(1998). 소외지역 결손가정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문제와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욕구에 관한 연구-기독교단체의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교(2000). 복지는 생활이다. 서울: 인간과 복지.

이정은(1997). 도시저소득층 가족의 상호작용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응집성과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화(1999). 가정의 실직과 자녀의 학습 의욕과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태수 · 김광수 · 이정희 · 최연수(2000). 가출청소년 조기발견방안 및 보호시스템구축방안.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이현주(2000). 빈곤과 차상위계층.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1호 (pp. 26-38).

임병근(1999). 청소년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신재(1997). 저소득층의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자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영진(2000). 청소년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원논문.

정무성(1998). 실직자와 그 가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방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정재원(1999). 도시빈민가족의 자립을 위한 가족중심 아동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희(1998).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능성에 관한 연구-실직 가정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은 · 김영지 · 김희진(2000). 저소득층청소년 문화실태,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저소득층 청소년문화의 실태와 문화적 권리신장 방안 연구 (pp 17-47).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조흥식(1998), 대량실업에 따른 민간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개발, 경제위기 상황하에서의 민간복지서비스 확충방안 모색, 사회복지통원 제137호(1998.여름).

조홍식(1999). 청소년 복지적 소외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학회 편, 소외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pp. 57-80).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최은영(1994).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의 빈곤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현(1990). 요보호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통계청.(각년도)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통계청.(각년도) 도시가계 원시자료.

한국사회보장학회 편(1999). 기초생활과 생산적 복지. 서울: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편(1999). 소외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허 선(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재정되기까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제15호. 서울: 나남출판.

홍순민(1999). 빈곤아동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아동복지기본선의 탐색적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창순 · 이혜연 · 김희진(1999).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Aletha, C. H.(1991). *Children in poverty : Developmental and policy issue.* In Ira A. C.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pp 24-55). Oxford:* Cambradige University press.

Aletha, C. H.(1994). *Children and Poverty: Issues in Contemporary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275-282.

Bakke, E. C.(1940). Citizens without work: Yale university Press.

Bradly, S. A.(1989). *Home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18-235.

Bradshaw Jonathan.(1972). *The Concept of Social Need.* New Society.

19 (March), 640-643.

Brooks-Gunn, J. & Duncan, G. J.(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Children and Poverty, 7, 55-71.

Brooks-Gunn, J. & Duncan, G. J.(1997). *The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neighborhood poverty: Context and consequences for develop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Burchinal, H., Lee, M., & Ramey, C.(1985). *Type of day-care and preschool intellectual development in disadvant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128-137.

Conger et al.(1990).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Duncan, G. J.(1993). *The economic environment of childhood.* In A.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ncan, G., Connel, J., & Klebanov, P. K.(1997).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estimating casual effects of neighborhood and family conditions on individual development.* In J. Brroks-Gunn, G. J. Duncan & J. L. Aber (Eds.), *Neighborhood Poverty: Context and consequences for children(pp. 219-250).*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Downey, S. B, & Coyne, R. M.(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Elder, A. C.(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Social chances in*

life exper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lder, A. C.(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n P. B. Batles & O. G. Brin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6, 109-158. New York: Academic Press.

Fong, R. L., & Brooks-Gunn.(1993). *Patterns of Low-Birth-weigt Children's Coginitiv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 29, 1024-1035.

Garner, A. D., & Rauden, B.(1991). *Neighborhood effects on educational attainment: A multilevel analysis.* Sociology of Education, 64, 251-262.

Gainsky, E., Hoews, C., Kontos, S., & Shinn, M. (1994). *The study of children in family child care and relative care: Highlights of finding.* New York: Families and work Institute.

Gelles, E. R. & Steinmez, D.(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cian family*: Gordon City: New York: Anchor Books.

Greg, J. D.(1991). *The economic environment of childhood .In Ira A.C. Huston(*Ed.), *Children in poverty*(pp 24-55). Oxford: Cambradige University press.

_____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Child Development, 71, 188-196.

Henry, M. L.(1991). *Educational acceleration for at-risk students.* In Ira A.C.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pp.24-55). Oxford: Cambradige University press.

Kadushin, N. M., & Martin, S. S.(1981). *Child abuse: An interactional even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Kahn, A. J.(1969). Theory and Practice of Social Poli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Keniston, D. & Carneige, D. F.(1999). *All our children: The Amercian family under pressure.* New York: Harcourt Brace Javonovich.

Levin, C. J.(1986). *Education, earning and poverty. In D. Hornbeck & L. Salaman (*Eds.), *Human Capital and Amercia*(pp 139-167): Johns Hopkins Press.

Lorraine, V. K(1991). *The health of poor children: Problems and programs* .In Ira A. C.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 Oxford: Cambradige University Press.

Mararet. R. B.(1997). *Early Intervention Process in Coginitive performance of Children of Low-Income African Amerci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68, 935-954.

McLahan, S.(1983). *Family structure and stress: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two parent and female-heade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47-357.

McLahan, S. & Marks, N. F.(1991). *The role of mother-only families in reproducing poverty,* In Ao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Loyd, V. C., & Wilson, L.(1991). *The strain of living poor: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Loyd, V. C.(1988). *Interaction of stress and family structure and their relations to child 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Megan, N. L.(1999). *Contextually relevant assessment of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 of head start children.* Unpublished

Doctral dissertation, Pensylvenia University.

Pamela, K. K.(1998). *The Contribution of neighborhood and Family Income to Develpomental Test Scores over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69, 1420-1436.

Patterson, R. D.(1989).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D. J. Pepler., and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reession(pp. 139-168).*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Peeples, D., & Loeberm, E. C.(1994). *Do individual factors and neighborhood context explain etynic differences in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Quantative criminology, 10, 141-157.

Puckering, W. E.(1989). *Annotation: Maternal dep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807-817.

Rand, D. C.(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in Child development,* 63 , 526-541.

Ramsy, N. A.(1989). *With a little help: Children in poverty and child care.* In A Huston(Ed.), *Children in poverty.* Cambridge: Cambridge Press.

Ramsy, N. A., Stedman, D., Borders-Patterson, & Mengel, D. S.(1978). *Early intervention for high-risk children.* Journal of prevention and Human services, 7, 33-57.

Sherman, U. & children's defense fund.(1994). *Wasting Amercia's future:* The children's defense fund report on the costs of child poverty. Boston: Beacon Press.

Susan, W. A.(1998). *Children Living in poverty: Their Perception of*

Career Opprtunities. Family in Society: Families International, 46, 346-378.

Vonnie, C. M.(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mental Development, 61, 311-346

Weikart, C. B.(1984). *The Ypsilanti Perry Preschool Project. Preschool year and longitudinal results.* Monographs of the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부 록

1. 청소년용 조사설문지
2. 복지기관의 프로그램현황 조사지

공 백

부록 1 - 청소년용 조사설문지

설문지No.				

청소년 복지욕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해 지난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원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모색하고자 청소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일상생활 안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희망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 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청소년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되니 **성의있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우 137-715)
복지정책연구실 : 이혜연
(☎ 02-2188-8834, 8854, FAX : 2188-8869)

2001. 11.

한국청소년개발원

※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것 **하나만을 골라 해당번호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2가지, 3가지, 모두 등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는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Ⅰ. 다음은 여러분의 교육, 직업, 여가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중학교 졸업 후, 어떤 진로를 택하고 **싶(었)습**니까?
   ___ ① 일반계고등학교 ___ ② 실업계고등학교
   ___ ③ 취업 ___ ④ 기타 (_____)

   1-1. 앞의 질문에서 **해당학교를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취업이 유리해서 ___ ② 경제적인 이유로
   ___ ③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___ ④ 학업성적이 부진해서
   ___ ⑤ 적성에 맞아서 ___ ⑥ 기타 (_____)

   1-2.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합니까 ?
   ___ ① 중학교 졸업 ___ ② 고등학교 졸업
   ___ ③ 대학교 졸업 ___ ④ 대학원 이상

2 여러분의 학습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___ ① 청소년공부방 사업(단체 학습지도 및 문화여가활동지원)
   ___ ② 장학금 지급
   ___ ③ 자원봉사자 연결을 통한 학습지도
   ___ ④ 학습에 관련된 참고서지급
   ___ ⑤ 학원 무료수강
   ___ ⑥ 학습공간제공
   ___ ⑦ 기타 (_____)

3. 여러분은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___ ① 예 (→ **3-1번으로**) ___② 아니오(→ **4번으로**)

   3-1.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주로 무엇 때문입니까 ?
   2 가지만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① 경제적인 것들(학교 준비물, 수련활동비 등)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해서
   ② 공부하기 싫어서 ③ 성적이 나빠서
   ④ 선생님이 차별하고 무시해서 ⑤ 반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서
   ⑥ 학교 규칙에 얽매이기 싫어서 ⑦ 기타 (_____)

4. 여러분은 학교공부 외에 현재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집단)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있는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___ ① 가정교사 과외 ___ ② 학습지 구독 ___ ③ 속셈·주산·부기학원
___ ④ 컴퓨터 학원 ___ ⑤ 체육관(태권도, 수영 등) ___ ⑥ 진학을 위한 학원
___ ⑦ 영어학원 ___ ⑧ 지역사회복지관(피아노, 태권도, 영어, 컴퓨터, 수영 등)
___ ⑨ 피아노 학원 ___ ⑩ 공부방·신나는집(학습지도, 피아노, 미술 등)
___ ⑪ 없다 ___ ⑫ 기타 (_____)

4-1. 위에서(4번) 제시된 항목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것 2 가지만 그 번호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5 **희망하는 직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2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___, 2___)

< 보 기 >

1) 교사	2) 교수	3) 과학자
4) 공무원(외교관)	5) 정치인(국회의원)	6) 판사·변호사·검사
7) 의사	8) 간호사	9) 약사
10) 농·축·수산업	11) 상업	12) 사업가·전문경영인
13) 회사원·은행원	14) 기술자	15) 건축가
16) 파일럿(비행기조종사)	17) 비행기 승무원	18) 경찰·군인
19) 작가	20) 화가	21) 만화가
22) 아나운서·방송국PD	23) 기자	24) 광고인
25) 컴퓨터프로그래머	26) 의상디자이너	7) 헤어디자이너(미용사)
28) 연예인(탤런트·가수·개그맨등)	29) 영화감독	30) 운동선수
31) 사회복지전문가	32) 성직자(목사·신부·승려등)	33) 요리사
34) 기타 (_____)		

6 만일 취업과 관련하여 직업 훈련이 제공된다면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___ ① 예(→ **6-1번으로**) ___ ② 아니오(→ **7번으로**)

6-1.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면 어떤 직종을 원하십니까?

___ ①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분야 ___ ② 자동차 운전 및 수리
___ ③ 전자제품 조립 및 수리 ___ ④ 건축이나 목공에 관련된 내용
___ ⑤ 농사나 가축사육에 관한 내용 ___ ⑥ 영어, 일어 등 외국어
___ ⑦ 기타 (_____)

6-2.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면 어디서 받고 싶습니까?

___ ① 복지관 ___ ② 직업훈련원 ___ ③ 학교
___ ④ 공장·회사 ___ ⑤ 시설학원

7 진로지도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겠습니까?
___ ① 예(→ **7-1번으로**) ___ ② 아니오(→ **8번으로**)

7-1.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받게 된다면 다음 중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순서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_____, _____)
___ ① 직업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고 싶다
___ ② 나의 적성이나 흥미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
___ ③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싶다
___ ④ 현장 실습지 소개를 받고 싶다
___ ⑤ 직장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기술을 습득하길 원한다
___ ⑥ 대학의 계열 및 학과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고 싶다
___ ⑦ 저축관리 및 경제생활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
___ ⑧ 기타 (_____)

8. 학교 수업시간외에 컴퓨터를 **일주일에 몇 시간** 이용하십니까? (_____) 시간

9.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___ ① 집 ___ ② 친구집 ___ ③ 학교수업시간 ___ ⑤ 방과후 학교
___ ⑥ 컴퓨터학원 ___ ⑦ PC방 ___ ⑧ 공공기관(복지관, 정보센터, 수련시설 등)

10 다음 중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은 ? 원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① 컴퓨터 게임 ② 컴퓨터 통신 ③ 컴퓨터그래픽, 음악 ④ 프로그램 작성
⑤ 워드프로세싱 ⑥ 인터넷 ⑦ 컴퓨터를 통한 학습 ⑧ 기타 (_____)

11 여러분은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12 컴퓨터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제공되었으면 합니까?
___ ① 통신속도가 빠르고 컴퓨터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다
___ 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___ ③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___ ④ 최신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___ ⑤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___ ⑥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 및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
___ ⑦ 기타 (_____)

13 아래의 활동들 중에서 자신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실제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선택하여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___, ___, ___)

< 보 기 >

1) 집안일 돕기 2) 집에서의 휴식(낮잠자기 등) 3) 독서
4) 신문, 잡지읽기 5) 만화읽기 6) TV시청
7) 비디오 시청 8) 라디오 청취 9) 음악감상
10) 예술활동(창작, 그림, 서예, 사진, 연주, 연기 등 직접활동)
11) 모형·완구 제작, 목공 등 12) 각종운동(스포츠 활동)
13) 컴퓨터게임 14) 인터넷·PC통신이용 15) 친구만나기
16) 아르바이트 17) 종교활동 18) 동아리 활동
19) 개인적인학습활동 20) 야외활동(등산, 낚시, 산책 등) 21) 여행
22) 가족과 대화 23) 스포츠 관람 24) 길거리 돌아다니기
25) 생활취미활동(원예, 꽃꽂이, 인테리어, 바둑·장기 등)
26) 예술관람(각종 공연·전시회 관람, 영화관람 등)
27) 노래부르기 28) 춤추기 29) 실내오락(트럼프, 바둑, 장기 등)
30) 쇼핑하기·백화점, 시장 구경 31)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13-1. 위의 활동들 중에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앞으로 가장 하고 싶어하는 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선택하여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14 여러분이 여가나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입니까 ?

___ ① 시간이 부족하다 ___ ② 비용이 부담된다
___ ③ 함께 할 사람이 없다 ___ ④ 적절한 장소 및 시설이 없다
___ ⑤ 어디서 어떻게 즐겨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___ ⑥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 ___ ⑦ 기타(_____)

15. 체험학습일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

___ ① 집에서 하는 일 없이 TV 보며 지낸다
___ ② 부족한 학과공부를 보충한다
___ ③ 영화나 공연을 보러간다
___ ④ 특별한 계획 없이 친구들과 보낸다
___ ⑤ pc방이나 오락실 등에 간다
___ ⑥ 기타 ( )
___ ⑦ 우리 학교에는 체험학습일이 없다

16. 여러분은 **한달에 평균 몇 권**의 책을 읽습니까? (_____) 권

17. 여러분은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을 즐겨 읽습니까 ? **2 가지만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___, ___)

① 교양서적(과학, 철학, 종교, 소설, 역사 등)
② 생활, 취미, 정보서적(컴퓨터, 디자인 등)
③ 만화책
④ 추리 및 범죄물
⑤ 성에 관련된 책 ⑥ 무협지 ⑦ 하이틴 로맨스
⑧ 기타 (_____)

Ⅰ. 다음은 여러분의 교육, 직업, 여가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 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먹고 싶은 음식을 항상 먹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성장에 필요한 음식을 고루 섭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옷 때문에 원하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옷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우리 집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6)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이 살기에 너무 좁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동네 주거환경(소음, 매연, 청결, 안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에서는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왜소하다	①	②	③	④
10) 술이나 담배를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가장 **먼저 바꿨으면 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① 화장실 보수 및 개조 ② 샤워 시설 설치 ③ 혼자 쓸 수 있는 방
④ 좁은 실내 공간 ⑤ 온수시설이 없음 ⑥ 부엌 개조
⑦ 기타 (_____) ⑧ 없음

3. 여러분은 학기중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___ ① 예(→ **3-1번으로**) ___ ② 아니오(→ **3-4번으로**)

3-1. 어떤 방식으로 중식(점심식사)과 석식(저녁식사)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
___ ① 학교에서 중식만
___ ② 학교에서 중식과 석식 모두
___ ③ 학교에서 중식과 민간단체(복지관, 공부방, 교회 등)에서의 석식
___ ④ 학교에서 중식과 일반식당에서의 석식
___ ⑤ 학교에서 중식과 민간단체로부터의 도시락 지원
___ ⑥ 기타 (_____)

3-2. 현재의 지원방법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
___ ① 만족한다(→ **4번으로**) ___ ② 불만이다(→ **3-3번으로**)

3-3.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기를 원합니까? **3-1번 보기**에서 선택하십시오.
(_____) (→ **4번으로**)

3-4.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방법을 몰라서 ___ ② 창피해서 ___ ③ 신청했는데 빠져서
___ ④ 필요하지 않아서 ___ ⑤ 기타(_____)

4 여러분은 현재 **누구와 함께** 방을 쓰고 있습니까?

___ ① 혼자 ___ ② 형제 ___ ③ 부모님
___ ④ 온 가족 ___ ⑤ 기타 (_____)

5. 여러분은 다음 중 어느 장소를 **공부방**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

___ ① 사설 독서실
___ ② 청소년공부방 I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 독서실로 하루 이용비는 500원 정도)
___ ③ 청소년공부방 II (민간단체가 학습·여가지도와 학습공간 제공, 간혹 급식도 제공)
___ ④ 학교 교실이나 도서관
___ ⑤ 구립·시립 도서관
___ ⑥ 집
___ ⑦ 기타 (_____)

6. 여러분은 **최근 6개월 간**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습니까 ?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 해주십시오.

___ ① 각종 사고(교통사고, 부주의사고)로 인한 질병
___ ② 감기 및 기침이 잦음
___ ③ 코 및 귀 관련 질병(충농증, 중이염 등)
___ ④ 피부
___ ⑤ 충치 및 잇몸질
___ ⑥ 위장
___ ⑦ 기타 (_____)
___ ⑧ 해당사항 없음(→ **8번으로**)

6-1. 치료를 받았습니까?
___ ① 예(→ **7번으로**) ___ ② 아니오(→ **6-2번으로 가시오**)
6-2. 치료받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___ ① 증세가 가벼워서 ___ ② 돈이 없어서
___ ③ 시간이 없어서 ___ ④ 거리가 멀어서
___ ⑤ 치료 예정임 ___ ⑥ 의료보험을 내지 못해서
___ ⑦ 기타 (_____)

7.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 가족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___ ① 집안에 환자가 있어 가족 간에 심리적인 갈등이 있다
___ ② 경제적 부담(약값, 병원비) 등이 크다.
___ ③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전혀 못 받고 있다.
___ ④ 간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제약이 있다.
___ ⑤ 어려움이 전혀 없다.
___ ⑥ 기타(_____)

8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가장 **먼저 바꿨으면 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① 화장실 보수 및 개조 ② 샤워 시설 설치 ③ 혼자 쓸 수 있는 방
④ 좁은 실내 공간 ⑤ 온수시설이 없음 ⑥ 부엌 개조
⑦ 기타 (_____) ⑧ 없음

9. 여러분의 **한달 평균 용돈**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단, 학습에 필요한 교재비, 학원비 등을 제외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 ? 용돈이 없을 경우에는 **'없다'**고 적으십시오.

(약 _____ 원)

9-1. 여러분은 **용돈**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넉넉하다
___ ② 약간 넉넉한 편이다
___ ③ 적당하다
___ ④ 부족한 편이다
___ ⑤ 매우 부족하다
9-2. 여러분의 **한달 평균 용돈**으로 어느 정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
(약 _____ 원)
9-3. 용돈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무엇에 가장 먼저 사용하고 싶습니까?
___ ① 의복비(신발, 의복, 가방, 악세사리 등)
___ ② 문화교양비(영화, 연극관람, 도서구입)
___ ③ 교제비(친구들과 만날 때 쓸 돈)
___ ④ 오락비(오락실, PC방)
___ ⑤ 외식비(간식 및 군것질)
___ ⑥ 기타 (_____)

10 여러분은 **일(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있습니까?
___ ① 예(→ **10-1번으로**) ___ ② 아니오(→ **Ⅱ-1번으로**)

10-1. 한달 평균 얼마 정도를 벌었습니까 ? (약 원)
10-2. **어떤 일**로 돈을 벌었었는지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___ ① 신문배달 ___ ② 주유소 주유원
___ ③ 물품 판매(편의점 등) ___ ④ LPG 가스배달
___ ⑤ 음식점에서 배달업(중국집 등)
___ ⑥ 음식점에서 서빙(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___ ⑦ 광고지 배포 ___ ⑧ 기타(꼭 적어주세요.(_____)
10-3.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선택해 주세요.
___ ① 용돈이 필요해서(학용품 구입이나 친구만남을 위해)
___ ② 학교등록금이나 학원비에 보태기 위해서
___ ③ 가정의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___ ④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___ ⑤ 기타 (_____)

Ⅰ.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응답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①	②	③	④
2) 아버지는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 자주 야단치신다	①	②	③	④
3)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신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①	②	③	④
1)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신다	①	②	③	④
2) 어머니는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 자주 야단치신다	①	②	③	④
3)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신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①	②	③	④
1)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께서는 나를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께서는 나와 자주 대화를 나누신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과 자주 의견이 대립되곤 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다	①	②	③	④

1) 친구들은 나를 따돌린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들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3) 나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성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좋아하는 이성친구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2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가장 문제가 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① 부모님이 안계심 ② 부모님의 불화 ③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
④ 부모님의 무관심 ⑤ 부모님의 실직 ⑥ 부모님의 음주
⑦ 가족의 질병 ⑧ 집안 식구의 가출 ⑨ 경제적 어려움
⑩ 가족간의 폭력(부모자녀간, 형제간) ⑪ 기타 (_____)

3. 여러분은 지역사회의 기관에서 캠프나 스포츠활동 등 **부모님과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참여하겠습니까?

___ ① 참여하겠다(→ **3-1번으로**) ___ ② 참여하지 않겠다(→ **3-2번으로**)

3-1. 다음 중 어느 프로그램에 가장 참여하고 싶습니까?
___ ① 우리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___ ② 공연이나 콘서트 관람
___ ③ 우리 가족만의 문기 여행
___ ④ 여러 가족이 함께 하는 캠프나 야유회
___ ⑤ 레포츠나 스포츠 활동
___ ⑥ 기타(_____)

3-2.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흥미가 없어서
___ ② 부모님이 바빠서 함께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___ ③ 부모님이랑 함께 하는 것이 창피해서
___ ④ 프로그램 내용이 식상할 것 같아서
___ ⑤ 참가비용이 우리 가정형편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___ ⑥ 기타(_____)

4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께 가장 바라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___ ① 모든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선생님
___ ②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지도해 주는 선생님
___ ③ 진로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
___ ④ 나를 이해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는 친구 같이 다정한 선생
___ ⑤ 기타 (_____)
___ ⑥ 없다

5.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학교 밖의 장소**에서 친구들과 어울립니까 ?
횟수 (_____)번 정도, 어울리는 장소 (_____)

5-1.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장 원하십니까 ?
___ ①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
___ ② 학교 공부를 함께 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___ ③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___ ④ 나에게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며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친구
___ ⑤ 기타 (_____)

6 여러분은 방과후 주로 누구와 함께 보내십니까?
___ ① 할머니나 할아버지 ___ ② 아버지 ___ ③ 어머니
___ ④ 형제자매 ___ ⑤ 친척어른 ___ ⑥ 이웃집 아주머니
___ ⑦ 지역사회 복지기관 ___ ⑧ 홀로 ___ ⑨ 기타 (_____)

7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교육 등을 도와주고 지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___ ① 예 (→ **7-1번으로**) ___ ② 아니오(→ **7-4번으로**)

7-1.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까 ?
___ ① 부족한 학습의 보충을 위한 학습지도
___ ② 여가 및 운동, 문화활동 지도
___ ③ 가사서비스
___ ④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능력의 향상 지도
___ ⑤ 기타 (_____)

7-2. 방과후 활동을 지도해줄 사람으로서 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청소년지도사(청소년수련원의 선생님) ___ ② 교사
___ ③ 사회복지사(사회복지관 선생님) ___ ④ 대학생 자원봉사자
___ ⑤ 학부모 자원봉사자 ___ ⑥ 기타(_____)

7-3.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이나 시설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___ ① 학교
___ ② 민간주도의 비영리 복지시설(복지관, 청소년수련원·회관)
___ ③ 사설학원
___ ④ 민간공부방
___ ⑤ 기타(_____)

7-4.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___ 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___ ② 필요성을 못 느껴서
___ ③ 간섭받는 게 싫어서
___ ④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싫어서
___ ⑤ 기타 (_____)

8 20년 후에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 1) 매우 행복할 것이다
___ 2) 약간 행복할 것이다
___ 3) 그저 그럴 것이다
___ 4) 별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___ 5) 전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9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앞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를 **모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프로그램	현재이용여부	앞으로희망여부
1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	현금지원(생활비 및 장학금)		
3	급식지원, 밑반찬제공		
4	식사준비 및 취사서비스		
5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배, 수리)		
6	세탁서비스		
7	이·미용 서비스		
8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		
9	무료진료		
10	아르바이트 알선		
11	음주나 흡연교육		
12	개인 상담 및 정서적 지원		
13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 리더쉽 등)		
14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		
15	또래지지프로그램		
16	자원봉사프로그램		
17	학습지도(방과후 교실, 청소년공부방)		
18	사회교육(컴퓨터, 수영, 피아노 등)		
19	동아리 활동		
20	청소년캠프		
21	진로지도프로그램		
22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		

Ⅰ.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여러분의 **성별은** ?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2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

___ ① 중학교 ___ ② 일반계고등학교
___ ③ 실업계고등학교 ___ ④ 학교에 안 다님
___ ⑤ 기타 (_____)

3. 현재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자매의 경우 **2명 이상이면( ) 안에 그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___ ① 할아버지 ___ ② 할머니 ___ ③ 아버지 ___ ④ 어머니
___ ⑤ 계부 ___ ⑥ 계모 ___ ⑦ 양아버지 ___ ⑧ 양어머니
___ ⑨ 형제자매( ) ___ ⑩ 기타 (_____)

4.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___ ① 임대아파트 ___ ② 단독주택 ___ ③ 일반아파트
___ ④ 연립주택 ___ ⑤ 기타 (_____)

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방수는 ?

___ ① 1개 ___ ② 2개 ___ ③ 3개 ___ ④ 4개 이상

6. 여러분 **가족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 **각각의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1) 아버지 ① 가톨릭(천주교) ② 개신교(기독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2) 어머니 ① 가톨릭(천주교) ② 개신교(기독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3) 본인 ① 가톨릭(천주교) ② 개신교(기독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7 여러분 **부모님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 **각각의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1) 아버지
① 무학 ② 국졸,국퇴 ③ 중졸,중퇴 ④ 고졸,고퇴 ⑤ 대졸,대퇴 ⑥ 대학원졸
2) 어머니
① 무학 ② 국졸,국퇴 ③ 중졸,중퇴 ④ 고졸,고퇴 ⑤ 대졸,대퇴 ⑥ 대학원졸

8. 현재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나 희망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많은 문항을 작성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 전문가 의견조사서

전문가 의견조사서

※ 본 조사는 저소득층청소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복지욕구(체감적 욕구) 외에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이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욕구(규범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오니 간략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귀 기관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모두** 표시해 주시고, 차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3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명 : _____)

욕구영역	서비스 프로그램		현재실시여부	앞으로 희망여부
생존욕구	의	세탁서비스		
	식	급식지원, 밑반찬제공		
		식사준비 및 취사서비스		
	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배, 수리)		
	건강	이·미용 서비스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		
		무료진료		
		음주나 흡연교육		
	경제	현금지원(생활비 및 장학금)		
		아르바이트 알선		
관계욕구	부모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		
	친구	또래지지프로그램		
	이웃	자원봉사프로그램		
성장욕구	자아개발	개인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 리더쉽 등)		
	여가문화	사회교육(컴퓨터, 수영, 피아노 등)		
		동아리 활동		
		청소년캠프		
		학습지도(방과후 교실, 청소년공부방)		
	직업진학	진로지도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		

*** 위의 프로그램 이외에 귀 기관에서 현재 시행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래**

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_____)

2.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기관의 대표적인 사업	
프로그램명	
실시기간	
대상/수혜인원	
수혜인원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서가 있으시면 본 설문지 발송시 첨부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3.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된 **문제점·개선안**이나 또는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공 백

연구자문 · 협력진

◈ 연구자문진 ◈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인숙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현희 서울시공부방연합회 사무국장

◈ 집필진 ◈

이향란 부스러기선교회 누리공부방 운영책임자
박하영 공릉사회복지관 청소년복지 담당 사회복지사

◈ 연구 협력진 · 협력기관 ◈

송영숙 가톨릭공부방협의회 회장
이기성 살레시오 그룹홈협의회 회장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전국 가톨릭 청소년공부방 교사

공 백

2001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정책연구보고서】

01-R01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정책 연구 (길은배 · 임순희)
01-R02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
01-R03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Ⅰ - 청소년 자치활동 길잡이 (이론편)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
01-R04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Ⅱ - 청소년 자치활동 길잡이 (사례편)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
01-R05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위탁기준에 관한 연구 (김영한 · 임지연 · 권일남)
01-R06 청소년의 문화산업 참여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희 · 이동연 · 김상우)
01-R07 유럽국가의 청소년 정책-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동향 연구Ⅰ (윤철경 · 정회욱)
01-R08 미국 · 일본 · 중국 · 홍콩의 청소년 정책-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동향 연구Ⅱ (윤철경 · 정회욱 · 조아미 · 박병식 · Anna Hui · Ju Qing)
01-R09 사이버공간을 통한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연구 (오영근 · 이춘화)
01-R10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 Ⅰ(이혜연 · 이태수 · 이서정)
01-R11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 Ⅱ(전경숙 · 박병식 · 권소정)
01-R12 청소년 패널조사 기초연구 (박창남 · 김희진 · 김선업)
01-R13 중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맹영임 · 김진호 · 정철영)

01-R14 청소년 정보봉사단 운영방안 연구 (김정주 · 김혁진 · 전명기 · 정익재)

01-R15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조사 연구 (이종원 · 임성택 · 최원기 · 최종헌 · 심진예)

01-R16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문제행동 실태분석-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이종원)

01-R17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임성택)

01-R18 청소년 범적 비행의 경향과 원인에 대한 실태연구-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최원기)

01-R19 청소년 정보격차 실태와 대책연구 (황진구 · 유지열 · 이종임)

01-R20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에 관한 연구 (이칭찬)

01-R21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 유형 분석 (이기영)

01-R22 학교폭력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이장현 · 우룡)

01-R23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김민)

01-R24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김영희)

01-R25 성격특질과 스트레스 대처반응이 청소년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청송 · 현명호)

01-R26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사회 캠페인 방안 연구 (이수범)

01-R27 10대 여자 청소년 원조교제의 유형화와 각 유형에 따른 대처 방안 연구 (신미식)

01-R28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에 관한 연구 (한상철)

01-R29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연구 (길은배 · 이종원 · 최원기)

01-R30 청소년 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경준 · 강명숙 · 서정아 · 정호연)

01-R31 미래를 움직이는 힘! 청소년 자원봉사(Video) (김정배 · 정익재)

01-R32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발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김정배 · 우정자)

01-R33 청소년 봉사활동 시범협력학교 운영 사업보고서 (김정배 · 우정자)

01-R34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도자 연수 (김정배 · 우정자)

01-R35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평가지표 개발 (김정배 · 우정자)

01-R36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연구 (이춘화 · 김성식 · 신순갑 · 정하배 · 류지영)

01-R37 중도 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박창남 · 임성택 · 전경숙 · 김성식)

01-R38 청소년 문제의 심리학적 접근 방안 연구 (임성택 · 이혜연 · 김진호 · 김혜진)

01-R39 주5일근무(수업)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 정책방향과 대책 (함병수 · 김경준 · 김정주 · 김영지)

01-R40 세계청소년문화축제 발전방안 연구 (최원기 · 길은배 · 맹영임 · 이주연)

01-R41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생(청소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이광호 · 전명기 · 이희수 · 맹영임 · 권진화)

01-R42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길은배 · 이용교 · 김영지)

01-R43 청소년육성기금 확충 및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함병수 · 윤철경 · 김혁진 · 이혜흔 · 이득영)

01-R44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협력 증진 방안 연구 (김정배 · 우정자)

01-R45 정부간 청소년교류 초청프로그램 개발 (박영균 · 윤철경 · 박호남 · 조은정)

01-R46 시범 청소년 수련시설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업 (조혜영)

01-R47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실태 및 정책 방안 모색 연구 (이광호 · 김희진 · 장원섭 · 이혜정 · 정여옥)

01-R48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 연구 (이민희 · 윤옥경 · 임지연)
01-R59 선진국의 청소년육성정책과 제도 : OECD 가입국가를 중심으로 (황진구)

【수련 프로그램 개발】

01-R49 고미술 이해활동 (이춘화 · 박승예)
01-R50 만화영화 제작활동 (김영지 · 임영규)
01-R51 인터넷신문 제작활동 (황진구 · 박기봉)
01-R52 자동차 이해 및 체험활동 (임성택 · 임기상)
01-R53 장애인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김희진 · 장인권)
01-R54 강건너기 체험활동 (김진호 · 연규철)
01-R55 생태 · 자연지도 제작활동 (임지연 · 민성환)
01-R56 장인정신 체험 (박창남 · 김미정)
01-R57 세계문화 체험활동 (전경숙 · 노재봉)
01-R58 외국인 관광안내활동 (이민희 · 박기홍)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집】

01-S01 지식 · 정보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육성 방향모색 (2001.5.17. 토론회 자료집)
01-S02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 (2001.7.11. 공청회자료집)
01-S03 청소년육성기금 확충과 운영 개선 방향 (2001.9.7.워크샵자료집)
01-S04 나는 일도 하고 싶다.-청소년 시간제 취업을 중심으로 -(2001.12.14, 청소년 일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지원을 통한 토론회 자료집)
01-S05 중도탈락 청소년 실태와 대책 (2001.10. 중도탈락 청소년 종합대책 공청회 자료집)

01-S06 2001년도 청소년 정책 개발 연찬회 자료 (2001.11.7~8, 청소년정책 개발 연찬회 자료집)

01-S07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2001.11. 세미나 자료집)

01-S08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교재 (2001. 12. 연수교재)

01-S09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직원직무 연수교재 (2001.10. 연수교재)

【학술논문집】

『한국청소년연구』 2001년 제12권 제1호 통권 33호 (2001.6.)

『한국청소년연구』 2001년 제12권 제2호 통권 34호 (2001.12.)

공 백

연구보고 01-R 10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I)
- 저소득층청소년을 중심으로 -

인 쇄 2001년 12월 29일
발 행 2001년 12월 31일
발 행 인 권 이 종
발 행 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전화 (02) 2188-8860, 70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주) 계 문 사
전화 (02) 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89-7816-366-1(93330)
89-7816-365-3(전2권)

공 백

연구보고 01-R 10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 (Ⅰ)

- 저소득층청소년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이혜연(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객원연구원 :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공동연구자 : 이서정(한국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 연 구 요 약 】

Ⅰ. 서 론

1. 연구목적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과 다르게 갖고 있는 복지욕구를 조사 분석하여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 입안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소외청소년과 저소득층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의 발달과업, 저소득층청소년의 특성, 청소년의 복지욕구 등에 관한 관련이론을 고찰한 후 연구에 반영한다.

2)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기존의 정부 및 민간복지단체의 복지정책을 조사·분석한다.

3) 체감적 복지욕구 조사 :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 자신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닐 수밖에 없는 복지욕구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다.

4) 규범적 복지욕구 조사 :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다.

5)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을 통한 참여관찰로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상을 파악한다.

(6) 문헌연구와 조사결과를 근거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언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관련 이론과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설문지를 개발한다.

2) 조사연구 : 전국의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등학생 1400여명과 현장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3) 참여관찰 : 저소득층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참여관찰로 생활실태를 파악한다.

4) 전문가 자문 : 연구의 방향과 설문내용,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학계 및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Ⅱ. 이론적 고찰

1. 소외청소년과 저소득층청소년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소외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정의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복지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집단, 예를 들어 복지대상·문제별로 나누어 저소득층청소년, 비행청소년, 장애청소년, 농어촌청소년, 근로청소년을 소외청소년 집단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로 하고 이 중 저소득층청소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저소득층청소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청소년을 중·고등학생이라고 보는 사회통념과 가까운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십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정하고 저소득층을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연구의 조사대상을 생활보호대상청소년과 복지관이나 청소년공부방 등에서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으로 한정한다.

2. 청소년의 발달과업과 복지욕구

<표 II-1> 청소년의 발달과업

Havighurst	Cole	정옥분	Chickering과 Reisser	Dowing
신체적발달		신체발달		신체적 유능감
유능한시민 (지적기능·태도획득)	지적성숙	인지발달	유능감의 발달	학업적 유능감
가치와 윤리체계 형성	인생관	학교생활과성취 행위/도덕성	생애목표의 발달	개인적 목표설정
직업선택 준비	직업선택	직업선택		진로·직업적 유능감
남녀친구와 성숙되고 새로운 인간관계형성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성숙 정서적 성숙	사회적관계	대인관계의 발달	사회적 유능감
성역할학습/결혼가정 생활의 준비	이성에 대한 흥미확립, 자기에 대한 동일화	자아개념/정체감 발달, 성역할	정체감의 확립	성역할 정체감
부모·성인으로부터독립	부모로부터 독립		자율성의 발달	독립
경제적 특성	여가의 이용		통합성의 발달	통합성/세상에 대한 수용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청소년 발달과업 <표 II-1>을 비교분석 한 결과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할 과업으로 다음과 같은 발달과업을 추출할 수 있었다. ① 신체적발달 ② 인지적발달/지적기능/지적성숙 ③ 인생관/가치관/윤리체계/인생목표/도덕성 ④ 직업준비 및 선택 ⑤ 대인관계발달/사회적성숙/정서적성숙 ⑥ 성역할 ⑦ 독립 ⑧ 정체감/통합성 등

청소년의 복지욕구는 이러한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들을 두루 준비하고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욕구들을 갖고 있는지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방안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모색되어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표 II-2> 인간의 욕구영역

C. Alderfer	Maslow	성규탁	Gil	Schilling의 청소년욕구
생존욕구	생리적인 욕구	적절한 소득과 경제적 기회욕구	소득	육체
	안전에 대한 욕구	적절한 보건	주택·보호처	느낌과 의지
관계욕구	애정의 욕구	적절한 조직체를 통한 활동	고용	사고와 이해
성장욕구	존경 및 긍지에 대한 욕구	개인적 사회적 적응과 개발	건강	행동과 활동력
	자아실현 욕구	적절한 지식과 기능	정신건강	공동·또래집단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	사회적 욕구	판단·평가
			여가선용	
			일상적 활동	
			이동수단	
			법적욕구	
			교육	

이상의 다섯 학자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관련 이론들을 검토한 후, 앞서 살펴 본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할 때 C. Alderfer의 욕구이론이 청소년의 욕구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분류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즉 Alderfer가 주장한 세 단계의 욕구인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를 본 연구의 청소년 복지욕구의 세 가지의 욕구영역으로 잡고, 다른 학자들이 규정한 욕구들을 세 개의 욕구영역에 속한 욕구내용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 복지욕구의 분류틀을 만들었다.

(1) 생존욕구 : 의·식·주, 건강·의료, 경제

(2) 관계욕구 :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

(3) 성장욕구 : 자아, 교육, 직업, 문화·여가활동

3. 저소득층청소년의 특성

1) 빈곤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소득 : 소득의 부족은 영양의 결핍, 인지적/지적 자극의 불충분, 부적절한 주거환경을 가져오게 된다.

(2) 가족형태 : 편모/편부 가정의 경우 시간, 자원관리 측면에서 양부모가정의 부모가 아동에게 들이는 보호의 질과 양보다 열악함. 특히 우울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많아 양육기술에 영향을 미친다.

(3) 부모의 심리적인 건강 : 이는 양육기술과 관련이 있으며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져와 아동의 감정 및 행동문제를 일으킨다.

(4) 보호환경 : 가정환경의 질적 측면 열악함. 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호프로그램의 질, 안정성 및 지속성, 적절성이 문제가 된다.

(5) 부모의 양육기술 : 부모의 처벌적인 교육방식, 자녀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거의 하지 않는 등의 양육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2) 저소득층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1) 심리사회적 측면 :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행동장애 및 문제, 낮은 자존감 및 우울, 빈약한 사회적응력을 보인다.

(2) 문화적 측면 : 빈곤층 지역의 문화시설의 부재와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인해 문화적 소외, 정서발달의 장애 등을 경험하기 쉽다.

(3) 인지적 측면 : 아동기 초기부터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많고, 퇴학/정학을 받기 쉬워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할 위험이 많다.

(4) 신체적 측면 : 빈곤청소년은 영유아시기부터 사망률이나 질병률이 높고 영양의 결핍으로 인한 발달지체, 불량한 건강상태를 가지기 쉽다. 이는 개인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부족,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돈의 부족 및 시간제한,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양식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것이다.

4.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지원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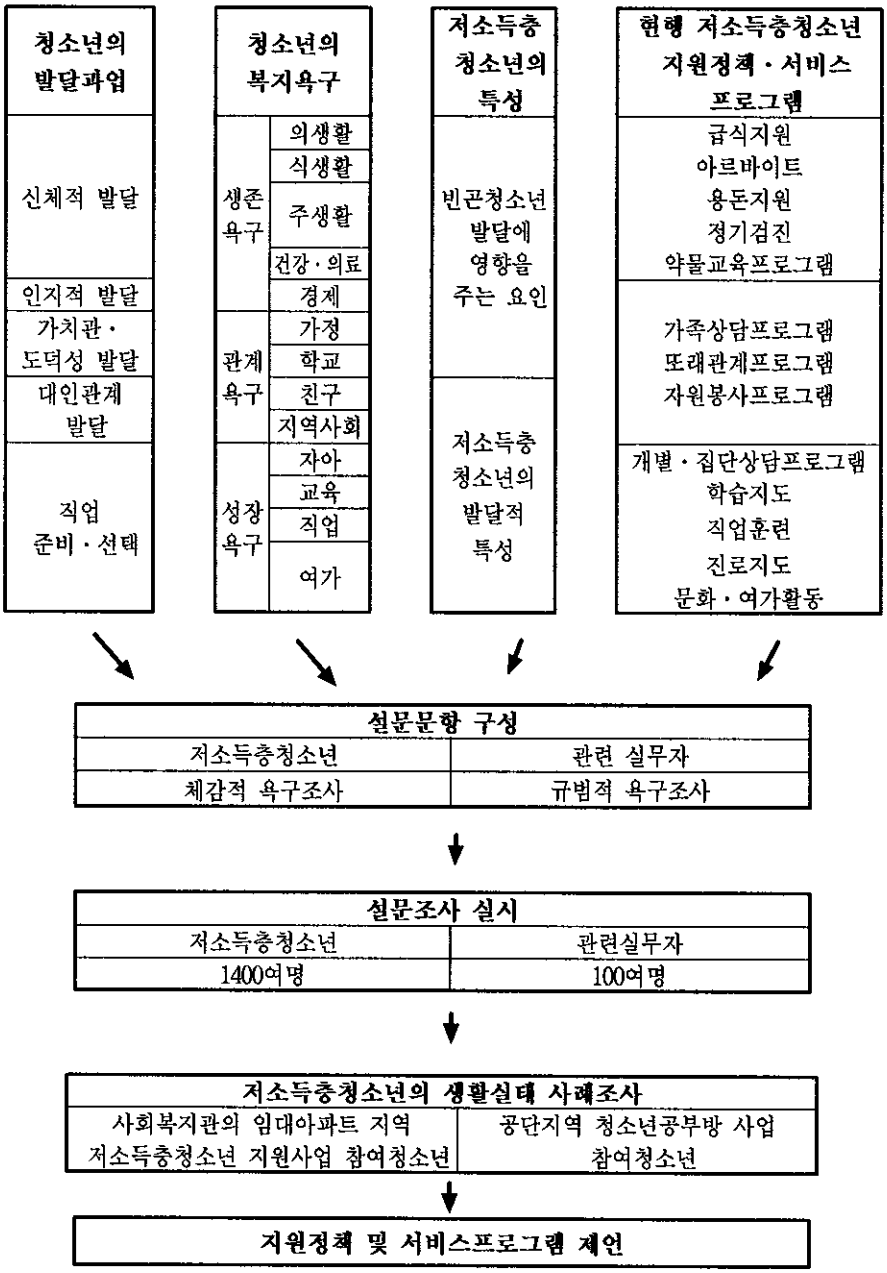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공공부조상의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상의 지원에 대해 알아 보고, 민간차원의 지원에 대해 알아 보았다. 따라서 공공부조상의 지원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지원과 소년소녀가장제도상의 지원에 대해 조사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상의 지원으로는 가정위탁보호, 복지시설을 통한 청소년지원, 결연후원사업, 시설청소년의 자립지원,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기타 어려운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기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활동지원에는 ① 근로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및 순회음악회 개최, ② 비정규학교 지원, ③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④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⑤ 청소년 공부방 운영, ⑥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⑦ 농어촌 출신 학생기숙사 건립지원 등이 있다.

두 번째 민간차원의 지원으로는 민간공부방 운영과 사회복지관에서의 자조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재 민간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은 대략 250개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34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내 빈곤가구의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5.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는 <그림 Ⅱ-1>과 같은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체계도에 따라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감적 욕구와 관련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규범적 욕구를 병행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그림 II-1>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체계도



Ⅲ.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결과

조사응답자(800명)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학생(45.6% : 365명)과 여학생(54.4% : 435명)의 비율이 거의 같았지만 교급별로는 중학생(70.8% : 566명)이 고등학생보다 많았는데, 일반계고교생(14.9% : 119명)과 실업계 고교생(14.4% : 115명)의 경우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족구조를 보면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27.2%(235명),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19.1%(178명)로 편부모 가정이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은 고졸·고퇴의 경우 아버지(48.1%)와 어머니(47.1%) 모두 가장 많았고 중졸·중퇴가 아버지(17.8%), 어머니(23.8%)로 나타나 부모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저소득층청소년의 생존욕구

1) 의생활 실태 및 욕구 : 대부분의 저소득층청소년들은 의복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80%) 충족되지 못한 의복구매 욕구(67.6%)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80% 정도가 의복구매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2) 식생활 실태 및 욕구 : 저소득층청소년 40% 정도가 음식과 영양섭취 면에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청소년(47.2%) 중 80%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에서 중식만 지원받고 있는 실태에 반해 72.1%의 청소년들이 중식과 석식 모두를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급식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52.8%)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는 '필요없다'가 53.2%로 가장 높았으며 '방법을 모름(10.9%)', '창피함(10.0%)', '신청누락(7.3%)' 등으로 나타나 급식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청소년 중 30% 정도 즉 전체청소년의 15% 정도는 급식지원 방법이 개선되면 중식지원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주생활 실태 및 욕구 : 식생활에 대한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40%가 넘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주거생활(44.8%)과 주거공간(40.6%)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는 동네의 쾌적함(59.8%)과 안전성(58.1%) 등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쾌적함(65.7%)과 안전성(66%)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다.

4) 건강·의료 실태 및 욕구 : 33.2%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신체발육이 친구들에 비해 뒤진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47.3% 정도의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해 본 경험이 있고 중학생(40.8%), 일반계고교생(58.8%), 실업계고교생(67.3%) 순으로 경험도가 높아졌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주로 앓았던 질병으로는 감기, 충치, 코·귀, 피부 관련 질병, 위장병 등이었으며 병에 걸렸던 청소년(43.4%)의 과반수(51.6%)는 증세가 심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 중 12% 정도의 청소년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경제생활 실태 및 욕구 : 저소득층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용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20% 정도의 청소년들은 용돈이 없다고 했다. 40% 정도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이중 60% 정도가 한달 평균 4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광고지 배포'가 54.0%로 가장 많았고, '음식서빙(13.3%)', '신문배달(10.3%)', '음식배달(6.0%)'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배달', '음식배달', '주유소 주유원'에서는 남학생이 많았고, '음식서빙'은 여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광고지 배포'가 중학생이 월등히 높아 68.4%를 보이는 반면 실업고교생은 '음식서빙'이 32.8%로 다른 교급보다 높게 나타났고 일반계고교생은 '신문배달'이 1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는 '용돈이 필요해서(52.2%)', '친구와 즐기기 위해(21.2%)'가 주 동기였으며 실업고교생의 경우는 '생활비'를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이 19.0%나 되었다. 용돈이 넉넉하게 생기면 전체청소년의 41.6%가 '의복비'에 사용하겠다 응답하였으며, '문화교양비(20.1%)', '교

제비(17.4%)', '외식비(8.3%)', '오락비(6.6%)' 순으로 희망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간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의복비에 17.9% 더 많이 응답한 반면, 남학생들은 오락비에 9.3% 더 많이 응답하였다.

2. 저소득층청소년의 관계욕구

1) 부모와의 관계실태 및 욕구 : 부모와의 관계는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상호 긍정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75.9%의 청소년이 어머니와 자주 대화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보다 낮은 비율인 54.4%로 나타났는데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훈육방법에 대해서는 60.1%만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훈육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조금 많은 66.9%가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곤란(19.5%)'보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24.7%)'이 가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드러난 결과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원활한 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2) 학교교사와의 관계실태 및 욕구 : 70% 정도의 청소년들이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선생님과 의견대립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6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50%가 조금 넘는 청소년들이 선생님이 자신을 존중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3분의1 정도의 청소년들만이 선생님과 대화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0%에 가까운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진로나 학과공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생님을 더 원하고 있었다.

3) 친구관계 실태 및 욕구 : 90% 정도의 저소득층청소년들은 친구들이 자신을 소외시키지도 않고 자신들도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여 교우관계가 상호 긍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원하는 친구상으로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51.5%)'보다는 '함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20.8)'를 두 배가 넘는 청소년들이 원하고 있었다.

4) 지역사회 관계실태 및 욕구 : 저소득층청소년들은 방과후 주로 '형제자매(26.5%)'와 보내거나, '홀로(21.3%)' 지내고 있었고, '어머니(11.9%)', '조부모(5.0%)', '복지관(5.0%)' 순으로 나타났다. 26%를 차지하는 '기타'의 대부분은 친구였다.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 방과후 지도를 원하고 있었는데 원하는 활동으로는 '학습지도(65%)'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활동내용은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원의를 살려 대학생자원봉사(29.4%)자나 교사(21.5%)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저소득층청소년의 성장욕구

1) 학업실태 및 욕구 : 저소득층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대학진학(80%)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원무료수강(22%)'을 가장 희망하며 특히 희망하는 과외활동으로 컴퓨터학원(23.5%)과 진학을 위한 학원(15.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취업이나 학업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인 컴퓨터와 관련하여 '일주일간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해 알아 본 결과 55%의 청소년이 '1~9시간' 사이에 들어 있어 저소득층청소년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시간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집(65%)이나 PC방(16%) 등에서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학원'은 2%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과외활동으로 컴퓨터학원이 가장 많은 것과 연관지을 때 조사대상의 2%만이 컴퓨터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는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학원수강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2) 직업 및 진로지도 실태 및 욕구 : 저소득층청소년들이 1지망으로 희망하는 직업은 교사(19.7%), 연예인(9.8%), 의사(7.7%), 컴퓨터프로그래머(5.5%)가 가장 많았고, 2지망으로는 연예인(11.3%), 요리사(8.5%), 컴퓨터프로그래머(6.2%)가 많아 1지망의 경우는 이상적인 바램이 많이 반영된 반면, 2지망의 경우는 실제 현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저소득층청소년들은 70%이상이 직업훈련(72%)과 진로지도(74%)를 희망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희망하는 직업훈련직종으로는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분야가 42%, 외국어분야가 26%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의 선호하고 희망하는 과외활동분야와도 일치하여 컴퓨터와 외국어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컴퓨터분야는 남학생과 실업계고교생이, 외국어분야는 여학생과 일반계고교생이 더 선호하였다.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청소년들은 '적성·흥미에 관한 정보(45.4%)'와 '직업선택을 위한 정보(38%)'를 얻고 싶어했으며 2순위로는 '대학진학정보(28.8%)'와 '적성·흥미에 관한 정보(26.5%)'를 얻고 싶어했다.

3) 여가실태 및 욕구 : 저소득층청소년들은 TV시청(41%)과 컴퓨터게임·PC방(33~31%)을 주요 여가 활동으로 꼽고 있었으며 희망여가활동으로는 여행(32%), 아르바이트(24%), 예술관람(컨서트·영화)(22%)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으로 비용부담(39.5%)과 시간부족(34.9%)을 들었으며, 50% 정도의 청소년들이 한 달에 1~3권 정도의 독서를 하며 주로 만화책(1순위 : 37.4%, 2순위 : 32.0%)과 교양서적(1순위 : 34.4%, 2순위 : 8.6%), 생활·취미·정보서적(1순위 : 17.9%, 2순위 : 13.9%) 순으로 많이 읽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복지프로그램 이용실태와 욕구

현재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28.3%), 학습지도(23%), 현금지원(22.3%), 급식지원(22%)으로 모두 생존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가 생존욕구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아르바이트알선(41.1%), 사회교육프로그램(38.5%), 직업훈련(34.8%), 동아리활동(33.8%), 진로지도프로그램(33.5%)으로 아르바이트 알선을 제외하고 모두 성장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 성장관련 욕구가 다른 욕구에 비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의 열악한 생활실태를 현장전문가들의 관찰기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임대아파트지역의 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청소년에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청소년의 실태를 알아보았고, 공단지역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문화여가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실무자 눈에 비친 저소득층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Ⅴ. 복지프로그램 이용실태 및 욕구 조사결과

복지기관의 지도자를 통해 조사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존욕구관련 프로그램 이용실태

급식지원서비스(70.6%)와 현금지원서비스(80.4%)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알선서비스(41.1%)는 가장 적게 실시(15.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욕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는 급식지원이나 현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모두 50% 미만의 기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을 파악되었다.

2. 관계욕구관련 프로그램 이용실태

자원봉사프로그램(72.5%)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또래지지프로그램(39.2%)와 가족프로그램(31.4%)의 경우는 30~40% 정도의 기관에서만 실시하고 있었다.

3. 성장욕구관련 프로그램 이용실태

개인상담·정서적 지원(86.3%)과 학습지도(86.3%)를 가장 많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캠프(84.3%)였고 33.5%의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지도는 25.5%만이 실시하고 있었고, 34.8%의 욕구를 나타낸 직업훈련 또한 9.8%로 가장 적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 34.8%가 직업훈련을 희망하고, 33.5%가 진로지도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었던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청소년진로지도와 직업훈련에 대한 확대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저소득층청소년들의 희망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의 희망프로그램 비교

전문가들은 생존욕구에서는 '약물교육(33.3%)'을, 관계욕구에서는 '가족프로그램(42.2%)'을, 성장욕구에서는 '진로지도프로그램(46.7%)'을 실시하기를 희망한다고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청소년들은 생존욕구에서는 '아르바이트 알선(41.4%)'을 관계욕구에서는 '자원봉사프로그램(27.9%)'을 성장욕구에서는 '사회교육프로그램(38.5%)'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어 두 결과가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결과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복지기관의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대표적 프로그램

생존욕구에 대해서는 밑반찬서비스, 장학금지급, 결식아동통합지원프로그램이 있었다. 특히 단순한 결식지원보다는 학습지도와 병행하여 생존욕구와 성장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욕구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전문가 1명 대 비슷한 처지의 또래집단의 청소년으로 집단이 구성되거나, 1:1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인간관계와 역할모델을 통해 사회성을 강화하고 인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며,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4개의 기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었다.

기관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성장욕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는데 학습지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문화·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인터넷활동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선호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은 직업훈련과 진로지도에 대한 욕구가 전체 중 3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지만 정작 기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진로지도프로그램과 학교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시키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청소년들은 대학학과정보나 적성과 흥미에 관한 정보를 원하지만 너무 개괄적인 내용을 다룸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청소년의 진로지도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진로욕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의 학업욕구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무료공부방이 운영되는데 문화활동이나 집단활동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보호도 제공된다.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렇게 복합적인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횟수나 내용을 볼 때 좀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표적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기관마다 큰 차이가 없어 기관마다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전문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Ⅵ.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저소득층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보완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1. 생존권의 보장

1)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보완

(1) 실질적인 수급권자의 확대

(2) 차상위가구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확대

2) 공부방의 체계적 지원

3) 결식청소년의 방지책 수립

2. 가정내 보호의 보장

1) 가출방지 및 가출청소년 보호프로그램 활성화

2)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가정위탁 등으로의 전환

3) 방문가정주부(visiting housewives)제 도입

4) 가정상담제의 활성화

3. 건강권의 보장

1) 만성질환 또는 희귀병 청소년의 의료보장 확대

2) 청소년 건강검진의 강화

4. 교육권의 보장

1) 학교사회사업 등 학교내 상담의 강화

2) 대안학교의 활성화

5. 문화권의 보장

1)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권 확보

2) 지역복지관 프로그램이용 적극 유도

3) 문화공연 및 운동경기의 관람 할당제 도입

4) 지역내 건강한 문화공간 건립

6. 일할 권리의 보장

1) 직업훈련기회의 확대

2)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조건의 개선

3) 직업체험활동의 강화

목 차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의 방법 6

Ⅱ. 이론적 고찰 9
1. 소외청소년과 저소득층청소년의 개념정의 11
1) 소외청소년 11
2) 저소득층청소년 12
2. 청소년의 발달과업과 복지욕구 14
1) 청소년의 발달과업 14
2) 청소년의 복지욕구 21
3. 저소득층청소년의 특성 33
1) 빈곤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34
2) 저소득층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40
4.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지원 실태 46
1) 공공부조상의 지원 46
2) 사회복지서비스 상의 지원 51
3) 민간차원의 지원 71
5.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72

Ⅲ.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결과 75
1. 조사개관 77
1) 조사대상 77
2) 조사내용 78

3) 조사결과 분석 82
2. 저소득층청소년의 일반현황 82
3. 저소득층청소년의 생존욕구 84
1) 의생활 실태 및 욕구 85
2) 식생활 실태 및 욕구 86
3) 주거생활 실태 및 욕구 90
4) 건강 및 의료 실태 및 욕구 96
5) 경제생활 및 욕구 100
4. 저소득층청소년의 관계욕구 106
1) 부모와의 관계실태 및 욕구 107
2) 학교교사와의 관계실태 및 욕구 115
3) 친구관계 실태 및 욕구 119
4) 지역사회 관계실태 및 욕구 123
5. 저소득층청소년의 성장욕구 128
1) 학업실태 및 욕구 128
2) 직업 및 진로지도 실태 및 욕구 145
3) 여가실태 및 욕구 153
6. 복지프로그램 이용실태와 욕구 161
1) 생존욕구 관련 프로그램 165
2) 관계욕구 관련 프로그램 171
3) 성장욕구 관련 프로그램 174
7. 결과요약 및 함의 182
1) 저소득층청소년의 생존욕구 182
2) 저소득층청소년의 관계욕구 187
3) 저소득층청소년의 성장욕구 191
4) 복지프로그램 이용실태와 욕구 194

Ⅳ.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 197
1. 임대아파트 지역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 199

1) 생존욕구와 관련된 생활실태 199
2) 관계욕구와 관련된 생활실태 204
3) 성장욕구와 관련된 생활실태 208
2. 공단지역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 212
1) 구로지역의 특성 212
2) 생존욕구와 관련된 생활실태 214
3) 관계욕구와 관련된 생활실태 216
4) 성장욕구와 관련된 생활실태 219

Ⅴ. 복지프로그램 이용실태 및 욕구 조사결과 221
1. 조사개관 223
1) 조사대상 223
2) 조사내용 224
3) 조사결과 분석 224
2.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현황 225
3. 복지기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청소년 프로그램 231
1) 생존욕구 231
2) 관계욕구 233
3) 성장욕구 236
4. 현행 복지프로그램의 문제점·개선안 246
1) 생존욕구 246
2) 관계욕구 247
3) 성장욕구 247
4) 기타 문제점 249
5. 결과요약 및 함의 250

Ⅵ.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253
1. 생존권의 보장 255
1)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보완 255

2) 공부방의 체계적 지원 260
3) 결식청소년의 방지책 수립 262
2. 가정내 보호의 보장 264
1) 가출방지 및 가출청소년보호 프로그램 활성화 264
2)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가정위탁 등으로의 전환 270
3) 방문가정주부(visiting housewives)제 도입 271
4) 가정상담제의 활성화 272
3. 건강권의 보장 273
1) 만성질환 또는 희귀병 청소년의 의료보장 확대 273
2) 청소년 건강검진의 강화 274
4. 교육권의 보장 274
1) 학교사회사업 등 학교내 상담의 강화 274
2) 대안학교의 활성화 277
5. 문화권의 보장 278
1)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권 확보 278
2) 지역복지관 프로그램이용 적극 유도 279
3) 문화공연 및 운동경기의 관람 할당제 도입 280
4) 지역내 건강한 문화공간 건립 281
6. 일할 권리의 보장 282
1) 직업훈련기회의 확대 282
2)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조건의 개선 282
3) 직업체험활동의 강화 283

참고문헌 **285**
부록 **295**
1. 청소년용 조사설문지 297
2. 복지기관의 프로그램 현황조사지 310

표 목 차

<표 Ⅱ-1> 청소년의 발달과업 20
<표 Ⅱ-2> 인간의 욕구영역 33
<표 Ⅱ-3> 최근 5년간 생활보호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47
<표 Ⅱ-4>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내용 비교 48
<표 Ⅱ-5>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방법 49
<표 Ⅱ-6> 연도별 소년소녀가정 현황 50
<표 Ⅱ-7> 소년소녀가정 결연 현황(2000년) 51
<표 Ⅱ-8> 가정위탁 현황(2000년) 53
<표 Ⅱ-9> 가정위탁 정부예산 현황 53
<표 Ⅱ-10> 시설유형별 현황(2000년) 54
<표 Ⅱ-11> 연도별 시설수 및 수용인원 현황 54
<표 Ⅱ-12> 퇴소아동 연도별 취업알선 실적 57
<표 Ⅱ-13> 퇴소청소년을 위한 예산현황(지방정부예산 포함) 59
<표 Ⅱ-14> 시·도별 청소년 공부방 설치 현황(2000년) 66
<표 Ⅱ-15>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주요사업(2001. 6월) 69
<표 Ⅲ-1> 설문 조사기관 및 대상청소년 수 78
<표 Ⅲ-2> 설문 구성내용 79
<표 Ⅲ-3>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83
<표 Ⅲ-4> 의복 구매욕구 및 친구관계 85
<표 Ⅲ-5> 음식 충족욕구 및 영양섭취 87
<표 Ⅲ-6> 급식지원 여부 88
<표 Ⅲ-7> 급식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이유 88
<표 Ⅲ-8> 현행 중식과 석식 지원방법 89
<표 Ⅲ-9> 희망하는 중식과 석식 지원방법 89
<표 Ⅲ-10> 주거생활 및 주거공간 만족도 90
<표 Ⅲ-11> 주거환경 만족도 91
<표 Ⅲ-12>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주거시설 1순위 93
<표 Ⅲ-13>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주거시설 2순위 93
<표 Ⅲ-14> 현재 방을 함께 쓰는 사람 94
<표 Ⅲ-15> 희망하는 공부 장소 95

<표 Ⅲ-16> 신체발육 및 술·담배 경험 97
<표 Ⅲ-17> 최근 6개월간 앓은 질병 98
<표 Ⅲ-18> 치료경험 여부 98
<표 Ⅲ-19> 치료받지 않은 이유 99
<표 Ⅲ-20> 건강과 관련하여 가족이 갖고 있는 어려움 99
<표 Ⅲ-21> 한달 평균 용돈 100
<표 Ⅲ-22> 용돈 만족도 101
<표 Ⅲ-23> 한달 희망 용돈 102
<표 Ⅲ-24> 용돈 희망 사용처 102
<표 Ⅲ-25>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103
<표 Ⅲ-26> 한달 평균 아르바이트 수입 104
<표 Ⅲ-27> 아르바이트 유형 105
<표 Ⅲ-28> 아르바이트 동기 106
<표 Ⅲ-29> 아버지와의 관계 108
<표 Ⅲ-30> 어머니와의 관계 110
<표 Ⅲ-31>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 1 112
<표 Ⅲ-32>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 2 112
<표 Ⅲ-33>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참여여부 113
<표 Ⅲ-34>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불참이유 114
<표 Ⅲ-35> 부모와 함께 하고 싶은 프로그램 115
<표 Ⅲ-36> 선생님과의 관계 116
<표 Ⅲ-37> 원하는 교사상 118
<표 Ⅲ-38> 교우 관계 120
<표 Ⅲ-39> 친구에게 바라는 역할 122
<표 Ⅲ-40> 일주일간 학교 밖의 장소에서 친구와 만나는 횟수 122
<표 Ⅲ-41> 방과후 주로 함께 보내는 사람 124
<표 Ⅲ-42> 일상생활과 학습을 지도해 줄 사람의 필요여부 124
<표 Ⅲ-43>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 125
<표 Ⅲ-44> 지도를 필요로 하는 내용 126
<표 Ⅲ-45> 원하는 지도자 126
<표 Ⅲ-46> 희망하는 방과후활동 장소 127
<표 Ⅲ-47> 20년 후의 행복도 예측 127

<표 Ⅲ-48> 중학교 졸업 후 진로 129
<표 Ⅲ-49> 진로선택 이유 130
<표 Ⅲ-50> 희망하는 최종학력 131
<표 Ⅲ-51> 학습향상을 위한 요건 133
<표 Ⅲ-52> 등교하기 싫었던 경험여부 134
<표 Ⅲ-53> 등교하기 싫은 첫 번째 이유 134
<표 Ⅲ-54> 등교하기 싫은 두 번째 이유 135
<표 Ⅲ-55> 현재의 과외활동 내용 136
<표 Ⅲ-56> 희망하는 1순위 과외활동 내용 138
<표 Ⅲ-57> 희망하는 2순위 과외활동 내용 139
<표 Ⅲ-58> 일주일간 컴퓨터 이용시간 140
<표 Ⅲ-59>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 141
<표 Ⅲ-60> 첫 번째로 희망하는 컴퓨터 교육영역 142
<표 Ⅲ-61> 두 번째로 희망하는 컴퓨터 교육영역 143
<표 Ⅲ-62> 컴퓨터관련 교육여부 144
<표 Ⅲ-63> 컴퓨터 교육시 희망사항 144
<표 Ⅲ-64> 저소득층청소년들이 1순위로 희망하는 직업 146
<표 Ⅲ-65> 저소득층청소년들이 2순위로 희망하는 직업 147
<표 Ⅲ-66> 직업훈련 참여여부 148
<표 Ⅲ-67> 희망하는 직업훈련 직종 149
<표 Ⅲ-68> 희망하는 직업훈련 장소 150
<표 Ⅲ-69> 진로지도 참여여부 151
<표 Ⅲ-70> 희망하는 진로지도 내용 1 152
<표 Ⅲ-71> 희망하는 진로지도 내용 2 153
<표 Ⅲ-72> 저소득층청소년들의 현재 여가활동 154
<표 Ⅲ-73> 저소득층청소년이 희망하는 여가활동들 155
<표 Ⅲ-74> 여가·취미생활의 장애요인 157
<표 Ⅲ-75> 체험학습일에 주로 하는 일 157
<표 Ⅲ-76> 한달 평균 독서량 158
<표 Ⅲ-77> 주요 독서분야 1순위 159
<표 Ⅲ-78> 주요 독서분야 2순위 160
<표 Ⅲ-79>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프로그램 참여 및 희망여부 162

<표 Ⅲ-80> 의생활 관련 프로그램 166
<표 Ⅲ-81>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 167
<표 Ⅲ-82> 주생활 관련 프로그램 168
<표 Ⅲ-83> 건강·의료 관련 프로그램 169
<표 Ⅲ-84> 경제지원 프로그램 170
<표 Ⅲ-85> 부모관계 프로그램 172
<표 Ⅲ-86> 친구관계 프로그램 172
<표 Ⅲ-87>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 173
<표 Ⅲ-88> 자아성장 프로그램 174
<표 Ⅲ-89> 여가활동 프로그램 176
<표 Ⅲ-90> 진로·직업 프로그램 178
<표 Ⅴ-1> 전문가의견 조사기관 223
<표 Ⅴ-2>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현행 복지프로그램 226
<표 Ⅴ-3> 저소득층청소년과 전문가가 희망하는 서비스 비교 ..230
<표 Ⅵ-1> 소득분배 및 빈곤율(전국) 256
<표 Ⅵ-2> 연도별 기초보장예산(의료보호 포함) 257
<표 Ⅵ-3> 학교사회사업의 실시 연혁 276
<표 Ⅵ-4> 종합사회복지관의 유형별·운영주체별 분포 279

그림목차

<그림 Ⅱ-1> '보호청소년'의 만 18세 이후 행로 57
<그림 Ⅱ-2> 저소득층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체계도 74
<그림 Ⅵ-1>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기초보장제도의 부분급여 259
<그림 Ⅵ-2> 공부방을 통한 청소년보호 효과 261
<그림 Ⅵ-3> 가출청소년의 경로 265
<그림 Ⅵ-4> 청소년상담실 중심의 가출청소년 지원체계 267